

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7권 (제73회 ~ 제84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https://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冲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73회 — 흑선풍 교정이가 귀신을 잡고, 양산박에서 두 머리를 바치다	6
제74회 — 연청이 지혜로 경천주를 때려눕히고, 이규가 수장교에서 관아에 앉다	36
제75회 — 활염라가 배를 뒤엎어 임금의 술을 훔치고, 흑선풍이 조서를 찢으며 흠차를 꾸짖다	60
제76회 — 오가량이 사두오방기를 펼치고, 송공명이 구궁팔괘진을 펼치다	79
제77회 — 양산박의 십면매복, 송공명이 동관을 두 번 이기다	108
제78회 — 십절도가 양산박을 취하기로 논의하고, 송공명이 고태위를 한 번 패하다	131
제79회 — 유당이 불을 질러 전선을 태우고, 송강이 고태위를 두 번이나 패퇴시키다	151
제80회 — 장순이 누해의 추선에 구멍을 뚫고, 송강이 고태위를 세 번 패하다	170
제81회 — 연청이 달밤에 도군을 만나고, 대종이 계책을 세워 낙화를 나서다	200
제82회 — 양산박에서 금을 나누어 시장을 크게 열고, 송공명이 무리와 함께 모두 초안을 받다	220

제83회 — 송공명이 조서를 받들어 대료를 격파하고, 진교역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졸을 베다	248
제84회 — 송공명이 군사를 일으켜 계주성을 치고, 노준의가 옥전현에서 크게 싸우다	272

제73회 — 흑선풍 교정이가 귀신을 잡고, 양산박에서 두 머리를 바치다

黑旋風喬捉鬼 梁山泊雙獻頭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규가 객점에서 잤다. 갑자기 뛰쳐나오며 양손에 큰 도끼를 들고 성문으로 달려가 문을 찍어버리려 했다. 그때 연청이 이규의 허리와 가랑이를 짊 붙잡더니, 그대로 발을 걸어 올려 하늘로 날려 버렸다. 연청은 이규를 일으켜 세워 곧장 샛길로 이끌었고, 이규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나섰다.

이규가 왜 연청을 무서워했겠는가? 본래 연청은 씨름 실력이 천하제일이었기에, 송강이 연청에게 이규를 잘 지키며 따라다니라고 일렀던 것이다. 만약 이규가 연청을 따르지 않으면, 연청이 씨름 기술로 단번에 넘겨버릴 터였다. 이규는 이미 여러 번 연청의 손발에 당한 적이 있었기에 그를 두려워하며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청과 이규는 군사들이 쫓아와 대항하기 어려울까 봐 큰길로는 감히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 진류현 쪽 길로 급히 달아났다. 이규는 옷

을 다시 챙겨 입고 큰 도끼를 옷깃 속에 숨겼다. 머리띠를 잃어버린 탓에 누렇게 뜬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갈라 땀아 올렸다. 밤새 길을 가다 날이 밝자, 연청이 가진 돈으로 마을 주막에서 술과 고기를 좀 사 먹고는 다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새벽, 동경 성 안은 한창 떠들썩했다. 고태위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출정했으나, 적을 따라잡지 못하자 스스로 군대를 거두어 돌아왔다. 이사사는 그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다. 양태위 또한 이미 집으로 돌아가 쉬고 있었다. 성 안에서 다친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니 대략 사오백 명에 달했고, 쓰러지거나 부상을 입은 자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고태위는 추밀원의 동관과 함께 태사부로 가서, 조속히 군사를 동원해 토벌할 것을 논의하며 보고했다.

한편, 이규와 연청 두 사람이 길을 가다 어느 곳에 이르니, 지명이 사류촌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커다란 장원 하나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다. 장주인 적태공이 마중을 나왔는데, 이규가 양 갈래로 머리를 땀아 올리고 도포도 입지 않은 데다 얼굴까지 홍측하니 도대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적태공이 연청에게 슬쩍 물었다.

“이분은 어디서 오신 법사님이십니까?”

연청이 웃으며 말했다.

“이 법사님은 아주 기묘한 분이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저 저녁이나 대충 얻어먹고 하룻밤 묵어간 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겁니다.”

이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적태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규 앞에 넘죽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법사님, 제발 저희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규가 물었다.

“무엇을 구해달라는 건지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자 적태공이 말했다.

“우리 집 식구가 백여 명이나 되는데, 부부뿐 아니라 친자식이라고는 스무 살 남짓 된 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딸아이에게 사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방 안에만 틀어박혀 밥도 먹으려 나오질 않습니다. 혹여 누가 가서 불러내려고 하면 벽돌이나 돌을 던져대서 집안 식구들이 다 다쳤습니다. 관가에 청하여 사람을 보내보아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태공, 나는 제주에서 온 나진인의 제자로, 구름을 타고 안개를 가르며 귀신을 잡는 데 도가 튼 사람이다. 만약 제물을 내놓을 형편이 된다면 오늘 밤 귀신을 잡아주마. 우선 신장님께 제사를 지낼 돼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적태공이 대답했다.

“돼지와 양은 집에 얼마든지 있고, 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놈으로 골라 잡아서 푹 삶아 오너라. 좋은 술도 몇 병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 오늘 밤 삼경에 귀신을 잡아주마.”

적태공이 다시 말했다.

“법사님, 혹 부적이나 종이가 필요하시면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내 법술은 딱 하나뿐이라 그런 번거로운 부적 따위는 필요 없다. 방에 들어가서 귀신을 확 끄집어낼 것이다.”

연청은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노인은 이규의 말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믿고 밤새도록 준비를 시켰다. 돼지와 양이 다 삶아지자 대청 마루에 차려졌다. 이규는 큰 사발 열 개와 뜨거운 술 열 병을 가져오게 하여 한 상을 차리고, 촛불 두 자루를 밝게 켜둔 뒤 향로에 향을 피워 올렸다. 이규는 의자를 가져다 가운데 앉더니 아무런 주문도 외지 않았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큰 도끼를 뽑아 돼지와 양을 찢어 내리더니, 고기 덩어리를 큼직하게 떼어내 제멋대로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연청에게 말했다.

“아우야, 너도 와서 좀 먹어라.”

연청은 비웃음을 흘리며 도저히 같이 먹으려 하지 않았다. 이규는 배불리 먹고 술을 대여섯 사발이나 들이켜니 적태공은 뉘이 나갈 지경이었다. 이규는 장원 식구들에게 소리쳤다.

“너희도 와서 복을 나눠 가져라!”

그러고는 손가락을 튕겨 남은 고기를 사방으로 뿌렸다. 이규가 다시 말했다.

“어서 통에 물을 떠 와서 우리 손발을 씻게 해라.”

잠시 후 손발을 씻은 이규는 적태공에게 차를 달라고 청했다. 그러고는 연청에게 물었다.

“너도 밥은 좀 먹었느냐?”

연청이 대답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규가 적태공에게 말했다.

“술도 취하고 배도 부르니, 내일 길을 떠나려면 어르신께서는 이만 가서 주무십시오.”

적태공이 아쉬워하며 물었다.

“그거 참 안타깝군요! 그런데 귀신은 언제 잡으실 겁니까?”

이규가 말했다.

“정말로 귀신을 잡길 원한다면, 사람을 시켜 나를 딸아이 방으로 안내해라.”

적태공이 말했다.

“지금도 딸아이가 방 안에 있으면 돌과 벽돌을 마구 던져대는데, 누가 감히 그곳에 가겠습니까?”

이규가 양손에 큰 도끼를 뽑아 들고는 사람들에게 해불을 멀찍이 비추게 했다. 이규는 성큼성큼 걸어가 방 앞까지 다가갔는데,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 어떤 젊은 사내가 한 여인을 품에 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규가 발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도끼를 휘두르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번개가 치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도끼에 등불이 쓰러진 것이었다. 사내가 도망치려 하자 이규가 크게 호통을 치며 도끼를 휘둘렀고, 사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꾸라졌다. 여인은 겁에 질려 침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숨어버렸다. 이규는 먼저 그 사내의 머리를 도끼로 찍어 베어낸 뒤, 머리를 침상 위에 올려놓고는 도끼로 침상 가장자리를 광광 두드리며 외쳤다.

“이 년아, 어서 나오지 못할까! 당장 나오지 않으면 침상째로 가루를 만들어버리겠다!”

여인이 연신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나갈게요!”

여인이 머리를 내밀자마자 이규는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채 시체 곁으로 끌고 가 물었다.

“내가 방금 죽인 놈이 누구냐?”

여인이 대답했다.

“제 간부인 왕소이예요.”

이규가 다시 물었다.

“벽돌이며 음식들은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여인이 말했다.

“제가 금은 장신구를 그에게 주었고, 그가 밤 이경 삼경에 담을 넘어 들여온 것이예요.”

이규가 말했다.

“이토록 지저분한 계집년이 살아있어 무었하겠느냐!”

그리고는 여인을 침상가로 끌고 가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렸다. 이규는 두 사람의 머리를 하나로 묶은 뒤, 여인의 시신과 사내의 몸뚱이를 한데 모아 겹쳐 놓았다. 이규가 말했다.

“배불리 먹었더니 딱히 소화시킬 데가 없었거든.”

그리고는 상의를 풀어헤치고 양손의 도끼를 들어, 위아래로 놓인 두 시체를 마치 절구질하듯 마구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이놈들은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겠구나.”

그는 큰 도끼를 쏴아둔 채 머리들을 들고 대청 앞으로 뛰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내가 귀신 두 마리를 다 잡아왔다!”

이규가 머리들을 내팽개치자 장원 안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사람들이 몰려와 살펴보니 한 명은 적태공의 딸이었고, 다른 한 명의 머리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그때 한 장원 식구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동촌에서 참새를 잡던 왕소이와 닮은 것 같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이놈 눈썹미가 제법이구나!”

적태공이 물었다.

“법사님,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이규가 대답했다.

“네 딸이 침상 밑에 숨어 있다가 내가 끌어내어 물으니, ‘그놈은 간부인 왕소이이고, 먹을 음식은 모두 그가 가져다준 것’이라 하더구나. 자세히 캐물어보고 나서야 손을 썼다.”

적태공이 통곡하며 말했다.

“법사님,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규가 욕을 퍼부었다.

“이 망할 늙은이야, 딸년이 사내와 바람을 피웠는데도 살려달라고? 네가 이렇게 물어대면 도리어 나에게 사례도 안 하려 떼쓰는 격이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연청은 방을 하나 찾아 이규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적태공이 사람들을 데리고 등불을 켜서 방 안을 살펴보니, 머리가 잘린 두 시체가 열 토막 남짓으로 잘려 바닥에 덩굴고 있었다. 적태공과 그 부인은 슬피 울며 사람을 시켜 시신을 뒤로 가져가 불태워 버렸다. 이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 적태공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귀신을 잡아주었는데, 어찌 고맙다는 인사가 없느냐?”

적태공은 어쩔 수 없이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했고, 이규와 연청은 그것을 먹고 길을 떠났다. 적태공은 스스로 집안일을 정리했다. 이 일은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이규와 연청은 사류촌을 떠나 예전처럼 길을 나섰다. 이때는 풀은 시들고 땅은 넓으며, 나무가 떨어져 산이 텅 빈 계절이라 길 위에는 딱히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두 사람은 크게 굵어 돌아 양산박 북쪽으로 향했다. 산채까지는 아직 칠팔십 리가 남았는데, 산에 닿기 전 형문진 근처에 다다랐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어느 커다란 장원에 달려가 문을 두드리자 연청이 말했다.

“우리는 그냥 객주에 가서 묵읍시다.”

이규가 말했다.

“이런 대갓집이 객주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원 식구가 나와서 말했다.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지금 근심이 많으시니, 두 분은 다른 곳에 가서 묵으시오.”

이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고, 연청이 말리려 했으나 소용없이 결국 초가집까지 따라 들어오고 말았다. 이규가 입을 놀리며 외쳤다.

“지나가는 손님이 하룻밤 묵겠다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 태공이 근심이 많다고? 내가 바로 그 근심거리와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방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유태공은 이규의 생김새가 워낙 흉악한 것을 보고, 남몰래 사람을 시켜 그들을 받아들이게 했다. 유태공은 그들을 대청 옆 곁방으로 안내해 쉬게 했다. 그리고 음식을 좀 만들어 두 사람에게 먹인 뒤 안방으로 들어가 자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그것을 먹고 곧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이규는 술도 별로 없던 데다 구들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저 안방에서 유태공과 부인이 흐느껴 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이규는 마음이 초조해져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대청 앞으로 나가 물었다.

“덥에 무슨 일이 있길래 밤새도록 울어대서 이 사람 잠을 못 자게 만드느냐?”

유태공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나와 대답했다.

“우리 집에 열여덟 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겨 근심이 아주 큼니다.”

이규가 말했다.

“또 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네 딸을 빼앗아 간 자가 누구냐?”

유태공이 말했다.

“그놈의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라 오줌을 지리실 겁니다! 바로 양산박의 두령 송강인데, 그 밑에 백여 명의 호걸들이 있으니 보통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규가 물었다.

“내 하나 묻자. 그놈이 몇 명이나 왔더냐?”

유태공이 대답했다.

“이틀 전에, 그와 젊은 사내 하나가 각각 말 한 필씩 타고 왔습니다.”

이규가 연청을 불러 말했다.

“아우야, 저 노인이 하는 말 좀 들어봐라. 우리 형님이 알고 보니 입만 살았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연청이 말했다.

“형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규가 말했다.

“그놈이 동경에서 이사사네 집을 드나들더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저지른 모양이다!”

그리고는 유태공에게 말했다.

“장원에 음식이 있으면 우리 좀 먹여라. 내가 사실대로 말해주마. 나는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이고, 이쪽은 ‘낭자’ 연청이다. 송강이 네 딸을 빼앗아 갔다면, 내가 가서 찾아다 돌려주마.”

유태공은 연신 절하며 고마워했다. 이규와 연청은 곧장 양산박을 향해 달려가 충의당에 이르렀다. 송강은 이규와 연청이 돌아온 것을 보고 물었다.

“아우들아, 어디를 다녀오느냐? 길을 한참 잘못 들어 이제야 오는구나.”

이규는 대답 대신 눈을 부릅뜨고는 큰 도끼를 뽑아 들었다. 그러고는 먼저 행렬의 깃발을 내리쳐 ‘천하를 대신해 도를 행한다(替天行

道)’는 네 글자를 갈갈이 찢어버리니,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송강이 호통을 쳤다.

“이놈이 또 무슨 짓이냐!”

이규는 양손의 도끼를 쥐고 상단으로 돌진하여 송강을 향해 달려들었다.

시가 이르되,

양산박에는 간사한 무리 없고,
충의당 앞에는 충직한 신하 있네.
이규의 쌍도끼를 남겨두었으니,
세상의 곧은 기운 여전히 펼쳐지리라.

관승, 임충, 진명, 호연작, 동평 등 다섯 장수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으며 이규의 큰 도끼를 빼앗아 상단 아래로 끌어내렸다. 송강이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다.

“이놈이 또 무슨 짓이냐!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이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연청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형님,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께서는 동경 성 밖 객주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양손에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려

하셨는데, 제가 앞을 가로막고 제압하여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은 이미 가셨는데, 혼자서 왜 이리 날뛰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큰길로는 가지 말자고 설득했더니, 형님께서는 머리띠까지 벗어 던지고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땀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류촌 적태공의 장원에 가서 귀신 잡는 법사 노릇을 하며 귀신을 잡는답시고, 적태공의 딸과 간통하던 사내를 잡아 둘 다 고기반죽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후에는 큰길 서쪽으로 산을 넘어 가로질러 가려 하시고, 형문진 근처에 이르러 날이 저물자 유태공의 장원에 투숙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태공 부부가 밤새도록 울어대는 통에 잠을 못 이루시더니,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태공이 말하기를, ‘이틀 전에 양산박 송강과 젊은 사내 하나가 말 두 필을 타고 장원에 왔는데, 그들이 천하를 대신해 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열여덟 살 딸을 불러 술을 대접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둘이 딸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더랍니다. 이규 형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사실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우리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밖에서 이름을 빌려 엉뚱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이 형님께서는 ‘그놈이 동경에 있을 때도 노래 부르던 이사사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그놈이 아니면 누구겠느냐!’라며 화를 내며 달려드신 겁니다.”

송강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다니, 어찌 알았겠느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이규가 말했다.

“평소에는 형님을 대단한 호걸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짐승 같은 놈이었구나! 참으로 대단한 일을 저질렀구나!”

송강이 호통을 쳤다.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삼천 군마를 이끌고 돌아올 때, 말 두 필이 도중에 낙오했더라도 결코 사람들 눈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여인을 하나 빼앗았다면 분명 산채 안에 숨겨두었을 터이니, 내가 직접 내 방에 들어가서 찾아보아라.”

이규가 말했다.

“형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요! 산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님 수하들인데, 형님을 지키려는 자들이 감춘 것을 어떻게 못 찾겠소! 나는 형님이 색욕을 탐하지 않는 호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주색잡기에 빠진 자였구나! 염파석을 죽인 것이 작은 일이라면, 동경에 가서 이사사를 품은 것은 큰일이다! 발뺌하지 말고 어서 유태공에게 딸을 돌려주어야 말이 통할 것이오.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형님을 죽이거나 아니면 늦게라도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오!”

송강이 말했다.

“그만 소란 피워라! 유태공이 죽지 않고 장원 식구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가서 따져보자. 만약 내 말이 틀렸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내놓고 네 도끼를 받겠다. 하지만 내 말이 맞다면, 이놈아, 네가 어찌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

이규가 말했다.

“만약 내가 형님을 잡지 못한다면, 내 목을 형님께 바치겠소!”

송강이 말했다.

“좋다, 우리 형제들이 모두 증인이 되어주마.”

그러고는 ‘철면공목’ 배선을 불러 군령장 두 장을 쓰게 하여, 두 사람이 각각 서명하게 했다. 송강은 이규의 서명을 받고, 이규는 송강의 서명을 받았다. 이규가 다시 말했다.

“그 젊은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채진이오.”

채진이 말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오기만 하면 된다. 만약 거기서 내 말이 맞다면, 채 대관인이든 미 대관인이든 내 도끼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채진이 말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일단 먼저 가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갈 때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 염려되니 말입니다.”

이규가 말했다.

“그러지요.”

그러고는 연청을 불렀다.

“우리 둘이 먼저 가 있겠다. 만약 저놈이 오지 않는다면 겁이 나서 피하는 것이니, 그때는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시가 이르되,

지극한 경지에 이른 이는 허물이 없어 비평을 마음껏 내맡기고,
그다음 사람은 간언을 받아들여 은혜로 여긴다.
가장 못난 자는 스스로 틀렸으면서도 한사코 제가 옳다 우기니,
사람들로 하여금 화는 나도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한다.

연청과 이규가 다시 유태공의 장원에 도착했다. 유태공이 그들을 맞이하며 물었다.

“호걸님들, 어찌 된 일입니까?”

이규가 말했다.

“이제 우리 송강이라는 놈이 당신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줄 것이니, 할멈과 장원 식구들 모두 똑똑히 지켜보시오. 만약 그놈이 맞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놈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직접 나서겠소.”

그때 장원 식구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다.

“말을 탄 수십 명이 장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드디어 왔군. 인마는 옆에 머물게 하고, 송강과 채진만 들어오게 하시오.”

송강과 채진이 곧장 초막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이규는 큰 도끼를 손에 든 채 옆에 서서, 노인이 맞다고 말하기만을 기다리며 당장이라도 손을 쓸 기세였다. 유태공은 송강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렸다. 이규가 노인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 딸을 빼앗아 간 놈입니까?”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닙니다.”

송강이 이규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이규가 말했다.

“두 분이 먼저 저 노인을 잘 살피십시오. 저 노인이 형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장원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나를 확인하게 하라.”

이규가 즉시 장원 식구들을 불러 확인하게 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다.

“아닙니다!”

송강이 말했다.

“유태공, 내가 바로 양산박의 송강이고 이 형제는 채진이오. 당신의 딸은 이름을 빌려 엉뚱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빼앗긴 것이오. 만약 범인을 알아낸다면 산채로 알려주소. 내가 직접 해결해 주겠소.”

송강이 이규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산채로 돌아가면 절로 따져볼 일이 있을 것이다.”

송강과 채진은 일행을 데리고 먼저 산채로 돌아갔다. 연청이 물었다.

“이 형님, 어찌 되었습니까?”

이규가 말했다.

“성질이 급해 일을 그르쳤구나. 내 목을 지기로 했으니, 그냥 단칼에 베어버린 뒤 형님께 갖다 드려야겠다.”

연청이 말했다.

“무슨 까닭도 없이 죽으려 하십니까? 제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지요. 바로 ‘부형청죄(負荊請罪,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죄를 빌다)’라는 것입니다.”

이규가 물었다.

“가시나무를 짊어진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연청이 말했다.

“옷을 벗고 삼줄로 몸을 묶은 뒤, 등에 가시나무 묶음을 짊어지고 충의당 앞에 엎드려 ‘형님께서 때리시는 대로 맞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님께서 차마 손을 대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형청죄입니다.”

이규가 말했다.

“좋은 방법이구나. 하지만 조금 두렵기도 하니, 차라리 목을 베는 게 속 편하겠다.”

연청이 말했다.

“산채에 있는 이들이 다 형제들인데 누가 형님을 비웃겠습니까?”

이규는 어쩔 수 없이 연청과 함께 산채로 돌아가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죄를 빌었다.

한편, 송강과 채진이 먼저 충의당으로 돌아와 형제들에게 이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흑선풍' 이규가 옷을 다 벗어 던진

채 등에 가시나무 묶음을 짊어지고 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아, 어찌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왔느냐? 이렇게 해서는 너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규가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큰 몽둥이를 골라 수십 대만 때려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너는 나와 목을 걸고 내기를 해놓고는, 어찌하여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왔느냐?”

이규가 말했다.

“형님께서 도저히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칼을 가져와 이 목을 베어 버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형제들이 이규를 대신해 말려 나섰다. 송강이 말했다.

“내가 그를 용서하려면, 저 가짜 송강 두 놈을 잡아 유태공의 딸을 찾아다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제가 가서 항아리 속의 자라를 잡듯 놈들을 낚아채 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놈들은 호걸인 데다 말과 안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너 혼자서 어떻게 그들을 가까이 잡겠느냐? 연청을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라.”

연청이 말했다.

“형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소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연청은 방으로 들어가 노를 챙기고 척미곤(눈썹 높이까지 오는 긴 막대기)을 들고 이규를 따라 다시 유태공의 장원으로 향했다. 연청이 자세한 사정을 묻자 유태공이 말했다.

“해 질 무렵에 왔다가 삼경(밤 11시~새벽 1시)쯤에 떠나버려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소. 감히 뒤를 쫓아갈 수도 없었지. 우두머리는 키가 작고 얼굴이 검고 말랐으며, 두 번째 놈은 체격이 건장하고 짧은 수염에 눈이 컸소.”

두 사람이 자세한 특징을 다 듣고 나서 말했다.

“태공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어떻게든 딸을 구해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형님 송공명의 명령으로 반드시 범인을 찾아오라 하셨으니, 결코 잘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린 고기를 삶고 떡을 만들어 양념 주머니를 몸에 차고 유태공의 장원을 떠났다. 먼저 정북쪽으로 찾아 나섰으나, 인가라고는

없는 황량한 곳을 하루 이틀 걸었음에도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다시 정동쪽으로 가서 이틀을 더 찾아보았으나, 능주와 고당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소식이 없었다. 이규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얼굴에 열이 오를 지경이었다. 그는 다시 서쪽을 바라보며 찾아 나섰으나, 이틀을 더 뒤져도 아무런 기척조차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산기슭에 있는 어느 고찰에서 잠자리를 잡았다. 이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묘 밖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이규가 벌떡 일어나 묘 문을 열고 확인했다. 그러자 한 사내가 박도를 들고 묘 뒤쪽 산기슭을 돌아 올라가고 있었다. 이규가 그 뒤를 쫓아갔다. 연청도 소리를 듣고는 노를 챙기고 곤봉을 들고 뒤따라오며 외쳤다.

“이 형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날 밤은 달빛이 희미했다. 연청이 이규에게 곤봉을 건네주자, 멀리서 그 사내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연청이 가까이 다가가 화살을 먹이고 노의 시위를 팽팽히 당기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여의자(如意子)야, 내 일을 그르치지 말아다오.”

화살 한 발이 날아가 사내의 오른쪽 다리에 정통으로 박혔고, 사내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규가 달려들어 사내의 옷깃을 움켜쥐고 고찰 안으로 끌고 들어가 호통을 쳤다.

“네놈이 유태공의 딸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사내가 대답했다.

“호걸님, 저는 그런 일은 전혀 모릅니다. 유태공의 딸 같은 건 빼앗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저 이 길목에서 작은 장사나 하며 먹고 사는 놈인데, 어찌 감히 남의 자식을 납치하는 큰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이규는 사내를 꾀꾀 묶어놓고 도끼를 들어 위협하며 소리쳤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스무 토막으로 내버리겠다!”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제발 일단 풀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청이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화살을 뽑아 줄 테니 말해보시오.”

연청은 사내를 풀어준 뒤 물었다.

“유태공의 딸이 대체 누구에게 납치당했던 말ियो? 당신처럼 이 길목에서 도둑질하며 사는 놈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지 않소?”

사내가 말했다.

“제가 추측하는 것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서북쪽으로 십오 리쯤 가면 우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예전부터 도관

(道院)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강도 두 놈이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는 성이 왕이고 이름은 강이며, 다른 하나는 성이 동이고 이름은 해라고 하는데, 둘 다 녹림의 도적 놈들입니다. 그놈들이 먼저 도사와 동자들을 모두 죽이고는, 고작 대여섯 명의 부하를 거느린 채 도관을 점거하여 내려와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송강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니, 필시 그 두 놈이 저지른 짓일 겁니다.”

연청이 말했다.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로구나. 이보시오, 겁먹지 마시오! 나는 양산박의 ‘남자’ 연청이고, 이분은 ‘흑선풍’ 이규요. 내가 당신의 화살 상처를 치료해 줄 테니,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십시오.”

사내가 대답했다.

“기꺼이 안내하겠습니다.”

연청은 박도를 찾아 사내에게 돌려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희미한 달빛을 빌려 연청과 이규는 사내를 부축해 십오 리 길을 걸어 산에도 착했다. 산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모양이 정말 소 머리처럼 생겼다. 세 사람이 산에 오르니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다. 산꼭대기에 이르니 둥글게 흙담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스무 칸 남짓한 방들이 있었다.

이규가 말했다.

“내가 먼저 담을 넘어가겠소.”

연청이 말했다.

“날이 밝으면 그때 움직입시다.”

하지만 이규가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단숨에 담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러자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며 누군가 튀어나와 박도를 휘두르며 이규에게 달려들었다. 연청은 일을 그르칠까 겁이나 곤봉을 짚고 함께 담을 넘었다. 화살을 맞았던 사내는 잽싸게 도망쳐 사라졌다. 연청은 나타난 사내가 이규와 싸우는 것을 보고 몸을 숨긴 채 몰래 다가갔다. 그리고 곤봉으로 사내의 뺨을 내리쳤다. 사내가 이규의 품으로 쓰러지자, 이규가 뒤에서 도끼로 내리쳐 그를 땅바닥에 눕혔다.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연청이 말했다.

“이놈이 분명 뒷길로 도망칠 퇴로를 만들어 두었을 것이요. 나는 뒷문을 막을 테니, 당신은 앞문을 지키시오. 함부로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한편, 연청이 뒷문 담장 밖으로 가서 어둠 속에 몸을 엮드리고 있으니, 뒷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열쇠를 들고 뒤쪽 담장 문을 열러 오는 것이 보였다. 연청이 그 뒤로 돌아 움직였다. 사내는 연청을 발견하자마자 처마를 돌아 앞문으로 빠져나갔다. 연청이 크게 외쳤다.

“앞문을 막아라!”

이규가 달려들어 도끼로 단숨에 사내의 가슴팍을 찌어 쓰러뜨리고는, 두 놈의 머리를 모두 베어 한데 묶어버렸다. 성미가 솟구친 이규는 도끼를 휘두르며 안으로 돌진해 들어가, 진흙으로 빚은 신상(神像)들

까지 모조리 밀어 넘어뜨렸다. 부엌 아궁이 앞에 숨어 있던 부하 몇 놈도 이규에게 쫓겨 도끼에 하나씩 모두 죽임을 당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그 딸이 침상 위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 여인을 보니 구름 같은 머리칼에 꽃 같은 얼굴을 한 것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좁은 신발에 봄 비단 치마를 받쳐 입으니,
향기는 가슴팍에 스며들어 옥 같은 품을 채우네.
빼어난 자태는 갑작스러운 비바람을 견디기 어렵고,
깊은 한은 가을 물결 같은 눈가에 그득히 고였구나.

연청이 물었다.

“네가 혹시 유태공의 딸이냐?”

여인이 대답했다.

“열흘 전쯤 이 도적 놈들에게 이곳으로 납치당해, 밤마다 돌아가며 저를 겁탈했습니다. 낮밤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죽고 싶었으나, 놈들이 워낙 삼엄하게 감시하여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장군님께서 구해 주셨으니, 저에게는 다시 태어나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연청이 물었다.

“그놈들의 말 두 마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말했다.

“동쪽 방 안에 있습니다.”

연청은 안장과 굴레를 챙겨 문밖으로 끌어낸 뒤, 방 안에 쌓여 있던 금은보화를 정리했다. 그 양은 대략 삼오천 냥쯤 되었다. 연청은 여인을 말에 태우고, 금은보화 꾸러미와 도적들의 머리를 한데 묶어 말 한 마리에 실었다. 한편 이규는 짚더미를 가져다가 창가의 등불을 이용해 초가집 사방에 불을 질러 버렸다.

두 사람이 담장 문을 열고 여인을 부축하여 산을 내려가 유태공의 장주에 이르렀다. 부모는 딸을 보자 무척 기뻐하며 근심을 모두 떨쳐내고, 두 호걸에게 연신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연청이 말했다.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 없소. 우리 형님인 송공명께 가서 사례하십시오.”

유씨 일가는 술과 음식을 권해도 사양한 채, 각자 말 한 필씩을 타고 산 위로 달려갔다. 산채로 돌아오니 붉은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이었고, 모두 삼관(三關, 산채의 관문) 위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말을 끌고 금은보화와 도적의 머리를 짚어진 채 곧장 충의당으로 가서 송강을 알현했다. 연청이 앞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하자,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도적의 머리는 물어버리고 금은보화는 창고에 넣으라 명했다. 말은 풀어놓아 전마(戰馬) 무리와 함께 먹이게 했다.

다음 날, 송강은 연회를 베풀어 연청과 이규의 공을 축하했다. 유태공 또한 금은보화를 챙겨 산으로 올라와 충의당에서 송강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송강은 이를 사양하며 술과 밥을 대접하고 다시 장주로 돌아가게 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양산박의 일은 순조로웠고, 어느덧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버드나무는 연노란 빛을 띠고, 물결 위로는 점차 오리색 푸르름이 피어오른다. 복숭아꽃은 붉은 꽃송이가 어지러이 흩어 피었고, 살구꽃은 붉은 꽃봉오리를 머금은 채 살며시 고개를 내민다. 산 앞의 꽃과 산 뒤의 나무는 모두 싹을 틔우고, 고을의 개구리밥과 물속의 갈대도 모두 생기를 되찾았다. 곡우(穀雨)가 지나고 날이 맑게 개니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날씨요, 금연(禁煙, 봄철 불 지피는 것을 금함) 기간이 막 지나니 딱 삼월의 화창한 봄날이라.

송강이 정좌하고 있는데, 관문 아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압송해 와서 말했다.

“웬 놈들 한 무리를 붙잡아 왔습니다. 수레 상자가 일고여덟 개 있고, 초봉(哨棒) 몇 묶음도 있습니다.”

송강이 살펴보니, 이들은 모두 체구가 당당한 장사들이었다. 그들은 당 앞에 무릎을 꿇고 고했다.

“저희는 봉상부에서 곧장 온 자들로, 이번에 태안주로 분향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는 삼월 이십팔일은 천제성제(天齊聖帝)께서 강탄하신 날이라, 저희도 모두 무대에 올라 봉술(棒術)을 겨루는데, 사흘 내내 이어지니 거기 모이는 짝이 어찌 천백 쌍에 그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태원부 출신의 임원(任原)이라는 씨름꾼 호걸이 하나 있는데, 키가 한 장(丈)이나 되고 스스로 별호를 ‘경천주(擎天柱)’라 합니다. 그가 큰소

리치기를, ‘씨름으로는 세상에 적수가 없고, 겨루기로는 천하에 내가 으뜸이다’라고 했습니다. 듣자 하니 지난 두 해 동안 사당에서 씨름을 겨뤘으나 대적할 자가 없어, 적잖은 상품(賞品)을 거저 가져갔다고 합니다. 올해도 또 방을 붙여 천하의 사람들에게 씨름을 도전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 때문에 온 것이니, 첫째는 분향을 위함이요, 둘째는 임원의 솜씨를 보기 위함이며, 셋째는 그의 좋은 봉술 몇 수를 몰래 배우기 위함입니다. 부디 대왕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강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소교(小校)에게 명했다.

“어서 이들을 산 아래로 보내주되, 털끝만큼도 침범하지 말라. 앞으로 분향하러 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놀라게 하지 말고, 그저 오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 무리는 목숨을 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때 연청이 일어나 송강에게 아뢰었는데, 수많은 말을 늘어놓아 한자리에 다 담지 못할 정도였다. 이 일로 태안주가 술렁이고 상부현이 크게 소란스러워지게 되었다. 바로 동악묘 안에서 두 호랑이가 싸우고, 가녕전 위에서 두 용이 다투는 격이라. 결국 연청이 무슨 말을 꺼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4회 — 연청이 지혜로 경천주를 때려 눅히고, 이규가 수장교에서 관아에 앉다

燕靑智撲擎天柱 李達壽張喬坐衙

이야기는 이러하다. 연청은 비록 서른여섯 호걸 중 막내였으나, 머리 회전이 빠르고 아는 것이 많았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아, 앞선 서른다섯 명보다 오히려 나은 점이 많았다.

그날 연청이 송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노 원외(노준의) 어른을 모시며 이 씨름 솜씨를 배웠는데, 강호에서 아직 상대할 만한 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만났고 3월 28일도 가까워졌으니, 저는 한 사람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가서 헌대(獻臺)에 올라 어떻게든 그자와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만약 져서 죽는다 해도 영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며, 만약 이긴다면 형님께도 광채를 더해드릴 것입니다. 그날 분명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질 터이니, 형님께서 사람을 보내 도와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듣기로 그자는 키가 한 장(약 3m)에 달하고 모습은 금강역사 같으며, 힘이 천 근은 족히 된다더군. 자네처럼 왜소한 체구로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한들, 어떻게 그자를 가까이서 상대하겠는가?”

연청이 대답했다. “그자의 덩치가 큰 것은 두렵지 않으나, 다만 그자가 제 올라미에 걸려들지 않을까가 걱정될 뿐입니다. 예부터 ‘씨름이란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쓰고, 힘이 없는 자는 지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감히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정세를 살펴 대처한다면 저런 멍청한 놈에게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노준의가 나섰다. “우리 이 연청은 정말로 어려서부터 씨름을 제대로 익혔으니,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도록 보내 주십시오. 약속한 날이 되면 저 노준의가 직접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송강이 물었다. “언제쯤 떠날 수 있겠는가?”

연청이 답했다. “오늘은 3월 24일입니다. 내일 형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가, 길에서 하룻밤 묵고 26일에 사당에 도착하겠습니다. 27일에 그곳에서 하루 동안 상황을 살핀 뒤, 28일에 그놈과 한판 붙겠습니다.”

그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송강은 술을 차려 연청의 배웅을 했다. 사람들이 연청을 보니, 아주 소박한 시골뜨기 차림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옷은 보이지 않게 감추고, 산동 지방의 보따리장수로 변장한 채 허리에는

작은 북을 차고 어깨에는 잡동사니가 가득 담긴 짐을 메고 있으니,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송강이 말했다. “자네가 보따리장수로 변장했으니, 우리 모두에게 산동 보따리장수의 노래를 한 곡 뽑아주게나.”

연청은 한 손으로는 작은 북을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박자를 맞추며 보따리장수의 평안을 비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모습이 산동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청은 여러 두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는 금사탄을 지나 태안주로 가는 길을 잡았다.

그날 저녁, 연청이 숙소를 찾아 쉬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연소을 형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연청이 짐을 내려놓고 돌아보니, 뜻밖에도 흑선풍 이규였다. 연청이 말했다. “자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온 건가?”

이규가 대답했다. “전에도 형님을 따라 형문진까지 두 번이나 같이 갔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형님이 혼자 가신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시다. 형님께는 말씀도 안 드리고 몰래 산을 내려와 형님을 도우러 왔습시다.”

연청이 말했다. “여기선 자네가 필요 없으니 어서 빨리 돌아가게.”

그러자 이규가 조급해하며 말했다. “형님이 정말 대단한 호걸이라면, 내가 좋은 뜻으로 도우러 왔는데 어째서 나를 나쁜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연청은 의리를 저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 이규에게 말했다. “자네와 함께 가겠네. 마침 그곳은 성제(聖帝)의 생일이라 사방의 산과 큰 산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 자네를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네. 대신 내 부탁 세 가지만 들어준다면 같이 가겠네.”

이규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들어드리지요.”

연청이 말했다. “첫째, 가는 길에는 자네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따로따로 걷는 것이네. 객점에 도착해서 가게 문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게. 둘째, 사당 근처 객점에 도착하면 자네는 몸이 아픈 척하며 이불로 머리부터 얼굴까지 푹 뒤집어쓰고,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척해야 하네.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되네. 셋째, 대결이 벌어지는 날 사당에서 인파 속에 섞여 구경할 때도, 절대로 호들갑을 떨거나 놀라지 말게. 형님, 할 수 있겠나?”

이규가 말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객점에 들러 하룻밤을 쉬었다.

다음 날 오경(새벽 3~5시)에 일어나 두 사람은 방값을 치르고, 함께 앞쪽으로 가서 불을 지펴 밥을 지어 먹었다. 연청이 말했다. “이 형님, 먼저 반 리쯤 앞서 가 계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에는 향을 피우러 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는데, 다들 임원의 솜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두 해 동안 태악(태산)에서 적수가 없었고 올해로 벌써 세 해째라고들 했다. 연청은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새겨 두었다.

신시(申時, 오후 3~5시) 무렵이 가까워지자, 사당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발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연청도 짐을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니, 붉은 표지 기둥 두 개가 보였는데 그 모양이 마을 거리의 현판과 비슷했다. 그 위에는 흰 바탕의 패가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태원(太原)의 씨름꾼, 경천주(擎天柱) 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두 줄의 작은 글씨로 ‘주먹으로는 남산의 사나운 호랑이를 때려눕히고, 발로는 북해의 푸른 용을 걷어찬다’라고 쓰여 있었다.

연청은 이를 보고는 뭇대를 잡아채 그 패를 가루가 되도록 부숴 버렸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짐을 짊어지고 사당 쪽으로 향했다. 구경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 만들기 좋아하는 자들이 임원에게 달려가 ‘올해는 패를 부수고 대결을 신청한 자가 나타났다’라고 알렸다.

한편, 연청은 앞서가는 이규를 만나 함께 묵을 객점을 찾았다. 알고 보니 사당 일대는 대단히 북적거려서, 온갖 업종의 장사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객점만 해도 천사오백 곳이나 되어 천하의 참배객(향관)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보살의 성스러운 명절을 맞으니 사람을 들일 자리조차 없어, 수많은 객점이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연청과 이규는 하는 수 없이 저잣거리 꼬트머리에 있는 객점 하나를 빌려 자리를 잡았다. 연청은 짐을 내려놓고 겹이불 하나를 꺼내 이규를 눕혀 재웠다.

그때 점원이 다가와 물었다. “형님은 산동에서 온 보따리장수로 사당에 장사하러 오신 모양인데, 혹시 방값을 못 내시는 건 아니겠지요?”

연청은 사투리를 섞어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사람을 너무 얹보지 마시오! 작은 방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설령 큰 방 값을 다 받는다 해도 달리 갈 데도 없는 처지요. 다른 사람이 내는 만큼 나도 똑같이 내리다.”

점원이 말했다. “형님, 나무라지 마십시오. 위낙 중요한 날이라 미리 확실히 해두는 것이 가장 좋아서 그러합니다.”

연청이 말했다. “나야 본래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 대수롭지 않네만, 어디 가서 묵은들 못 묵겠나. 그런데 뜻밖에 길에서 이 고향 친척을 만났는데, 지금 기병(氣病)을 앓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네 가게에서 묵으려는 것이네. 우선 자네에게 엽전 다섯 관을 줄 테니, 술에 내가 먹을 차와 밥을 좀 차려 주게나. 떠날 때 한꺼번에 후하게 사례하겠네.”

점원은 엽전을 받아 들고는 곧장 문 앞으로 가서 차와 밥을 준비했다. 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밖이 시끌벅적하더니, 긴장한 사내 스무서른 명이 가게 안으로 몰려들어 점원에게 물었다. “패를 부수고 대결을 신청한 호걸이 어느 방에 묵고 있는가?”

점원이 대답했다. “우리 가게엔 그런 사람 없소.”

그 무리가 말했다. “다들 자네 가게에 있다고 하던데.”

점원이 말했다. “우리 집엔 방이 두 칸뿐인데, 한 칸은 비어 있고 한 칸은 산동에서 온 보따리장수가 병든 사람을 데리고 빌려 들었소.”

그 무리가 말했다. “바로 그 보따리장수가 패를 부수고 대결을 신청한 자요.”

점원이 말했다. “남 놀리지 마시오! 그 보따리장수는 자그마한 젊은 이일 뿐인데, 무슨 쓸모가 있겠소!”

무리가 일제히 말했다. “잔말 말고 우리를 데려가 한번 보게만 해 주게.”

점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구석 방이 바로 그곳이요.”

사람들이 가서 보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모두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안쪽 침상 위에 두 사람이 발을 맞댄 채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가웃거리는데, 그중 한 명이 말했다. “감히 패를 부수고 천하의 적수가 되겠다고 나선 자라면 결코 보통 인물이 아닐 텐데, 남이 자기를 해칠까 염려하여 필시 병든 척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

하오.” 사람들이 말했다. “바로 그렇겠소. 다들 괜히 짐작하지 말고, 그 날이 되면 곧 알게 될 것이오.”

해질 무렵까지 가게에는 어찌 스무서른 무리뿐이라,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캐몰어 점원은 입술이 다 터질 지경으로 설명해야 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에게 밥을 날라다 주는데, 이규가 이불 속에서 머리를 쭉 내밀었다. 그 모습을 본 점원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이쿠! 이분이 바로 씨름하러 나설 어르신이로군요!” 연청이 말했다. “씨름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오. 이 사람은 몸에 병이 들었고, 바로 내가 씨름하러 온 사람이오.” 점원이 말했다. “나를 속이지 마시오. 내가 보기엔 임원이 당신을 통째로 뱃속에 삼켜 버릴 것 같소.” 연청이 말했다. “나를 비웃지 마시오. 나에게는 다 방도가 있어 당신들을 한바탕 크게 웃겨 줄 것이니, 돌아와서 상품을 듬뿍 나눠 주겠소.” 점원은 두 사람이 저녁을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릇을 거두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연청과 이규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연청이 말했다. “형님, 형님은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꼭 주무십시오.”

연청은 곧장 사람들을 따라 태악(태산) 사당으로 가서 살펴보았는데, 과연 그 명성이 천하 제일이라 불릴 만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사당은 태악(태산)에 자리하여 산이 하늘과 땅을 진압하고 있으니, 산악 중의 지존이자 만신(萬神)의 우두머리였다.

산머리에서 난간에 기대면 멀리 약수와 봉래산이 바라다보이고, 절정에 올라 소나무를 부여잡으면 사방이 온통 짙은 구름과 옅은 안개였다. 높이 솟은 누대는 마치 금오(태양 속 까마귀)가 날개를 펴고 날아온 듯하고, 층층이 솟은 전각은 옥토끼가 몸을 솟구쳐 달려온 듯 여겨졌다. 화려하게 조각한 들보와 채색한 마룻대, 푸른 기와와 붉은 처마, 봉황 무늬 문은 누런 비단에 환히 비치고, 거북등 무늬 수놓은 발에는 비단 띠가 드리워졌다.

멀리서 성상을 바라보니 아홉 줄 술의 면류관을 쓴 순임금의 눈매와 요임금의 눈썹이요, 가까이서 신령한 얼굴을 보니 곤룡포를 입었는데 탕왕의 어깨와 우왕의 등을 지녔더라. 구천사명(九天司命)은 부용관이 진홍빛 비단옷에 어리비치고, 병령성공(炳靈聖公)은 자황색 도포가 남전(藍田)의 옥띠와 절묘하게 어울렸다. 왼편에는 옥비녀에 구슬 신을 신은 시자가, 오른편에는 자줏빛 인끈과 금빛 인장을 갖춘 시자가 모셨다. 온 전각이 위엄에 차서 어가를 호위하는 삼천의 금갑 장수가 있고, 양쪽 회랑에는 임금을 받드는 십만의 철갑 병사가 용맹하게 늘어섰다.

오악루는 동궁과 맞닿고, 인안전은 북궐과 바짝 이어졌다. 호리산(蒿裏山) 아래에는 판관이 일흔두 사(司)를 나누어 맡고, 백라묘(白驪廟) 안에는 토신이 이십사절기를 관장한다. 화지(火池)를 관장하는 철면태위는 달마다 신령함을 통하고, 생사를 주관하는 오도장군은 해마다 신통을 드러낸다. 어향(御香)이 끊이지 않으니 천신이 말을 달려 단서(丹書)를 알리고, 제사를 때맞춰 지내니 노소가 풍문을 듣고 모두 복을 받는다. 가녕전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자욱이 어리고 정양문에는 서

기(瑞氣)가 서리어 돌아, 만백성은 벽하군(碧霞君)을 우러러 절하고
사방 멀리서 인성제(仁聖帝)에게 귀의하였다.

그때 연청은 한 차례 두루 구경하고 나서, 초참정(草參亭)에 나아가
네 번 절을 올리고는 향을 피우는 사람에게 물었다. “씨름 사범인 임
교사는 어디서 묵고 있습니까?” 그러자 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러 주었
다. “영은교(迎恩橋) 아래에 있는 저 큰 객점에 있소. 그는 이삼백 명
이나 되는 뛰어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연청은 그 말을 듣고 곧
장 영은교 아래로 가서 살펴보니, 다리 난간에 씨름하는 제자 스무서른
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금박을 입힌 깃발과 패, 비단으로 수놓
은 장막 휘장, 사람 키만 한 등받이가 두루 꽂혀 있었다.

연청이 객점 안으로 슬쩍 들어가 보니, 임원이 정자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과연 계체신(揭諦神) 같은 풍모에 금강역사 같은 모습이었다.
가슴을 딱 벌린 모습은 호랑이를 때려잡은 이존효(李存孝)의 위엄을
떠올리게 했고, 호상(胡牀)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모습은 산을 뽑는 패
왕(항우)의 기세가 있었다. 그는 거기서 제자들이 씨름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연청을 알아보고는, 그가 전에 패를 부순 일을 임
원에게 몰래 알렸다. 그러자 임원이 벌떡 일어나 팔뚝을 부치며 내뱉었
다. “올해는 또 어떤 죽고 싶은 놈이 내 손에 목숨을 바치러 오는구나.”
연청은 얼른 고개를 숙이고 급히 객점 문을 나섰는데, 안에서 사람들이
웃어 대는 소리가 들렸다. 연청은 서둘러 자기 숙소로 돌아와 술과 음
식을 약간 차려 이규와 함께 한바탕 먹었다. 이규가 말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려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연청이 말했다. “오늘 밤만 건디

면 됩니다. 내일이면 곧 승부가 날 것입니다.” 그때의 한담은 모두 말할 필요가 없다.

삼경(밤 11시~새벽 1시) 전후로 한바탕 북소리와 풍악이 울려 퍼졌으니, 사당의 여러 향관들이 성제(聖帝)께 헌수(축수)를 올리는 것이었다. 사경(새벽 1시~3시) 전후로 연청과 이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청은 점원에게 따뜻한 물을 청해 얼굴을 씻고 머리를 매끈하게 빗었다. 그러고는 안에 입었던 덧옷을 벗고, 아래로는 정강이 행전과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묶었으며, 삶은 명주로 만든 씨름용 잠방이(짧은 속바지)를 바짝 동여매고, 귀가 여럿 달린 삼베 신을 신었다. 위에는 땀받이 적삼과 어깨걸이(전대)를 걸치고 허리를 묶었다.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점원을 불러 일렀다. “방 안에 있는 짐을 나 대신 잘 지켜 주게.” 점원이 대답했다.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 없을 테니, 부디 일찍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이 작은 객점 안에도 향을 피우러 온 사람이 스무서른 명 있었는데, 모두 연청에게 말했다. “젊은이, 알아서 잘 헤아리게. 괜히 목숨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연청이 말했다. “제가 갈채를 받을 때,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상품(이물)을 좀 빼앗아 챙겨 가 주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이미 먼저 가 있는 이들도 있었다.

이규가 말했다. “이 도끼 두 자루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연청이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남에게 들통이 나면 큰일을 그르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사람들 무리에 섞여 먼저 회랑 아래로 가서 한데 엎드려 숨었다.

그날 향을 피우러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깨를 맞대고 등을 맞댈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넓은 동악묘가 사람들로 꽉 들어서서, 지붕 서까래 위까지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가녕전 쪽을 향해 커다란 산봉(山棚, 누대)을 세웠는데, 그 위에는 금은그릇과 비단 필이 가득 놓여 있었다. 문밖에는 안장과 굴레를 완벽하게 갖춘 준마 다섯 마리가 매여 있었다. 지주(知州)가 향 피우는 사람들을 통제하자, 해마다 씨름으로 성제(聖帝)께 바치는 의식을 주관해 온 한 늙은 부서(部署, 씨름판 심판)가 대나무 채를 들고 제단(獻臺)에 올라, 신께 참배를 마친 뒤 곧바로 올해 씨름을 겨룰 상대들을 불러내 맞붙게 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들더니, 곧이어 열댓 쌍의 초봉(哨棒, 몽둥이)을 든 자들이 나왔고, 그 앞에는 네 개의 수놓은 깃발이 늘어서 있었다. 임원은 가마에 앉아 있었는데, 가마 앞뒤로 팔뚝을 드러낸 건장한 호걸 스무남은 쌍이 그를 앞뒤로 호위하며 제단 위로 올라왔다. 부서(部署, 심판)가 가마에서 내려오게 하여 따뜻한 말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네자, 임원이 말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대악(岱嶽, 태산)에 와서 으뜸을 차지하고 거저 얻은 상품(利物)만 해도 상당하오. 올해는 반드시 옷통을 벗고 제대로 겨뤄야겠소.” 말을 마치자 물통을 든 사람이 다가왔다. 임원의 제자들은 모두 제단 주변을 뺨뺨하게 에워싸고 서 있었다. 한편 임원은 먼저 옷통의 옷을 벗고 머리쓰개(건책)를 벗은 뒤, 촉(蜀)나라 비단 저고리를 느슨하게 걸친 채 신께 참배하는 소리를 한 번 외치고 신수(神水) 두어 모금을 받아 마셨다. 그러고는 비단 저고리마저 벗어 던지니, 수십만 군중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때 임원의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붉은색의 둥근 각자(角子)를 틀어 묶고, 허리에는 비취색 소매가 달린 진홍색 비단 띠를 세 줄로 매었다. 거기에 열두 개의 옥나비 모양 장식 단추를 채웠고, 허리받이(主腰) 위에는 금빛 원앙 무늬가 늘어선 속옷을 받쳐 입었다. 무릎 보호대 안에는 구리 사타구니받이와 구리를 덧대었고, 다리 행전 안에는 철판과 철 고리를 넣었다. 손목은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신발 끈 또한 단단히 묶었다. 세상에서 바다를 떠받치고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요, 큰 산 아래 마귀를 항복시키고 장수를 베는 사람이로다.

배치가 말했다. “스승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사당에서 대결하며 상대할 만한 자가 없으셨으니, 올해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스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이 천하의 수많은 향관(香官, 제사 맡은 관리)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을 만족시키시겠습니까?”

임원이 대답했다. “사백 개의 군과 칠천여 개의 현에서 제사를 맡은 향관들이 성스러운 황제께 공경을 다하며 보낸 전리품을 내가 지난 2년 동안 거저 받아 챙겼다. 올해는 황제께 작별을 고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다시는 이 산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동쪽으로는 해가 뜨는 곳부터 서쪽으로 해가 지는 곳까지, 두 개의 해와 달이 하늘과 땅을 아우르고, 남쪽으로는 남만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연 지역에 이르기까지, 감히 내 앞에 나타나 전리품을 두고 다룰 자가 있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청이 양옆에 서 있던 사람들의 어깨와 팔을 밀치며 외쳤다. “있다, 여기 있다!” 그러고는 사람들의 등을 딛고 단숨에 뛰어올라 제단 위로 올라갔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배치가 이어서 물었다. “이보게, 성명이 무엇인가? 어디 사람이며, 어디서 왔는가?” 연청이 대답했다. “나는 산동에서 온 장사꾼인데, 저자와 전리품을 다투러 특별히 왔소.” 배치가 말했다. “이보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알고 있는가? 혹시 보증해 줄 사람은 있는가?” 연청이 말했다. “내가 바로 내 보증인이오. 내가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시오?” 배치가 말했다. “그럼 우선 옷차림부터 풀고 보여주게나.”

연청은 머리띠를 벗어 던지고 머리 양옆을 둥글게 말아 올린 뒤, 쥘신을 벗고 맨발로 제단 한쪽에 쭈그려 앉았다. 이어 다리 보호대를 풀고 벌떡 일어나더니,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까지 벗어 던지며 싸움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사당 안의 구경꾼들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듯 머리를 맞대고 환호성을 내질렀고, 구경하던 이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임원은 연청의 화려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전각 문 밖 월대(月臺) 위에는 본주(本州)의 태수가 앉아 질서를 단속하고 있었고, 그 앞뒤로는 검은 관복을 입은 하급 관리들이 일흔여든 쌍이나 둘러서 있었다. 태수는 곧 사람을 보내 연청을 제단 아래로 내려오게 하여 자기 앞으로 불러들였다. 태수는 연청의 화려한 문신(花繡)을 보자 마치 옥기등 위에 부드러운 비취 빛이 깔린 듯하여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이보게, 자네는 어디 사람인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연청이 대답했다. “소인은 성이 장(張)가요, 향렬이 첫째이며 산동 내주(萊州) 사람입니다. 임원이 천하의 사람들을 불러 씨름을 겨룬다기에 특별히 저자와 겨루러 왔습니다.” 지주(知州)가 말했다. “저 앞에 있는 안장 갖춘 말은 내가 내놓은 상품(利物)

으로 임원에게 줄 것이다. 산봉 위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주관하여 그 절반을 자네에게 나눠줄 터이니, 자네 둘이 나누어 가지게나. 그러면 내가 자네를 거두어 내 곁에 두고 키워주겠네.” 연청이 말했다. “나으리, 상품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자를 메다꽃아 못사람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환호성 한 번 듣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지주가 말했다. “저 자는 금강역사 같은 거구의 사내인데, 자네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연청이 말했다. “죽어도 원망이 없습니다.” 연청은 다시 제단 위로 올라가 임원과 겨룰 짝을 정하려 했다. 부서(部署, 심판)가 먼저 서약 문서를 요구하자, 연청은 품에서 씨름 시합의 규약(社條)을 꺼내어 한 번 읽었다. 부서가 연청에게 말했다. “알겠는가? 비겁한 암수는 쓸 수 없네.” 연청이 냉소하며 말했다. “저 자는 온갖 무장을 다 갖추었지만 나는 그저 이 막대기 하나뿐이니, 무엇으로 암수를 쓰겠소?” 태수가 다시 부서를 불러 일렀다. “저렇게 흰칠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참으로 아깝구나! 가서 저 자와의 시합을 비긴 것으로 처리해 주어라.” 부서가 즉시 제단 위로 올라가 연청에게 말했다. “이보게, 목숨을 보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내가 이 시합을 무승부로 처리해 주겠네.” 연청이 말했다. “참으로 사리를 모르는군요. 내가 이길지 질지 어찌 안단 말이오!” 구경꾼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호응했다. 수만 명의 향관이 양옆으로 갈라져 물고기 비늘처럼 촘촘히 늘어섰고, 회랑과 지붕 위까지 사람들이 가득 들어앉아 이 씨름판이 가려질까 염려될 지경이었다. 임원은 이때 연청을 당장 저 구만리 하늘 밖으로 던져버려 떨어뜨려 죽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했다. 부서가 말했다. “두 사람이 기여이 씨름을 하겠다 하니, 올해는 우선 이 한 판으로 성제께 바치는 시합을 삼겠다. 모두 조심하고 각자 정신을 차리도록 하라!” 제단 위에는 이제 세 사람뿐이었다. 이때 밤이슬은 모두 걷히고 아침 해가 막 떠오

르는데, 부서가 대나무 채를 들고 양편에 지시를 마친 뒤 외쳤다. “씨름을 시작하라!”

이 씨름은 한 번 오가는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분명히 가려야 했다. 말로 하면 더디지만 실제로는 번개같이 빨라, 마치 허공에서 별이 옮겨가고 번개가 치는 것과 같아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당시 연청은 오른쪽에 한 덩이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임원은 먼저 왼쪽에서 자세(門戶)를 잡고 섰는데, 연청은 도무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제단 위를 반씩 차지하고 가운데서 맞붙으려 했다. 임원은 연청이 움직이지 않자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압박해 왔고, 연청은 그저 임원의 하반신만 노려보았다. 임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분명 내 하체를 노리는구나. 두고 봐라, 나는 손쓸 것도 없이 발로 한 번 차서 이놈을 제단 아래로 떨어뜨려 주마.’ 임원이 점점 다가들며 왼발로 일부러 빈틈을 보이자, 연청이 “오지 마라!” 하고 외쳤다. 임원이 막 덮치려는 순간, 연청은 임원의 왼쪽 옆구리 아래로 빠져나갔다. 화가 난 임원이 급히 몸을 돌려 다시 연청을 잡으려 하자, 연청은 가볍게 한 번 뛰어 이번엔 오른쪽 옆구리 아래로 파고들었다. 거구인 임원은 몸을 돌리는 것이 끝내 둔하여, 세 번 자리를 바꾸는 사이 발걸음이 어지러워지고 말았다. 그 틈에 연청이 안으로 파고들어 오른손으로 임원을 틀어쥐고, 왼손을 임원의 사타구니 사이로 찢어 넣은 뒤, 어깨로 그의 가슴을 떠받쳐 임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임원은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가벼워진 채 중심을 잃었고, 연청은 그 힘을 빌려 네다섯 바퀴를 빙글빙글 돌려 제단 가장자리까지 몰고 가서는 “내려가라!” 하고 외쳤다. 그러고는 임원을 머리가 아래로, 다리가 위로 가게 하여 곧장 제단 아래

로 내던졌다. 이 기술을 바로 ‘발합선(鵝鵲旋, 비둘기 돌리기)’이라 하는데, 수만 명의 향관이 이를 보고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임원의 제자들은 스승이 패하는 것을 보자마자 먼저 산봉(山棚)을 거칠게 잡아당겨 무너뜨리고 상품들을 마구 가로챘다. 구경꾼들이 소란을 피우며 두들겨 패려 하자, 그 이삼십 명의 제자들이 제단 위로 난 입했는데, 지주(知州)로서는 도저히 이들을 제압할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서 이 난동에 화가 치민, 건드려선 안 될 태세(太歲) 같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흑선풍’ 이규였다. 이규는 부릅뜬 괴이한 눈을 둥그렇게 뜨고 범 수염을 거꾸로 곤두세웠다. 마침 손에 쥔 무기가 없었기에, 근처의 삼나무 말뚝을 파처럼 똑 꺾어 마치 삼나무 두 그루를 손에 쥔 듯 들고는 곧장 후려치며 달려들었다.

향관들 중에는 이규를 알아보는 이가 몇 명 있어, 그의 본명을 큰 소리로 불러댔다. 그러자 밖에 있던 관원들이 일제히 사당 안으로 들이닥치며 크게 외쳤다.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지부(知府)는 정수리에서 삼훈(三魂)이 달아나고 발밑에서 칠백(七魄)이 흩어지듯 혼비백산하여, 곧장 뒤쪽 전각으로 도망쳐 버렸다. 사방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에워싸자, 사당 안의 향관들도 제각기 달아났다. 이규가 임원을 보니 제단 옆에 까무러쳐 쓰러진 채 입으로 가쁜 숨만 겨우 내쉬고 있었다. 이규는 돌판 하나를 들어 임원의 머리를 박살 내버렸다. 두 사람(연청과 이규)은 사당 안에서 적들을 쳐내며 빠져나왔는데, 문밖에서 화살이 어지러이 쏘아져 들어오자 연청과 이규는 하는 수 없이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기와를 뜯어 마구 던지며 맞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찰 문 앞에서 함성이 드높게 울리더니, 누군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앞장선 이는 머리에 하얀 범양 전립을 쓰고 흰 비단 저고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든 사내였으니, 바로 북경의 '옥기린' 노준의였다. 그 뒤로는 사진, 목홍, 노지심, 무송, 해진, 해보가 따랐으니 (노준의까지) 모두 일곱 호걸이 천여 명을 이끌고 사찰 문을 박차고 들어와 지원에 나섰다. 이를 본 연청과 이규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곧장 대열을 따라 움직였다. 이규는 객점에 들러 쌍도끼를 챙겨 들고 다시 싸움에 합류했다. 이 관부에서 관군을 정비해 몰려왔을 때는 이미 호걸들이 멀리 떠난 뒤였다. 관병들은 양산박의 무리가 워낙 많아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감히 뒤쫓지 못했다.

한편, 노준의가 이규를 잘 챙겨서 데리고 돌아가라고 일렀으나, 반나절쯤 길을 가다 보니 또 이규가 보이지 않았다. 노준의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재앙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녀석이로구나. 반드시 사람을 시켜 저놈을 찾아 산으로 데려오게 해야겠다.” 그러자 목홍이 말했다. “제가 가서 저놈을 찾아 채로 데려오겠습니다.” 노준의가 대답했다. “그러는 게 좋겠네.”

한편, 노준의가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돌아간 사이, 이규는 쌍도끼를 손에 든 채 수장현까지 달려갔다. 마침 관아의 낮 업무가 끝날 무렵, 이규는 현청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안을 향해 크게 외쳤다. “양산박의 ‘흑선평’ 아버님이 여기 오셨다!” 그 소리에 현청의 관리들은 온몸이 마비된 듯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본래 수장현은 양산박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흑선평 이규’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린아이

의 밤울음이 똑 그칠 정도라는데, 하물며 그가 직접 눈앞에 나타났으니 어찌 겁이 나지 않겠는가!

그때 이규는 거침없이 달려가 지현의 의자에 털썩 앉더니, 입으로 크게 소리쳤다. “관리 놈들 돌쯤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안 나오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복도 안 방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상의했다. “몇 명이라도 나가서 응대해야지, 안 그러면 저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결국 아전 두 명이 대청으로 나와 네 번 절을 올리고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두령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분명 무슨 용무가 있으시겠지요.” 이규가 말했다. “이곳 사람들을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심심풀이로 들렀다. 네 지현을 불러내라, 그와 얼굴 좀 보게.” 지현을 부르러 간 두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다. “지현 어른께서 두령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뒷문으로 급히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는 믿지 않고 직접 뒷방으로 들어가 뒤져보았다. “두령님, 보세요. 저기 두건과 옷을 담은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규는 자물쇠를 비틀어 열고 복두(襜頭)를 꺼내 양옆의 전각(展角)을 펴서 머리에 썼다. 이어 초록색 관복(公服)을 입고 각대(角帶)를 둘렀다. 그러고는 검은 가죽신(阜靴)을 찾아내, 신고 있던 삼베신을 벗고 갈아 신은 뒤, 회간(槐簡, 관원이 드는 홀)을 손에 쥐고 대청앞으로 걸어 나가 크게 외쳤다. “이전(吏典)들은 모두 나와서 뵈거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응대했다. 이규가 물었다. “내가 이렇게 차려입으니 좀 어떠냐?”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주 제격이십니다.” 이규가 다시 말했다. “너희 영사(令史)와 지후(祗候) 같은 관원들은 모두 나를 따라 관아로 들어가야겠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현을 쑥 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람들은 그가 무서워 어쩔 줄 모르며, 공

리(公吏)들을 모아 아장(牙杖)과 골타(骨朵)를 받쳐 들게 하고 복을 세 번 올린 뒤 앞으로 나와 예를 올리게 했다. 이규는 허허 웃으며 또 말했다. “너희 중에서도 둘쫘은 고발하러 온 사람처럼 꾸며서 오너라.” 아전이 말했다. “두령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가 감히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규가 말했다. “사람들이 고발하러 오지 않는다면, 너희 중 둘이 고발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그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한번 장난을 치려는 것뿐이다.” 공리들이 잠시 상의하더니, 결국 옥졸 두 명에게 싸우는 척하며 고발하러 온 사람처럼 꾸미게 했다. 현문 밖의 백성들도 모두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두 사람이 대청 앞에 무릎을 꿇자, 한 사람이 고발했다. “나으리, 굶어살펴 주십시오. 저놈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고발했다. “저놈이 저를 욕하길래 제가 때린 겁니다!” 이규가 물었다. “누가 매를 맞은 놈이냐?” 고발한 사람이 말했다. “제가 맞은 사람입니다.” 이규가 다시 물었다. “그럼 누가 때렸느냐?” 맞았다는 상대가 말했다. “저놈이 먼저 욕을 해서 제가 때린 겁니다.” 이규가 말했다. “사람을 때린 놈이 진짜 호걸이니, 먼저 저놈을 보내주어라. 그리고 이 못난 놈은 어찌 매를 맞고도 가만히 있느냐? 저놈에게 칼(枷)을 씌워 관아 앞에서 망신을 주도록 해라.” 이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록색 관복을 추켜올려 여미고 회간을 허리춤에 찌른 뒤, 커다란 도끼를 뽑아 들었다. 그리고 칼을 썩운 그 고발인을 지켜보며 현문 앞에서 호령으로 내건 뒤, 입고 있던 옷과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현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규는 수장현 앞을 동쪽으로 저쪽으로, 서쪽으로 저쪽으로 휘젓고 다니다가, 문득 어느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는

휘장을 걷어치우고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그 모습에 놀란 훈장은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쳐 버렸다. 학생들은 울고, 소리 지르고, 도망치고, 숨기에 정신이 없었다. 이규는 크게 웃으며 밖으로 나오다가 마침 목홍과 마주쳤다. 목홍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너 때문에 아주 고생이 심한데, 너는 여기서 한가롭게 놀고 있느냐! 어서 산으로 돌아가자!”

이규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규는 그렇게 수장현을 떠나 곧장 양산박으로 달려갔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백성 다스리는 현령은 늘 사납게 날뛰고,
어릴 적 스승의 가르침마저 변변치 못했네.
마땅히 철우(이규)를 보내 두루 순행케 하였더니,
현청(琴堂)을 한바탕 휘젓고 서당까지 뒤흔들어 놓았네.

두 사람이 금사탄을 건너 양산박 진영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이규의 차림새를 보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충의당에 이르니 송강은 마침 연청과 함께 기쁜 일을 나누고 있었다. 이규는 초록색 관복을 내려놓고 쌍도끼도 챙겨 둔 채, 비틀거리며 당 앞으로 걸어와 회간을 손에 쥐고 송강에게 절을 올렸다. 그런데 두 번 절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 초록색 관복을 밟고 미끄러지며 바닥에 꼴사납게 고꾸라지고 말았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송강이 꾸짖으며 말했다.

“이놈, 네가 정말 겁도 없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게 몰래 산을 내려 가다니, 이젠 죽어 마땅한 죄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소란을 피우니, 오늘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겠다.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규는 연신 죄송하다고 대답하며 물러났다.

이후 양산박은 사람과 군마가 모두 평안하여 별다른 일 없이 지냈다. 매일 산채 안에서 무예를 가르치고 군마를 조련했으며, 물을 잘 다루는 자들은 배에 올라 익히게 했다. 각 산채에서는 무기, 전포, 갑옷, 창과 칼, 활과 화살, 방패와 쇠뇌, 깃발 등을 더 만들어 갖추었으니,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한편, 태안주에서는 지난 일을 갖추어 동경에 글로 아뢰니, 진주원(進奏院, 상주문을 관장하는 관청)에는 각 주·현에서 올라온 표문들이 거두어져 있었다. 그 내용은 모두 송강 일당이 반란을 일으켜 지방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황제(도군황제)는 한 달 동안이나 조정에 나와 정사를 보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아침 조회에서, 궁궐 문에 세 번 정편(靜鞭) 소리가 울려 퍼지자 문무 백관이 금계(金階)에 줄지어 섰다. 전두관(殿頭官, 조회를 전갈하는 관원)이 외쳤다. “보고할 일이 있는 자는 앞으로 나와 일찍 아뢰고, 별일 없는 자는 발을 걷고 물러가라!” 진주원경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신이 원(院)에서 각 주·현으로부터 거둬 올라온 표문을 받아보니, 모두 송강 등이 도적 떼를 이끌고 공공연히 부와 주로 곧장 쳐들어가 창고를 약탈하고 곳간을 노략하며 군민을 살해하되, 탐욕이 끝이 없어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조속히 토벌하지 않는다면 훗날 반드시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천자가 말했다. “지난 정월 대보름 밤에 이 도

적들이 도성까지 어지럽히더니, 이제는 또 각지로 가서 소란을 피우고 있구나. 하물며 그 근처의 주·군은 어떻겠느냐? 짐이 이미 여러 차례 추밀원에 군사를 내라 명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주(回奏)가 없구나.” 곁에 있던 어사대부 최정(崔靖)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양산박에는 ‘체천행도(替天行道)’라는 네 글자가 적힌 커다란 깃발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백성을 휘어잡는 술수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이미 그들에게 복종해 있으니, 함부로 군사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 요나라 군사가 국경을 침범하여 각지의 군마가 미처 막아 내지 못하고 있는 터에, 만약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려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저들은 산속으로 숨어든 망명객들로 모두 관의 형벌을 범하여 피할 길이 없으니, 산림에 모여들어 무도한 짓을 멋대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단조(丹詔) 한 통을 내리시고 광록사(光祿寺)로 하여금 어주(御酒)와 진수를 내리게 하며, 대신 한 명을 파견하여 양산박에 직접 가서 좋은 말로 어루만져 타이르고 초안하여 항복시킨다면, 이를 빌려 요나라 군사를 막을 수 있으니 공과 사가 모두 편할 것입니다. 부디 폐하께서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천자가 말했다. “경의 말이 매우 타당하며, 바로 짐의 뜻과 합치하오.” 이에 전전태위 진종선(陳宗善)을 사신으로 삼아, 단조와 어주를 받들어 가지고 양산박의 크고 작은 무리들을 초안하러 가게 하였다.

그날 조정에서 진종선 태위는 조칙(詔敕)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가 채비를 하였다. 이렇게 진종선 태위가 조서를 받들어 초안하러 가게 하니, 여기에는 까닭이 있어 이런 결말을 부르게 되었다. 곧, 향기로운 술이 도리어 몸을 태우는 약이 되고, 붉은 조서가 도리어 싸움을 부르

는 격문이 되는 것이었다. 필경 진종선 태위가 어떻게 송강을 초안하게 되는지는, 다음 회를 들어야 풀리리라.

제75회 — 활염라가 배를 뒤엎어 임금의 술을 훔치고, 흑선풍이 조서를 찢으며 흠차를 꾸짖다

活閻羅倒船偷御酒 黑旋風扯詔罵欽差

이야기는 이러하다. 진종선이 조서를 받들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축하를 건넸다.

"태위께서 이번에 길을 떠나시는 것은 첫째로 나라의 큰일을 맡으시는 것이요, 둘째로는 백성의 근심을 덜어주고 군사와 백성의 환란을 없애는 일입니다. 양산박 놈들은 충의를 중시하니, 그저 조정에서 조안(招安, 항복을 권유하여 살려줌)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태위께서 달콤한 말로 그들을 잘 달래고 정성껏 회유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이어가자, 태사부의 관리가 찾아와 말했다. "태사께서 태위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진종선은 가마에 올라 신송문 대가에 있는 태사부 앞까지 간 뒤 가마에서 내렸다. 관리는 그

를 곧장 절당 안의 서원으로 안내했고, 진종선은 태사를 뵈고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차를 마시는 일이 다 끝나자 채태사가 물었다.

"천자께서 그대를 양산박으로 보내 조안하라고 명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소. 특별히 당부할 말이 있어 불렀으니, 그곳에 가서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거나 국가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대는 논어에서 이르기를, '자기 행실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가히 사신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오."

진종선이 대답했다. "종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채경이 다시 말했다. "내가 이 관리를 그대와 동행시키겠소. 이 친구는 법도에 아주 밝으니, 그대가 혹여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옆에서 일러줄 것이오."

진종선이 말했다. "태사님의 두터운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종선은 태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관리를 데리고 태사부를 나와 가마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쉬고 있을 때, 문지기가 와서 고태위가 말에서 내렸다고 보고했다. 진종선은 황급히 나가 그를 맞이하여 대청에 모시고 앉힌 뒤, 안부를 묻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구가 말했다. "오늘 조정에서 송강을 조안하는 일을 논의하는데, 만약 고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반드시 반대했을 것ियो. 저 도적놈들은 조정에 수없이 모욕을 준 데다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제 와서 죄를 사해주어 도성 안으로 불러들인다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यो. 보고를 올리려 했으나 이미 천자의 명(玉音)이 내려졌으니,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겠소. 만약 저 도적놈들이 여전히 양심도 없이 성지를 소홀히 대한다면, 태위께서는 즉시 경성으로 돌아오시오. 제가 천자에게 아뢰어 대군을 정비한 뒤, 직접 가서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이 제 소원이요. 태위께서 이번에 가실 때, 제 휘하에 우후(虞候, 무관 직책) 한 명이 있는데 말솜씨가 아주 좋고 눈치도 빠르니, 태위께서 일을 처리하실 때 옆에서 잘 보좌하며 일러줄 것ियो."

진종선이 대답했다. "태위님을 걱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진종선은 그를 부 앞까지 배웅한 뒤, 말을 타고 떠났다.

다음 날, 채태사부의 장간반과 고태위부의 이우후가 모두 도착했다. 진종선은 말들을 매어두고 인원을 점검한 뒤, 어주(御酒) 열 병을 용봉담(龍鳳擔, 용과 봉황이 새겨진 짐반이)에 담아 메고 앞에는 황기를 끌었다. 진종선이 말을 타고 나서자, 대여섯 명의 수행원이 뒤를 따랐고 장간반과 이우후도 말을 탔다. 조서를 등에 메고 일행을 이끌며 신송문을 나섰다. 배웅하러 나왔던 관리들도 모두 돌아갔다.

길을 따라 계속 달려 제주에 이르렀다. 제주 태수 장숙야가 그들을 맞이하여 관아로 모시고 연회를 베풀어 대접하며, 조안에 관한 일을 물으니 진중선이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일러주었다.

장숙야가 말했다. "제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조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태위께서 그곳에 가시면 반드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시고, 달콤한 말로 그들을 달래어 잘해주든 못해주든 오로지 큰일을 성사시키는 데만 힘쓰셔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성격이 불같은 사내들이 몇 있으니, 만약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여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장간반과 이우후가 말했다. "저희 둘이 태위님을 모시고 갈 것이니 결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태수께서는 그저 조심하고 화기애애하게만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다가는 도리어 조정의 기강을 망치게 됩니다. 이런 하찮은 무리는 늘 눌러놓아야 하고 반 푼도 양보해선 안 됩니다. 그들이 머리를 쳐들도록 내버려두면 곧 기어올라 거드름을 피웁니다."

장숙야가 물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중선이 대답했다. "이 한 명은 채태사부의 간반이고, 이 한 명은 고태위부의 우후입니다."

장숙야가 말했다. "차라리 이 두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진종선이 말했다. "이들은 채 태사님과 고 태위님의 심복들이니, 데려가지 않으면 분명 의심을 살 것입니다."

장숙야가 다시 말했다. "제 말은 그저 일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것이니, 혹여 애만 쓰고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할까 걱정되어 그렇습니다."

장간반이 호기롭게 말했다. "저희 둘이 있으니, 물이 아무리 깊어도 한 방울도 새지 않을 것입니다."

장숙야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연회를 정성껏 대접한 뒤 그들을 관역(館驛, 관아의 숙소)에 모셔 쉬게 했다. 다음 날, 제주에서 먼저 양산박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다.

한편, 송강은 매일 충의당에 모여 사람들과 함께 군사 사정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미 첩자가 이 소식을 전해 왔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기에, 송강은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그날 제주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하급 관리가 충의당에 도착하여 말했다. "조정에서 이번에 진종선 태위를 보내 어주 열 병과 죄를 사하고 조안한다는 조서를 지참하게 하여 이미 제주 성안에 도착했으니, 여기서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술과 음식을 차리고, 비단 두 필과 은 열냥을 내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먼저 돌려보냈다. 송강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조안을 받아 나라의 신하가 된다면, 그동안 겪어온

그 수많은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이오! 오늘에야 비로소 결실을 보는구려!"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조안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조안한다 해도 우리를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저자가 장수와 대군을 이끌고 오면 독한 수를 써서 사람을 죽이고 말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꿈속에서도 벌벌 떨게 만들어야 그때서야 조안을 받아들이는 맛이 있고 기개가 서는 법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대들이 자꾸 그렇게 말한다면 '충의'라는 두 글자를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오."

임충이 말했다. "조정의 귀한 관리가 올 때면 얼마나 거드름과 허세를 부리겠습니까. 그 속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승이 이어서 말했다. "조서에는 분명 우리를 겁주려는 위협적인 말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서녕이 또 말했다. "오는 자는 분명 고태위의 휘하 인물일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대들 모두 의심하지 말고, 그저 조서를 맞이할 준비에만 힘쓰시오."

먼저 송청과 조정에게 연회 준비를 맡기고, 시진에게는 모든 일의 조율을 맡겨 반드시 아주 정갈하게 차려내도록 했다. 태위가 앉을 자리

를 마련하고 오색 비단을 깔았으며, 대청 위아래로 비단 장식과 꽃을 달아 화려하게 꾸몄다. 먼저 배선, 소양, 여방, 광성을 보내 산 아래 이십 리 밖 길목에서 미리 마중 나가게 했다. 수군 두령들은 큰 배를 준비하여 강가에 대기하게 했다. 오용이 명령을 내렸다. "모두 내 말에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것이다."

한편, 소양은 세 명의 수행원과 대여섯 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술과 과일만을 챙겨 이십 리 밖에서 마중을 나갔다.

그날 진종선 일행은 이동 중에 장간반과 이우후가 말을 타지 않고 말 앞에서 걸어갔는데,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이 어찌 이백, 삼백 명뿐이겠는가. 제주의 군관들도 십여 명이나 말을 탔고, 앞에는 길을 안내하는 인원들이 늘어서 있었다. 용봉담 안에는 어주가 담겨 있었고, 말을 탄 이들은 조서 상자를 등에 메고 있었다. 제주의 옥졸들도 앞뒤로 쉴에서 예순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양산박으로 들어가 작은 부귀라도 누려보길 기대하고 있었다.

소양, 배선, 여방, 광성은 길 중간에서 이들을 맞이하며 길가에 엎드려 영접했다. 그러자 장간반이 다짜고짜 물었다. "너희 그 송강이라는 자가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냐? 황제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어찌 직접 마중을 나오지 않는단 말이나? 이는 참으로 황제를 기만하는 행위다! 너희 같은 무리는 본래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어찌 감히 조정의 조안을 받으려 하느냐? 당장 태위님을 모시고 돌아가거라!"

소양, 배선, 여방, 곽성은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며 말했다. "지금까지 조정에서 산채로 조서를 보낸 적이 없어 아직 확실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송강과 크고 작은 두령들은 모두 금사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태위님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시고 국가의 큰일을 성사시키는 데 힘써주시며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우후가 말했다. "큰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 해도, 너희 같은 도적 떼가 하늘 높이 날아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참언이 생겨남은 예부터 그러했으니,
소인은 매사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법이라.
구천의 은혜로운 비가 이제 막 내려졌건만,
안타깝게도 조안이 온전치 못함이 애석하구나.

그때 여방과 곽성이 말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사람을 이토록 업신여기신단 말입니까!"

소양과 배선은 그가 술과 과일을 가져가려 해도 받지 않고 먹으려 해도 거절하자, 그저 간곡히 청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뒤를 따라 물가에 이르니, 양산박에서는 이미 세 척의 전선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 척에는 말들을 싣고, 한 척에는 배선 일행을 태웠으며, 나머지 한 척은 태위와 그 수행원 일행을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먼저 조서와 어주를 배 머리에 싣었다. 그 배는 바로 '활염라' 완소철이 감독하고 있었다.

그날 완소칠은 배 끝에 앉아 스무 명 남짓한 군졸들에게 노를 저으라 이르고, 각자 허리에 칼을 하나씩 차게 했다. 진중선 태위는 배에 처음 올랐을 때 위풍당당하게 한가운데에 앉아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양 거드름을 피웠다. 완소칠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 노를 젓게 하자, 양옆의 사수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우후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 천한 것들아! 귀한 분이 여기 계시거늘 어찌 이리 겁도 없이 구느냐!" 하지만 사수들은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노래를 부를 뿐이었다. 화가 난 이우후가 등나무 채찍을 들어 양옆의 사수들을 때렸으나, 사람들은 전혀 겁내는 기색이 없었다. 그중 우두머리 격인 몇 명이 대꾸했다. "우리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뿐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이우후가 소리쳤다. "죽여도 다 못 죽일 반역자 놈들이 감히 내게 말대답을 하다니!" 그러고는 다시 채찍질을 해대자, 양옆의 사수들은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렸다.

배를 몰던 완소칠이 말했다. "내 수하들을 저렇게 물속으로 다 쫓아 버리면, 이 배를 어떻게 움직인단 말이요?"

그때 상류 쪽에서 빠른 배 두 척이 다가와 마중을 나왔다. 알고 보니 완소칠이 미리 두 선창에 물을 채워 두었다가, 뒤따라오는 배가 가까워지자 마개를 뽑아버리며 "배에 구멍이 났다!"라고 외친 것이었다. 물이 순식간에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사람들이 급히 구조를 요청하자 배 안에는 이미 한 자가 넘는 물이 차올랐다.

마침 다가온 두 척의 배가 옆으로 붙자, 사람들은 서둘러 진종선 태위를 다른 배로 옮겼다. 다들 배를 안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서 조서와 어주를 챙길 겨를조차 없었다. 그사이 두 척의 빠른 배는 먼저 떠나갔다.

완소칠이 사수들을 불러 배 안의 물을 퍼내고 천을 가져와 닦아내게 하더니, 사수에게 말했다. "너는 얼른 어주 한 병을 가져오너라. 내가 먼저 맛을 좀 봐야겠다." 한 사수가 술통에서 술 한 병을 꺼내와 마개를 풀고 완소칠에게 건넸다. 완소칠이 그것을 받아 코를 대니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다. 완소칠이 말했다. "혹시 독이 들었는지 모르니, 내가 먼저 조금 맛을 보마." 그는 그릇도 바가지도 없어 병째로 들이켜 단숨에 비웠다.

완소칠이 한 병을 비우고는 말했다. "제법 맛이 좋구나." 한 병으로 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시 한 병을 가져오게 하여 또 단숨에 마셔버렸다. 술맛에 입이 당겨 연달아 네 병을 비웠다. 완소칠이 물었다. "이거 어쩐다?" 사수가 대답했다. "배 끝에 백주 한 통이 있습니다." 완소칠이 말했다. "물 길는 바가지를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도 맛을 보여주마." 그러고는 남은 어주 여섯 병을 모두 사수들에게 나누어 주어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대신 시골 막걸리 같은 멀건 백주 열 병을 채워 넣고, 원래의 봉인 마개를 다시 묶어 용봉담 안에 담았다. 그러고는 마치 날아갈 듯이 노를 저어 금사탄에 도착하니, 마침 딱 맞춰 상륙할 수 있었다.

송강 일행이 모두 그곳에서 마중을 나왔다. 향과 꽃, 등불과 촛불을 밝히고 징과 북을 울렸으며, 산채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풍악까지 한데 어우러져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어주는 탁자 위에 차려 놓았는데, 탁자 하나를 네 사람이 들게 했다. 조서 또한 탁자 하나에 받쳐 들었다. 진종선 태위가 상륙하자 송강 일행이 다가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송강이 말했다. "얼굴에 자자(刺字)한 미천한 아전이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귀한 분을 이토록 욕되게 하고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우후가 나섰다. "태위께서는 조정의 귀한 대신이신데, 여러분을 초안(招安)하러 오신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어찌 이런 구멍 난 배를, 사정을 모르는 저 천한 도적 놈들에게 맡겨 귀한 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좋은 배가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 구멍 난 배로 귀한 분을 모시겠습니까?"

장간반도 거들었다. "태위의 옷자락이 여전히 젖어 있는데, 어찌 발뺌을 하려 드는가!"

송강의 뒤에는 오호장 다섯 명이 좌우를 빈틈없이 지키고 있었고, 앞뒤로는 팔표기장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이우후와 장간반이 송강의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이래라저래라 샅대질하는 것을 보자, 호걸들은 모두 저놈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다만 송강 한 사람이 걸려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참을 뿐이었다.

그날 송강은 태위를 가마에 모시게 하였으나, 조서를 낭독하기 위해 가마에 오르도록 권한는 데만 네다섯 번을 거듭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말 두 필을 끌어와 장간반과 이우후에게 각각 한 필씩 타게 했다. 이 두 놈은 제 분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역겹게 거들먹거리며 위세를 부려 댔다. 송강은 겨우 그들이 말에 올라타 길을 떠나게 한 뒤, 사람들에게 북과 징을 크게 울리며 삼관(三關)까지 영접하라고 명했다.

송강 일행 백여 명의 두령들은 모두 그 뒤를 따라 충의당 앞까지 행차하였고, 그곳에서 일제히 말에서 내려 태위를 당 안으로 모셨다. 정면에는 어주와 조서 상자가 놓였고, 진종선 태위와 장간반, 이우후는 왼쪽에 섰으며 소양과 배선은 오른쪽에 섰다. 송강이 두령들의 인원을 점검하니 백일곱 명 중 이규 한 사람만 보이지 않았다. 때는 4월이라 모두 겹비단 전포(夾羅戰襖)를 입고 당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조서 낭독을 공손히 기다렸다. 진종선 태위가 조서 상자에서 조서를 꺼내 소양에게 건넸다. 배선이 예법에 맞춰 의식을 진행하자 장수들이 절을 올렸고, 소양이 조서를 펼쳐 높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조서에 이르기를,

"문(文)은 나라를 평안케 하고, 무(武)는 나라를 다스린다. 오제(五帝)는 예악(禮樂)을 바탕으로 영토를 다스렸고, 삼황(三皇)은 살벌한 힘을 써서 천하를 평정하였다. 세상일은 순리대로 흐르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며, 사람에게는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있기 마련이다. 짐은 조종의 위대한 업을 이어받아 해와 달처럼 빛나는 세상을 열었으니, 온 천하의 백성이 짐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근래에 너희 송강 일당이 산림에 모여들어 군읍을 약탈하고 있으니, 본래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너희를 토벌하려 하였으나, 자칫 백성들을 고생시킬까 진정으로 염려하였다. 이에 태위 진종선을 보내 너희를 조안하려 하니, 조서가 도착하는 즉시 마땅히 내놓아야 할 돈과 곡식, 무기, 말과 배를 모두 관청에 바치고, 너희의 근거지를 허물고 일제히 도성으로 올라가라. 그리하면 본래의 죄를 면해주겠다.

만약 끝내 양심을 저버리고 조서의 명령을 어긴다면, 천병(天兵)이 들이닥치는 순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뿌리 뽑을 것이다. 이에 조서를 내려 공포하니, 마땅히 이를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라."

선화 3년 초여름 4월, 조서를 내리노라.

소양이 조서를 다 읽자마자, 송강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다. 그때 '흑선풍' 이규가 대들보 위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소양의 손에서 조서를 낚아채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곧장 진종선을 붙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송강과 노준의가 급히 몸을 날려 이규를 붙들고 늘어지니, 도무지 놓아줄 기색이 없었다.

겨우 이규를 떼어놓았을 때, 이우후가 호통을 쳤다. "이놈은 누구길래 이토록 대담하게 구느냐!"

마침 화풀이할 대상을 찾던 이규는 머리부터 이우후를 덥석 움켜쥐고는 매질을 시작하며 소리쳤다. "이 조서에 적힌 말은 대체 누구의 말이냐!"

그러자 장간반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 그것은... 황제의 성지입니다."

이규가 맞받아쳤다. "네놈의 그 황제라는 자는,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어떤 이들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조안을 하겠다고 덤벼들다니, 아주 기가 차는구나! 네 황제의 성이 송씨라면 우리 형님도 성이 송씨다. 네놈이 황제를 할 수 있다면, 왜 우리 형님은 황제를 하면 안 된단 말이냐! 감히 우리 흑선풍 어르신을 노엽게 하지 마라. 차라리 조서를 쓴 관리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테니!"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만류하며 '흑선풍' 이규를 강당 아래로 밀어냈다.

송강이 말했다. "태위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주(御酒)를 가져와 모두가 그 은혜를 입게 합시다."

송강은 곧 보석을 박아 넣은 금꽃 술잔을 가져오게 한 뒤, 배선에게 어주 한 병을 가져오라 명했다. 배선이 술을 은색 술그릇에 들이부었으나, 살펴보니 그것은 그저 맹물 같은 촌락의 탁주일 뿐이었다. 이어 나머지 아홉 병을 모두 따서 술그릇에 부어보아도, 모두 똑같이 맛이 밍밍한 탁주였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여 하나둘씩 강당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노지심은 철선장을 치켜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빌어먹을 놈들!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감히 물을 술이라 속여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 들다니!"

'적발귀' 유당도 박도를 꼬나 잡고 달려들었으며, '행자' 무송은 쌍계도를 뽑아 들었다. '몰차란' 목홍과 '구문룡' 사진까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여섯 명의 수군 두령도 모두 욕설을 퍼부으며 관(關)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송강은 급히 앞을 가로막으며 서서 서둘러 명령을 내렸다. 그는 태위가 다치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가마와 말을 준비시켜 산 아래로 호송하게 했다. 이때 사방에서 크고 작은 두령들 태반이 소란을 피우며 달려들고 있었다.

송강과 노준의는 직접 말을 타고 나서 태위와 조서를 든 관리 일행을 거느리고 삼관(三關)까지 호송했다. 그러고는 엿드려 죄를 청하며 말했다. "저희 송강 등이 항복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조서를 쓴 관리들이 우리 양산박의 사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선한 말로 저희를 달래준다면, 저희는 기꺼이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할 것이며 만 번 죽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태위께서 조정으로 돌아가시면 부디 좋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강 일행은 서둘러 나루터를 건너 보냈다. 조정을 모시는 관리 일행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한 채 제주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다.

한편, 송강은 충의당으로 돌아와 다시 두령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었다. 송강이 말했다. "비록 조정의 조서가 불분명하긴 했으나, 너희들도 너무 성급하게 굴었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형님,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초안을 받는 데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어찌 형제들이 분노한 것을 탓하겠습

니까? 조정이 사람을 너무 도외시킨 탓입니다!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는 모두 접어두고, 형님께서는 어서 명령을 내려 마군은 말들을 매어 채비하고, 보군은 병기를 정비하며, 수군은 배를 점검하게 하십시오. 머지않아 반드시 대군이 몰려와 토벌하려 들 것입니다. 한두 번 싸워 적들을 사람은 죽고 말은 쓰러져 한 조각 갑옷도 돌아가지 못하게, 꿈에서도 벌벌 떨도록 혼쭐을 내준 다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령들이 모두 말했다. "군사의 말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날 연회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막사로 돌아갔다.

한편, 진종선은 제주로 돌아가 양산박에 조서를 전한 일을 장숙야에게 보고했다. 장숙야가 물었다. "혹시 그쪽에서 무슨 말이라도 함부로 내뱉은 것 아닙니까?"

진종선이 대답했다. "제가 어찌 감히 한마디라도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러자 장숙야가 말했다. "그렇다면 애써 마음을 쓰기만 하고 일을 그르친 꼴이 되었군요. 태위께서는 서둘러 경성으로 돌아가 성상께 보고하십시오.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진종선과 장간반, 이우후 일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경성으로 돌아와 채태사를 알현하고, 양산박 도적들이 조서를 찢고 모욕을 준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채경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했다. "이

무도한 도적 놈들이 감히 이토록 무례하게 굴다니! 당당한 송나라 조정에서 어찌 저런 무리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둔단 말이나!"

진종선이 울며 말했다. "태사님의 은덕이 아니었다면, 소관은 이미 양산박에서 뼈를 묻었을 것입니다! 오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와 다시 은사님을 뵙습니다!"

태사는 즉시 추밀사 동관과 고태위, 양태위를 불러 모두 상부로 오게 하여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상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태사부의 백호당으로 모였다. 관리들이 자리에 앉자, 채태사는 장간반과 이우후를 불러 양산박이 조서를 찢고 모욕한 일을 상세히 말하게 했다.

양태위가 물었다. "그 도적 놈들을 조안하는 것에 대해 어찌 결정했습니까? 애초에 어떤 관리가 이 일을 보고했습니까?"

고태위가 말했다. "그날 내가 조정에 있었다면 반드시 막았을 텐데, 어찌 그런 일을 허락했겠습니까!"

동관이 말했다. "쥐새끼처럼 도둑질이나 하는 놈들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미천한 재주나마 제가 직접 군마 한 부대를 이끌고 나가, 때를 맞춰 날을 잡으면 양산박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관리들이 모두 말했다. "내일 조정에 보고하도록 합시다."

말을 마친 뒤 모두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 관리들이 세 번 만세를 외치고 군신 간의 예법을 마치자, 채태사가 나아가 천자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천자가 크게 노하여 물었다.

"그날 누가 과인에게 조안을 주장하여 보고하였느냐?"

신하인 급사중이 대답했다. "그것은 어사대부 최정이 말한 것입니다."

천자는 즉시 최정을 잡아 대리사로 보내 죄를 물으라고 명했다. 이어 천자가 채경에게 물었다.

"저 도적 놈들이 해를 끼친 지 오래되었으니, 누구를 보내 소탕하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채태사가 아뢰었다. "중병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신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반드시 추밀원 관리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가서 소탕해야만 단번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자는 추밀사 동관을 불러 물었다. "경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양산박의 도적 놈들을 잡아들이겠는가?"

동관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효도는 힘을 다해야 하고 충성은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기꺼이 개나 말처럼 힘을 다해 마음속의 근심거리를 제거하겠습니다."

고구와 양전 또한 모두 동관을 추천했다.

천자는 즉시 성지를 내려 금인과 병부를 하사하고, 동청추밀사 동관을 대원수로 삼았다. 또한 각지에서 군마를 선발하여 불러 모으게 한 뒤, 양산박의 도적 놈들을 소탕하러 나갈 날을 택하여 출정하도록 명했다.

시로 이르되, 단상에 올라 팔을 걷어붙이며 원수라 칭송받더니, 패배하여 돌아올 때는 눈썹을 찌푸린 어린아이 꼴이 되리라.

결국 동관 추밀사가 어떻게 출정하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6회 — 오가량이 사두오방기를 펼치고, 송공명이 구궁팔괘진을 펼치다

吳加亮布四斗五方旗 宋公明排九宮八卦陣

이야기는 이러하다. 추밀사 동관은 천자의 명을 받아 천자 통군대원 수직을 맡게 되자, 곧장 추밀원으로 달려가 병부(兵符)를 발송하고 군사를 소집했다. 동경 관할의 여덟 군주(軍州)에서 각각 만 명씩의 군사를 뽑아 올리게 하고, 본부의 병마도감(兵馬都監)이 이를 총괄하여 이끌도록 했다. 또한 경사(京師)의 어림군(御林軍) 중에서 2만 명을 선발하여 중군을 수호하게 했다. 추밀원 아래의 모든 사무는 부추밀사가 맡아 처리하게 했다. 어영(御營)에서는 두 명의 명장을 선발하여 좌우익군(翼軍)으로 삼았다. 호령이 내려진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준비가 완비되었다. 이어지는 군량 수송 또한 고태위가 사람을 보내 재촉하며 관리했다. 그 여덟 길에서 모여드는 군마는 이러하였다.

수주 병마도감 봉거

정주 병마도감 진저

진주 병마도감 오병이

당주 병마도감 한천린

등주 병마도감 이명

등주 병마도감 왕의

여주 병마도감 마만리

승주 병마도감 주신

어영(御營)에서 엄선한 좌우익의 양호한 장수 두 명을 중군으로 삼았으니, 그 두 사람은 이리하다.

어전비룡대장 품미

어전비호대장 필승

동관은 중군을 잡아 주帥(주수)가 되었으니, 크고 작은 삼군에 이르기까지 호령이 빈틈없이 갖춰졌다. 무기고에서는 군기를 꺼내어 준비하고 길일을 택해 출정하기로 하였다. 고태위와 양태위는 잔치를 베풀어 출정을 격려하였고, 조정에서도 중서성(중앙 행정 기구)을 통해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기로 하였다.

한편, 동관은 이미 장수들을 거느리고 다음 날 먼저 선봉 부대를 성 밖으로 내보낸 뒤, 천자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는 말에 올라 신조문을 나눴다. 5리쯤 떨어진 정자에 이르니, 고태위와 양태위가 이미 여러 관리들을 거느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관이 말에서 내리자 고태위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동관에게 말했다. “추밀상공께서 이번 길에 반드시 조정에 큰 공을 세워, 조속히 승전보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도적 놈들이 물가에 숨어 있으니, 우선 사방의 군량을 끊고 진영을 견고히 하여 적을 산 아래로 유인한 뒤에 병사를 몰아쳐야 합니다. 그때 한 놈도 빠짐없이 생포해 온다면 조정의 부름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관이 대답했다. “가르침을 깊이 새겨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술을 다 마시자 양태위도 다가와 잔을 잡으며 동관에게 말했다. “추밀상공께서는 평소 병서를 많이 읽어 병법에 밝으시니, 저 도적들을 소탕하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울 것입니다. 다만 저 도적들이 물가에 숨어 있어 지형이 불리하니, 상공께서 그곳에 도착하시면 반드시 좋은 계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관이 말했다. “소관이 그곳에 도착하면 형편을 살펴 대처할 것이니, 자연히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고태위와 양태위는 함께 술을 권하며 축하했다. “도성 밖에서 승전보가 들려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마친 뒤 각자 말에 올라탔다. 각 관청의 관리들이 배웅을 나왔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었다. 가까이서 배웅하는 자도 있고 멀리까지 따라가는 자도 있었으나, 그들이 차례로 도성으로 돌아갔음은 말할 것도 없다.

대소 삼군이 일제히 진격하니 각 부대의 대열이 매우 엄정했다. 전군 네 부대는 선봉이 총괄하여 행군하고, 후군 네 부대는 후장군이 감독하였으며, 좌우 여덟 길의 군마는 날개와 깃발을 든 부대들이 독려하며 뒤따랐다. 동관은 중군을 장악하고 어림군(황제 직속 부대) 만 이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총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어영에서 엄선했던 정예병들이었다. 동관이 채찍을 휘두르며 군사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니, 군기가 어찌나 정연한지 다음과 같았다.

병사는 아홉 부대로 나뉘었고, 깃발은 다섯 방위에 늘어섰다.

녹침창, 점강창, 아각창이 사방에 펼쳐지니 눈부신 광채가 번뜩였고, 청룡도, 언월도, 안령도가 가득하니 하늘을 찌를 듯한 살기가 넘실거렸다. 작화궁, 철태궁, 보조궁은 날치 주머니 속에 꽂혀 있었고, 사호전, 남아전, 유엽전은 사자 모양 호리병 속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화차노, 칠말노, 각등노는 전군에 가득 배치되었으며, 개산부, 언월부, 선화부는 중대를 바짝 뒤따랐다. 죽절편, 호안편, 수마편은 모두 팔꿈치 위에 매달려 있었고, 유성추, 계심추, 비조추는 각자 몸 곁에 차고 있었다. 방천극은 표범 꼬리처럼 휘날렸고, 장팔모는 구슬이 엮여 어지러이 빛났다. 용무늬가 새겨진 검은 가을 물결처럼 번뜩였고, 호랑이 머리 모양의 패에는 봄구름이 흐르는 듯했다.

선봉은 용맹하여 산을 깎아 길을 내는 정예병을 거느렸고, 원수는 영웅답게 물을 끊고 다리를 끊는 장사들을 통솔하였다. 좌군 통군과 우군 통군은 원대한 담력을 떨쳤으며, 원哨(원초) 말과 근哨(근초) 말들은 위풍당당하게 달렸다. 천지를 흔드는 북소리는 산악을 뒤흔들고, 햇빛에 비친 깃발은 귀신조차 피하게 할 듯 장엄하였다.

그날 동관은 동경을 떠나 계속해서 진군하였고,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 이미 제주의 경계에 다다랐다. 태수 장숙야가 성 밖까지 나와 영접하니, 대군은 성 외곽에 주둔하였다. 동관은 가벼운 기병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 주아(관청)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장숙야는 동관을 정중히 당상으로 모셨고, 문안 인사를 마친 뒤 그 앞에 시립하였다.

동관이 말했다. “물가에 숨어든 초적 놈들이 선량한 백성을 살해하고 상인들의 행렬을 습격하는 등, 저지르는 악행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주 토벌을 시도했으나 적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세력만 키워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십만 대군과 백 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왔으니, 하루빨리 산채를 소탕하고 도적 놈들을 잡아 백성들을 안심시키고자 합니다.”

장숙야가 대답했다. “추밀상공, 저 도적들은 물가에 숨어 있습니다. 비록 산림에 숨어든 광도들이라 하나, 그중에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한 자들이 많습니다. 부디 노여움에 치우쳐 군사를 몰아 급하게 진격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계책을 써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동관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다들 당신 같은 나약한 필부들뿐이군! 칼날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겁내며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니, 도적들의 세력이 이토록 커진 것이 아니오! 내가 이제 이곳에 왔는데 무엇이 두렵겠소!”

장숙야는 감히 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동관은 곧바로 성 밖으로 나갔고, 이튿날 대군을 몰아 양산박 근처에 진을 쳤다.

한편, 송강 일행은 이미 며칠 전부터 첩자를 보내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송강과 오용은 마치 무쇠통을 맞대고 의논하듯 철저하게 계책을 세워두었으니, 그저 대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들은 모든 장수에게 방을 붙여 각자 계책을 엄격히 따르되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명하였다.

한편, 동관은 군사를 배치하면서 수주 병마도감 단봉거를 정선봉으로, 정주 도감 진저를 부선봉으로 삼았다. 또한 진주 도감 오병이를 정합후로, 허주 도감 이명을 부합후로 삼았으며, 당주 도감 한천린과 등주 도감 왕의 두 사람을 좌초로, 여주 도감 마만리와 송주 도감 주신 두 사람을 우초로 삼았다. 여기에 용호 두 장수 품미와 필승을 중군의 날개로 배치하였다. 동관은 원수로서 대군을 총괄하며, 갑옷을 갖추어 입고 직접 군사를 감독하였다.

전투 북소리가 세 번 울리자 모든 군사가 일제히 일어났다. 십 리도 채 못 가서 먼지가 일어나는 곳을 보니, 적군의 정찰대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방울 소리가 울리며 서른 명 남짓한 기병이 다가오는데, 모두 푸른색 두건을 쓰고 초록색 전투복을 입었으며, 말에는 모두 붉은 술을 매달고 양옆에는 수십 개의 구리 방울을 달아 놓았다. 말 뒤에는 꿩 깃털을 꽂았고, 모두 은으로 장식한 가는 자루의 긴 창과 가벼운 활, 짧은 화살을 갖추고 있었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누구이며, 차림새는 어떠한가?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창은 까마귀 뿔처럼 휘어 있고, 칼은 뱀 가죽 무늬가 새겨져 있다. 금실로 수놓은 두건은 불두청색이며, 자수가 놓인 전투복은 앵무새 같은 초록빛이다. 허리에는 진보라색 비단 띠를 맸고, 다리에는 부드러운 향피로 만든 바지를 입었다. 조각된 안장 뒤로는 비단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데, 그 안에는 장수를 때려눕힐 돌이 들어 있다. 전마 옆에는 구리 방울이 뽁뽁이 달려 있고, 뒤에는 바람을 가르는 펑 깃털이 꽂혀 있다. 표기장군 몰우전 장청이 경찰대의 선두로 나서고 있었다.

말을 타고 다가오는 장수의 깃발에는 "순초 도두령(巡哨都頭領·정찰대 총두령) 몰우전 장청"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왼쪽에는 공왕이, 오른쪽에는 정득손이 호위하며 경찰대를 이끌고 동관의 군대 앞까지 곧장 달려왔다. 거리는 불과 백여 보 정도로 멀지 않았으나, 장청은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서더니 곧바로 되돌아갔다. 전군 선봉의 두 장수는 군령이 떨어지지 않자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소식을 중군에 보고하였다. 주수인 동관이 직접 군대 앞으로 나아와 살폈으나 아직 다 보지 못했을 때, 장청이 다시 한번 경찰을 나왔다. 동관이 사람을 보내 추격하여 싸우게 하려 하자, 좌우의 장수들이 말했다. "저 자의 안장 뒤 비단 주머니에는 돌멩이가 가득 들어 있는데, 던졌다 하면 빗나가는 법이 없으니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장청은 세 차례나 경찰을 반복했으나 동관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돌아갔다.

채 5리도 가지 못해 산등성이 너머에서 징 소리가 울리더니, 어느새 오백 명의 보병이 나타났다. 그 선두에는 네 명의 보병 두령이 서 있었

으니, 바로 '흑선풍' 이규, '혼세마왕' 번서, '팔비나타' 향충, '비천대성' 이곤이었다. 그들이 곧장 달려오는데,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모두가 호랑이처럼 건장하고 늠름한 체구였다. 앞선 두 명은 흉악한 별의 신령 같고, 뒤따르는 두 명은 살기를 뿜어내는 요괴 같았다. 이규는 양손에 쌍도끼를 들었고, 번서는 허리에 용천검을 차고 있었다. 향충은 옥발을 가진 산에 무늬가 그려진 방패를 들었고, 이곤은 금빛 해치를 그려 넣은 방패를 들고 있었다. 오백 명의 군사는 진홍색 옷에 붉은 저고리를 입었으며, 한 무리는 붉은 깃발과 붉은 술로 장식되어 있었다. 푸른 산속에서 마물 무리가 튀어나오니, 마치 녹림 속에서 삼매의 불길이 치솟는 듯하였다.

그 오백 명의 보병은 산비탈 아래에 일렬로 늘어섰고, 양옆으로는 단패를 일제히 세워 진을 쳤다. 앞서 군대를 이끌던 동관이 이 광경을 보고 옥주미(玉麈尾, 옥 자루에 짐승 털을 단 총채로, 지휘·의장용으로 쓰던 도구)를 한 번 휘두르자, 대군이 기세 좋게 돌격해 나갔다. 이규와 번서는 보병을 이끌고 두 갈래로 나뉘어, 모두 만패(蠻牌, 방패)를 거꾸로 쥐고 산기슭을 돌아 달아났다.

동관의 대군이 산 어귀를 벗어나자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 나타났다. 동관은 군마를 정렬하여 진을 쳤으나, 멀리서 이규와 번서가 고개를 넘고 숲을 가로지르는 모습만 보일 뿐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동관은 중군에 나무를 엮어 높이 쌓은 장대(將臺, 장수가 진을 지휘하는 높은 대)를 세우고, 법관(法官, 깃발로 진법을 지휘하는 군관) 두 명을 올려보냈다. 그들은 좌우로 깃발을 흔들며 일제히 솟구쳤다 내려오기를 반복하며 사문두저진(四門斗底陣, 네 개의 문을 중심으로 한 진법)을 펼

쳤다. 진형이 막 갖춰지자 산 뒤편에서 포성이 울려 퍼지더니, 뒷산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 나왔다.

동관은 좌우에 명령을 내려 전마들을 한데 모으게 하고는 장대 위에서 상황을 살폈다. 그러자 산 동쪽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몰려나오는데, 첫 번째 부대는 붉은 깃발, 두 번째 부대는 오색찬란한 채색 깃발, 세 번째 부대는 푸른 깃발, 네 번째 부대는 다시 오색 채색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다. 동시에 산 서쪽에서도 한 무리의 인마가 몰려왔다. 첫 번째 부대는 오색 채색 깃발, 두 번째 부대는 흰 깃발, 세 번째 부대는 다시 오색 채색 깃발, 네 번째 부대는 검은 깃발을 들었으며, 그 깃발 뒤쪽은 모두 황색 깃발로 채워져 있었다. 대부대의 장수와 병사들이 급히 몰려와 중앙을 점령하더니, 그 안에 일제히 진을 펼쳤다. 멀리서 볼 때는 그 모습이 어렴풋했으나, 가까이서 보니 그 형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남쪽에서 몰려오는 이 인마는 모두 불꽃 같은 붉은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으며, 장수와 병사들은 붉은 갑옷에 붉은 도포를 입고 붉은 갈기를 늘어뜨린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맨 앞에서는 인군(引軍, 부대를 이끄는 깃발)의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데, 깃발 위쪽에는 금색으로 남두육성이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주작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붉은 깃발 사이로 한 명의 대장이 솟아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았다.

투구 위 붉은 장식은 바람에 흩날리고, 붉은 도포 위에는 꽃이 천 송이 피었네.

사자 무늬 허리띠는 자줏빛 옥 장식으로 묶었고, 사자 머리 갑옷은 황금 사슬을 드러냈네.

늑대 이빨 모양 몽둥이에는 철 못이 줄지어 박혔고, 용의 기운 서린 말은 온몸이 붉은 빛에 싸였네.

붉은 깃발은 하늘 끝까지 노을처럼 휘날리니, 남쪽의 뜨거운 불의 기운을 품었구나.

깃발에는 "선봉대장 벽력화 진명"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좌우에는 두 명의 부장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왼편에는 "성수장" 선정규가, 오른편에는 "신화장" 위정국이 자리했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병기를 손에 쥐고 붉은 말을 탄 채 진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동쪽 벽에서 몰려오는 이 인마 또한 모두 푸른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으며, 장수와 병사들은 푸른 갑옷에 푸른 도포를 입고 푸른 갈기를 늘어뜨린 푸른 말을 타고 있었다. 맨 앞에서는 인군의 푸른 깃발이 나부끼는데, 깃발 위쪽에는 금색으로 동두사성이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청룡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푸른 깃발 사이로 한 명의 대장이 솟아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았다.

쪽빛 두건은 눈부시게 빛나고, 비취색 도포에는 꽃이 한 무더기 피었네.

갑옷은 짐승 무늬 고리들을 잇고, 보검은 용이 옥을 삼키듯 번뜩이네. 푸른 말은 온몸에 꽃무늬가 가득하고, 전투복은 앵무새 빛깔로 몸을 감싸네.

푸른 구름 깃발 흔들리니 먼 산이 밝아오고, 동방의 갑을목 기운이 바로 여기 있네.

깃발에는 "좌군대장 대도 관승"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좌우에는 두 명의 부장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왼편에는 "추군마" 선찬이, 오른편에는 "정목간" 학사문이 자리했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병기를 손에 쥐고 푸른 말을 탄 채 진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서쪽 벽에서 몰려오는 이 인마 또한 모두 흰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으며, 장수와 병사들은 흰 갑옷에 흰 도포를 입고 흰 갈기를 늘어뜨린 흰 말을 타고 있었다. 맨 앞에서는 인군의 흰 깃발이 나부끼는데, 깃발 위쪽에는 금색으로 서두오성이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백호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흰 깃발 사이로 한 명의 대장이 솟아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았다.

아득한 찬 구름이 달을 감싸 안고,
배꽃 만 송이 겹겹이 쌓인 보석 같네.
하얀 비단 옷은 번쩍이며 빛나고,
찬 은빛 갑옷은 서늘한 기운 가득하네.
서리 맞은 준마를 타고 사자처럼 달리며,
흰 창을 쥐고 초록빛 창끝을 겨누네.
눈처럼 하얀 깃발이 한 무리 휘날리니,
서방의 금 기운을 다스리고 있구나.

깃발에는 "우군대장 표자두 임충"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좌우에는 두 명의 부장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왼편에는 "진삼산" 황신이, 오른편에는 "병위지" 손립이 자리했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병기를 손에 쥐고 흰 말을 탄 채 진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한 무리의 인마는 모두 검은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으며, 장수와 병사들은 검은 갑옷에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갈기를 늘어뜨린 검은 말을 타고 있었다. 맨 앞에서는 인군의 검은 깃발이 나부끼는데, 깃발 위쪽에는 금색으로 복두칠성이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현무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검은 깃발 사이로 한 명의 대장이 솟아나오는데,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위풍당당하게 땅을 덮으며 먹구름이 일고,
 철기군과 강궁의 기세는 비길 데 없구나.
 검은 관복은 용과 호랑이 같은 몸을 감싸고,
 검은 갑옷은 승냥이 같은 몸에 걸쳐 있네.
 채찍은 두 갈래 검은 용처럼 휘둘러지고,
 말은 먹물을 뿌리듯 천 리를 달리는구나.
 칠성기가 흔들리니 현무가 요동치고,
 북방의 물 기운을 바로 다스리는도다.

깃발에는 "함후대장 쌍편 호연작"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좌우에는 두 명의 부장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왼편에는 "백승장" 한도가, 오른편에는 "천목장" 팽기가 자리했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병기를 손에 쥐고 검은 말을 탄 채 진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한편, 동남쪽 문

근처의 깃발 그림자 사이로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는데, 푸른 깃발을 휘날리고 장수와 병사들은 붉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맨 앞에서는 인군의 수놓인 깃발이 나부끼는데, 깃발 위쪽에는 금색으로 손괘가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비룡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깃발 사이로 한 명의 대장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갑옷 입고 도포 휘날리며 전장으로 나서니, 손에는 두 자루 창을 쥐었
구나.

난봉 무늬 새긴 활은 화살통에 꽂고, 보검은 상어가죽 칼집 안에 감추
었네.

안개 같은 옷자락에 노란 비단띠 두르고, 말은 하늘로 솟구치며 보랏빛
고삐를 흔드네.

푸른 깃발과 붉은 불꽃이 용과 뱀처럼 꿈틀대니, 홀로 동남쪽 손방(巽
方)을 지키고 있네.

깃발에는 "호군대장 쌍창장 동평"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좌우
에는 두 명의 부장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왼편에는 "마운금시" 구봉이,
오른편에는 "화안산예" 등비가 자리했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병기를
손에 쥐고 전마를 탄 채 진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한편, 서남쪽 문
근처의 깃발 그림자 사이로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는데, 붉은 깃발을
휘날리고 장수와 병사들은 흰 갑옷을 입고 있었다. 맨 앞에서는 인군의
수놓인 깃발이 나부끼는데, 깃발 위쪽에는 금색으로 곤괘가 새겨져 있
고 아래쪽에는 비룡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

다 깃발 사이로 한 명의 대장이 나타나는데,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앞장서 솟구쳐 나오는 영웅 장수,
 늠름한 위풍은 기상을 더하네.
물고기 비늘 같은 철갑은 몸을 짝 조이고,
 봉황 날개 닮은 금투구는 목을 단단히 보호하네.
 물결을 가르는 전마는 용의 형상 같고,
 산을 가를 듯한 큰 도끼는 활의 모양이라.
붉은 깃발과 하얀 갑옷은 불타는 구름처럼 날아오르니,
 정확히 서남쪽 땅을 굳건히 지키고 있구나.

깃발에는 "표기대장 급선봉 삭초"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좌우에는 두 명의 부장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왼편에는 "금모호" 연순이, 오른편에는 "철적선" 마린이 자리했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병기를 손에 쥐고 전마를 탄 채 진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한편, 동북쪽 문 근처의 깃발 그림자 사이로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는데, 검은 깃발을 휘날리고 장수와 병사들은 푸른 갑옷을 입고 있었다. 맨 앞에서는 인군의 수놓인 깃발이 나부끼는데, 깃발 위쪽에는 금색으로 간괘가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비표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깃발 사이로 한 명의 대장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호랑이처럼 안장에 앉아 기세가 드높으니, 활을 당겨 화살을 쏘으면 귀
신도 겁에 질리네.

붉은 줄 달린 모자와 은빛 덮개는 칼날을 가리고, 털실 장식과 금빛 방
울은 말 옆에 매달렸네.

투구 위 화려한 꽃들은 붉게 어우러지고, 갑옷 사이로 돌아난 버드있
모양 장식은 푸르게 빛나네.

검은 깃발과 푸른 갑옷은 먼지 속에서 빛나는데, 동북쪽 하늘 산맥 아
래 북동쪽 관문을 지키네.

깃발에는 "표기대장 구문룡 사진"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좌우
에는 두 명의 부장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왼편에는 "도간호" 진달이,
오른편에는 "백화사" 양춘이 자리했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병기를 손
에 쥐고 전마를 탄 채 진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한편, 서북쪽 문 근
처의 깃발 그림자 사이로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는데, 흰 깃발을 휘
날리고 장수와 병사들은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맨 앞에서는 인군의
수놓인 깃발이 나부끼는데, 깃발 위쪽에는 금색으로 건괘가 새겨져 있
고 아래쪽에는 비호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
다 깃발 사이로 한 명의 대장이 나타나는데,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말 울음소리 바람을 가르고 화려한 안장과 굴레가 번뜩이는데,

갑옷의 층층이 겹친 날개는 검은 안개처럼 자욱하구나.

호리병 속에는 은빛 화살이 숨겨져 있고,

물고기 모양 주머니 안에는 무거운 철궁이 들어있네.

갑옷 가장자리엔 푸른 실로 쌍봉황이 수놓아졌고,
칼날 위에는 금빛 꽃과 작은 용이 새겨져 있구나.
검은 갑옷 위로 하얀 깃발 한 뭉치 휘날리니,
하늘 문 북서쪽이 바로 하늘의 궁궐이라네.

깃발에는 "표기대장 청면수 양지"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좌우에는 두 명의 부장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왼편에는 "금표자" 양림이, 오른편에는 "소패왕" 주통이 자리했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병기를 손에 쥐고 전마를 탄 채 진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팔방으로 배치된 진영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철통과도 같았으며, 진영의 문 안쪽으로는 기병은 기병의 대열을, 보병은 보병의 대열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병사들은 저마다 강철 칼과 큰 도끼, 넓은 검과 긴 창을 들고 깃발을 가지런히 세운 채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그 팔진(八陣)의 중앙을 한 바퀴 둘러보니, 온통 살구빛 황색 깃발이 가득했고 그 사이사이로 예순네 개의 긴 깃발이 꽃혀 있었다. 깃발 위에는 금색으로 육십사괘가 새겨져 있었으며, 진영 또한 사방의 네 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남쪽 문은 모두 기병이 지키고 있었는데, 정남쪽의 황색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똑같은 차림을 한 두 명의 상장이 나타났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구리 징 소리에 꽃 같은 북소리 섞여 들고,
웅성웅성 모여든 이들 대오를 이룬다.
금박 입힌 갑옷과 붉은 황토색 도포,
비단 덧댄 전투복은 해바라기처럼 춤춘다.

진영 중심 두 기병은 용처럼 기세 좋고,
진 안의 두 사람은 호랑이처럼 용맹하다.
주변에는 살구색 깃발이 둥글게 둘러싸고,
한가운데는 오행의 중심을 굳건히 지킨다.

그 두 명의 상장은 모두 황색 말에 올라타 있었는데, 위쪽에는 "미엄공" 주동이, 아래쪽에는 "삼시호" 뇌횡이 자리했다. 한 무리의 인마(人馬)가 모두 황색 깃발에 황색 도포, 구리 갑옷, 황색 말, 황색 말갈기로 통일되어 있었다. 중앙 진영의 네 문을 살펴보니, 동문에는 "금안표" 시은이, 서문에는 "백면낭군" 정천수가, 남문에는 "운리금강" 송만이, 북문에는 "병대충" 설영이 지키고 있었다. 그 황색 깃발들 한가운데에는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한다(替天行道)"라고 적힌 살구빛 황색 깃발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깃대에는 네 가닥의 비단 줄이 묶여 있었고 건장한 군사 네 명이 이를 팽팽하게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의 말 위에는 깃발을 지키는 장사가 한 명 서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한지 다음과 같았다.

금색 실로 수놓은 물고기 꼬리 모양 관을 쓰고,
용의 비늘 같은 갑옷은 비단옷을 지켜주네.
늠름한 몸집은 한 길이나 되니,
중군에서 황색 깃발을 굳건히 지키도다.

깃발을 지키는 이 장사는 바로 "험도신" 육보사였다. 그 황색 깃발 뒤편으로는 대포 거치대들이 무리 지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포수 "굉천뢰" 능진이 부하 스무여 명을 거느리고 거치대 주변을 에워싸고 있

었다. 거치대 근처에는 장수를 사로잡기 위해 준비한 갈고리와 밧줄 같은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갈고리병들 뒤로는形形色색의 깃발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주위로는 일곱 겹의 포위망을 형성한 수비병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사방에는 스물여덟 개의 수놓은 깃발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금색으로 이십팔수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비단을 두툼하게 수놓고 진주로 테두리를 두른 뒤, 아래에는 금방울을 달고 꼭대기에는 꿩 깃털을 꽂은 담황색(거위 빛 노랑)의 "수(帥)" 자 깃발이 우뚝 솟아 있었다. 깃발을 지키는 장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바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갑옷 비스듬히 매고,
붉은 비단 두건에는 꽃가지 꽂았구나.
하늘 찌를 듯한 살기에 감히 범접할 수 없으니,
중군을 지키며 장수 깃발을 굳게 세웠네.

깃발을 지키는 이 장사는 바로 "물면목" 초정이었다. 그 "수(帥)" 자 깃발 곁에는 깃발을 호위하는 장수 두 명이 전마를 타고 나란히 서 있었는데, 차림새는 모두 같았다. 그들은 강철 창을 손에 쥐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있었으니, 한 명은 "모두성" 공명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독화성" 공량이었다. 그들 앞뒤로는 낭아봉을 든 철갑 군사 스물네 명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 뒤로는 전투용 수놓은 깃발 두 개가 꽃혀 있었고, 양옆으로는 방천화극 스물네 자루가 배치되어 있었다. 왼쪽의 화극 숲 사이로는 한 명의 용맹한 장수가 모셔져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하늘 바람 속 말 안장 위에 우뚝 서 있으니,
 갑옷은 눈부시게 빛을 뿜어낸다.
기린 무늬 허리띠는 늠름한 허리를 감싸고,
해치 무늬 가슴 가리개는 호랑이의 기세를 닮았다.
 관 위의 명주는 새벽별처럼 박혀 있고,
 칼집 속 보검은 가을 물결을 머금었구나.
방천화극은 눈과 서리처럼 차갑게 빛나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금전 장식은 표범의 꼬리 같도다.

수놓은 깃발에는 "소온후" 여방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오른쪽의 화극 숲 사이로도 한 명의 용맹한 장수가 모셔져 있었는데,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삼차보관은 구슬로 찬란히 빛나고,
두 갈래 핏 깃털은 비단처럼 화려하구나.
 감빛 전복은 은거울을 가리고,
 버들빛 치마는 수놓은 안장을 누르네.
 허리띠는 물범 가죽으로 두르고,
 가슴 갑옷에는 작은 고리들이 걸렸네.
 손에는 그림 같은 방천화극을 들고,
 금전 달린 오색 깃발은 휘날리네.

수놓은 깃발에는 "새인귀" 광성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두 명의 장수가 각각 화극을 들고 말 양옆에 서 있었고, 화극 사이

에는 강철 삼지창 한 묶음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로 두 명의 보병 용맹한 장수가 똑같은 차림새로 서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한지 다음과 같았다.

호랑이 가죽 모자와 표범 가죽 속곳을 차려입고

금실로 세밀하게 짠 갑옷을 덧입었네.

손에는 강철 삼지창이 번뜩이며 빛나고

허리춤의 날카로운 칼은 서늘한 기운을 뿜네.

한 명은 "양두사" 해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쌍미갈" 해보였다. 두 형제는 각각 세 갈래 연꽃 모양 삼지창을 들고 보병 부대를 거느린 채 중군을 호위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비단 안장을 얹은 말 두 필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공을 세우거나 죄를 지은 자를 다스리고 상벌을 결정하는 문관 두 명이 타고 있었다. 왼쪽에 탄 이는 검은 사모에 흰 비단 옷을 입고 가슴에는 화려한 수를 놓았으며, 붓놀림이 용과 뱀처럼 거침 없는 양산박의 문안 담당 소양, 즉 "성수서생" 소양이었다. 오른쪽에 탄 이는 초록 비단 수건에 검은 비단 옷을 입었으며, 기운은 무지개를 뚫을 듯하고 마음은 가을물처럼 맑은 양산박의 이사 담당 호걸, "철면 공목" 배선이였다. 이 두 사람의 뒤로는 자줏빛 옷을 입고 절(節)을 든 관리들이 스물네 명 서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마찰도(麻扎刀)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그 칼날의 숲 사이로는 형을 집행하는 망나니 두 명이 비단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한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한 명은 붉은 꽃무늬 가죽 옷을 입고 허리를 조였고,
 한 명은 비단 옷에 화려한 색을 입고 다리를 드러냈네.
 한 명은 금빛 찬란한 쌍환창으로 짐승을 덮치고,
 한 명은 머리띠 곁에 꽃가지가 어우러져 있네.
 한 명은 흰 비단 옷으로 고운 몸을 감싸고,
 한 명은 검은 옷소매 사이로 푸른 빛이 드러나네.
 한 명은 모래 먼지 속에서 귀신 잡는 법도를 휘두르고,
 한 명은 손에 물과 불의 곤봉을 짝 쥐고 있네.

위쪽은 "철비박" 채복이었고, 아래쪽은 "일지화" 채경이었다. 두 형제는 진영 앞에 서 있었으며, 좌우에는 모두 칼을 치켜든 호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 뒤편 양옆으로는 스물네 자루의 금창과 은창이 늘어서 있었는데, 한쪽 편마다 한 명의 대장이 영도하고 있었다. 왼쪽의 열두 자루 금창대 안을 보니, 한 명의 용맹한 장수가 말을 옆으로 비껴 탄 채 금창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비단 안장 얹은 준마와 보랏빛 실 고삐,
 금빛 꽃가지 머리말에 살포시 닿아 있네.
 새 그림 그려진 활은 초승달처럼 걸려 있고,
 용천검은 가을 서리처럼 차갑게 매달렸네.
 앵무새 깃털 같은 초록빛 수놓은 도포와
 버들잎처럼 노란빛 가볍게 만든 갑옷이라.

머리 위 장식 꽃은 붉게 빛나고
손에는 금실 감은 철창을 쥐고 있구나.

이 용맹한 장수는 바로 양산박의 "금창수" 서녕이었다. 오른쪽의 열두 자루 은창대 안을 보니, 한 명의 용맹한 장수가 은창을 손에 든 채 말에 비껴 앉아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촉나라 비단 안장과 보배로운 등자가 빛나고,
다섯 빛깔 준마는 말방울 소리 맑게 울리네.
호랑이 힘줄로 만든 활시위와 조각된 활은 단단하며,
제비 꼬리 모양 화살은 깃이 길게 뻗었구나.
초록 비단 도포엔 금빛 공작이 수놓아져 있고,
붉은 띠를 두르니 자줏빛 원앙이 보이네.
금빛 갑옷은 군데군데 겹으로 드러나고,
손에는 은빛 실로 감은 철창을 쥐었구나.

이 용맹한 장수는 바로 양산박의 "소이광" 화영이었다. 양쪽 진영에는 모두 풍채가 좋고 위엄 있는 두 장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금창수와 은창수들은 모두 검은 비단 수건을 머리에 둘렀고, 귀 옆에는 비취 잎과 금꽃을 꽂아 장식했다. 왼쪽의 열두 명의 금창수는 초록색 옷을 입었고, 오른쪽의 열두 명의 은창수는 자줏빛 옷을 입었다. 그들 뒤편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호위병들이 짝을 지어 늘어섰으며, 꽃무늬 모자도 쌍을 이루고, 도포는 겹겹이 층을 이루며 비단 저고리는 촘촘히 장식되어 있었다. 양옆의 진영에는 푸른 깃발과 비취색 휘장이 드리워

졌고, 붉은 깃발과 검은 덮개, 노란 월(黃鉞)과 흰 모우 깃발(白旄), 청평검(靑萍)과 자전검(紫電) 같은 명검들이 늘어서 있었다. 양쪽 줄에는 스물네 자루의 월부(鉞斧)와 스물네 쌍의 강철 채찍과 쇠몽둥이(鞭撻)가 놓여 있었다. 진영 중앙에는 금칠을 한 세 개의 우산이 일렬로 펼쳐져 있었고, 수놓은 안장을 엮은 준마 세 필이 서 있었는데, 그 정중앙 말 앞에 두 명의 영웅이 서 있었다. 왼쪽의 장사는 참으로 용모가 뛰어나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였다. 《서강월(西江月)》 사(詞)로 이를 증명하니,

머리띠 옆에는 핑 깃털 하나 꽂고, 허리띠 아래에는 구리 방울 네 개 달았네.

노란 비단 저고리는 금빛으로 번쩍이고, 수놓은 치맛자락은 옷과 잘 어울리네.

작은 버선에 삼베 신발 신은 발은 하얗고, 다리 보호대는 짙은 푸른색이라네.

깃발에 새겨진 '령' 자는 신속한 걸음을 뜻하니, 백 리 길도 순식간에 달려가리라.

이 사람은 바로 양산박에서 전령 업무를 맡아 빠르게 달리는 두령, "신행태보" 대종이었다. 그는 황색 바탕에 '령(令)' 자가 수놓아진 깃발을 손에 들고, 대군 사이를 오가며 군사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병력을 배치하며 각종 군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그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오른쪽의 장사는 차림새가 매우 뛰어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으니, 참으로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갈색 승복 위로 비단 안감이 가득하고,
푸른 머리띠에는 금실이 온통 수놓아졌네.
귀밑에는 고운 꽃 한 송이 꽃아 화사하고,
구슬 반지는 눈부신 빛을 발하네.
붉은 구슬 수놓은 치마로 몸을 감싸고,
하얀 비단 허리띠를 둘렀으니,
날랜 활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나,
수만 대군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네.

이 사람은 바로 양산박의 풍류를 아는 멋쟁이이자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두령, "랑자" 연청이었다. 그는 등에 강궁을 메고 날카로운 화살을 쏘는 채, 눈썹 높이까지 오는 긴 곤봉을 손에 들고 중군을 전담하여 호위하고 있었다. 중군 쪽을 멀리 바라보니, 오른쪽의 금칠을 한 청색 비단 우산 아래 수놓은 안장을 엮은 말 위에 도덕이 높은 고수이자 이름난 도사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뜻대로 하는 관에는 옥비녀와 비취 붓이 꽂혀 있고,
붉은 비단 옷은 학이 노닐 듯 노을빛 속에 춤추네.
불꽃처럼 붉은 구슬 신발은 복사꽃에 비치고,
허리에 찬 옥 장식은 쟁강거리며 비스듬히 매달렸네.
등에는 암수 쌍검을 메고,
칼집 속에서는 은은한 빛이 배어 나오네.

푸른 비단 양산은 높이 솟은 대장기(牙旗)를 에워싸고,
자줏빛 말 위에는 정교한 안장이 얹혀 있구나.

이 사람은 바로 양산박에서 바람과 비를 부르고 귀신을 부릴 만큼
법력이 뛰어난 진정한 도사, "입운룡" 공손승이었다. 그는 말 위에 앉
아 등에 두 자루의 보검을 메고 손으로는 자색 비단 고삐를 짊 쥐고 있
었다. 중군 왼쪽의 금칠을 한 청색 비단 우산 아래, 수놓은 안장을 얹은
말 위에 앉아 있는 지략이 뛰어나고 승리를 이끄는 군사 오룡이 보였
다. 그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흰 옷에 검은 비단 띠 두르고
보랏빛 실 끈에 푸른 옥 고리 걸었네
손에는 부채 들고 하늘의 문을 흔드니
머리에는 부드러운 관을 썼구나
옷 속에 은빛 갑옷 몰래 입고
말 안장 위에 듬직하게 앉았네
허리춤에는 구리 사슬 한 쌍 늘어뜨리니
문무를 겸비한 스승의 모습이로다

이 사람은 바로 양산박에서 병법에 능통하고 군사 기밀을 다루는 데
탁월하며, 도가 높은 군사, "지다성" 오룡이었다. 그는 말 위에서 손에
깃털 부채를 들고 허리에는 두 줄의 구리 사슬을 차고 있었다. 정중앙,
금칠을 한 붉은 비단 우산 아래, 조야옥사자(照夜玉獅子)라는 이름의
금빛 안장을 얹은 명마 위에는 인덕과 의리를 두루 갖춘 통군 대원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오직 다음의 모습만이 보였다.

봉황 날개 투구는 금빛 보석으로 높이 솟았고,
온몸의 갑옷은 용의 비늘처럼 촘촘히 엮였네.
비단 도포에는 봄꽃이 무리 지어 피어 있고,
허리춤에 찬 칼은 번뜩이며 빛을 뿜어내네.
비취색 수놓은 바지와 털실로 짠 바지 입고,
옥처럼 영롱한 허리띠에는 기린이 새겨졌구나.
진주 장식 우산은 붉은 구름처럼 펼쳐지니,
천강의 으뜸가는 영웅이 진영 앞에 서 있도다.

이 사람은 바로 양산박의 우두머리이자 제주 윤성현 사람인, 산동의 "급시우"이자 "호보의" 송강이었다. 그는 온몸을 단단히 무장하고 스스로 보검을 차고 있었으며, 금빛 안장을 엮은 백마를 타고 중군에 서서 전투를 감독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커다란 창과 긴 창들이 늘어서 있고, 수놓은 안장을 엮은 준마들도 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서른에서 쉰 명에 달하는 아장(牙將, 대장 휘하의 부장)들이 모두 군마를 타고 장창을 손에 든 채 활과 화살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그의 뒤편에는 스물네 개의 화각(畫角, 뿔나팔)과 각종 군북(軍鼓) 및 악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진영 뒤흘쪽에는 두 부대의 유병(遊兵, 기동 부대)을 양옆에 배치하여 호위하게 했다.

중군의 좌익은 "물차란" 목홍이 "소차란" 목춘과 형제를 거느리고 마보군(馬步軍, 기병과 보병) 천오백 명을 관리하며 버티고 있었다. 우익

은 "적발귀" 유당이 "구미구" 도종왕을 이끌고 마보군 천오백 명을 거느린 채 양옆에 매복해 있었다. 후진에는 또 하나의 음병(陰兵) 부대가 있었는데, 말 위에 앉은 세 명의 여두령을 호위하며 따르고 있었다. 가운데는 "일장청" 호삼랑이었고, 왼쪽은 "모대충" 고대수, 오른쪽은 "모야차" 손이랑이었다. 진의 맨 뒤를 막아 호위하는 것은 그들의 세 남편이었으니, 가운데는 "왜각호" 왕영, 왼쪽은 "소위지" 손신, 오른쪽은 "채원자" 장청이었으며, 이들이 모두 마보군 삼천 명을 총괄했다. 그 진세가 실로 예사롭지 않았으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겉으로는 팔괘를 나누고, 안으로는 구궁의 원리를 맞추었다. 천지의 기틀을 점하고, 풍운의 기상을 움켜쥐었도다. 앞뒤로는 거북과 뱀의 형세를 늘어놓았고, 좌우로는 용과 호랑이의 형상을 나누었으니, 병정(丙丁)의 기운이 앞으로 나아감은 마치 만 갈래의 불길이 산을 태우는 듯하고, 임계(壬癸)의 기운이 뒤를 따름은 마치 한 조각 검은 구름이 땅을 덮는 듯하구나. 왼쪽의 기세는 푸른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휘감고, 오른쪽의 기세는 하얀 빛줄기가 꿰뚫어 지나간다. 중앙에는 금빛 노을이 가득하고, 황도(黃道)는 무기(戊己)의 원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 사방에는 이십팔수(二十八宿)의 구분이 있고, 주위에는 육십사괘(六十四卦)의 변화가 휘돌아간다. 구불구불하게 움직일 때는 대열이 뒤엉켜 마치 긴 뱀과 같고, 정연하게 늘어서 있을 때는 고요함 속에 위엄이 서려 마치 엮드린 호랑이와 같도다. 기병은 한 번 돌진하면 거침 없이 뚫고 나가고, 보병은 때로는 뒤로 물러났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간다. 팔진(八陣)을 성공시켰다 자랑할 것도, 육도(六韜)로 승리했다고 떠벌릴 것도 없다. 공명이 묘책을 펼치고, 이정이 신기한 병법을 펼친 것과 같을 뿐이다.

추밀사 동관은 진영 안의 장대 위에 서서 양산박의 병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산박 군사들이 구궁팔괘의 진세를 펼쳐자, 기세등등한 군마와 용맹한 호걸들, 장수와 병사들의 위용에 동관은 혼비백산하여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는 설 새 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에 잡아들이러 온 관군이 왜 대패하여 돌아갔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과연 이토록 무시무시할 줄이야!” 한참을 낮을 잃고 바라보던 중, 송강의 군영에서는 전투를 재촉하는 징과 북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동관은 장대에서 내려와 전마에 올라탄 뒤, 전군 선봉 장수들에게 물었다. “누가 감히 나가서 싸우며 말을 트겠느냐?” 그러자 선봉대에서 맹장 한 명이 몸을 날려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왔다. 그는 말 위에서 몸을 굽혀 동관에게 보고했다. “소장이 가겠나이다. 부디 명령을 내려 주옵소서.” 그는 바로 정주 도감 진저였다. 백포에 은빛 갑옷을 입고 푸른 말에 붉은 술을 드리웠으며, 커다란 대간도(大桿刀)를 휘두르며 부선봉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동관이 군중의 금고(金鼓)와 기발 아래에서 북을 세 번 울리게 하고, 장대 위에서 붉은 깃발을 휘둘러 병마를 움직이라 명했다. 진저가 깃발 아래를 지나 말을 타고 진영을 나서자, 양측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진저는 말을 멈춰 세우고 도를 가로로 뉘어 든 채 매섭게 외쳤다. “어찌하여 근본 없는 도적놈들이 천명을 거스르는 미친 무리가 되었느냐! 천군(天兵)이 여기까지 당도했거늘 아직도 항복하지 않다니, 너희의 뼈와 살이 진흙이 될 때까지 버티다가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송강의 정남쪽 진영에 있던 선봉 두령이자 호랑이 같은 장수인 진명이 말을 타고 진영을 나섰다. 그는 별다른 말도 없이 낭아곤을 휘두르며 곧장 진저를 향해 돌진했다. 두 마리의 말이 마주치고 병기가 맞부딪쳤다. 한 명은 곤을 휘둘러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한 명은 도를 휘둘러 얼굴을 가로

질러 베려 했다. 두 장수가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으며 스무 합 넘게 싸웠다. 그러다 진명이 일부러 빈틈을 보여 진저가 공격해 들어오게 유도했다. 진저가 도를 휘둘렀으나 허공을 가르고 말았다. 진명은 그 기세를 몰아 곤을 높이 들어 올린 뒤 내리쳤고, 진저의 투구와 머리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진저는 말 아래로 고꾸라지며 즉사했다. 진명의 두 부장인 선정규와 위정국이 말을 타고 돌진해 나와, 먼저 진저의 좋은 말을 빼앗아 진명에게 달려갔다.

동남쪽 문 깃발 아래에서는 호랑이 같은 장수 "쌍창장" 동평이 진명이 첫 공을 세우는 것을 보고 말 위에서 생각했다. ‘대군의 기세가 이미 올랐으니, 지금 당장 달려가 진영을 뚫고 동관을 사로잡는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겠는가!’ 동평이 크게 외치니 마치 진영 앞에 벼락이 치는 듯했다. 그는 양손에 창 두 자루를 쥐고 말의 옆구리를 쳐서 곧장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이를 본 동관은 급히 말을 돌려 중군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남쪽 문 깃발 아래에서는 표기장 "급선봉" 삭초 역시 외쳤다. “지금 당장 동관을 잡는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겠는가!” 그는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진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중앙에 있던 진명은 양옆에서 들이닥치는 적들을 보고 자신의 부대 붉은 깃발을 흔들어 군마를 움직였고, 일제히 진영 안으로 돌격하여 동관을 잡으려 했다. 과연 검은 독수리들이 자줏빛 제비를 쫓고, 맹호 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격이었다.

결국 추밀사 동관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7회 — 양산박의 십면매복, 송공명이 동관을 두 번 이기다

梁山泊十面埋伏 宋公明兩贏童貫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날 송강의 진영에서 선봉에 선 세 부대 군마가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도끼를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몰아붙였고, 이에 동관의 삼군 인마는 대패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였고,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 군사들은 금불이를 내팽개치고 복을 버려둔 채, 창과 극을 내던지며 살길을 찾아 헤맸다. 서로 형님 아우를 부르며 울부짖는 사이 만여 명의 병사가 죽거나 다쳤고, 겨우 서른 리 밖까지 밀려나서야 진을 칠 수 있었다. 이때 오용이 진중에서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게 하며 명령을 내렸다. "아직은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지 마라. 적에게 전령을 보내 소식만 살짝 전해두어라." 양산박의 인마는 모두 산채로 돌아갔고, 장수들은 각자 세운 공을 보고하며 상을 청했다.

한편, 동관은 한 차례 패하여 인마를 잃자, 서둘러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며 근심과 답답함에 잠긴 채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풍미와 필승 두 장수가 말했다.

"추밀사께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 도적놈들이 관군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이런 진형을 짜놓은 것입니다. 관군이 처음 도착하여 적의 허실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도적들의 간계에 빠진 것뿐입니다. 저 도적들은 그저 산세를 등에 업고 군마를 많이 배치하여 기세를 부린 것에 불과하니, 잠시 지리적 이점을 잃었을 뿐입니다. 우리 장졸들을 다시 정비하고 사흘간 휴식을 취하며 기운을 돋우고 말들을 쉬게 합시다. 사흘 뒤에 모든 장수와 군사를 장사진(長蛇之陣, 뱀처럼 길게 늘어선 진법)으로 나누어 모두 보병으로 적을 치러 갑시다. 이 진법은 마치 긴 산등성이의 뱀과 같아서,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응답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응답하며, 중간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모두 응답하여 연락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진법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울 것입니다."

동관이 말했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구나. 내 생각과 딱 맞다."

동관은 즉시 장령을 내려 삼군을 정돈하고 훈련을 시작하도록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오경(새벽 3시~5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마친 장수와 군사들은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렸다. 말들은 가죽 갑옷을 두르고 병사들은 철갑을 입었으며, 도끼와 칼을 휘두를 준비를 마친 채 활과 노에는 시위를 걸었다. 창과 칼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움직이고 인마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대장 풍미와 필승이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

고 위풍당당하게 양산박을 향해 들어섰다. 여덟 갈래로 나뉜 군마가 좌우로 갈라져 나갔고, 앞서 삼백 명의 철갑 초마(哨馬, 정찰용 기병)를 보내 길을 살피게 했다. 초마들이 돌아와 동관의 중군에 보고하기를, "지난번 싸웠던 전장에는 군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동관은 그 말을 듣고 의구심이 생겨, 전군을 향해 풍미와 필승에게 물었다. "퇴각하는 형편은 어떠한가?" 풍미가 대답했다. "퇴각할 생각은 마십시오. 그저 거침없이 몰아치기만 하면 됩니다. 장사진을 짜 놓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관군은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양산박 호수 가에 이르렀으나, 정말로 군마를 단 한 마리도 볼 수 없었다. 다만 물 건너편으로 아득히 펼쳐진 갈대밭과 안개만이 보일 뿐이었다. 멀리 바라보니 양산박 산 정상에 살구색 깃발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동관과 풍미, 필승은 만 명의 군사 앞에서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섰다. 그때 건너편 수면 위 갈대숲 사이로 작은 배 한 척이 보이는데, 배 위에는 한 사람이 푸른 샷갯을 쓰고 초록색 도룡이를 걸친 채 배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강 건너편을 등지고 홀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동관의 보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그 어부에게 소리쳤다. "도적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어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동관이 활을 잘 쏘는 자들을 시켜 화살을 쏘게 했다. 기병 두 명이 강가 여울까지 바짝 다가와 물가에서 말의 고삐를 잡아채고는, 활시위를 당겨 어부의 등 뒤를 향해 화살을 쏜 것이다. '숙'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이 정확히 샷갯을 맞혔으나, '챙'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

다. 이어 다른 기병이 쏜 화살도 도롱이를 맞혔으나, 역시 '챙' 소리를 내며 물속에 빠졌다. 이 두 명의 기병은 동관의 군대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자들이었다. 깜짝 놀란 그들이 말머리를 돌려 다가와 동관에게 허리를 굽히며 보고했다. "두 화살 모두 명중했으나 뚫지는 못했습니다. 저자가 몸에 무엇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관은 다시 쇠활을 잘 쏘는 초마 기병 삼백 명을 뽑아 여울가에 배치한 뒤, 일제히 어부를 향해 화살을 쏘게 했다. 수많은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갔으나 어부는 당황하지 않았다. 화살 중 많은 수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배에 맞기도 했으나, 도롱이나 샷샅에 맞은 화살은 모두 튕겨 나가 물속으로 떨어질 뿐이었다.

동관은 화살을 쏘아도 어부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물을 잘 다루는 군사들에게 갑옷을 벗기고 물속으로 들어가 저 어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이미 서른에서 쉰 명 정도의 인원이 앞서 헤엄쳐 나갔다. 어부는 배 뒤편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으나, 당황하지 않고 느긋하게 낚싯대를 내려놓은 뒤 노를 집어 들어 몸 곁에 두었다. 배로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 노를 한 번씩 휘두르니, 관자놀이를 맞은 자도, 머리통을 맞은 자도, 얼굴을 맞은 자도 모두 물속으로 처박혔다. 뒤편에서 몇 명의 병사가 가라앉는 것을 본 이들은 모두 해안가로 돌아가 갑옷을 챙겼다.

동관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노하여, 군사 오백 명을 물로 보내 반드시 저 어부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만약 살아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칼로 토막을 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오백 명의 군사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어부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자 어부가 배 머리를 돌려 해안가에 있는 동관을 가리키며 크게 꾸짖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놈들아! 백성을 해치는 짐승 같은 것들아! 여기서 목숨을 내놓으려 하면서 아직도 죽을 줄을 모르는구나!"

동관이 격노하여 기병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호령했다. 그러자 어부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저기 군마들이 도착했구나!" 말을 마치며 손가락으로 한곳을 가리키더니, 도롱이와 샷갓을 버리고 몸을 날려 물속으로 잠겨 버렸다.

오백 명의 군사가 막 배 근처에 다다랐을 때, 물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저 어부는 바로 '낭리백조' 장순이었다. 그가 쓴 샷갓은 겉은 땃잎으로 싸여 있으나 안쪽은 구리로 만들어졌고, 도롱이 안쪽 역시 잘 다듬은 구리로 만들어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몸을 감싸고 있었으니, 화살이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장순은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 허리칼을 뽑아 들고는 앞쪽에서부터 차례로 사람들을 찢어대니, 사람들이 가라앉으며 핏물이 소용돌이치며 솟구쳤다. 운 좋게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동관은 해안가에서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곁에 있던 한 장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산 정상에 있는 저 황색 깃발이 저기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관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그 뜻을 알 수 없었고, 다른 장수들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그때 풍미가 말했다. "철갑 초마 삼백 명을 두 부대로 나누어 양쪽 산 뒤편으로 보내 정찰하게 하십시오.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막 정찰대를 산 앞으로 보냈을 때, 갈대밭 사이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천둥 같은 포탄이 터져 나왔다. 불꽃과 연기가 어지럽게 흩날리는 사이, 양쪽의 초마들이 일제히 돌아와 복명하기를, "북병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외쳤다. 동관은 말 위에서 크게 놀랐고, 풍미와 필승은 급히 사람을 보내 군사들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수십만 대군이 일제히 칼을 뽑아 손에 쥐었다. 앞뒤에서 달려온 전령들이 "도망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베어버리겠다!"라고 외치며 삼군(三軍)의 인마를 진정시켰다.

동관이 장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상황을 살피려는데, 산 뒤편에서 땅을 울리는 북소리가 들려오더니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황색 깃발을 휘날리며 한 무리의 군마가 번개처럼 달려 나왔는데, 그 앞에는 용맹한 장수 두 명이 군사를 이끌고 있었다. 그 군마의 대열은 어찌나 정연한지 다음과 같았다.

황색 깃발 만 산중에 솟아오르니, 번뜩이는 금빛 하늘을 찌른다.
말은 성난 파도처럼 바위벽을 치고, 사람은 거센 불길처럼 하늘바람을
흔든다.

북소리는 삼라전(森羅殿)을 뒤흔들고, 대포 소리는 태화궁(泰華宮)을
뒤엎는다.

검을 든 부대 속에 삼시호가 숨어 있고, 창외 숲 사이로 미염공이 날아
오른다.

황색 말 두 마리가 달리는 말 위로 두 명의 영웅적인 우두머리가 서
있었다. 앞쪽에는 '미염공' 주동이, 뒤쪽에는 '삼시호' 뇌황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천의 인마를 거느리고 관군을 향해 곧장 돌격해 왔다. 동관은
대장 풍미와 필승에게 앞장서서 적을 맞서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두 장수는 즉시 말을 몰아 창을 앞세워 진영으로 나아가며 크게 꾸짖었
다. "어째서 투항하지 않고 도적 떼처럼 날뛰는 것이냐! 대체 언제까지
버틸 셈이냐!"

뇌황은 말 위에서 크게 웃으며 호통쳤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감히 우리와 결전을 벌이려 드느냐!"

필승이 격노하여 말을 달려 창을 내지르며 뇌황을 덮치자, 뇌황 역
시 창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마리의 말이 맞붙고 병기가 부딪치
는 가운데, 두 장수는 이십여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풍미는 필승이 오랫동안 싸우면서도 승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말을 몰아 도를 휘두르며 직접 싸움에 뛰어들었다. 이를 본 주동이 크
게 한 번 소리치더니, 말을 달려 도를 휘두르며 풍미를 공격했다. 네 마
리의 말이 두 쌍을 이루어 진영 앞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동관은 이 광
경을 보며 연신 환호성을 질렀다.

싸움이 깊은 계곡 안쪽까지 이어졌을 때, 주동과 뇌황이 갑자기 허
점을 보이는 척하더니 말머리를 돌려 본진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풍미와 필승 두 장수는 이를 놓치지 않으려 말을 몰아 뒤쫓았다. 그러

자 대치하던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 뒤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관이 전력을 다해 산기슭까지 추격하도록 명령했을 때, 산 정상에서 일제히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수들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앞뒤에서 포탄 두 발이 번개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동관은 복병이 있음을 직감하고 군마를 멈춰 세우며 더 이상 쫓아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산 정상에서 살짝 비친 것은 황색 깃발이었는데, 그 위에는 '천도를 대신해 도를 행한다(替天行道)'라는 네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동관이 산 너머로 몸을 돌려 살펴보니, 산머리에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휘날리며 펼쳐지는 가운데, 운성현의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산동의 송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로는 군사 오용을 비롯해 공손승, 화영, 서녕, 그리고 금창수와 은창수 등 수많은 호걸이 따르고 있었다. 동관은 이 광경을 보고 격노하여, 즉시 사람을 보내 말을 타고 산에 올라 송강을 잡아 오라고 명령했다. 대군을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 오르려는데, 산 정상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북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려오더니 호걸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동관은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악물며 외쳤다. "저 도적놈이 감히 나를 희롱하다니! 내 직접 저놈을 잡아 오리라!"

그러자 풍미가 간언했다. "추밀사님, 저들에게는 분명 계책이 있을 것이니 위험한 곳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됩니다. 일단 군을 물려 돌아가신 뒤, 내일 다시 허실을 살핀 다음에 진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관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찌 군을 물린단 말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적의 모습을 보았으니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후방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정찰병이 급히 보고했다. "서쪽 산 뒤편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튀어나와 후군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관은 크게 놀라 풍미와 필승을 데리고 급히 후군을 구하러 돌아가려는데, 이번에는 동쪽 산 뒤편에서 북소리가 울리더니 또 한 무리의 인마가 달려 나왔다. 절반은 붉은 깃발, 절반은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두 명의 대장을 앞세운 오천의 군마가 무서운 기세로 살육을 하며 달려오고 있었다. 붉은 깃발 부대는 붉은 깃발을 따라, 푸른 깃발 부대는 푸른 깃발을 따라 대열이 어찌나 정연한지 다음과 같았다.

붉은 깃발 사이로 푸른 옷이 마주하고, 싸우는 말들은 산허리를 휘감아
날아오르네.

햇살은 깃발을 비추어 청룡이 보이고, 바람은 깃발을 흔들어 주작이 요
동치네.

두 부대 정예병은 모두 용맹하고, 두 명의 장수는 영웅의 기개를 떨치
네.

진명은 낭아곤을 휘두르고, 관승은 청룡언월도를 비껴 들었네.

붉은 깃발 부대의 우두머리는 '벽력화' 진명이었고, 푸른 깃발 부대의 우두머리는 '대도' 관승이었다. 두 장수가 말 위에서 달려오며 크게 호통쳤다. "동관, 어서 머리를 내놓아라!"

동관은 격노하여 풍미에게는 관승을 상대하게 하고, 필승에게는 진명과 싸우게 했다. 동관은 후군에서 함성이 끊임없이 들려오자, 북을 쳐서 군대를 거두고 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일단 퇴각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주동과 뇌횡이 황색 깃발 부대를 이끌고 다시 달려와 양쪽에서 협공해 오니, 동관의 군사들은 크게 혼란에 빠졌다. 풍미와 필승이 동관을 호위하며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측면에서 또 한 무리의 군마가 튀어나와 그들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었다. 그 군마는 절반은 흰 깃발, 절반은 검은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는데, 흑백의 깃발 사이로 두 명의 용맹한 장수를 앞세운 오천의 군마가 길을 막아섰다. 이 부대 또한 대열이 매우 정연하였으니 다음과 같았다.

포성은 천둥처럼 울려 산석을 가르고, 푸른 숲 깊은 곳에 창검이 드러난다.

흰 옷 입은 병사들은 은하수처럼 밀려오고, 검은 갑옷 입은 군대는 검은 기운을 띄우며 몰려온다.

두 갈래 채찍은 비바람 소리 내며 휘날리고, 한 자루 창은 귀신도 근심케 한다.

왼편에는 대장 호연작이 외치고, 오른쪽에는 영웅 임충이 맞선다.

검은 깃발 부대의 우두머리는 쌍편 호연작이었고, 흰 깃발 부대의 우두머리는 '표자두' 임충이었다. 두 장수가 말 위에서 크게 호통을 치

며 달려들었다. "간신 동관아,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어서 나와 죽음을 맞이하라!"

그들은 그대로 군사들 사이로 돌진해 들어왔다. 수주의 도감 단봉거가 호연작을 가로막아 싸웠고, 여주의 도감 마만리가 임충을 상대했다. 마만리는 임충과 몇 합 겨루지도 못해 기세가 밀리더니, 도망치려 했다. 그때 임충이 크게 호통을 치자 마만리는 당황하여 손발이 꼬였고, 결국 임충의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졌다. 단봉거는 마만리가 임충의 창에 찔려 죽는 것을 보고는 싸울 마음이 사라져, 호연작의 쌍편을 피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호연작이 용맹하게 뒤쫓아 들어오자 양쪽 군대는 뒤영커 혼전이 벌어졌고, 동관은 그저 길을 열어 퇴각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때 전방에서 거대한 함성이 들리더니, 산 뒤편에서 한 무리의 보병이 튀어나와 진영 한복판으로 곧장 쳐들어왔다. 그 앞장에는 승려 한 명과 행자가 군사를 이끌고 소리쳤다. "동관을 놓치지 마라!"

그 승려는 경전을 읽거나 참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 죽이는 일에만 능하여 '화화상'이라 불렸으며, 본명은 노지심이었다. 그리고 그 행자는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수호채의 가장 큰 영웅으로, '행자' 무송이라 불리는 자였다. 이 두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닥쳤다. 그 기세가 어떠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시가 증명하고 있다.

<서강월> ...

노지심의 선장 한 자루와 무행자의 쌍칼 두 자루.
강철 칼날이 날아오르니 불꽃이 흩날리고, 선장은 쇠몽둥이처럼 몰아
치네.

선장이 머리를 내리치고, 강철 칼날은 허리를 끊어놓는다.
두 무기가 썰 새 없이 몰아치니, 백만 대군 속에서 그 위용이 빛나도다.

노지심과 무송이 이끄는 보병 부대가 한바탕 돌격해 들어오자, 동관
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지며 무너져 내렸다. 관군은 앞에
는 나아갈 길이 없고 뒤에는 물러설 길조차 없어, 품미와 필승을 앞세
워 겹겹의 포위망을 들이받아 뚫고 혈로를 개척하며 산 뒤편으로 필사
적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겨우 숨을 돌리려던 찰나, 다시 대포 소
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전쟁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
어 보니 두 명의 맹장이 앞장서고 한 무리의 보병이 길을 가로막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기세가 어떠했는지는 다음과 같다.

「양두사(兩頭蛇, 해진)」의 비린 바람은 가까이하기 어렵고, 「쌍미
갈(雙尾蠍, 해보)」은 독기를 일제히 내뿜네.

한 쌍의 강철 작살은 세상에 비길 데 없으니, 사냥터에서 그 위세 천지
를 진동시키네.

왼편에는 해진이 출중하고, 오른편에는 해보가 무리에서 빼어나도다.
수천 명의 철갑을 두른 호랑이와 이리 같은 군사가, 길게 늘어선 뱀 같
은 대진(大陣)을 휘저어 짓부수네.

돌격해 들어온 보병 부대의 우두머리는 해진과 해보로, 두 사람은 각각 다섯 갈래로 갈라진 강철 작살(五股鋼叉)을 휘두르며 보병들을 이끌고 진영 안으로 들이닥쳤다. 동관의 군사들은 이들의 기세를 막아 내지 못하고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사방에서 기병과 보병이 일제히 추격해 오자 관군은 마치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맥없이 무너졌고, 풍미와 필승은 필사적으로 동관을 보호하며 도망쳤다. 해진과 해보 형제가 강철 작살을 앞세워 말 앞까지 들이닥치자, 동관은 급히 말에 채찍질을 하여 창끝을 비껴가며 달아났다. 뒤따라오던 풍미와 필승이 그를 구하러 왔고, 여기에 당주 도감 한천린과 등주 도감 왕의까지 합세하여 네 사람이 힘을 모은 끝에야 겨우 진영 한복판을 뚫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겨우 발걸음을 옮겨 숨을 고르려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더니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울창한 숲 사이에서 또 한 무리의 기병과 보병이 튀어나오더니, 두 명의 맹장이 앞장서서 길을 가로막았다. 그 두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과 같다.

한 명은 화려한 큰 도끼를 휘두르고, 한 명은 하얀 은창을 내뺀다. 창은 독사처럼 길게 뻗어 나오고, 도끼는 산을 가르는 신장처럼 휘둘러진다.

한 명은 풍채가 멋지고 수려하며, 한 명은 기세가 맹렬하고 강인하다. 동평 같은 나라의 선비는 비길 데 없고, 급선봉 소초의 용맹은 누구도 당할 수 없다.

두 맹장은 '쌍창장' 동평과 '급선봉' 삭초로, 두 사람은 다른 말도 없이 말을 몰아 곧장 동관을 향해 들이닥쳤다. 왕의가 창을 들고 맞서려 했으나, 삭초가 도끼를 높이 들어 내리치는 바람에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한천린이 그를 구하러 왔으나 동평의 창에 찔려 죽었다. 풍미와 필승은 죽을힘을 다해 동관을 보호하며 말을 달려 도망쳤다. 사방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지니, 도대체 어느 쪽에서 군사가 몰려오는지 알 길이 없었다. 동관이 말을 몰아 언덕 위로 올라가 살펴보니, 사방팔방에서 네 부대의 기병과 양옆으로 두 부대의 보병이 둥글게 포위망을 좁혀오며 몰아치고 있었다. 양산박의 대규모 군마 부대가 일제히 살기를 띠며 몰려오자, 동관의 군사들은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때 산 아래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는데, 살펴보니 진주 도감 오병이와 허주 도감 이명의 깃발이었다. 이 두 사람은 부러진 창과 꺾인 극을 든 채 패잔병들을 이끌고 임랑산 쪽으로 급히 몸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이들이 아군을 부르며 언덕 위로 올라가려던 찰나, 산 옆쪽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또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왔다. 두 개의 깃발이 펄럭이며 나타난 그 선두에는 두 명의 맹장이 각자 병기를 치켜든 채 관군을 향해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 「임강선(臨江仙)」 사(詞)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투구에 달린 긴 술은 불꽃처럼 휘날리며 붉은빛을 흩뿌리고,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기는 마치 무지개처럼 드높구나. 전투복은 촉나라의 비단으로 지어 만들었고, 갑옷은 금동을 입혀 빛나도다.

두 자루의 보도는 눈처럼 하얗게 닳여 빛나고, 전장의 한복판에서 위풍당당하게 떨치며 좌우로 돌진하니 그 기세가 영락없는 영웅이라.

군사 중에는 '청면수'가 있고, 호걸 중에는 '구문룡'이 있도다.

이 두 명의 맹장은 바로 양지와 사진이었다. 두 기사는 말에 올라 두 자루의 도를 휘두르며, 군관인 오병이와 이명을 가로막고 싸우기 시작했다. 이명이 창을 곧게 세워 앞으로 나아가며 양지와 맞붙었고, 오병이는 방천극을 휘두르며 사진에게 달려들었다. 두 쌍의 장수들은 산비탈 아래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뱅뱅 돌며 각자의 무예를 마음껏 뽐냈다. 동관은 산비탈 위에서 말을 멈춰 세운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네 사람이 서른 합 넘게 싸우던 중, 오병이가 방천극을 내질러 사진의 가슴팍을 찌르려 했다. 사진이 몸을 슬쩍 피하자 극의 날이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다. 오병이는 말과 함께 기세를 몰아 바짝 다가왔으나, 사진이 단숨에 칼을 휘둘러 내리쳤다. 순식간에 피가 살점을 뚫고 솟구쳤고, 오병이의 금동 투구가 말 발치로 툭 떨어지며 그는 산비탈 아래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명은 동료가 먼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양지가 크게 한 번 호통을 치니, 이명은 혼비백산하여 간담이 서늘해졌고 손에 든 창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양지가 도를 머리 위에서부터 내리찍자 이명이 간신히 피했으나, 칼날은 말의 뒷다리 사이를 정확히 내리쳤다. 뒷다리를 다친 말이 휘청하며 이명을 말 아래로 떨어뜨렸고, 이명은 창을 내팽개친 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빠른 양지가 곧바로 다시 칼을 휘둘러 그를 명중시키고 말았다. 가련하

게도 평생을 군관으로 살아온 이명은 한낱 꿈처럼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

두 명의 관군은 모두 산비탈 아래에서 죽었다. 양지와 사진은 패퇴하는 적군을 마치 오이를 베고 박을 가르듯 거침없이 추격하며 베어 넘겼다.

동관과 풍미, 필승은 산비탈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히 내려가지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세 사람이 상의하며 말했다. "이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이곳을 뚫고 나갈 수 있겠소?"

풍미가 말했다. "추밀사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소장이 보니 정남쪽에 아직도 대규모 관군 부대가 진을 치고 깃발도 여전히 곳곳이 서 있으니,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 도통께서는 추밀사를 산머리에서 잘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길을 열어 저 군마 부대를 이끌고 온 뒤, 추밀사를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동관이 말했다. "날이 저물어가니, 상황을 잘 살펴서 서둘러 다녀오게."

풍미는 커다란 도를 치켜들고 말을 달려 산 아래로 돌진하여 길을 열며 남쪽으로 향했다. 그가 군마 부대를 살펴보니, 바로 승주 도감 주신이 군사들을 뺑뺑하게 배치하여 전장 한복판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주신은 풍미가 오는 것을 보고 진영 안으로 맞아들이며 물었다. "추밀사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풍미가 대답했다. "바로 앞 산비탈에 계신다. 자네 부대가 구원하러 와서 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움직이게!"

주신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병과 보병들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대열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했고, 모두 힘을 합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두 명의 대장이 앞장서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비탈을 향해 돌진했다.

화살 한 발이 날아갈 거리도 채 못 가서, 비스듬히 옆에서 군사 한 부대가 나타났다. 풍미는 도를 휘두르며 곧장 맞서 싸웠는데, 상대는 바로 수주 도감 단봉거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고는 힘을 합쳐 산비탈 아래까지 싸우며 내려갔다.

필승이 산비탈을 내려와 그들을 맞이해 올라가서는 동관을 보고 함께 상의했다. "오늘 밤 바로 뚫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버티는 게 좋겠습니까?"

풍미가 말했다. "우리 넷이 목숨을 걸고 추밀사를 지킬 것이니, 바로 오늘 밤에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저 도적 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에서 함성이 끊이지 않았고, 금고(金鼓, 군대의 신호용 악기)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졌다. 이경(二更, 밤 9시~11시경) 무렵이 되자 별빛과 달빛이 환하게 비쳤고, 풍미가 앞장서고 여러 군관이 동관을 가운데 두고 옹위하며 모두 힘을 합쳐 산비탈을 향해 돌진했다.

사방에서 "동관을 놓치지 마라!" 하는 고함이 들려왔으나, 관군들은 오직 정남쪽 길을 향해 돌격하며 싸워 나갔다. 혼전이 사경(四更, 새벽 1시~3시경) 무렵까지 이어지더니 마침내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다. 동관은 말 위에서 손을 이마에 대고 천지신명께 절하며 말했다. "부끄럽구나! 이 큰 난리를 겨우 벗어났도다!"

그는 서둘러 군사들을 재촉해 경계 밖으로 빠져나간 뒤, 제주를 향해 달아났다.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앞쪽 산비탈 일대에 셀 수 없이 많은 횃불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뒤편에서는 다시 함성이 터져 나왔다. 횃불 빛 사이로 두 명의 호걸이 박도를 하나씩 쥐고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백마를 탄 영웅 대장이 점강창을 가로로 쥐고 위풍당당하게 이끌며 나타났다. 그 자가 누구인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임강선>

(시 내용 생략)

마상과 보병 모두에서 으뜸이며, 천강성 서열 내에서도 존귀한 몸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악성(惡星)과도 같도다. 눈동자는 칠을 한 듯 검고, 얼굴은 은을 새겨 놓은 듯 빛나도다.

창술은 장이(丈二) 길의 강창을 휘둘러 대적할 자가 없고, 몸에는 구름을 타는 듯한 준마를 탔으니, 재능과 무예가 모두 남달리 뛰어나도다. 양산박의 노준의, 하북의 '옥기린'이라네.

말 위에 올라탄 영웅적인 대장은 바로 '옥기린' 노준의였다. 그 앞에는 박도를 든 두 호걸이 있었는데, 한 명은 '병관식' 양웅이고 다른 한 명은 '변명삼랑' 석수였다. 그들은 햇불 빛 아래에서 삼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운을 북돋우며 앞길을 가로막았다. 노준의가 말 위에서 크게 외쳤다. "동관은 어서 말에서 내려 포로가 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동관이 그 소리를 듣고 군사들에게 말했다. "앞에는 복병이 있고 뒤에는 추격병이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풍미가 말했다. "소장이 목숨을 바쳐 추밀사 어른께 보답할 터이니, 너희 관리들은 반드시 추밀사 어른을 잘 보살펴서 길을 뚫고 제주로 도망치거라. 나는 이곳에서 이 도적놈들을 막아 서겠다."

풍미는 말을 몰아 도를 휘두르며 노준의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두 말이 맞붙어 몇 합을 겨루지 못했는데, 노준의가 창으로 풍미의 대도를 밀어내고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풍미의 허리를 낚아채더니 발로 전마를 걷어차고는 풍미를 생포해 버렸다. 양웅과 석수가 즉시 달려와 그를 거들었고,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풍미를 붙잡아 끌고 갔다.

필승과 주신, 단봉거는 목숨을 걸고 동관을 보호하며 길을 막아선 군사들을 뚫고 싸우며 도망쳤다. 뒤에서는 노준의가 쫓아오니, 동관은 패배하여 마치 집 잃은 개처럼, 혹은 그물에서 빠져나온 물고기처럼 허둥지둥 급히 달아났다. 날이 밝자 겨우 추격병을 따돌린 그들은 제주를 향해 달려갔다.

한참을 달아나는데, 앞쪽 산비탈 뒤편에서 또 한 무리의 보병 부대가 돌연 튀어나왔다. 그 군사들은 모두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진홍색 두건을 쓰고 있었다. 그 선두에 선 네 명의 보병 대장은 과연 누구인가?

이규는 양손에 도끼를 들고, 보옥은 한 자루 용천검을 쥐었네.

항충과 이곤은 곁에서 둥근 방패를 휘두르며 씩씩하게 춤추네.
호랑이를 베려면 큰 굴로 들어가야 하고, 용을 죽이려면 깊은 못으로
가야 하리.

삼군 군대의 위세는 푸른 하늘을 뒤흔드니, 악귀들이 눈앞에 생생히 나타나네.

이규는 양손에 판부를 휘둘렀고, 보옥은 보검을 휘둘렀으며, 항충과 이곤은 각각 만패를 휘둘러 몸을 보호하며 달려들었다. 그 모습이 마치 불덩어리가 땅 위를 굴러오는 듯하여, 관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동관과 여러 장수는 싸우면서도 계속 도망치며 오직 목숨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규는 기마병 대열 속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어 단봉거의 말다리를 찍어 넘어뜨린 뒤, 그를 끌어내어 단번에 도끼로 머리를 찍어 가르고 다시 한 번 도끼를 휘둘러 목을 베어버렸다. 단봉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한편, 패하여 흩어진 관군이 겨우 제주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모습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투구는 비뚤어져 귀를 덮고, 갑옷은 목과 뺨을 겨우 가릴 정도로 망가졌으며, 기마병과 보병 모두 기력을 다해 사람도 말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들이 어느 시냇가에 이르러 군마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시냇 건너편에서 포성

한 발이 울리더니, 화살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날아와 쏟아졌다. 관군이 급히 시냇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숲 너머에서 또 한 무리의 기마부대가 나타났다. 그 선두에 선 세 명의 영웅은 과연 누구인가?

옥뱀 한 마리 춤추듯 휘두르니, 만 개의 별이 흩뿌려지네.

동창의 표기장수는 장청이니, '몰우전'에게 누가 감히 가까이 가리!

날아가는 창은 헛방이 없고, 휘두르는 삼지창은 사정없네.

두 호랑이 같은 장수는 기세가 드높으니, 좌우 말 앞을 든든히 지키네.

알고 보니 '몰우전' 장청과 공왕, 정득손이 이끄는 삼백여 명의 기마부대였다. 그 용맹한 기병들은 모두 구리 방울 모양의 가면을 쓰고 핑깃털을 단 진홍색 술을 늘어뜨린 채, 가벼운 활과 짧은 화살을 갖추고 수놓은 깃발과 꽃창을 들고 있었다. 세 장수가 선두에서 곧장 돌격해 왔다. 승주 도감 주신은 장청의 군사 수가 적은 것을 보고 적을 맞이하려 나섰고, 필승은 동관을 보호하며 달아났다. 주신이 말을 몰아 창을 들고 맞서려는데, 장청이 왼손으로는 창을 붙잡고 오른손은 마치 초보 칠랑(招寶七郎) 신상이 손을 치켜든 듯한 자세를 취하더니, 입으로 '받아라!' 하고 크게 외쳤다. 돌맹이 하나가 주신의 코 옆 우묵한 곳을 명중시키자, 주신은 몸이 뒤집히며 말에서 떨어졌다. 공왕과 정득손이 옆에서 말을 달려와 거들며 두 갈래 창으로 주신의 목을 찢어버리니, 그 모습이 마치 서리가 변방의 풀을 꺾어놓고 비가 상림(上林)의 꽃을 때리는 듯했다. 주신은 말 아래에서 죽고 말았다. 동관은 다만 필승과 함께 목숨을 부지해 달아나느라 감히 제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패하여 흩어진 군마들을 이끌고 밤을 도와 동경(東京)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도망치던 군사들을 수습하며 진영을 쳤다.

알고 보니 송강은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평소 조정에 귀순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관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는 일은 원치 않았다. 다만 여러 장수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동관을 끝까지 추격할까 염려되어, 급히 대종을 보내 장령을 전하게 했다. 대종은 여러 두령에게 명령을 전하며, 각지의 기마병과 보병을 수습하여 모두 산채로 돌아와 공을 치하받으라고 알렸다. 이에 각지에서 퇴각을 알리는 징 소리가 울려 퍼지며 군대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말 탄 장수들은 안장 위에서 금등(金鐙, 금으로 만든 등자)을 두드리고, 걸어가는 병사들은 일제히 승전가를 부르며, 모두들 분주히 양산박으로 들어갔으며 저마다 완자성으로 돌아갔다.

송강, 오용, 공손승이 먼저 양산박에 도착하여 충의당에 자리를 잡았다. 송강은 배선(裴宣)에게 각 사람의 공적을 확인하고 상을 내리라고 명했다. 노준의는 풍미를 생포하여 산채로 데려왔고, 풍미는 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송강이 직접 그의 포박을 풀어준 뒤 당 안으로 모셔 윗자리에 앉히고, 친히 술잔을 들어 대화를 나누며 놀란 마음을 달래주었다. 여러 두령이 모두 당에 모여들자, 그날 소와 말을 잡아 잔치를 벌였다. 삼군에 큰 상을 내린 뒤 풍미를 이틀 동안 머물게 하며 안장과 말 등을 정성껏 준비해 산 아래로 보내주니, 풍미는 크게 기뻐했다. 송강이 풍미에게 말을 건넸다. '장군께서 진영의 앞뒤에서 저희의 위엄을 범하게 되었으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송강 일행은 본래 딴 마음이 없으며, 오직 조정에 귀순하여 국가를 위해 힘쓰고자 할 뿐입니다. 다만 불공정하고 법도 없는 자들에게 떠밀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군께서 조정으로 돌아가시면 부디 좋은 말씀을 해주어 저희를 구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훗날 다시 은혜를 입을

날이 온다면, 죽고 사는 것을 막론하고 장군의 큰 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풍미는 죽이지 않은 은혜에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길을 떠났다. 송강은 사람을 보내 그를 경계 밖까지 직접 배웅하게 했으니, 그가 도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송강은 충의당으로 돌아와 다시 오용 등 여러 두령과 상의했다. 이번엔 십면매복의 계책을 써서 동관을 간담이 서늘하고 심장이 부서지도록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꿈속에서도 벌벌 떨게 하고, 그의 대군이 세 뭉트 가운데 두 뭉트나 꺾이게 한 것은 모두 오용의 기묘한 책략과 배치 덕분이었다. 오용이 말했다. '동관이 경사(京師)로 돌아가 황제에게 아뢰고 나면, 어찌 다시 군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을 동경(東京)으로 직접 보내 허실을 살핀 뒤 산채로 보고하게 하여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의견이 내 마음과 딱 맞소. 형제들 중에 누가 감히 갈 수 있겠소?' 그때 자리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대답했다. '이 형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더니 모두 말했다. '그라면 반드시 큰일을 해낼 것이오.'

“이 사람이 가지 않으면, 다시 계책을 써서 관군을 격파하려 해도 반드시 저 청색 봉우리 아래에서 말들이 쓰러지고, 푸른 갈대숲 사이에서 배가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질 것이오.” 결국 양산박에서 누가 사람을 보내 허실을 살피러 갈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8회 — 십절도가 양산박을 취하기로 논의하고, 송공명이 고태위를 한 번 패하 다

十節度議取梁山泊 宋公明一敗高太尉

한편 양산박의 호걸들은 동관을 두 번이나 물리친 뒤, 송강과 오용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다. 반드시 사람 한 명을 동경으로 보내 정세가 어떠한지 살핀 뒤, 그 결과를 산으로 보고하여 미리 군마를 준비하고 맞서 싸울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행태보' 대종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 정보를 탐지하는 일은 형제 한 명의 공이 매우 크다네. 자네가 가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가장 좋겠네."

그러자 이규가 끼어들었다. "아우가 형님을 도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인 '흑선풍' 아닌가!"

이규가 대꾸했다. "이번에 갈 때는 사고 안 치면 될 것 아닙니까!"

송강은 이규를 물러나게 한 뒤 다시 물었다. "자, 다른 형제 중에 감히 다녀올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자 '적발귀' 유당이 아뢰었다. "제가 대종 형님을 도와 함께 가면 어떻겠습니까?"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좋네!"

그날 두 사람은 짐을 꾸려 곧장 산을 내려갔다.

한편, 대종과 유당이 동경으로 소식을 살피러 간 사이의 이야기이다.

동관과 필승은 길을 따라 패배하여 흩어진 군마 사만여 명을 거두어 동경에 이르렀다. 길에서 군사를 거느린 여러 두령에게 명하여 각자 소속 군마를 거느리고 본영으로 돌아가게 하고, 오직 어영(御營, 황제의 직속 부대) 군마들만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왔다. 동관은 갑옷을 벗고 곧장 고 태위(高太尉)의 부중으로 가서 상의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후당 깊숙한 곳으로 청해 앉았다. 동관은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진을 잃고 여덟 갈래의 군관과 수많은 군마를 잃었으며, 품미

(鄴美)마저 생포당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사정을 하나하나 모두 고하였다.

고 태위가 말했다. "추밀상공(樞相)께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일은 그저 지금의 황제 폐하께만 숨기면 되오. 누가 감히 함부로 아뢰겠소! 내가 그대와 함께 가서 태사께 아뢰고 다시 방도를 세워봅시다."

동관과 고구는 말을 타고 곧장 채 태사의 부중으로 향하였다. 이미 동 추밀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채경은 이기지 못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다 고구와 함께 왔다는 말을 듣고는 서원 안으로 불러들여 만나게 하였다. 동관은 태사에게 절을 올리며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채경이 말했다. "그만 슬퍼하시오. 그대가 군마를 잃은 일은 내 이미 다 알고 있소."

고구가 거들었다. "적들이 물가에 자리 잡고 있어 배 없이는 진격할 수 없는데, 추밀께서 마보군(馬步軍, 기병과 보병)만으로 토벌하려다 보니 적의 계략에 빠져 패한 것이옵니다."

동관이 군사를 잃고 진을 깨뜨린 일을 상세히 고하자 채경이 말했다. "군마도 많이 잃고 군량도 엄청나게 허비한 데다 여덟 갈래 군관까지 잃었으니, 이 일을 어찌 감히 성상께서 아시게 하겠소!"

동관이 다시 절하며 간청하였다. "부디 태사께서 이 일을 덮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채경이 말했다. "내일은 그저 날씨가 너무 더워 군사들이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니, 잠시 전투를 멈추고 군사를 물린다고 아뢰시오. 만약

황제께서 노하시어 '이런 심복(心腹)의 큰 환란을 두고도 토벌하여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많은 관리들이 대체 뭐라고 대답하겠소?"

고구가 말했다.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태사께서 저를 믿고 군사를 맡겨 직접 가서 토벌하게 해주신다면 단번에 평정할 수 있습니다."

채경이 말했다. "태위께서 직접 가시겠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요. 내일 당장 태위를 원수(帥)로 삼도록 보증하여 상주하겠소."

고구가 다시 아뢰었다. "다만 한 가지, 성지(聖旨)를 내려 형편에 따라 군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시고, 아울러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본래 쓰던 관선과 민선을 징발하거나, 혹은 나라에서 비용을 대어 목재를 사들여 전투선을 만들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륙 양면으로 배와 기병이 함께 진격하여 머지않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채경이 말했다. "그 일은 어렵지 않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지기가 들어와 보고하였다. "풍미(鄆美)가 돌아왔습니다."

동관은 크게 기뻐하였다. 태사는 풍미를 불러들여 그 연유를 물었다. 풍미가 절을 올린 뒤 설명하기를, 송강이 산으로 사로잡아 간 자들을 모두 풀어주고 죽이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자를 챙겨주며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기에, 소장이 이렇게 태사님의 존안을 뵈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고구가 말했다. "이것은 적들의 계략으로, 일부러 우리 나라를 느슨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앞으로는 가까운 곳의 군마를 쓰지 말고, 곧장 산동과 하북에서 쓸 만한 자들을 가려 뽑아 나 고구를 따르게 하겠다."

채경이 말했다. "이렇게 의논이 정해졌으니, 내일 궁중에서 만나 황제께 직접 아뢰시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부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새벽 다섯 시경, 그들은 모두 시반각자(侍班閣子, 관리들이 모이는 곳)에 모였다. 아침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각자 품계에 따라 단치(丹墀, 붉은 대궐 뜰)에 줄지어 섰다. 절을 올리고 춤을 추며 문안 인사를 마친 뒤, 문관과 무관이 나뉘어 옥계(玉階, 옥계단) 아래에 늘어섰다.

채 태사가 앞으로 나서서 아뢰었다. "어제 추밀사 동관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양산박의 도적 떼를 토벌하러 가게 하였으나, 최근 날씨가 너무 더워 군마들이 기력을 잃었사옵니다. 게다가 적들이 물가에 자리 잡고 있어 배 없이는 진격할 수 없으니, 마보군(馬步軍)만으로는 급히 나아가기 어려웠사옵니다. 이에 잠시 전투를 멈추고 군사들을 각자의 진영으로 돌려 휴식을 취하게 하며 성첩(성지)을 기다리게 하였나이다."

천자가 말씀하셨다. "날씨가 이토록 더우니, 다시는 가지 말거라!"

채경이 아뢰었다. "동관은 태을궁(泰乙宮)에서 죄를 달게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수사(帥)로 삼아 다시 토벌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성첩을 내려주시옵소서."

천자가 말씀하셨다. "이 도적들은 참으로 큰 환부이니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누가 과인을 도와 근심을 덜어주겠느냐?"

고구가 앞으로 나서서 아뢰었다. "미천한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개나 말처럼 충성을 다하여 저 도적들을 토벌하고자 하오니 성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천자가 말씀하셨다. "경이 과인의 근심을 덜어주겠다고 하니, 경이 원하는 대로 군마를 골라 쓰도록 허락하겠노라."

고구가 다시 아뢰었다. "양산박은 사방 팔백여 리에 달하니 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전진할 수 없사옵니다. 양산박 근처의 나무를 베어 장인들에게 명해 배를 만들거나, 혹은 관청의 돈으로 민선을 사들여 전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천자가 말씀하셨다. "경에게 맡길 테니 뜻대로 처리하되, 절대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구가 아뢰었다. "미천한 신이 어찌 감히 그러겠나이까! 오직 기한을 넉넉히 주신다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나이다."

천자는 비단 도포와 금갑옷을 내려 고구에게 하사하고, 길일을 택하여 출정하도록 명하였다.

그날 백관의 조회가 끝나고 퇴궐하자, 동관과 고구는 채 태사를 부중까지 배웅하였다. 그러고는 곧 중서성(中書省)의 관방연사(關房掾史)를 불러 성지를 받들어 군사 배정을 정하도록 하였다.

고 태위가 말했다. "예전부터 열 명의 절도사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찍이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이들입니다. 어떤 이는 귀방(鬼方)을 정벌했고, 어떤 이는 서하를 토벌했으며, 금·요 등지에서도 싸워 무예가 정통하고 능숙합니다. 부디 군첩(鈞帖, 상부에서 내리는 명령 문서)을 내려 이들을 장수로 차출해 주십시오."

채 태사가 이를 허락하자, 즉시 열 통의 차부(劄付) 문서를 발송하였다. 각 절도사가 저마다 소속 정예병 일만 명을 거느리고 제주(濟州)로 가서 집결하여 부름을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열 명의 절도사가 움직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으니, 각자 일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일제히 진격하기로 하였다. 그 열 갈래의 군마는 이러하다.

하남하북절도사 왕환

상당태원절도사 서경

경북홍농절도사 왕문덕

영주여남절도사 매전

중산안평절도사 장개

강하영릉절도사 양온

운중안문절도사 한존보

룡서한양절도사 이종길

남야팽성절도사 항원진

청하천수절도사 형충

알고 보니 이 열 갈래의 군마는 모두 한때 정예병으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게다가 열 명의 절도사 또한 예전에 녹림의 무리 출신이었으나, 나중에 초안을 받아 관직에 올라 높은 지위까지 오른 이들이니, 모두 어찌다 조금의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용맹하고 정예로운 자들이었다.

그날 중서성에서 기한을 정하여 열 통의 공문을 내보내니, 이 열 갈래의 군마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제주로 모여야 하며, 늦는 자는 엄히 군령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금릉 건강부에는 유몽룡이라는 수군 통제사가 있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검은 용이 배 속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어 그 기운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유몽룡은 자라면서 물길을 다스리는 데 능해졌고, 일찍이 서천 협강에서 도적을 토벌한 공을 세워 군관 도통제까지 올랐다. 그는 일만 오천 명의 수군과 오백 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강남을 지키고 있었다.

고구 태위는 이 수군과 전선들을 밤낮을 가리지 말고 제주로 압송하여 명령을 따르게 하려 했다. 또한 우방희라는 심복을 보냈는데, 그는 보병 교위직에 있었다. 고구는 그에게 강줄기를 따라 모든 하천을 뒤져 배들을 모두 잡아 제주로 가져오게 하여, 군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했다. 고구 태위의 휘하에는 장수가 매우 많았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당세영과 당세웅 형제였다. 두 사

람은 현재 통제사로 있으며, 각각 만 명의 군사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니고 있었다.

고구 태위는 또한 어영에서 정예병 일만 오천 명을 추가로 선발하니, 각지에서 모인 군마를 합쳐 총 십삼만 명에 달했다. 먼저 각 지역에 관리를 보내 군량과 풀을 보급하게 하여 가는 길마다 납부하도록 했다. 고구 태위가 연일 갑옷을 정비하고 깃발을 제작하느라 아직 길을 떠나지는 못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공을 탐하여 일을 가벼이 여기고 군사 거느리길 원하더니,
병권을 손에 쥐자 곧 출발을 미루며 머뭇거렸네.
다행히 대장이 늑장 부리며 뒤늦게 떠난 덕분에,
삼군 장졸들이 며칠이나 더 목숨을 건졌구나.

한편 대중과 유당은 동경에서 며칠 머물며 세세한 소식들을 모두 알아낸 뒤, 밤을 도와 산채로 돌아와 이 일을 보고했다. 송강은 고구 태위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천하의 군마 십삼만 명과 열 명의 절도사까지 동원하여 진군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오용과 상의했다.

오용이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열 명의 절도사들이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조정에 세운 공이 많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들에게 맞설 상대가 없었기에 그 용맹함이 더욱 돋보였던 것뿐입니다. 이제 굶주린 이리나 호랑이처럼 사나운 우리 형제들이 버티고 있으니, 저 열 명의 절도사는 이미 지나

간 옛날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님께서 어찌 두려워하십니까! 저들의 열 갈래 군마가 도착하면, 먼저 우리 쪽에서 기선을 제압해 깜짝 놀라게 해줍시다."

송강이 물었다. "군사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놀라게 할 생각이요?"

오용이 답했다. "저들의 열 갈래 군마가 모두 제주에 모여 정비를 마치기를 기다릴 것 없이, 먼저 싸움에 능한 자 두 명을 보내 제주 근처에서 달려오는 군사들을 먼저 쳐서 기세를 꺾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구에게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어 경고를 날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오용이 말했다. "몰우전 장청과 쌍창장 동평, 이 두 사람을 보내면 적당할 것입니다."

송강은 즉시 두 장군에게 각각 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제주 근처를 순찰하며, 각지에서 오는 군마들을 마중 나가 가로채고 격살하라고 명했다. 또한 수군 우두머리들을 따로 뽑아, 배를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다. 산채의 우두머리들이 미리 배치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으나,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고구 태위는 경사에서 스무 날 남짓 머물렀다. 그러다 황제가 칙령을 내려 군사를 재촉하자, 고구는 먼저 어영의 군마를 이끌고 성을 나섰다. 또한 교방사의 가아(歌兒)와 무녀(舞女) 서른여 명을 선발하여 군중에서 소일하며 즐기게 했다. 날이 되어 깃발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께 하직 인사를 올린 뒤 길에 오르니, 마침 꼭 한 달의 시간이 걸렸

다. 마침 초가을 날씨였는데, 크고 작은 관리들이 장정(長亭, 길가의 정자)에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고구 태위는 무관의 복장을 갖추고 금빛 안장을 얹은 전마에 올라탔으며, 그 앞에는 옥으로 만든 굴레와 조각된 안장을 갖춘 다섯 마리의 말이 앞장섰다. 좌우 양옆으로는 당세영과 당세웅 형제가 늘어섰고, 그 뒤로는 수많은 전수(殿帥)·통제관, 통군제할(統軍提轄), 병마방비단련(兵馬防備團練) 등의 관원들이 줄을 이어 따랐다. 그 군마의 행렬은 매우 정연하고 위엄이 있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간신을 감싸고 임금을 속이니 충신이라 할 수 없고,
싸움만 좋아하니 옛 법도를 완전히 어겼구나.
회유로써 강포한 자들을 복종시키려 힘쓰지는 않고,
오직 선량한 백성만 몰아세워 칼과 창에 맞서게 하네.

고구 태위가 이끄는 대군은 성을 나와 장정 앞에 이르렀다. 고구는 말에서 내려 관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송별주를 다 마신 뒤, 그는 말 안장에 올라타 제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동안 군사들을 방치하여 마을마다 들락거리며 약탈을 일삼게 하니, 백성들이 입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편, 열 명의 절도사가 이끄는 대군이 속속 제주에 도착했다. 그중 경북(京北) 지역의 군사를 거느린 왕문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주로 달려왔는데, 주(州)에서 아직 마흔여 리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날 인마를 재촉하여 달려가던 중 봉미파라는 곳에 이르렀으니, 그 언덕 아래에는 커다란 숲이 있었다. 전군이 막 숲을 지나치려 할 때, 갑자기 징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숲 뒤편 산기슭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나며 앞장선 장수 하나가 길을 가로막았다.

그 장수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갖춘 채 화살을 쏘는 활을 들고 있었는데, 활통과 화살통 안쪽에는 작은 황색 깃발 두 개가 꽂혀 있었다. 깃발에는 금색 글자로 각각 다섯 자씩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웅쌍창장, 풍류만호후(영웅적인 쌍창을 쓰는 장수이자, 풍류 넘치는 만호후).' 그는 양손에 각각 한 자루씩, 총 두 자루의 강철 창을 들고 있었다. 이 장수는 양산박에서 첫 번째로 돌격대장을 맡는 용맹한 장수 동평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동일당'이라 불렀다. 동평이 전마를 멈춰 세우고 큰 길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너희는 어느 쪽 병마냐? 어서 말에서 내려 포로가 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왕문덕이 말의 고삐를 잡아 세우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다. "병이나 향아리에도 귀가 두 개 달려 있는 법인데, 너는 우리 열 명의 절도사가 거둬 큰 공을 세워 천하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이 대장 왕문덕을 정녕 들어 보지 못했던 말이나?"

동평이 크게 웃으며 호통쳤다. "네놈이야말로 우리 어른을 죽인 그 못된 놈이로구나!"

왕문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나라를 거스르는 도적놈이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그러고는 말을 몰아 창을 내지르며 동평을 향해 돌진했다. 동평 역시 쌍창을 치켜들고 맞서 나갔다. 두 장수가 서른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왕문덕은 동평을 이기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외쳤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싸우자!"

말을 마친 그들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왕문덕은 부하들에게 싸움에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곧장 돌파하라고 명령했다. 왕문덕이 앞서고 삼군이 그 뒤를 따르며 크게 함성을 지르며 돌진해 나갔다.

동평의 뒤를 이어 군사들이 추격하며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창 달리고 있을 때 앞쪽에서 또 한 무리의 군마가 돌진해 나왔다. 앞장선 장수는 바로 '몰우전' 장청이었다. 그는 말 위에서 크게 한 번 외쳤다.

“게 서라!”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돌멩이 하나를 짚어 던졌는데, 그 돌이 왕문덕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왕문덕이 급히 피하려 했으나 돌은 이미 투구 꼭대기에 정통으로 맞았다. 왕문덕은 말 안장에 몸을 바짝 엮드린 채 황급히 말을 몰아 도망쳤다. 동평과 장청이 뒤쫓아 가며 따라잡으려 했으나, 옆쪽에서 한 무리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왕문덕이 보니, 바로 절도사 양온의 군마들이 구원하러 달려오는 것이었다. 이에 동평과 장청은 감히 뒤쫓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두 갈래의 군마가 함께 제주에 들어와 머물게 되자, 태수 장숙야가 각지의 군마를 맞이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앞길에서 고구 태위의 대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열 명의 절도사가 성 밖으로 나가 태

위를 영접하였고, 모두 함께 태위를 호위하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주아(州衙, 지방 관청)를 임시 사령부로 삼아 안정을 취했다.

고구 태위는 명령을 내려, 열 명의 절도사가 이끄는 군마 모두 성 밖에 진을 치고 유몽룡의 수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출정하라고 일렀다. 열 명의 절도사는 각자 진영을 꾸렸다. 그들은 근처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고, 민가에서 문짝과 창문을 뜯어다가 막사를 짓는 등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고구 태위는 성 안 사령부에서 출정할 병력을 결정했는데, 돈을 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앞장서서 적과 맞서 싸워야 했고, 돈을 낸 자는 중군에 남아 허위 공로를 보고하며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간악한 폐단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고구 태위가 제주에 머문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유몽룡의 전선들이 도착하여 사령부로 들어와 인사를 올렸다. 예법을 마친 고구는 즉시 열 명의 절도사를 모두 대청 앞으로 불러 모아 함께 좋은 방책을 논의했다. 왕환 등이 보고하며 말했다.

"태위께서 먼저 마보군(馬步軍, 기병과 보병)을 보내 길을 살피게 하고 적을 유인해 내어 싸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수로의 전선들을 움직여 적의 근거지를 습격한다면, 적들이 앞뒤를 살피지 못해 결국 무리 지어 있는 도적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 태위는 그 말을 따랐다. 당시 왕환과 서경을 전방 선봉으로 삼고, 왕문덕과 매전을 후방에서 군사를 거두는 합후로 삼았다. 장개와 양온을 좌군으로, 한존보와 이종길을 우군으로 배치했으며, 항원진과 형충을 전후 구원사로 삼았다. 당세웅은 정예병 삼천 명을 이끌고 배에

올라 유몽룡의 수군을 도와 전투를 감독하기로 했다. 모든 군사가 명령을 받들어 사흘 동안 군비를 정비하고 대열을 갖추자, 고구 태위가 각지의 군마를 점검하기를 청했다. 고구 태위가 직접 성 밖으로 나가 군대를 하나하나 살펴본 뒤, 크고 작은 육군과 수군 모두에게 일제히 출정하라 명하니, 군사들은 곧장 양산박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동평과 장청이 진영으로 돌아와 자세한 사정을 보고했다. 송강과 여러 두령이 대군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관군이 들이닥친 것이 보였다. 전방 군대가 활을 쏘아 진영을 굳게 지키며 막아서자, 양측의 군마와 보병이 서로 대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때 선봉장 왕환이 진영 밖으로 나서서 장창을 휘두르며 말 위에서 크게 외쳤다.

"이 근본 없는 도적놈들아! 죽기를 각오한 시골뜨기 놈들아, 네놈들이 대장군 왕환을 알아보느냐?"

맞은편 진영의 수놓은 깃발이 열리는 곳에서 송강이 직접 말에 올라타 왕환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왕 절도사, 당신은 이미 나이도 지긋하신데 나라를 위해 힘쓰는 대신 창을 들고 적과 맞서다가는 자칫 실수라도 하여 평생 쌓아온 명성을 허무하게 날려버릴까 걱정됩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대신 나이가 젊은 자를 내보내 싸우게 하시오."

왕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이놈, 네놈은 얼굴에 죄인의 자자(刺字)나 새긴 한낱 천한 아전 주제에 어찌 감히 천군(天兵)을 거역하느냐!"

송강이 대답했다.

"왕 절도사, 괜히 무공을 뽐내려 하지 마시오. 우리처럼 하늘을 대신 해 도를 행하는 호걸들이 당신에게 질 일은 없으니 말ियो!"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환이 창을 내질러 달려들었다. 그때 송강의 말 뒤에서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한 장수가 창을 들고 진영 밖으로 튀어 나왔다. 송강이 보니 바로 '표자두' 임충이었다. 임충이 왕환을 상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맞붙자 군사들이 함성을 질러댔고, 고구 태위도 직접 진영 앞으로 다가와 말을 멈추고 구경했다. 양측 군사들이 기합을 넣으며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병들은 등자를 딛고 몸을 일으켜 바라보았으며, 보병들은 투구를 들치고 눈을 부릅뜨며 지켜보았다. 두 장수가 각자의 창술을 뽐내며 싸우는 모습은 이러했다.

한 명의 병풍창은 그 기세가 벼락이 치듯 사나웠고, 다른 한 명의 수평창은 그 용맹함이 몰아치는 천둥과 같았다.

한 명의 조천창은 하늘을 향해 솟구쳐 막기도 피하기도 어려웠고, 다른 한 명의 찬풍창은 바람을 뚫고 파고들어 어찌 방어하고 가릴 수 있겠는가.

한 명은 창끝으로 아홉 하늘의 구름을 꿰뚫어 버릴 듯 기세등등했고, 다른 한 명은 창으로 굽이치는 황하를 단번에 가로지를 듯 맹렬했다.

한 명의 창술은 마치 바위 동굴을 빠져나오는 구렁이 같았고, 다른 한 명의 창술은 물결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용과 같았다.

한 명의 창술을 쓰는 자는 호랑이가 양을 삼키듯 웅장했고, 다른 한 명의 창술을 쓰는 자는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채듯 날렵했다.

왕환과 임충이 대전을 벌이니 일흔에서 여든 합을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측이 각자 징을 울려 전투를 멈추게 하자, 두 장수는 서로 떨어져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때 절도사 형충이 전방 군대에 이르러 말 위에서 몸을 굽혀 고구 태위에게 보고했다.

“소장이 저 도적놈과 결판을 내고 싶사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구 태위가 곧 형충에게 출마하여 싸우라 명했다. 그때 송강의 말 뒤에서 방울 소리가 울리더니 호연작이 마중을 나왔다. 형충은 노란색 말에 올라 커다란 대간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두 장수가 맞붙어 스무 합쯤 싸우던 중, 호연작이 빈틈을 만들어냈다. 호연작은 형충의 대간도를 피해 넘기며 곧장 강철 채찍을 휘둘렀다. 채찍이 손에 착 감기듯 휘둘러져 형충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니, 머리에서 뇌수가 터져 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맞아 형충은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고구는 절도사 한 명을 잃은 것을 보고 다급히 항원진을 보냈다. 항원진은 말을 몰아 창을 내지르며 진영 앞으로 튀어나와 크게 외쳤다.

“이 도적놈들아, 감히 나를 상대하겠느냐!”

그러자 송강의 말 뒤에서 ‘쌍창장’ 동평이 진영 밖으로 튀어나와 항원진을 상대했다. 두 사람이 열 합도 채 싸우지 못했는데, 항원진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창을 끌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평이 말을 몰아 뒤쫓자 항원진은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영 가장자리를 빙빙 돌며 황급히 달아났다. 동평이 맹렬히 추격해오자 항원진은 창을 쥔 채 왼손으로는 활시위를 당기고 오른손으로는 화살을 메워 활을 가득 당기더니, 몸을 돌려 뒤로 화살을 쏘았다. 동평이 활시위 소리를 듣고 손을 들어 막으려 했으나, 화살 한 대가 오른쪽 팔에 정통으로 맞았다. 동평은 창을 버리고 말머리를 돌려 퇴각했다. 항원진은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거꾸로 말을 몰아 쫓아왔다. 이를 본 호연작과 임충이 각자 말을 달려 나와 동평을 구출해 진영으로 데려왔다.

고구 태위가 대군을 지휘하며 혼전이 벌어지는 사이, 송강은 먼저 동평을 구출해 산으로 돌려보냈다. 그 뒤를 따르는 군마들은 막을 길이 없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고구 태위는 물가까지 쫓아간 뒤에야 사람을 보내 수로의 배들을 맞이하게 했다.

한편, 유몽룡과 당세웅은 수군을 이끌고 배를 타고 나아가 양산박 깊숙한 곳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눈앞에는 끝없이 넓은 물결이 넘실거리고, 갈대와 수풀이 뻗뻗하게 우거져 물길을 빈틈없이 가로막고 있었

다. 관군들의 배는 돛대와 노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져 수면 위로 십여 리나 펼쳐져 있었다.

한창 나아가던 중, 갑자기 산비탈에서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졌다. 그 러자 사방팔방에서 작은 배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관군의 군사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고 주춤하다가, 갈대숲이 이토록 깊고 뻥뻥한 것을 보고는 모두 혼비백산했다. 갈대숲 속에 매복해 있던 작은 배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대열을 끊어버리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관군의 배들은 앞뒤로 서로 구원조차 해주지 못했고, 관군 대다수는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 양산박의 호걸들은 관군의 진영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일제히 북을 치며 배를 저어 돌진해 왔다.

유몽룡과 당세웅이 급히 배를 돌리려 했으나, 이미 지나온 얇은 물 길에는 양산박 호걸들이 산에서 베어온 나무와 땔감을 가득 실은 작은 배들을 배치해 길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노를 저으려 해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수많은 군졸은 결국 배를 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유몽룡은 갑옷과 무장 도구를 벗어 던지고 물가로 기어 올라가 냇길을 찾아 달아났다. 당세웅은 차마 배를 버리지 못하고 수군들에게 물길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가라고 재촉했으나, 채 이 리도 못 가서 앞쪽에서 작은 배 세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배 위에는 완씨 삼형제가 각자 요업창을 손에 쥐고 배 옆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군사는 이미 모두 물속으로 뛰어든 뒤였다. 당세웅은 철삭(쇠로 만든 갈고리 창)을 쥐고 배 머리에 서서 완소이와 맞붙었다. 완소이는 배 밑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완소오와 완소철 두 사람이 바짝 다가

왔다. 당세웅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철삭을 내던진 채 자신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물밑에서 ‘선화아’ 장황이 쑥 솟아 나오더니, 한 손으로는 당세웅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허리를 잡아채서 갈대 뿌리 쪽으로 휩 던져버렸다. 미리 그곳에 숨어 있던 수십 명의 부하들이 갈고리와 밧줄을 던져 그를 붙잡아 양산박으로 생포해 갔다.

한편, 고구 태위가 보니 수면 위의 배들이 모두 어지럽게 흩어져 산기슭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배에 묶인 깃발들이 모두 유몽룡 수군의 수기(手旗號)인 것을 보고는, 수로에서도 한 차례 대패했음을 직감했다. 고구는 서둘러 군령을 내려, 차라리 군사를 거두어 제주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라 명했다.

다섯 군의 군사들이 퇴각하려 할 때 마침 날까지 저물었다. 그때 사방에서 포성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는데, 송강의 군마들이 어느 길을 타고 몰려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장수들이 들이닥쳤다. 고구 태위는 그저 괴로운 탄식만 내뱉을 뿐이었다.

시로 이르되, 음릉에서 길을 잃고 신묘한 노에 맞닥뜨리고, 적벽에서 치열한 싸움 중에 괴이한 바람을 만났구나.

결국 고구 태위는 어떻게 몸을 빼낼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9회 — 유당이 불을 질러 전선을 태우고, 송강이 고태위를 두 번이나 패퇴시키다

劉唐放火燒戰船 宋江兩敗高太尉

이야기는 이러하다. 고구는 수군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다. 막 군을 돌려 물러나려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구는 급히 장수들을 불러 모아 길을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양산박에서는 대포만 사방으로 쏘아 올렸을 뿐, 매복한 병사는 없었다. 하지만 고구는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쥐새끼처럼 허둥지둥 도망쳤고, 밤새 군사를 거두어 제주로 퇴각했다. 병력을 헤아려 보니 보병의 손실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수군은 절반 이상을 잃었고 전함은 단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다. 유몽룡은 간신히 몸을 피해 돌아왔다. 물을 헤엄칠 줄 아는 병사는 목숨을 건졌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고구의 군대는 기세가 꺾이고 위엄이 땅에 떨어졌다. 그는 일단 성안에 군마를 머물게 한 뒤, 우방희가 배들을 징발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

내 공문을 전달하며 재촉하기를, 어떤 배든 상관없으니 쓸 만한 배는 모조리 징발하여 제주로 압송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진군할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한편, 양산박에서는 송강과 동평이 먼저 산으로 올라왔다. 송강은 화살을 뽑아낸 뒤, '신의' 안도전을 불러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안도전이 금창약(살을 아물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하는 약)을 상처 부위에 발라주자, 부상당한 동평은 산채에서 요양하게 되었다. 오용은 모든 두령을 불러 산으로 올라오게 했다. 수군 두령 장횡은 당세웅을 압송하여 충의당으로 가서 공을 청했으나, 송강은 그를 일단 후채에 느슨히 가두어 두라고 명했다. 탈취한 배들은 모두 수군 진영으로 거두어들여 각 두령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편, 고구는 제주 성안에서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양산박을 토벌할 방책을 논의했다. 이때 상당절도사 서경이 나아가 보고했다. "저 서경이 젊은 시절 강호를 떠돌며 창을 팔고 약을 팔던 시절, 한 사람과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법에 매우 밝고 군사 기밀을 잘 알아서, 손자와 오자의 재능과 제갈량의 지략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성은 문씨이고 이름은 환장이라 하는데, 지금은 동경 성 밖 안인촌에서 교학(선생)으로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참모로 모셔올 수 있다면 오용의 궤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장수 한 명을 보내 비단과 말과 안장을 갖추게 한 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경으로 달려가게 하여, 안인촌의 수재 문환장을 정중히 모셔와 군의 참모로 삼게 했다. 또한 그가 하루빨리 제주로 내려와 함께 군무를 논의하도록 했다. 그 장수가 도성으로 돌아간 지 닷새도 되지 않아 성 밖에서 급보

가 전해졌다. 송강의 군마가 성 근처까지 들이닥쳐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고구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본부의 군사를 점검해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게 했으며, 각 진영의 절도사들에게도 함께 출전하여 맞서 싸우라고 명했다.

한편, 송강의 군마는 고구가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히 15리 밖의 평탄하고 넓은 들판으로 퇴각했다. 고구가 군사를 몰아 추격해 오자, 송강의 병마는 이미 산기슭 언저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붉은 깃발 부대 가운데서 한 명의 맹장이 나타났는데, 깃발에 쓰인 글자가 선명하니 바로 '쌍편' 호연작이었다. 그는 말을 몰아 멈춰 서서 창을 가로로 쥐고 진 앞에서 버티고 섰다. 고구가 이를 보고 말했다. "저놈이 바로 연환마를 거느리고 조정에 반기를 들었던 놈이로구나." 그러고는 즉시 운중절도사 한존보를 출전시켜 적을 맞이하게 했다. 한존보는 방천화극을 매우 잘 다루는 장수였다. 두 사람이 진 앞에서 만나자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한 명은 창을 찔러 넣고 한 명은 화극으로 맞서며 싸웠다. 두 사람이 50여 합을 싸우던 중, 호연작이 허점을 보이는 척하며 잽싸게 빠져나가 말을 몰아 산기슭 아래로 도망쳤다. 한존보는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말을 달려 뒤쫓았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5~7리쯤 되는 인적 없는 곳까지 쫓아갔을 때, 호연작이 갑자기 말을 돌리고 창을 휘두르며 쌍편을 휘둘러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이 다시 10여 합을 더 싸우더니, 쌍편으로 화극을 밀어내고는 다시 말을 돌려 달아났다. 한존보는 생각했다. '저놈은 창으로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채찍으로는 나를 당해내지 못하니, 여기서 몰아붙이면 저 도둑놈을 생포하는 건 시간문제다!' 한존보가 기세를 몰아 쫓아가 산고개를 돌아서니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 호연작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한존보가 말을 멈추고 산비탈 위에서 살펴보니, 호연작이 어느 시냇물을 따라 돌아가고 있었다. 한존보가 크게 외쳤다. "이 고약한 놈아, 어디로 도망가느냐!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호연작은 도망치기는커녕 한존보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한존보는 크게 돌아서서 호연작의 뒤를 차단하려 했다. 두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서 마주쳤다.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시냇물이라, 가운데 좁은 길 하나뿐이라 두 말이 서로 돌며 싸우기엔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호연작이 말했다. "항복하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느냐!" 한존보가 대꾸했다. "네놈은 내 손에 떨어진 패장 주제에 오히려 내게 항복하라니!" 호연작이 다시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끌어온 것은 너를 생포하기 위함이다. 네 목숨은 이제 경각에 달려 있다!" 한존보가 외쳤다. "내가 바로 너를 생포하러 왔다!" 두 사람의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한존보는 장극을 치켜들고 호연작의 가슴과 옆구리, 배 쪽을 향해 빗줄기처럼 찢러 들어갔다. 호연작은 창을 휘둘러 좌우로 막아내며 바람처럼 파고들었다. 두 사람이 다시 30여 합을 더 싸웠다. 싸움이 한창 격렬해질 무렵, 한존보가 화극으로 호연작의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호연작은 창으로 한존보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두 사람이 몸을 급히 피했으나, 무기가 모두 옆구리 아래로 파고들었다. 호연작은 한존보의 화극 자루를 붙잡았고, 한존보는 호연작의 창 자루를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말 위에서 서로 끌어당기고 붙잡으며 허리와 골반을 쥐고 힘을 겨루었다. 그러다 한존보의 말이 뒷발을 먼저 시냇물에 디터 미끄러졌고, 호연작도 말과 함께 시냇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 두 사람이 물속에서 한데 뒹꼈다. 말들이 발을 구르는 바람에 물보라가 튀어 두 사람 모두 물을 뒤집어썼다. 호연작은 손에 든 창을 버리고 화극 자루를 붙잡은 채 급히 채찍을 잡으려 했고, 한존보 역시

창 자루를 놓아버린 채 양손으로 호연작의 두 팔을 붙잡고 서로 잡아당기며 물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두 마리 말은 별똥별처럼 물 밖으로 튀어나와 산 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두 사람은 시냇물 속에서 무기도 잃어버리고 투구도 벗겨졌으며, 갑옷마저 흩어진 채 맨주먹으로 물속에서 서로를 치고받았다. 한 번 주먹을 내지르면 다시 한 번 받아치며, 깊은 물에서 얇은 물로 옮겨 다니며 싸움을 이어갔다. 한창 떼어 놓을 수 없을 때, '물우전' 장청이 이끄는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왔다. 장청과 부하들이 달려들어 한존보를 생포했다. 급히 사람을 보내 도망간 말 두마리를 찾게 하니, 말들이 사람 소리와 말 울음소리를 듣고 제 무리를 찾아 돌아온 덕분에 겨우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이어 시냇물 속에서 무기를 건져 호연작에게 돌려주었다. 호연작은 젖은 몸으로 말에 올라탔고, 한존보는 말 안장에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함께 골짜기 입구로 향했다. 그때 마침 한존보를 찾으러 오던 한 무리의 군사와 딱 마주쳤다. 그 무리를 이끄는 두 절도사는 메전과 장개였다. 메전은 물에 젖은 채 말에 묶여 있는 한존보를 보고 크게 노하여 삼점양인도를 휘두르며 장청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세 합도 채 되지 않아 장청이 달아나자 메전이 뒤쫓았다. 장청이 가볍게 팔을 뻗어 허리를 비틀며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히 메전의 이마에 맞았다. 메전은 피가 솟구치자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장청이 급히 말을 돌리려 할 때, 장개가 화살을 먹여 시위를 가득 당겨 쏘았다. 장청이 급히 말머리를 치켜들었으나 화살이 말의 눈에 정통으로 박히며 말이 쓰러졌다. 장청은 말에서 뛰어내려 창을 잡고 보병으로 맞서 싸웠다. 장청은 본래 돌을 던져 상대를 제압하는 재주만 있었을 뿐, 창술은 다소 느렸다. 장개가 먼저 메전을 구하고 그다음에 장청과 맞붙었다. 말 위에서 휘두르는 장개의 창은 신출귀몰하여, 장청은 그저 막아내기

에 급급할 뿐이었다. 결국 장청은 창을 끌고 말 부대 속으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장개가 창을 휘두르며 말 위에서 몰아붙이니, 군사 오륙십 명이 뿔뿔이 흩어졌고 장개는 다시 한존보를 탈취했다. 장개가 돌아가려 할 때, 큰 함성 소리와 함께 골짜기 입구로 두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다. 하나는 '벽력화' 진명이고, 다른 하나는 '대도' 관승이었다. 두 맹장이 무섭게 몰아치자, 장개는 겨우 메전을 대피시킨 뒤 두 길로 몰려드는 적군에 밀려 한존보를 다시 빼앗기고 말았다. 장청은 겨우 말 한 마리를 가로챘고, 호연작은 온 힘을 다해 군사들 틈에서 겨우 버티며 싸웠다. 양산박 군사들이 일제히 관군 진영 앞까지 몰아치며 기세를 타고 들이치자, 관군은 제주로 퇴각해 돌아갔다. 양산박의 군사들은 추격하지 않고, 한존보를 밤새 압송하여 산채로 데려갔다.

송강 일행은 충의당에 앉아 있다가 묶여 있는 한존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군사들을 물러나게 한 뒤 직접 포박을 풀어 그를 대청에 앉히고 정성껏 대접했다. 한존보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송강은 당세웅을 불러와 함께 대접하게 했다. 송강이 말했다. "두 장군께서는 부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희 송강 일행은 결코 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에게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죄를 사하고 초안(죄를 사하고 불러들임)을 내려준다면, 기꺼이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탬 것입니다."

한존보가 물었다. "지난번 진 태위가 가져온 초안 조서가 산에 도착했는데, 어찌하여 그 기회를 타서 바른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조정의 조서라 할지라도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술로 어주(임금의 술)를 바꿔치기하기까지 하니, 저희

형제들 모두 마음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 장 간판과 이 우후라는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장수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한존보가 말했다. "중간에 이를 바로잡아줄 좋은 사람이 없으니 국가의 큰일을 그르치고 있군요."

송강이 연회를 베풀어 대접을 마쳤다. 이튿날, 말과 안장을 갖추어 그들을 골짜기 입구까지 배웅했다. 길을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송강의 덕망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제주 성 밖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성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고구 태위를 뵈고 송강이 두 장수를 풀어준 일을 보고했다.

고구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이것은 도적놈들이 군심을 흔들기 위해 부린 꾀계로다! 네놈들이 무슨 낯으로 나를 보느냐! 좌우는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어 참수하고 보고하라!"

이때 왕환을 비롯한 여러 관리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이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송강과 오용의 계책입니다. 만약 이들을 죽인다면 도리어 도적놈들에게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고구는 여러 사람의 간곡한 호소에 못 이겨 두 사람의 목숨은 살려 주되, 관직을 박탈하여 동경 태을궁으로 보내 죄를 묻게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도성으로 압송되었다.

알고 보니 한존보는 한충언의 조카였다. 한충언은 국로태사(國老太師)로서 조정의 여러 관리가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다. 그의 문관 교수 중에 정거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본래 한충언이 풀어준 덕분에

현재 어사대부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다. 한존보가 이번 일을 정거충에게 알렸다. 정거충은 가마를 타고 한존보를 데리고 가서 상서 여심을 만나 이 일을 함께 의논했다. 여심이 말했다. "반드시 태사께 먼저 아뢰어야 면전에서 보고할 수 있소."

두 사람이 채경을 찾아가 말했다. "송강은 본래 탄 마음이 없으며, 오직 조정에서 초안을 내려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채경이 말했다. "지난번 조서를 훼손하고 윗사람을 비방했으니, 이토록 무례한 자들을 어찌 초안할 수 있겠느냐! 그저 토벌하여 잡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다시 아뢰었다. "지난번 초안 때에는 안타깝게도 보낸 사신이 조정의 덕스러운 뜻을 제대로 펴고 정성껏 위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을 전하기는커녕 오로지 이해득실만 따졌으니, 이래서는 일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그제야 채경이 허락했다. 다음 날 아침 조례 때, 천자가 편전에 오르자 채경은 다시 조서를 내려 초안을 진행하겠다고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천자가 말했다. "지금 고태위가 안인촌의 문환장을 참모로 청하여 군 앞에 보내 쓰고자 하니, 즉시 이 사람을 사신과 동행시켜 보내라. 만약 그들이 항복한다면 본래의 죄를 모두 면해줄 것이나, 만약 여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면 고구에게 기한을 정해주어, 그날까지 모두 토벌해 멸한 뒤에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라."

채 태사가 조서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문환장을 불러 성(省)의 연회에 나오게 했다. 문환장은 본래 이름난 문사라 조정 대신들 중 그를 아

는 이들이 많았는데, 모두 술과 음식을 갖추어 그를 맞이했다. 연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흩어지고 각자 떠날 채비를 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여러 해 교수(문환장)는 안인촌에 은거해 있었는데,
갑자기 군영의 부름을 받아 임금의 조서를 받들었네.
조정에는 권세 높은 옛 지인들이 가득하건만,
어찌 어진 이를 추천하는 이는 한 명도 없는가.

한편, 문환장은 천사를 수행하여 도성을 떠났다. 한편 고구 태위는 제주에서 마음속으로 번뇌하고 있었다. 이때 문관이 달려와 보고했다. "우방희가 도착했습니다!" 고구가 즉시 그를 불러들여 인사를 나눈 뒤 물었다. "배들은 어떠한가?" 우방희가 아뢰었다. "길목에서 크고 작은 배 천오백여 척을 나포하여 모두 갑문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고구는 크게 기뻐하며 우방희에게 상을 내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명령을 내려 모든 배를 넓은 항구에 집어넣게 했다. 배 세 척을 한 줄로 세워 말뚝을 박아 고정하고, 그 위에는 판자를 깔았으며, 배 뒷부분은 철 고리로 단단히 잠갔다. 모든 보병을 배에 태우고, 나머지 기마병들은 물가에서 배를 호위하게 했다. 이렇게 군사들을 배에 태워 훈련을 시키다 보니 어느덧 보름이 지났는데, 양산박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오용은 유당을 불러 계책을 일러주며 수로를 맡아 공을 세우게 했다. 수많은 수군 두령들도 각자 작은 배들을 준비했는데, 배 앞머리에는 철판을 겹겹이 박아 고정하고 선실 안에는 갈대와 마른 땔감을 가득

실었다. 땀감 사이사이에는 불을 붙이기 좋게 유황과 초석을 채워 넣은 뒤, 작은 항구 안에 매복시켰다. 또한 포수 능진에게 사방이 트인 높은 산 위에서 포를 쏘아 신호를 보내게 하고, 물가의 나무가 우거진 곳에는 나무마다 깃발을 묶어 놓았다. 그리고 곳곳에 금과 북, 화포를 배치하고 인마를 허위로 배치하여 진영을 꾸며놓은 뒤, 공손승에게 청하여 법술로 바람을 다스리는 제사를 지내게 했다. 육지에는 세 부대의 군마를 나누어 배치하여 지원하게 했다. 오용이 이 모든 계획을 다 그려서 일러주었다.

한편, 고구 태위는 제주에서 군마와 수군을 재촉했다. 수로의 통군은 우방희가 맡았고, 유몽룡과 당세영까지 이 세 사람이 통솔했다. 고구 태위가 갑옷을 갖춰 입고 북을 세 번 울리자, 항구에서는 배들이 출항하고 육지에서는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배는 화살처럼 빠르게 나아갔고 말은 날아갈 듯 질주하며 양산박을 향해 들이닥쳤다.

먼저 수로의 상황을 살펴보니, 배들이 샷대를 잇대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양산박 깊숙한 곳까지 몰려 들어갔으나, 적의 배는 단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점차 금사탄에 가까워지니, 연꽃이 흐드러진 물결 사이로 어선 두 척이 보였다. 배마다 사람은 고작 두 명뿐이었는데, 그들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 있었다. 앞서가던 배에서 유몽룡이 즉시 화살을 쏘아 난사하라 명령하자, 어부들은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렸다. 유몽룡이 급히 전함을 몰아 금사탄 기슭에 다다르니, 물가에는 버드나무가 음산하게 늘어서 있었다. 버드나무에는 황소 두 마리가 매여 있었고, 푸른 풀밭 위에는 목동 서너 명이 잠들어 있었다. 멀리서는 또 다른 목동 하나가 황소를 거꾸

로 타고 앉아 입으로 울고 짜는 듯한 피리 소리를 불며 다가오고 있었다. 유몽룡은 용맹한 선봉대에게 먼저 상륙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목동들이 벌떡 일어나 허허 웃더니 버드나무 그늘 깊은 곳으로 몽땅 뛰어 들어갔다.

전진하던 오백에서 칠백 명가량의 군사가 상륙하려는데, 갑자기 버드나무 그늘 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양쪽에서 전투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왼쪽에서는 '벽력화' 진명이 이끄는 붉은 갑옷의 군대가 튀어나왔고, 오른쪽에서는 '쌍편' 호연작이 이끄는 검은 갑옷의 군대가 튀어나와 각각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물가를 차단했다. 유몽룡이 급히 군사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소리쳤으나, 이미 장교의 태반이 쓰러져 나갔다. 우방희는 앞선 부대의 함성을 듣고 뒷배들을 일단 물러나게 했다.

그때 산 정상에서 연달아 포성 소리가 들리더니, 갈대밭 사이로 바람이 뽕뽕 부는 소리가 났다. 알고 보니 공손승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든 채, 강두를 밟고 별자리를 짚어 가며 산 정상에서 바람을 부르는 법술을 펼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무와 숲 사이를 뚫고 바람이 지나더니, 이내 돌이 튀고 모래가 날아다녔다. 순식간에 하얀 파도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 구름이 땅을 뒤덮어 붉은 해가 빛을 잃었으며 광풍이 몰아쳤다. 유몽룡이 급히 노를 저어 되돌아가려 했으나, 갈대 숲과 연꽃 사이, 그리고 좁은 작은 항구마다 작은 배들이 쏟아져 나와 대함대 사이로 파고들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일제히 햇불을 밝히니,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불꽃이 하늘로 비상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대형 함선 안으로 파고들었

고, 앞뒤의 관선들까지 모두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은 다음과 같으니,

검은 연기는 푸른 물결을 어지럽히고, 붉은 불길은 맑은 파도 위로 치솟았다. 매서운 바람은 연꽃 잎을 말아 올려 하늘 가득 날려 보내고, 거센 불길은 갈대숲을 태우며 즐기마저 꺾어버렸다.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니 흐릿한 햇빛조차 빛을 잃었고, 산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는 듯한 거센 파도 소리는 마치 분노한 듯했다. 함선들은 모두 뒤집히고, 키와 노는 모두 쓸모가 없게 되었다. 배 뒷머리의 깃발들은 청색과 홍색이 뒤섞여 보이지 않고, 누각 위의 창칼들은 서리 내린 눈밭에서 서로 엉켜 뒤섞였다. 죽은 병사들은 물고기와 자라와 함께 떠다니고, 뜨거운 피는 파도와 함께 끓어올랐다. 천 갈래 불길은 하늘까지 닿을 듯 솟구치고, 만 갈래 연기와 안개는 물 위를 낮게 깔리며 날아다녔다.

당시 유몽룡은 항구 가득 불길이 치솟고 전함들이 모두 타오르는 것을 보고는, 투구와 갑옷을 버려둔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해안가 근처에도 감히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항구의 깊고 넓은 물가를 골라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런데 갈대숲 사이에서 한 사람이 작은 배를 몰고 곧장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유몽룡이 급히 물속으로 몸을 숨겼으나, 뜻밖에도 누군가 그의 허리를 덥석 껴안더니 배 위로 끌어올렸다. 배를 젓는 이는 '출동교' 동위였고, 허리를 껴안은 이는 '혼강룡' 이준이었다.

한편, 우방희는 사방의 관선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무장을 버린 채 물에 뛰어들려 했다. 그때 배 끝에서 한 사람이 쭉 솟아오르더니, 갈고

리를 휘둘러 그의 머리부터 낚아채고는 그대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사람은 바로 '선화아' 장황이었다. 이 양산박의 전투로 물 위에는 시체가 즐비하고 파도 중심에는 피가 튀었으며, 얼굴과 머리가 짓이겨진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오직 당세영만이 작은 배를 저으며 도망치고 있었는데, 한창 가던 중에 갈대숲 양쪽에서 쇠뇌와 화살이 일제히 쏟아져 그를 물속에서 쏘아 죽였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수많은 군졸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갔으나, 수영을 못 하는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생포한 자들은 모두 양산박 본채로 압송했다.

이준은 유몽룡을 잡았고, 장황은 우방희를 잡았다. 그들은 이들을 양산박으로 압송하려 했으나, 흑여 송강이 다시 풀어줄까 두려웠다. 두 호걸은 서로 상의한 끝에, 이 두 사람을 길가에서 바로 처단하여 목을 베어 산으로 보냈다.

한편, 고구 태위가 군마를 이끌고 물가에서 지원하려는데, 연달아 포성 소리가 들리고 북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물 위에서 싸움이 벌어진 줄로 짐작하고, 말에 채찍질을 하여 산과 물이 맞닿은 곳으로 급히 달려가 살폈다. 그런데 수많은 군사가 물속에서 목숨을 구하려 허우적거리며 해안가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고구가 자기네 군사임을 알아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배들이 모두 불타버려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더욱 당황했다.

그때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돌려 옛길로 퇴각하려 했다. 그런데 산 앞에서 북소리가 울리더니, 한 무리의 기마대가 갑자기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았

다. '급선봉' 소초가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말을 몰아 급히 달려든 것이다. 고구 곁에 있던 절도사 왕환이 창을 들고 나아가 소초와 맞붙었으나, 다섯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소초가 말을 돌려 물러났다. 고구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며 산등성이를 돌았으나, 소초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가는데 뒤쪽에서 '표자두' 임충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쳐 한바탕 몰아쳤다. 다시 6, 7리쯤 달아나니 이번에는 '청면수' 양지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또 한 차례 몰아쳤다. 다시 8, 9리를 더 달아나니 뒤에서 '미염공' 주동이 쫓아와 또 한바탕 몰아쳤다. 이것은 바로 오용이 쓴 추격 계책이었다. 앞길을 막아 세우는 대신 뒤에서 계속 몰아치면, 패배한 군사들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오직 도망치기에만 급급하여 후군을 돌볼 겨를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고구 태위는 정신없이 쫓기며 제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는데, 성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삼경(밤 11시~새벽 1시)이 지난 뒤였다. 그러다 성 밖 진영에서 불이 나고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알고 보니 석수와 양웅이 오백 명의 보병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불을 서너 군데 질러놓고 몰래 사라진 것이었다. 고구는 혼비백산하여 연신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한 뒤에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이때 군마와 병력의 태반을 잃고 말았다.

고구가 한창 망연자실해 있을 때, 멀리서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천사가 도착했습니다!" 고구는 즉시 군마와 절도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천사를 맞이했다. 천사를 만나자마자 죄를 사하고 불러들인다는 초안(招安)에 관한 조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

두 문환장 참모사와 함께 성안의 수사부(帥府, 사령부)로 들어가 상의했다.

고구 태위는 먼저 조서의 초안을 가져와 살펴보았다. 초안을 받지 않자니 이미 두 차례나 진영을 잃고 수많은 배를 징발했다가 모두 불타 버리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렇다고 초안을 받자니 도성으로 체면을 구기고 돌아갈까 두려웠다. 마음속으로 망설이며 며칠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에 왕근(王瑾)이라는 이름의 늙은 관리가 있었다. 그는 평생 성품이 독랄하여 사람들이 모두 '완심왕(剋心王, 심장을 도려내는 왕)'이라 부를 정도였는데, 제주부에서 수사부로 파견되어 일하는 아전이었다. 그는 조서의 초안을 보고 고구 태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곧 수사부로 찾아가 좋은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대인께서는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인이 조서를 보니 이미 살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조서를 초안한 한림대조(翰林待詔, 황제의 자문에 응하는 관리)가 분명 대인과 가까운 사이일 것이니, 이미 뒷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고구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물었다. "어찌 뒷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가?"

왕근이 아뢰었다. "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의 한 줄입니다. 거기에는 '송강, 노준의 등 크고 작은 무리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사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원래 한 덩어리

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읽을 때 두 문장으로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송강을 제외하고'를 한 문장으로 끊고, '노준의 등 크고 작은 무리들의 죄를 사면한다'를 별개의 문장으로 읽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성안으로 유인한 뒤, 우두머리인 송강 한 명만 잡아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놓아 따로 관리하면 됩니다. 예부터 이르기를 '뱀은 머리가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고, 새는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송강만 없으면 나머지 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방법이 대인의 뜻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왕근을 수사부 장사(長史, 행정 책임자)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문 참모에게 이 일을 논의하게 했다. 문환장이 간언했다.

"당당한 천사를 모시는 자리이니 마땅히 정당한 도리로 대해야지, 사람을 속이는 꾀계(詭計)를 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송강 휘하에 지락이 있는 자가 이를 알아채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매우 곤란해질 것입니다."

고구 태위가 말했다. "아니다! 예부터 병법에 이르기를 '병법은 기만하는 길을 쓴다'고 했다. 어찌 항상 정정당당하게만 하겠느냐?"

문 참모가 다시 말했다. "비록 병법에서 기만술을 말한다 하나, 이번 일은 천자의 성지(聖旨)입니다. 천하의 믿음을 얻기 위한 일이지요. 예부터 왕의 말씀은 신타래처럼 단단하여 '옥음(玉音)'이라 불리니, 결코 고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행동했다가 나중에 이를 아는 자가 생기면, 앞으로 어찌 왕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구 태위가 말했다. "우선 눈앞의 일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따지면 될 것이다."

그는 결국 문환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 먼저 사람을 양산박으로 보내, 송강 일행 모두에게 천자의 조서를 듣고 죄를 사면받으러 제주 성하로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한편, 송강은 고구 태위를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었다. 불타버린 배들은 하급 군사들에게 시켜 땔감으로 쓰게 하고, 타지 않은 배들은 모두 수채(水寨, 수군 진영)로 거두어들였다. 다만 생포한 적군 장수들은 차례차례 모두 제주로 돌려보냈다.

그날 송강과 크고 작은 두령들이 충의당에 모여 의논하고 있는데, 한 하급 군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제주부에서 사람을 보내 산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조정에서 특별히 천사를 파견하여 조서를 내리니, 죄를 사하고 불러들여 관직과 작위를 내리려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합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듯 기뻐하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었다. 그는 곧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당에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초안을 시행하러 합니다. 고구 태위가 저를 시켜 크고 작은 두령들께 전하기를, 모두 제주 성하로 내려와 예법을 갖추고 조서를 듣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의 이의가 없도록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 합니다."

송강은 군사 오용을 불러 상의하여 결정을 내린 뒤, 은자와 비단 등을 챙겨온 사람에게 상으로 주고 먼저 제주로 돌려보냈다. 이어 송강이

명령을 내려 크고 작은 두령들 모두에게 조서를 듣기 위해 채비를 갖추라고 일렀다.

그러자 노준의가 말했다. "형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혹시 이것이 고구 태위의 계략일까 두려우니, 형님께서 성급히 내려가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대들이 이토록 의심한다면 어떻게 조정에 귀순하여 바른길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좋은 싫든 일단 한 번 다녀와야 하네."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고구 그놈은 우리에게 혼쫓이 나 간담이 서늘해졌으니, 설령 열 가지 계책이 있다 한들 제대로 펼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의기투합한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의심하지 말고, 그저 송공명 형님을 따라 산을 내려가십시오. 제가 미리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우선 '흑선풍' 이규를 보내 번서, 포옥, 향충, 이곤과 함께 보병 천 명을 거느리고 제주 동쪽 길에 매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장청' 호삼낭을 보내 고대소, 손이낭, 왕왜호, 손신, 장청과 함께 보병 천 명을 거느리고 제주 서쪽 길에 매복시키겠습니다. 그러다 연달아 포성 소리가 들리면 즉시 북문으로 달려와 합류하십시오."

오용이 배치한 계획이 정해지자 모든 두령이 산을 내려갔고, 수군 두령들만 남아서 진영과 배를 지키게 했다. 고구 태위가 속임수를 써서 이 영웅들을 산 아래로 유인하려 하고, 문 참모의 간언도 듣지 않았으니, 이들이 제주 성하로 가는 대신 구리산 앞으로 향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정말로 임금의 조서 한 장이 장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결국 수많은 호걸이 제주에서 어떤 난리를 일으키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0회 — 장순이 누해의 추선에 구멍을 뚫고, 송강이 고태위를 세 번 패하다

張順鑿漏海鰓船 宋江三敗高太尉

이야기는 이러하다. 태위 고구는 제주성 안의 수부(帥府, 사령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왕환을 비롯한 여러 절도사들을 불러 모아 논의했다.

"명령을 내려 각로의 군마를 모두 불러 모으고, 진영을 거두어 성 안으로 들여라. 지금의 절도사들은 모두 갑옷과 무장을 갖추고 성 안에 매복하게 하고, 각 진영의 군사들도 남김없이 성 안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도록 하라. 성 위의 깃발은 모두 내리되, 북문 위에만 '천조(天詔, 황제의 조서)'라고 적힌 황색 깃발 한 면을 세워두어라."

고구는 천사와 관리들을 거느리고 모두 성 위에 올라가 송강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양산박에서는 먼저 몰우전 장청이 오백 명의 정찰 기병을 거느리고 제주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북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신

행태보' 대종이 걸어서 한 차례 살피러 왔다. 이 소식이 태위 고구에게 전해지자, 고구는 직접 월성(月城) 위 여장(女牆, 성벽 위의 낮은 담) 근처로 올라갔다. 좌우로 백여 명의 수행원이 깃발과 천막을 크게 펼치고 앞에 향안(香案, 향을 놓는 상)을 차려 놓은 채, 북쪽에서 다가오는 송강의 군마를 멀리 바라보았다. 앞장선 쪽에서는 금고를 치고 오방색 깃발을 세웠으며, 여러 두령은 키(簾箕) 모양, 광주리 테(栲栳) 모양, 기러기 날개 모양의 진형으로 늘어선 채 다가오고 있었다. 그 선두에는 송강, 노준의, 오용, 공손승이 말을 탄 채 몸을 약간 굽혀 고구에게 인사를 건넸다. 고구가 이를 보고 성 위에서 소리쳤다. "지금 조정에서 죄를 사해주고 특별히 조안(招安)하려 하니, 어찌하여 갑옷을 입고 오는 것이냐?" 송강은 대종을 성 아래로 보내 대답하게 했다. "저희를 포함한 크고 작은 인원들이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여 조서의 뜻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감히 무장을 한 채 나아갈 수 없사오니, 태위께서는 성 안의 백성과 어르신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함께 조서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때 은혜를 입으면 비로소 갑옷을 벗겠습니다." 고구가 명령을 내려 성 안의 어르신들과 백성들을 모두 성 위로 불러 모아 조서를 듣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모두 성 위에 가득 찼다. 송강 일행은 성 위에 노인과 아이들까지 가득 찬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북을 한 번 울리자 장수들이 말에서 내렸고, 북을 두 번 울리자 장수들이 성벽 근처까지 걸어갔다. 뒤따르던 소교(小校, 하급 군관)들은 전마를 끌고 성에서 화살 한 대 거리쯤 떨어진 곳에서 일제히 대기했다. 북을 세 번 울리자 장수들은 성 아래에서 손을 모아 깎듯이 예의를 갖추었고, 성 위에서 조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천사가 조서를 다 읽자:

조서에 이르기를,

"사람의 본래 마음은 본래 두 갈래로 나뉘지 않으며, 나라의 변치 않는 도리 또한 모두 한결같은 이치이다. 선을 행하면 어진 백성이 되고, 악을 저지르면 역적의 무리가 된다. 짐은 양산박에 무리가 모인 지 오래되었으나, 선한 가르침을 입지 못하여 양심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이에 천사를 보내 조서를 내리니, 송강과 노준의를 비롯한 크고 작은 모든 인원이 저지른 죄를 모두 사면하노라. 우두머리들은 도성에 올라와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따르며 도운 자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아, 속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사악함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만약 천둥 같은 엄벌을 범한다면,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하려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조서를 내리니, 마땅히 모두가 이를 알아듣도록 하라."

그때 군사 오용은 조서를 듣다가 '제송강(除宋江, 송강은 제외한 다)'이라는 세 글자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는, 눈으로 화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군, 들었소?" 조서 낭독이 끝나자마자 화영이 크게 외쳤다. "우리 형님을 사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화영은 즉시 화살을 메고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더니, 조서를 읽던 천사를 겨냥하며 외쳤다. "화영의 신묘한 화살을 보아라!" 화살 한 대가 천사의 얼굴 정중앙에 명중하자 사람들이 급히 달려들어 구했다. 성 아래에 있던 호걸들도 일제히 "반란이다!"라고 외치며 화살을 성 위로 쏘아 올렸다. 고구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몸을 숨겼다. 성의 네 문에서는 군마들이 튀어나왔다. 송강의 군영에서 북소리가 한 번 울리자, 장수들이 일제히 말에 올라타 달아나기 시작했다. 성 안의 관군은 그들

을 쫓아갔으나 대략 오륙 리쯤 가다 돌아왔다. 그때 후군 쪽에서 포성 소리가 들리더니, 동쪽에서는 이규가 보병을 이끌고 들이닥쳤고, 서쪽에서는 호삼낭이 기병을 이끌고 달려왔다. 두 갈래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합류한 것이다. 관군은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급히 퇴각하려 했으나, 송강 일행이 오히려 몸을 돌려 휘몰아치며 공격해 왔다. 삼면에서 협공을 당하자 성 안의 군마들은 크게 혼란에 빠졌고, 급히 도망치다 죽임을 당하는 자가 속출했다. 송강은 군사를 거두어 추격하지 못하게 한 뒤, 그대로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한편, 고구는 제주에서 상소문을 작성하여 조정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송강 일파는 도적 떼로, 천사를 화살로 쏘아 죽였으니 조안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채 태사, 동 추밀, 양 태위에게 밀서를 보내 이 일을 상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채 태사가 황제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가는 길목마다 군량과 식량을 보급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사를 보내어 힘을 합쳐 도적 떼를 토벌하라고 명했다.

한편, 채 태사는 고구의 밀서를 받자마자 곧장 조정으로 들어가 황제에게 보고했다. 황제는 보고를 듣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다.

"저 도적 떼가 여러 차례 조정의 체면을 깎아놓더니, 이제는 대역죄까지 저질렀구나."

황제는 즉시 칙령을 내려 각 지역의 군마가 고구를 돕도록 하고, 모든 군사 지휘권을 고구에게 일임했다. 양 태위는 이미 지난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영사(御營司, 황제 직속 군사 기관)에서 장수 두 명을 다시 선발했다. 그리고 용맹, 호익, 봉일, 충의라는 네 개의 영(營, 군부대 단위)에서 각각 정예병 오백 명씩을 뽑아 총 이천 명을 모은 뒤, 두 명의 상급 장수를 따라 고구를 도와 도적을 토벌하러 떠났다.

이 두 장수는 누구인가? 한 명은 팔십만 금군의 도교두(都敎頭, 교두급 장수)로서 좌의위 친군 지휘사 겸 호가 장군인 구악이고, 다른 한 명은 팔십만 금군의 부교두로서 우의위 친군 지휘사 겸 차기장군인 주앙이다. 이 두 장수는 그동안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워 명성이 해외에까지 떨쳤으며, 무예가 매우 깊어 경사(京師, 수도)를 진압할 정도의 위엄을 떨치고 있었다. 또한 고구의 심복이기도 했다.

당시 양 태위가 두 장수를 결정하여 즉시 출발하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채 태사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고했다. 채경이 말했다.

"매사에 조심하여 큰 공을 세우게나. 그러면 반드시 중용할 것이네!"

두 장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물러났다. 네 개의 영에서는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하며 허리는 가늘고 어깨가 넓은 자들을 골라냈다. 산동과 하북의 지형에 익숙하여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는 데 능한 정예병들을 두 장수에게 배속시켰다. 구악과 주앙은 여러 원관(院官, 조정 관리)에게 작별을 고한 뒤, 양 태위를 찾아가 "내일 성을 나서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양 태위는 두 장수에게 전장에서 쓸 좋은 말 다섯

필씩을 하사했다. 두 장수는 태위에게 감사를 표한 뒤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 출정 채비를 마쳤다.

다음 날, 군사들이 말에 짐을 싣고 행군할 준비를 마친 채 모두 어영사 앞에서 대기했다. 구악과 주앙 두 장수는 군사를 네 부대로 나누었다. 용맹과 호익 두 영의 군사 천 명과 기병 이천여 명은 구악이 총괄하고, 봉일과 충의 두 영의 군사 천 명과 기병 이천여 명은 주앙이 총괄했다. 또한 천 명의 보병을 두 장수에게 배속시켜 수행하게 했다. 구악과 주앙은 진시(辰時, 오전 7~9시) 무렵에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쳤다. 양태위는 성문에서 직접 군대를 지켜보았다.

하급 장교들의 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수행하는 용맹한 병사들이 양쪽의 수놓은 깃발 아래, 말들이 모여 있는 무리 속에서 호가장군 구악을 옹위하고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았다.

머리에는 붉은 술이 달린 비단 투구와 쌍봉의 날개가 하늘을 비추는 듯한 화려한 투구를 썼으며, 몸에는 붉은 솜을 덧댄 녹색 비단 옷과 연쇄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비취색 테두리에 구슬을 꿰매고 리치 빛 붉은색 바탕에 금실로 사자를 수놓은 화려한 도포를 걸쳤다. 허리에는 금잎을 박고 옥을 달아 영롱하며, 두 마리 수달의 꼬리 모양에 붉은 못을 박고 용을 새긴 띠를 맸다. 발에는 금실을 수놓은 해표 가죽에 호두 문양을 넣고 초록색 구름 무늬를 칠한 장화를 신었다. 손에는 자단나무 줄통(활자루)에 금을 입힌 활고자, 용 뿔로 장식한 활채, 호랑이 힘줄로 만든 시위를 갖춘 보석 박은 조각궁(寶雕弓)을 쥐었으며, 등에는 자죽가지에 붉은 단추를 달고 봉황 꼬리 깃털과 늑대 이빨 모양의 금 장식

을 한 화살통을 댔다. 허리에는 칠성 장식을 하고 상어 가죽 칼집에 담긴, 용천검이나 거quil검보다 서슬 퍼런 칼날을 가진 보검을 찼으며, 옆에는 붉은 술이 달린 매끄러운 자루에 용이 삼키는 듯한 모양의 반달 모양 삼정도를 찼다. 말은 산을 잘 타고 계곡을 잘 뛰어넘으며, 등에 금 안장을 얹고 옥 재갈을 채운 눈부시게 붉은 명마를 타고 있었다.

구악은 말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고 기개가 넘치는 모습으로 좌군(左隊)의 인마를 이끌었다. 동경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그 뒤를 이어 봉일과 충의 두 영의 군마가 뒤따랐는데, 그 모습이 매우 정연했다. 그들은 양쪽의 수놓은 깃발 아래, 말들이 모여 있는 무리 속에서 차기장군 주앙을 옹위하고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았다.

머리에는 용머리가 조각되고 푸른 술이 달린, 구슬과 은이 번쩍이며 빛나는 투구를 썼으며, 몸에는 창끝과 화살촉이 부서진 흔적이 있는, 향기로운 솜을 덧댄 강철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모란과 쌍봉이 수놓아진 금실 테두리의 진홍색 도포를 걸쳤다. 허리에는 늑대의 허리처럼 탄탄하고 호랑이의 몸집에 어울리는, 칠보 기린 문양을 박은 띠를 댔다. 발에는 세 갈래로 솟은 모양의 해수 가죽에 구름 무늬를 넣은 호랑이 꼬리 모양의 장화를 신었다. 손에는 공작 무늬가 그려진 활채에 용 뿔로 만든 줍통을 대고, 자줏빛 실로 수놓은 육균궁(六鈞弓, 매우 강한 활)을 쥐었으며, 등에는 검은 수리 깃털을 달고 철목(鐵木) 자루에, 당예(唐猊) 갑옷마저 꿰뚫는 끝 모양 화살(鑿子箭)을 가득 채운 화살통을 댔다. 손에는 원달(袁達)을 능가하고 석병(石丙)을 압도하며 산을 쪼갤 듯한 금빛 개산부(開山斧)를 휘둘렀고, 말은 천 근의 무게를 짊어

지고 높이가 여덟 자에 달하며, 진영을 돌파할 수 있는 화룡마를 타고 있었다. 허리에는 은색 자루에 사각형 모서리가 있고 금빛처럼 번쩍이는 피룽간(劈楞鐃)을 찼다.

주앙은 말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우군(右隊)의 인마를 이끌고 성가에 도착했다. 그는 구악과 함께 말에서 내려 양태위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여러 관리와 작별한 뒤, 동경을 떠나 제주를 향해 길을 잡았다.

한편, 고구는 제주에서 문참모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의논하였다. "증원군과 군마가 도착하는 대로, 먼저 사람을 보내 인근 산림에서 큰 나무들을 베어 오게 하시오. 또한 인근 주현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모두 잡아오게 하고, 제주성 밖에 조선소를 세워 전선을 건조하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방을 붙여 용맹한 수사와 군사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제주성 안의 객주에는 엽춘이라는 성을 가진 손님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본래 사주 사람으로 배를 만드는 데 능숙했다. 산동으로 가던 길에 양산박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의 소두목들에게 밀천을 모두 빼앗기는 바람에 제주까지 흘러 들어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구가 승리를 위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양산박을 토벌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종이에 배의 설계도를 그려 고구를 찾아갔다.

고구에게 절을 올린 뒤 엽춘이 아뢰었다. "지난번 은상(恩相)께서 배를 이용해 정벌하려 하셨으나 어찌하여 승리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

것은 배들이 모두 각지에서 억지로 징발해 온 것들이라, 바람을 이용하거나 노를 젓는 법이 모두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는 작고 밑바닥이 뾰족하여 무기를 휘두르며 싸우기도 어렵습니다. 엽춘이 이제 한 가지 계책을 올리니, 만약 이 도적들을 굴복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대형 전선 수백 척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대해구선'이라 부르는데, 양옆에 스물네 개의 수차(水車) 부대를 설치하여 배 안에 수백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각 부대마다 열두 명씩 배치하여 발로 밟아 돌리게 하고, 곁에는 대나무 율타리를 둘러 화살을 피하게 합니다. 또한 배 위에는 노루(弩樓, 쇠뇌를 쏘는 높은 누각)를 세우고 물을 젓는 바퀴 장치(划車)를 따로 만들어 그 위에 늘어놓습니다. 만약 출정할 때 망루에서 딱따기 소리가 한 번 울리면, 스물네 개의 수차를 일제히 힘껏 밟아 돌리니 배가 마치 날아가는 듯한 것입니다. 적들이 어떤 배로 이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적군을 만나면 배 위에 숨겨둔 쇠뇌가 일제히 화살을 쏘아댈 터인데, 적들이 무엇으로 이를 막아내겠습니까! 그다음으로 큰 배는 '소해구선'이라 하며, 양옆에 열두 개의 수차만 두고 배 안에 백 명 남짓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배의 앞뒤에는 긴 못을 박고 양옆에도 노루를 세운 뒤 물을 막는 대나무 발(笹片)을 칩니다. 이 배는 양산박의 작은 물길을 다니며, 저 도적놈들이 셋길에 숨겨둔 복병을 막아내기에 적합합니다. 만약 이 계책대로 한다면 양산박의 도적들은 머지않아 손쉽게 평정될 것입니다."

고구는 이 말을 듣고 설계도를 살펴보더니 크게 기뻐했다. 즉시 술과 음식, 옷을 가져오게 하여 엽춘에게 상을 내리고, 그를 전선 건조를 감독하는 도작두(都作頭, 건조를 총괄하는 우두머리 목수)로 삼았다.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무를 베어 오게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에 제주로 납품하도록 독촉했다. 각 지방의 부와 주, 현에서는 모두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를 대야 했다. 만약 기한을 이틀 넘기면 태형 마흔 대를 내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형벌을 한 단계씩 높였다. 만약 기한을 닷새 이상 어기면 군령에 따라 참형에 처하도록 했다. 각지의 수령들이 백성들을 쥐어짜며 감독하니, 죽어 나가는 백성이 부지기수였고 민심은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우물 안 개구리가 어찌 하늘을 알겠는가,
고구가 거짓말을 믿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구나.
결국 미꾸라지 배로는 이길 수 없으니,
재물만 낭비하고 백성들만 헛되이 고생하네.

한편, 엽춘이 대해구선과 소해구선 등의 건조를 감독하는 동안, 각지에서 파견된 수군들이 속속 제주에 도착하였다. 고구가 각 진영의 절도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대기하게 한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때 관아의 관리가 달려와 보고하였다. "조정에서 구악과 주앙 두 장군을 파견하였습니다."

고구는 즉시 여러 절도사에게 명하여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하게 하였다. 두 장군이 사부(帥府, 장수의 관저)에 도착하여 태위인 고구를 알현하자, 고구는 친히 술과 음식을 내리며 그들을 위로하였다. 그러고는 한편으로는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장군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두 장군은 곧 고구에게 군령을 내려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과 싸우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고구가 말했다. "두 장군께서는 며칠간 머물며 쉬고 계시오. 대해구선이 완비되면 그때 수륙 양면에서 진격하고 배와 기병이 나란히 행군하여, 북소리 한 번에 저 도적들을 평정할 것이오."

구악과 주앙이 아뢰었다. "저 양산박의 도적 놈들을 상대하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과도 같습니다. 태위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승전보를 울리며 동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구가 말했다. "두 장군이 정말로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반드시 천자에게 보고하여 두 분을 중용하도록 하겠소."

그날 연회가 끝나자, 두 장군은 사부 앞에서 말에 올라 타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 군마를 주둔시키며 명령을 기다렸다.

고구가 전선 건조를 재촉하며 출정 준비를 서두르는 사이, 송강과 여러 두령은 제주성 아래에서 천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뒤 양산박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송강은 오용 등과 상의하며 말했다. "두 번이나 조안을 논하는 과정에서 천사를 해쳤으니 죄가 더욱 무거워졌소. 조정에서 반드시 또 군사를 보낼 것이오." 그러고는 곧바로 부하들을 산 아래로 보내 상황이 어떠한지 살피게 한 뒤, 급히 보고하라고 일렀다.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을 자세히 살핀 부하가 산 위로 올라와 보고하였다. "고구가 최근에 수군을 모집하고 있는데, 엽춘을 작두(作頭, 건조 책임자·우두머리 목수)로 삼아 대·소해구선 수백 척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경에서는 새로 어전지휘(御前指揮, 황제의 근위 지휘관) 두 명을 파견했는데, 모두 전투를 돕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성이 구이고 이름은 악이며, 다른 한 명은 성이 주이고 이름은 양인데, 두 장

군 모두 용맹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지에서 많은 인마가 지원을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송강이 오용에게 물었다. "저렇게 큰 배가 물 위를 날 듯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소?"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수군 두령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육로에서의 싸움은 맹장들이 나서서 상대하면 그만이지요. 다만 저런 대형 전선은 만드는 데 반드시 수십 일은 걸릴 것입니다. 아직 마흔에서 쉰 날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먼저 형제 한두 명을 조선소로 보내 한바탕 소란을 피워 흔들어 놓은 뒤에 천천히 본격적인 승부를 겨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 말이 옳소! '고상조' 시천과 '금모견' 단경주,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시오."

오용이 말을 이었다. "여기에 장청, 손신을 더해 나무를 끄는 일꾼으로 변장시켜 인파 속에 섞여 조선소로 들어가게 합시다. 고대소와 손이 낡은 밭을 나르는 아낙네로 변장시켜 일반 부인들 사이에 섞어 들여보내고, 시천과 단경주가 그들을 돕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청이 군사를 이끌고 뒤에서 엄호하게 해야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송강이 즉시 이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리니, 모두가 무척 기뻐하며 각자 임무를 맡아 산 아래로 내려가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고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선 건조를 재촉하며, 아침저녁으로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역에 동원하였다. 제주 동로 일대에는 모두

조선소가 들어서 있었는데, 대해구선 백 척을 서둘러 만들려다 보니 장인만 수천 명에 달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랑캐 같은 군사들은 모두 칼을 뽑아 들고 백성들을 겁박하며, 밤낮을 불문하고 배를 완비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날 시천과 단경주가 먼저 조선소에 도착하여 서로 상의하였다. "보아하니 손가·장가 두 부부는 그저 조선소에 불을 지르러 갈 것이니, 우리까지 그곳에 가 봐야 우리의 숨씨가 드러나지 않네. 우리는 그 이 근처 좌우에 숨어 있다가, 조선소에 불이 나면 나는 성문 근처로 가서 대기하겠네. 그러면 반드시 구원병이 나올 테니, 그 틈을 타서 성루 위로 뛰어 들어가 불을 지르는 것이지. 자네는 성 서쪽의 초료장(草料場, 짚이나 여물을 쌓아두는 곳)으로 가서 불을 지르게. 그러면 적들이 양쪽을 다 막으려다 정신을 못 차릴 걸세. 이번 소동이 꽤나 클 것이야." 두 사람은 몰래 약조를 나누고, 몸에 불을 붙일 약재를 숨긴 채 각자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떠났다.

한편, 장청과 손신이 제주성 아래에 도착하니 삼오백 명의 사람들이 나무를 끌고 조선소로 들어가고 있었다. 장청과 손신도 인파 속에 섞여 나무를 끄는 척하며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다. 조선소 입구에는 이백 명 정도의 군사들이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몽둥이를 든 채, 백성들을 때리며 억지로 나무를 끌고 들어가 바치게 하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앞뒤로 지은 초가 창고만 이삼백 채에 달했다. 장청과 손신이 안을 살펴보니 장인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판자를 켜는 곳, 못을 박는 곳, 배를 붙이는 곳이 제각각 나뉘어 있었고, 장인과 부역꾼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오가는 모습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두 사람은 곧장 밥을 짓는 곳 근처의 울타리 아래로 가서 몸을 숨겼다.

손이랑과 고대소는 때가 묻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각자 밥통을 든 채, 일반적인 밥 나르는 아낙네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달빛이 밝아졌으나, 대다수의 장인은 여전히 일감을 끝내지 못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때는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 무렵이었다. 손신과 장청이 왼쪽 조선소에 불을 질렀고, 손이랑과 고대소도 오른쪽 조선소에 불을 질렀다. 두 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자 초가집들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조선소 안의 백성들과 장인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울타리를 부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고구가 한창 잠든 사이, 갑자기 "조선소에 불이 났습니다!"라는 보고가 들려왔다. 고구는 급히 일어나 관군을 파견하여 성 밖으로 나가 불을 끄게 했다. 구악과 주앙 두 장군이 각자 자기 부대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불을 끄러 나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루 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고구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성루로 불을 끄러 올라가는데, 또다시 보고가 들려왔다. "서쪽 초료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대낮처럼 밝았다.

구악과 주앙 두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서쪽 초료장으로 구원을 가는데, 갑자기 땅을 울리는 북소리와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들려왔다. 알고 보니 '몰우전' 장청이 오백 명의 표기군(驃騎軍, 정예 기병)을 이끌고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구악과 주앙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는 정면으로 달려들어 그들의 군마를 맞닥뜨린 것이었다. 장청이 크게 외쳤다. "양산박의 호걸들이 모두 여기 모였다!" 구악은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장청을 향해 돌진했다. 장청도 장창을 들어 맞서 싸웠으나, 세 합을 겨루지 못하고 말을 몰아 물러났다. 구악은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뒤를 쫓아 달려가며 크게 호통쳤다. "반역놈아, 거기 서라!"

장청은 장창을 짚고 서서 비단 주머니 속에서 돌멩이 하나를 몰래 꺼내 손에 쥐었다. 구악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장청이 기합을 넣으며 외쳤다. "받아라!" 장청이 던진 돌이 구악의 안면을 정면으로 강타했고, 구악은 몸을 뒤척이며 말에서 떨어졌다. 이를 본 주앙이 여러 아장(牙將, 부장)들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구악을 구하러 달려들었다. 주앙이 장청과 맞서 싸우는 사이, 장수들이 구악을 구해 말에 태워 데려갔다. 장청과 주앙이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장청이 다시 말을 돌려 달아나자, 주앙은 쫓아가지 않았다.

장청이 다시 돌아오니, 이번에는 왕환, 서경, 양온, 이종길 네 갈래의 군사가 도착해 있었다. 장청은 오백 명의 표기군에게 신호를 보내 옛길로 돌아가 버렸다. 이곳의 관군들은 혹시 복병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쫓아가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불을 끄는 데만 전념했다. 세 곳의 불이 모두 꺼졌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고구는 구악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게 했다. 알고 보니 그 돌멩이가 안면과 입술 사이를 정면으로 강타하여, 이빨 네 개가 빠지고 코와 입술이 모두 으스러진 상태였다. 고구가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했으나, 구악의 부상이 워낙 중한 것을 보고 양산박에 대한 원한이 났속

깊이 사무쳤다. 한편, 고구는 엽춘을 불러 전선을 건조하는 일을 더욱 서두르라고 명했다. 조선소 주변에는 절도사가 진을 치고 울타리를 둘러 아침저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게 하였다.

한편, 장청과 손신 부부 네 사람은 모두 기뻐했다. 시천과 단경주 두 사람도 옛길로 돌아갔으니, 여섯 명 모두 부하와 말들을 거느리고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양산박에 도착한 그들은 충의당으로 가서 불을 지른 일을 보고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시천을 포함한 여섯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 후로 송강은 수시로 사람을 보내 그들의 형편을 살폈다.

배를 만드는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다. 그해는 날씨가 무척 따뜻했는데, 고구는 이를 하늘이 돕는 것이라 여기며 속으로 기뻐했다. 엽춘이 만드는 배들도 모두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고구는 수군들에게 재촉하여 모두 배에 올라 실력을 연마하게 했다. 크고 작은 해구선들이 차례차례 물 위로 떠올랐다. 성 안의 수부(帥府)에서는 사방의 산천에서 수수(水手, 뱃사공)들을 모집했는데, 그 수가 일만여 명에 달했다. 먼저 그중 절반을 각 배에 배치하여 노를 젓는 법을 배우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노궁(弩弓, 석궁)을 쏘는 법을 익히게 했다. 채 스무 날이 지나기도 전에 전함들의 훈련은 모두 완벽하게 끝났다. 엽춘이 태위에게 배를 구경시켜 달라고 청하며 시를 지어 그 모습을 증명하니, 시가 이르되,

예부터 전쟁의 승패는 빠른 공격에 달렸으니,
기세가 꺾이고 군사가 지치면 어찌 성공하겠는가.
고구는 무지하고 융통성도 없으면서,
일 년 내내 백성만 괴롭히며 군함을 만드네.

그날 고구는 여러 절도사와 군관 우두머리들을 거느리고 배를 구경하러 나갔다. 삼백여 척의 해구선이 수면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중 열댓 척을 골라 깃발을 두루 꽂고, 징을 치고 북을 울리며, 딱따기 소리가 울리는 곳마다 양옆의 수차(水車)가 일제히 돌아가니, 그 모습이 참으로 바람을 가르고 번개가 치는 듯했다. 고구는 이를 보고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토록 나는 듯 빠른 배라면 저 도적놈들이 어찌 막아내겠는가.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기리라.' 고구는 즉시 금은과 비단을 꺼내 엽춘에게 상으로 내렸다. 나머지 장인들에게도 각자 여비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음 날, 고구는 관청에 명하여 검은 소와 흰 말, 돼지와 양, 그리고 각종 과일을 잡아 차리게 하고 금, 은, 동전, 종이를 늘어놓아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 제사 준비가 끝나자 장수들이 태위에게 분향하기를 청했다. 구약은 상처가 다 아물었으나 원한이 뱃속까지 사무쳐, 반드시 장청을 사로잡아 원수를 갚고자 했다. 구약은 주앙과 여러 절도사와 함께 일제히 말을 타고 나가, 고구를 따라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말에서 내린 뒤, 고구를 곁에서 모시며 수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분향과 제례를 마친 뒤 지전(楮帛, 종이 제물)을 불사르자 장수들이 축하를 올렸다. 고구는 동경에서 데려온 가무기녀들을 불러 모두 배에 태워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모시게 했다. 한편으로는 군사들에게 수차선을 몰아 수면 위를 나는 듯 달리는 연습을 시켰고, 배 위에서는 생황과 통소 소리가 그윽이 울리고 노래와 춤이 끊

이지 않아 밤새도록 즐기며 흠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은 배 안에서 묵었다. 다음 날에도 다시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며, 사흘을 연이어 연회를 벌이느라 배를 띄우려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양산박 도적놈들이 시 한 수를 지어 제주성 안 토지묘 앞에 붙여 놓았는데, 누군가 그것을 떼어 가져왔습니다!' 그 시에 이르기를,

식객 노릇 하다 뜻을 이룬 일개 고구가,
삼군을 함부로 거느리고 물 위에서 노니네.
설령 바다 미꾸라지 배가 만 척이 있다 한들,
모두 이 못 안으로 들어와 일제히 스러지리라.

고구가 시를 보고 크게 노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켜 소탕하려 하며 외쳤다. '저 도적놈들을 모조리 죽이지 못한다면, 맹세코 군을 돌리지 않겠다!' 그러자 문참모가 간언했다. '태위께서는 잠시 우레 같은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생각건대 저 미친 도적들이 두려운 나머지 일부러 악한 말을 써서 겁을 주려는 것이니, 큰일이 아닙니다. 며칠간 시간을 두고 수륙의 군마를 차분히 배치한 뒤에 진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깊은 겨울인데도 날씨가 온화하니, 이는 천자의 큰 복이요 원수님의 호랑이 같은 위엄(虎威) 덕분입니다.' 고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이에 성 안으로 들어가 군사를 나누고 장수를 보내는 일을 상의했다. 육로로는 주앙과 왕환을 불러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따라가며 지원하게 했다. 또한 항원진과 장개에게 일만 명의 군마를 총괄하게 하여, 양산박 산 앞의 그 큰 길목을 지키며 싸우게 했다. 본래 양산박은 예부터 사방팔방이 끝없이 넓고 망망하여 온통 갈대와 안개, 물뿐이었으나, 근래에 산 앞의 이 큰 길 하나가 송강이 비로소 새로 닦은 것이지

예전에는 없던 길이었다. 고구는 마군을 먼저 보내 이 길목을 차단하게 했다. 나머지 문참모, 구악, 서경, 매전, 왕문덕, 양온, 이종길, 장사 왕근, 조선 기술자 엽춘과 수행 아장(牙將), 크고 작은 군교 및 수행원들은 모두 고구를 따라 배를 타고 진군했다. 문참모가 다시 간언했다. '주수께서는 마군만 감독하여 육로로 진격하시고, 직접 수로에 올라 몸소 험지에 드시지는 마십시오.' 고구가 말했다. '괜찮다! 지난 두 번은 모두 적임자를 얻지 못한 탓에 인마를 잃고 배도 수없이 부서진 것이다. 이번에는 좋은 배를 많이 만들었으니, 내가 직접 가서 감독하지 않으면서 도적놈들을 어찌 잡겠느냐? 이번에는야말로 저 도적놈들과 생사를 걸고 결판을 낼 것이니, 너는 더 말하지 마라!' 문참모는 다시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고구를 따라 배에 올랐다. 고구는 대형 해구선 서른 척을 배정하여 선봉장 구악, 서경, 매전에게 거느리게 했고, 소형 해구선 십척을 배정하여 길을 열게 하며 양온과 장사 왕근, 선장 엽춘에게 거느리게 했다. 맨 앞 배에는 붉은색 큰 자수 깃발 두 폭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금색 글자 열네 자로 '바다를 휘젓고 강을 뒤엎어 거센 물결을 치며, 나라를 평안케 하고 큰 요괴를 멸하리라'라고 적혀 있었다. 중군의 배에는 고구와 문참모가 가무 기녀들을 거느리고 직접 중군 대열을 지켰다. 그 서른~십 척의 대형 해구선 위에는 푸른 기름빛 휘장과 수(帥)자 깃발, 누런 도끼(黃鉞)와 흰 깃대(白旆), 붉은 깃발과 검은 일산(日傘), 그리고 중군의 병기들을 늘어놓았다. 뒤따르는 배에는 왕문덕과 이종길에게 후방을 지키게 했다. 때는 11월 중순이었다. 마군이 명을 받아 먼저 움직였다. 수군 선봉인 구악, 서경, 매전 세 사람이 맨 앞 배에 올라 가장 먼저 출발하니, 구름이 날고 안개가 휘말리듯 양산박을 향해 나아갔다. 저 멀리 해구선의 모습이 보였다.

앞줄에는 화살 구멍 뚫려 있고, 뒷줄에는 노루각 세워졌네,
물결을 가르는 모습은 교룡과 신기루 같고,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기세
는 거대한 고래 같구나.

용의 비늘처럼 뻥뻥한 갑판 위, 좌우로 스물네 대의 밧줄 감개 늘어섰
고,

기러기 날개처럼 펼쳐진 모양새로, 앞뒤로 열여덟 가지 무기 줄지었
네.

푸른 천으로 짠 검은 덮개 씌우고, 자줏빛 대나무로 물결 막이 만들었
으니,

오가는 충격은 날아가는 북 같고, 맞부딪히는 기세는 빠른 말보다 빠르
구나.

송강과 오용은 이미 상세한 내용을 알고 미리 배치를 마친 뒤, 관군
의 배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명의 선봉장이 배를 재촉하여
소형 해구선들을 양옆으로 나누어 작은 항구들을 가로막게 하고, 대형
해구선들은 중앙으로 나아가게 했다. 여러 장수와 군사들은 마치 계의
눈이나 학의 정수리처럼 앞만 바라보며 질주하였고, 줄지어 양산박 깊
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멀리서 배 한 무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배 한 척당 열네다섯 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모두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우두머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앞선 세 척의 배에는 흰 깃발 세 개가 꽂혀 있었
는데, 깃발에는 '양산박 완씨 삼웅(阮氏三雄)'이라 적혀 있었고, 가운
데는 완소이, 왼쪽은 완소오, 오른쪽은 완소칠이었다. 멀리서 보니 번
쩍거리는 갑옷들이 눈부셨는데, 알고 보니 모두 금박과 은박, 종이를

붙여 만든 것이었다. 세 선봉장이 이를 보고 앞선 배에 화포와 화창, 화살을 실어 일제히 쏘게 했다. 그러나 세 완씨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배가 가까워져 창과 화살이 닿을 때가 되자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구악 일행은 빈 배 세 척을 탈취했다.

다시 수면 위로 3리쯤 나아가자, 바람을 타고 달려오는 빠른 배 세 척이 보였다. 맨 앞 배에는 열댓 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청대, 황단, 주사 같은 안료를 몸에 발라 얼굴을 칠하고 머리에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입으로는 요란한 피리를 불며 날아오듯 달려왔다. 양옆의 두 배에는 각각 대여섯 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얼굴에 붉고 푸른 빛을 칠해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가운데는 '옥번간' 맹강, 왼쪽은 '출동교' 동위, 오른쪽은 '번강신' 동맹이었다. 선봉장 구악이 다시 화기를 쏘라고 명령하자, 상대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모두 배를 버리고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빈 배 세 척을 또 잡았다.

다시 3리 남짓 더 가니, 수면 위에 중간 크기의 배 세 척이 다가왔다. 배마다 노 네 개를 젓는 여덟 명의 사공이 있었고, 열댓 명의 줄개들이 붉은 깃발 하나를 들고 우두머리 한 명을 호위하며 배 앞머리에 앉아 있었다. 깃발에는 '수군 두령 혼강룡 이준'이라 적혀 있었다. 그 왼쪽 배에는 이 두령이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철창을 들고 녹색 깃발을 흔들고 있었으며, 깃발에는 '수군 두령 선화아 장형'이라 적혀 있었다. 오른쪽 배에는 한 호걸이 서 있었는데, 상체를 드러낸 채 맨발로 서 있었고, 허리에는 철정 몇 개를 꿸고 손에는 구리 망치를 든 채 검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깃발에는 은색 글자로 '두령 랑리백조 장순'이라 적혀 있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배를 우리 못까지

데려다주어 고맙소." 세 선봉장이 이 말을 듣고 호령했다. "화살을 쏘라!" 활시위 소리가 울리자, 맞은편 세 척의 배에 있던 호걸들은 모두 공중제비를 돌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때는 한겨울이라, 관군의 배에 탄 수사나 군사들이 어찌 감히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겠는가?

잠시 망설이던 사이, 양산박 꼭대기에서 신호포가 연달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방으로 흩어진 갈대숲 사이에서 수천수백 척의 작은 배들이 튀어나오니, 수면이 마치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듯했다. 배 한 척당 겨우 서너 명만 타고 있었는데, 배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대형 해구선이 들이받으려 해도 들이받을 수가 없었고, 수차를 힘껏 밟아 돌리려 해도 앞쪽 물밀이 모두 막혀 있어 바퀴판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노루(弩樓, 쇠뇌 누각)에서 화살을 쏘려 하자, 작은 배에 탄 자들은 저마다 판자 조각으로 머리를 가렸다. 어느새 바짝 물러들더니, 한쪽에서는 갈고리로 키를 낚아채고, 한쪽에서는 칼로 수차를 밟던 군사들을 베어 넘겼다. 이미 오륙십 명이 선봉의 배 위로 기어올라왔다. 관군이 급히 물러나려 해도 뒤쪽이 또 막혀 있어 도저히 퇴각할 수가 없었다. 앞 배가 한창 혼전을 벌이는 사이, 뒤쪽 배에서도 또다시 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중군 배에 있던 고구와 문참모는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듣고 급히 물으로 오르려 했다. 그런데 갈대숲 속에서 징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선창 안의 군사들이 일제히 외쳤다. '배 밑바닥에서 물이 샌다!' 그러자 물이 쿵쿵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앞 배와 뒤 배 할 것 없이 모두 새어,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방의 작은 배들이 개미 떼처럼 대형 배 곁으로 몰려들었다. 고구의 새 배가 어찌하여 물이 샀단 말인가? 알고 보니 장순이 숨

씨 좋은 수군 한 무리를 이끌고 망치와 정으로 배 밑바닥을 모조리 뚫어,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한 것이었다.

고구가 키를 잡는 누각 위로 기어 올라가 뒤쪽 배에 구원을 요청했으나, 그때 물밑에서 한 사람이 쭉 솟아오르더니 누각 위로 뛰어올랐다. 그 사람이 말했다. "태위님, 제가 목숨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고구가 살펴보니 도무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다가오자마자 한 손으로는 고구의 관모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띠를 잡아채더니, "물속으로 꺼져라!" 하고 호통을 치며 고구를 물속으로 툭 던져버렸다. 아아, 가련하도다! 위엄 넘치던 중군 장수가 순식간에 물밑에 가라앉은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그때 옆에 있던 작은 배 두 척이 날아오듯 다가와 태위를 끌어올려 배 위로 데려갔다. 그 사람은 바로 '랑리백조' 장순이었는데, 물속에서 사람을 잡는 솜씨가 마치 향아리 속의 자라를 잡는 듯 거침이 없었다.

앞 배의 구약은 진세가 크게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급히 몸을 피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때 곁에 있던 수군 무리 사이에서 한 명의 수군이 튀어나왔다. 구약이 미처 방비할 틈도 없이 그가 달려들더니, 칼을 휘둘러 구약을 배 밖으로 베어 넘겼다. 그가 바로 양산박의 '금표자' 양림이었다. 서경과 매전은 선봉장인 구약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두 절도사는 양림을 죽이려 달려들었다. 그러자 수군 무리 속에서 네 명의 소두령이 연달아 튀어나왔는데, '백면낭군' 정천수, '병대충' 설영, '타호장' 이충, 그리고 '조도귀' 조정이 뒤에서부터 덮쳐왔다. 서경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목숨을 구하려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뜻밖에도 물밑에 이미 기다리고 있던 자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설영은

매전을 창으로 찢러 허벅다리를 맞히더니 그를 선실 안으로 떨어뜨렸다. 원래 수군으로 합류하려던 여덟 명의 두령 중 세 명은 아직 앞 배에 남아 있었으니, 바로 '청안호' 이운, '금전표자' 탕릉, '귀검아' 두흥이었다. 절도사들이 아무리 삼두육비(三頭六臂, 머리 셋에 팔 여섯이라는 뜻으로神通한 능력을 발휘함)를 부리려 해도,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양산박의 송강과 노준의는 이미 수로와 육로로 나누어 공격에 나섰다. 송강은 수로를 맡았고, 노준의는 육로를 맡았다. 수로에서 완승을 거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편 육로에서는 노준의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산 앞 큰길로 맹렬히 돌진해 나오다가, 마침 선봉장인 주앙, 왕환의 군마와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주앙이 이를 보고 먼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반역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그러자 노준의가 크게 호통을 쳤다. "이름 없는 애송이 놈이 눈앞에서 죽게 생겼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노준의는 즉시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주앙을 향해 돌진했고, 주앙 역시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말을 몰아 맞대응했다. 두 장수는 산 앞 큰길에서 맞붙어 스무 합 넘게 싸웠으나 아직 승패는 나지 않았다. 그때 뒤쪽 부대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 들렸다. 알고 보니 양산박의 대부대가 산 앞의 두 커다란 숲속에 매복해 있다가, 신호에 맞춰 사방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동남쪽에서는 관승과 진명이, 서북쪽에서는 임충과 호연작이 달려드니, 수많은 영웅이 네 갈래 길로 동시에 들이닥쳤다. 향원진과 장개는 이 기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겨우 길을 터서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 주앙과 왕환도 감히 싸움을 이어가지 못하고 창과 도끼를

챙긴 채 길을 비집고 도망쳐, 제주성 안으로 숨어들어 군마를 진영에 세우고 전황을 살폈다.

한편, 수로를 맡은 송강은 고구를 생포한 뒤, 대종에게 급히 명령을 내려 군사들을 죽이지 말라고 전하게 했다. 중군에 있던 해구선 위에서는 문참모 일행과 가무를 하던 여인들, 그리고 모든 수행원이 통째로 포로가 되어 송강의 진영으로 끌려왔다. 징을 울려 군사를 물린 뒤, 모두 대채(大寨, 양산박의 본진)로 돌아왔다. 송강과 오용, 공손승 등이 모두 충의당에 모여 있을 때, 장순이 고구를 물에 젖은 채로 끌고 왔다. 송강은 고구를 보자마자 황급히 단 위에서 내려가 그를 부축했다. 그리고는 비단으로 된 새 옷을 가져와 고구에게 갈아입힌 뒤, 다시 단 위로 부축해 올려 정면에 앉도록 청했다. 송강이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고구는 당황하며 답례를 했다. 송강은 오용과 공손승에게 고구를 부축하게 하여 절을 마친 뒤 다시 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이어 염청에게 명령을 내려 아래로 전하게 했다. "앞으로 만약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 명령이 내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줄지어 끌려오기 시작했다. 동위와 동맹이 서경을 끌고 왔고, 이준과 장횡이 왕문덕을 끌고 왔으며, 양웅과 석수가 양온을 끌고 왔다. 삼완은 이종길을 끌고 왔고, 정천수, 설영, 이충, 조정은 매전을 끌고 왔다. 양림은 구악의 머리를 바쳐 왔으며, 이운, 탕룡, 두흥은 엽춘과 왕근의 머리를 바쳐 왔다. 해진과 해보가 문참모와 가무를 하던 여인들, 그리고 모든 수행원을 포로로 잡아 데려왔다. 오직 주앙, 왕환, 항원진, 장개 네 사람만이 놓쳐 달아났다. 송강은 이들에게 모두 새 옷을 갈아입히고 정돈하게 한 뒤, 모두 충의당으로 모셔와 자리를 마련해 대접했다. 다만 생포한 일반 군

사들은 모두 제주성으로 돌려보내게 했다. 또한 좋은 배 한 척을 따로 마련하여 가무를 하던 여인들과 수행원들을 안치하게 하고, 그들끼리 스스로 지키도록 조치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명을 받든 고구가 분별이 모자라,
남에게 사로잡혀 산으로 끌려왔네.
충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도리어 양산박 소취대(호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잔치 대접을 받는다.
나.

그때 송강은 즉시 소와 말을 잡아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한편으로는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상을 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크게 떠들어대어, 크고 작은 모든 두령을 불러 모아 고구 태위를 대면하게 했다. 각자 예를 갖춘 뒤, 송강은 잔을 들고 있고 오용과 공손승은 술병을 들고 상을 받들어 곁에 섰으며, 노준의 등도 곁에 서서 모셨다. 송강이 입을 열어 말했다. "얼굴에 자자(刺字)를 받은 하찮은 아전인 제가 어찌 감히 성스러운 조정에 반역을 꾀했겠습니까. 그간 쌓인 죄와 허물이 깊어 어쩔 수 없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두 번이나 하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 사이에 얽힌 구차하고 간사한 사정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태위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저희를 구제해 주시어, 다시금 임금님의 은택을 입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는 뼈에 새겨 죽기로써 보답하겠습니다." 고구는 수많은 호걸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영웅 기개가 대단하고 임충과 양지는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어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고구는 먼저 겁이 잔뜩 나서 말했다. "송공명, 그대들

은 안심하게! 내가 조정에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상소하여, 죄를 사하고 너그러운 사면령을 내려 양산박을 조안(招安)하게 하고 큰 상과 관직을 내리도록 청하겠네. 크고 작은 의사들이 모두 천록(天祿)을 누리며 어진 신하가 되게 하겠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태위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날의 연회는 매우 정갈하고 성대했다. 크고 작은 두령들이 차례로 잔을 들며 정중하게 권했다. 고구 태위는 크게 취해 술기운이 오르자 절제력을 잃고 방탕하게 말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상박(相撲, 씨름)을 배워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네."라고 했다. 노준의 역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고구 태위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며 자만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염청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이 아우도 상박을 잘하오. 대악(岱岳, 태산)에서 세 번이나 씨름판에 올라 겨루었는데,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소." 고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으며 염청과 씨름을 하려 했다. 여러 두령은 송강이 고구를 천조의 태위로 대접하는 것을 보고 어쩔 도리가 없어 그저 고구의 말에 따르고 있었는데, 도리어 이참에 염청에게 씨름을 시켜 바로 고구의 큰소리치는 입을 꺾어 놓으려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씨름 한판 구경해 봅시다!" 사람들이 모두 단 아래로 몰려 내려갔다. 송강 또한 취하여 주관하는 힘이 없었다. 두 사람이 옷을 벗고 대청 계단 위로 올라가자, 송강이 부드러운 요를 깔라고 명했다. 두 사람이 융단 위에서 자세를 잡고 대치했다. 고구가 먼저 달려들자, 염청이 손을 뻗어 고구를 꽉 붙잡아 고정하더니, 단 한번의 맞붙음으로 고구를 요 위로 굴러버렸다. 고구는 요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다. 이 씨름은 이른바 '수명박(守命撲, 목숨을 지키는 씨름)'이라 불렸다. 송강과 노준의가 황급히 달려가 고구를 부축해 일으키고 다시 옷을 입혀준 뒤, 웃으며 말했다.

"태위께서 취하셨으니 어찌 제대로 씨름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고구는 무척 당황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다 후당으로 부촉받아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다시 연회를 베풀어 고구 태위의 놀란 가슴을 달래주었다. 고구가 마침내 작별을 고하며 돌아가려 하자, 송강 등이 말했다. "저희는 대귀인께서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결코 탄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만약 속임수가 있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고구가 말했다. "만약 의사들이 나를 경성으로 돌아가게 해 준다면, 천자 앞에서 의사들을 위해 정성껏 상소하여 반드시 조안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중용을 받게 하겠소. 만약 마음을 바꾸어 일을 그르친다면, 하늘이 덮지 못하고 땅이 받들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니, 창칼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고구가 다시 말했다. "의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할까 염려되니, 장수들을 인질로 남겨두겠소." 송강이 말했다. "태위께서는 대귀인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굳이 장수들을 붙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만간 말과 안장을 준비하여 모두 군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고구 태위가 감사하며 말했다. "이토록 극진히 대접해 주시니 그 후의 정에 깊이 감동하였소. 그럼 이만 돌아가겠소." 송강 일행이 간곡히 만류했다. 그날 다시 큰 연회를 열어 옛 일을 추억하고 새로운 일을 논하며, 연회는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셋째 날, 고구 태위가 기어코 산을 내려가겠다고 하자 송강 등이 붙잡지 못하고 다시 연회를 베풀어 배웅했다. 금은보화와 비단 같은 것들을 수천 금가량 내놓아 태위에게 드렸는데, 이는 작별의 예로 올리는

것이였다. 절도사 이하의 관리들도 따로 선물을 올렸다. 고구 태위는 사양할 수 없어 모두 받아 들였다. 술을 마시는 도중 송강이 다시 조안에 관한 일을 꺼냈다. 고구가 말했다. "의사들이 아주 사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를 내 곁에 붙여 보내주시오. 내가 그를 직접 천자 앞에 데려가 양산박의 속사정을 아뢰어, 즉시 조서를 내려 내려오게 하겠소." 송강은 오로지 조안만을 원했기에 오용과 의논하여 '성수서생' 소양을 태위를 따라가게 했다. 오용이 다시 말했다. "'철규자(鐵叫子)' 낙화도 짝을 지어 함께 가게 하시오." 고구 태위가 말했다. "의사들이 부탁하니 그러겠소. 다만 문 참모를 이곳에 남겨두어 믿음의 증표로 삼겠소." 송강은 크게 기뻐했다. 넷째 날에 이르러 송강과 오용은 스무 명 남짓의 기병을 거느리고 고구 태위와 여러 절도사를 배웅하며 산을 내려갔다. 금사탄에서 이십 리 밖까지 가서 고구 태위를 작별한 뒤, 송강 일행은 산채로 돌아와 조안의 소식을 기다렸다.

한편 고구 태위 일행이 제주성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제주성의 선봉장인 주앙, 왕환, 항원진, 장개와 태수 장숙야 등이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고구 태위는 성안에 들어가 며칠간 머물며 군마를 정비하고, 여러 절도사에게는 각자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 잠시 쉬면서 호출을 기다리라고 명했다. 고구 태위는 주앙과 크고 작은 아장(牙將)·두목들을 거느리고 삼군을 이끌었으며, 소양과 낙화, 그리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제주를 떠나 동경을 향해 길을 나섰다.

고구 태위가 양산박 사람 두 명을 데리고 온 덕분에, 풍류가 빼어나 출중하니, 신방 깊은 곳에서 임금을 만나고, 세작이 신통하여 재상의 정원에서 영웅을 찾아내리라.

결국 고구 태위가 경성으로 돌아가 송강 일행의 조안을 위해 어떻게 상소를 올릴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1회 — 연청이 달밤에 도군을 만나고, 대종이 계책을 세워 낙화를 나서다

燕青月夜遇道君 戴宗定計出樂和

이야기는 이러하다. 양산박의 호걸들이 수전에서 고구를 세 번이나 격파하여 모두 사로잡았으나, 송 공명(송강)은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모두 풀어 돌려보냈다. 고 태위는 많은 군마를 데리고 경사로 돌아가면서 소양과 악화를 함께 경사로 데려가 조안(조정이 죄를 사하고 귀순을 받아들이는 일)에 관한 일을 기다리게 하고, 참모인 문환장만 양산박에 남겨 두었다.

고구가 양산박에 있을 때 직접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내가 조정으로 돌아가면 소양 등을 직접 데리고 천자를 뵈고, 반드시 힘써 아뢰고 천거하여 신속히 사람을 보내 조안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악화를 동행시켜 소양과 함께 떠나게 했으니, 이는 더 말할 것 없다.

한편 양산박의 두령들이 모여 의논하는데 송강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고구가 이렇게 떠났으나, 과연 진실인지는 알 수 없구나.”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저 자를 보니 별의 눈에 뱀의 형상을 하여, 얼굴을 돌리면 은혜를 잇을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많은 군마를 잃고 조정의 많은 전량을 허비했으니, 경사로 돌아가면 반드시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천자를 어물쩍 속여 아뢰어 우선 군사들을 쉬게 할 것입니다. 소양과 악화는 부중에 슬그머니 가뒀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안을 기다리며 한다면 헛되이 힘만 쓰는 격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조안은 그렇다 쳐도 또 그 두 사람마저 빠뜨리게 되겠구나.” 오용이 말했다. “형님, 다시 눈치 빠르고 영리한 사람 둘을 골라 금은보화를 넉넉히 가지고 경사로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하십시오. 가서 요로의 관절을 뚫어 진심을 지금의 천자에게 전달하여 고 태위가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연청이 일어나 말했다. “작년에 동경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소제가 이사사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뜻밖에 그 큰 소동으로 그 집안도 이미 심중팔구는 눈치챘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녀는 천자가 마음으로 아끼는 사람이라 관가에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필시 ‘양산박이 폐하께서 그곳에 미행하신 것을 알고 일부러 와서 놀라게 했습니다’라고 아뢰어 이미 둘러댔을 것입니다. 이제 소제가 금주를 넉넉히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면 베갯머리에서 관절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제가 길게도 짧게도 할 수 있으니 기미를 보아 처신하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가 이번에 가면 모름지기 큰 책임을 져야 하네!” 대종이 말했다. “소제가 그를 도와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신기군사’ 주무가 말했다. “형님께서 예전에 화주를 치실 때 일찍이 숙 태위와 은혜를 맺으셨지요. 그분은 마음이 좋은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천자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아뢰어 준다면 또한 순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송강은 구천현녀의 말 가운데 ‘숙(宿)을 만나면 거둬 기쁘리라’던 것을 떠올리고, 바로 이 사람

에게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에 문 참모를 대청으로 청해 함께 앉았다. 송강이 말했다. “상공께서는 태위 숙원경을 아십니까?” 문환장이 말했다. “그는 저와 동창 친구로, 지금은 성상과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인자하고 너그러워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함에 한결같이 화기롭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상공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고 태위가 경사로 돌아가 반드시 조안의 일을 아뢰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숙 태위께서 예전에 화주에서 강향(降香)하실 때 송강과 한 번 안면을 익히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그분께 보내 관절을 통하고, 힘을 더해 아침저녁으로 천자께 아뢰어 이 일을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문 참모가 답했다. “장군께서 그러하시다면 제가 짧은 글을 써서 받들어 보내겠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했다. 곧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고, 한편으로 좋은 향을 피우고 현녀과(玄女課)를 꺼내 허공을 향해 기도하니 상상(上上)의 대길한 점괘가 나왔다. 곧 술자리를 마련하여 대종과 연청을 전송했다. 금주와 자갈한 귀중품을 두 개의 큰 광주리에 담고, 서신은 몸에 지녀 숨겼으며, 아울러 개봉부의 인장 찍힌 공문도 챙겼다. 두 사람은 공인(관아의 아전)으로 꾸미고 두령들과 작별한 뒤 산을 내려와 금사탄을 건너 동경을 향해 나아갔다.

대종은 우산을 받쳐 들고 보따리를 뒀다. 연청은 수화곤(水火棍)으로 광주리를 메고, 검은 적삼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전대를 매었으며, 발에는 모두 행전과 무릎 보호대를 차고 여덟 코 삼신을 신었다. 길에서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밤에 자고 새벽에 길을 가는 일을 면치 못했다. 하루도 안 되어 동경에 이르렀는데, 순탄한 길로 성에 들지 않고 만수문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성문가에 이르자 문지기 군

사가 막아섰다. 연청이 광주리를 내려놓고 사투리로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막느냐?” 군졸이 말했다. “전수부에서 명이 내렸다. 양산박의 온갖 무리가 물건을 끼고 성에 들어올까 염려하여 각 문에 명하여 외지 손님이 드나들 때 잘 따져 물으라 했다.” 연청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바로 일 잘 본다는 공인이라면서 제 식구를 데리고 자꾸 따져 묻기만 하는구나. 우리 둘은 어려서부터 개봉부에서 일을 보아 이 문을 수만 번도 더 드나들었는데, 네가 거꾸로 자꾸 따져 묻기만 하니 양산박 사람은 눈을 뻘히 뜨고도 다 지나가게 두는 셈이다.” 그러고는 품에서 가짜 공문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지며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개봉부 공문이 아니냐?” 그 감문관이 듣고 호령했다. “개봉부 공문이라면 어찌 자꾸 그를 따져 묻느냐? 들여보내라!” 연청은 한 손으로 공문을 낚아채 품에 넣고 광주리를 메고 걸어갔다. 대종도 냉소를 한 번 지었다. 두 사람은 곧장 개봉부 앞으로 가서 객점을 찾아 묵었다.

다음 날, 연청은 베적삼으로 갈아입고 전대를 허리에 두른 뒤 두건을 바꿔 비스듬히 쓰고 그저 한량 같은 모습으로 꾸몄다. 광주리 안에서 금주 한 보따리를 꺼내고 대종에게 당부했다. “형님, 제가 오늘 이 사사의 집에 일을 보러 가는데, 혹시라도 일이 어긋나면 형님께서는 알아서 얼른 돌아가십시오.” 대종에게 단단히 당부한 뒤 곧장 이사사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이르러 보니 예전처럼 굵은 난간과 조각 난간, 푸른 창과 붉은 문이 있었는데 전보다 더 잘 단장되어 있었다. 연청은 얼룩 대나무 발을 걷고 옆쪽으로 돌아 들어가니 벌써 기이한 향기가 그윽하게 풍겼다. 손님방 앞에 이르니 사방으로 이름난 명사들의 서화가 걸려 있고, 섬돌 처마 아래에는 괴석과 푸른 소나무 화분 이삼십 개가 놓여 있었으며, 앉는 평상은 모두 꽃을 새긴 향남목이요 작은 침상의

깔개는 죄다 비단 자수였다. 연청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자 여종이 나와 보고는 이마마에게 알렸다. 이마마가 나와 연청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또 이곳에 왔느냐?” 연청이 말했다. “낭자를 모셔 나오게 해 주십시오. 소인이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마마가 말했다. “지난번 네놈이 우리 집에 누를 끼쳐 집을 망가뜨렸지. 할 말이 있거든 그냥 하거라.” 연청이 말했다. “반드시 낭자께서 나오셔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문 뒤에서 한참 듣고 있던 이사사가 마침내 걸어 나왔다. 연청이 보니 별다른 풍취가 있었다. 용모는 새벽이슬을 머금은 해당화 같고 허리는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버들가지 같으니, 흡사 낭원의 옥선녀요 계공의 선녀 언니보다 더 빼어났다. 이사사가 가볍게 연꽃 같은 걸음을 옮기고 상강 치마를 살며시 끌며 손님방 안으로 들어왔다. 연청은 일어나 보따리를 탁자 위에 놓고 먼저 이마마에게 네 번 절하고 이어 이 행수에게 두 번 절했다. 이사사가 겸양하며 말했다. “예를 거두세요. 제가 나이가 어려 절을 받기 어렵습니다.” 연청이 절을 마치고 일어나 말했다. “지난번에는 놀라게 해 드려 소인 등이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사사가 말했다. “나를 속이지 마라. 너는 그때 ‘장한이라 하고, 저 두 사람은 산동에서 온 손님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일이 닥치자 한바탕 소동이 일었으니, 내가 교묘히 말을 꾸며 관가에 아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온 집안이 화를 입었을 것이다! 그가 남긴 사(詞) 가운데 두 구절에 ‘여섯 여섯 기러기 행렬이 여덟 아홉을 잇고, 다만 금계의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하였지. 나는 그때부터 의아하여 마침 물으려던 참에 뜻밖에 어가가 납시었다. 그 뒤 또 이 소동이 일어나 끝내 묻지 못했다. 이제 네가 오니 기쁘구나. 내 마음속의 혹을 풀어다오.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연청이 말했다. “소인이 속사정을 사실대로

아뢰겠으니 화괴 낭자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번 왔던 그 검고 키 작은 체구로 우두머리 자리에 앉았던 이가 바로 ‘호보의’ 송강이요, 둘째 자리에 앉았던 희고 준수한 얼굴에 세 갈래 수염을 기른 이는 곧 시 세종의 적파 자손인 ‘소선풋’ 시진입니다. 이 관원 차림으로 앞에 서 있던 이는 ‘신행태보’ 대종이며, 문 앞에서 양 태위와 맞붙어 싸우던 이가 바로 ‘흑선풋’ 이규입니다. 소인은 북경 대명부 사람으로 사람들이 ‘낭자’ 연청이라 부릅니다. 당초 저희 형님께서 동경에 오셔서 낭자를 뵈고자 하여 소인을 장한이라 속여 댁에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형님께서 낭자의 존안을 뵈고자 하신 것은 웃음을 사고 즐기려는 뜻이 아니라, 다만 낭자께서 지금 천자의 총애를 입고 계신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은 까닭에 몸소 찾아와 속사정을 아뢰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평안케 하려는 마음을 천자에게 전하여 하루빨리 조안을 얻어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을 면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리된다면 낭자께서는 양산박 수만 명의 은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간신들이 권력을 잡고 아첨하는 무리가 권세를 휘둘러 어진 이의 길을 막으니 아랫사람의 사정이 위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아온 것인데 뜻하지 않게 낭자를 놀라게 해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형님께서 드릴 것이 없어 다만 변변치 못한 물건이나마 여기 있으니 부디 웃으며 거두어 주십시오.” 연청이 보따리를 풀어 탁자 위에 펼치니 모두 금주와 보배로운 그릇이었다. 재물을 좋아하는 그 노파는 보자마자 기뻐하며 급히 유모에게 거두게 했다. 그러고는 연청을 안쪽 작은 누각으로 청해 앉히고 맛있는 음식과 차, 과일을 차려 정성껏 대접했다. 본래 이사사의 집은 황제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공자왕손이나 부호의 자제라도 누가 감히 그 집에 와서 차를 청해 마시겠는가! 이때 술상과 안주, 과일을 차려 놓고 이사사가 직접 대접했다. 연청이 말

했다. “소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어찌 감히 ‘화괴 낭자’와 마주 앉겠습니까?” 이사사가 말했다. “그리 말하지 마라! 너희 같은 의사들의 큰 이름은 들은 지 오래다. 다만 중간에 너희 여러 사람을 도와줄 좋은 사람이 없었던 탓에 수밖에 묻혀 지내는 것이 아니냐.” 연청이 말했다. “지난번 진 태위가 조안하러 왔을 때는 조서에 위로하는 말이 전혀 없었고, 게다가 어주(임금이 내린 술)를 싸구려로 바꿔치기하였으니 이로써 일이 틀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안 때는 일부러 조서의 구두를 끊어 잘못 읽어 ‘송강을 제외하고, 노준의 등 크고 작은 무리가 지은 죄악은 모두 사면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또 귀순하지 못했습니다. 동 추밀이 군사를 이끌고 왔으나 단 두 진에 갑옷 한 조각 돌아가지 못하게 패했고, 그 뒤 고 태위가 천하의 백성을 부역시켜 배를 만들어 진격해 왔으나 단 세 진에 인마의 태반을 잃었습니다. 고 태위는 저희 형님께 산 채로 사로잡혀 산으로 끌려왔으나 형님께서 죽이지 않고 극진히 대접하여 경사로 돌려보냈으며 사로잡은 사람들도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양산박에서 큰 맹세를 하기를, 조정으로 돌아가 천자에게 아뢰면 곧 조안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박 두 사람을 데려갔으니 하나는 수재 소양이요 하나는 노래 잘하는 악화인데, 보아하니 이 두 사람을 집에 숨겨 두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잃고 장수를 꺾은 일을 반드시 천자에게 숨길 것입니다.” 이사사가 말했다. “그가 그토록 전량을 축내고 군사와 장수를 잃었으니 어찌 감히 아뢰겠느냐? 그 말은 내 다 알았다. 우선 몇 잔 마시고 따로 의논하자꾸나.” 연청이 말했다. “소인은 천성이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사사가 말했다. “먼 길에 바람과 서리를 맞고 여기까지 왔으니 마음을 열고 몇 잔 들거라.” 연청은 권유를 이기지 못해 한두 잔 마시며 곁에서 시중들 수밖에 없었다. 본래 이사사는 풍진의 기녀로 물처럼 헤픈 사람이

라 연청의 인물됨과 말 잘하고 입담 좋은 모습을 보고는 도리어 마음에 두게 되었다. 술자리에서 말로 그를 집적거렸다. 몇 잔 술이 오간 뒤 한 마디 두 마디로 그를 건드렸다. 연청은 백 가지로 영리한 사람이니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호걸의 흥금을 지닌지라 형님의 큰일을 그르칠까 두려워 어찌 감히 응하겠는가? 이사사가 말했다. “그대가 온갖 음악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니 술자리에서 한가로이 들어보고 싶구나.” 연청이 답했다. “소인이 자못 몇 가지 재주를 배우긴 했으나 어찌 감히 남자 앞에서 뽐내겠습니까?” 이사사가 말했다. “그럼 내가 먼저 한 곡 불 테니 그대가 들어보라!” 그러고는 여종을 불러 통소를 가져오게 했다. 비단 주머니에서 그 봉소(鳳簫)를 꺼내자 이사사가 받아 입에 대고 가볍게 부니 참으로 구름을 뚫고 돌을 가르는 소리였다. 연청이 듣고 끊임없이 갈채했다. 이사사가 한 곡을 다 불고 통소를 건네며 말했다. “그대도 한 곡 불어 내게 들려주오!” 연청은 그 여인을 기쁘게 하려고 부득이 재주를 꺼내, 통소를 받아 들고 흐느끼듯 구슬프게 한 곡을 불었다. 이사사가 듣고 설 새 없이 갈채하며 말했다. “그대가 이토록 통소를 잘 부는 줄 몰랐구나!” 이사사가 완(阮)을 가져와 작은 곡조를 타며 연청에게 들려주니, 과연 옥패가 일제히 울리고 찢꼬리가 마주 지저귀듯 여운이 유유했다. 연청이 절하며 사례했다. “소인도 한 곡 불러 남자를 모시겠습니다.” 목청을 활짝 열어 노래하니 참으로 소리가 맑고 가락이 아름다우며 글자가 바르고 곡조가 참되었다. 노래를 마치고 또 절했다. 이사사가 잔을 들어 친히 연청에게 답례 술을 권하며 노래를 치하했다. 입으로는 유유히 요염한 콧소리를 내어 연청을 꾀었다. 연청은 굳게 고개를 숙이고 그저 “예예” 할 뿐이었다. 몇 잔 뒤 이사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 몸에 좋은 문신이 있다 들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는가?” 연청이 웃으며 말했다. “소인의 천한 몸에 비록

꽃 문신이 좀 있으나 어찌 감히 남자 앞에서 옷을 걷고 몸을 드러내겠습니까?” 이사사가 말했다. “몸에 문신한 사패(社家) 자제들이 어디 옷 걷고 몸 드러내는 것을 따지더냐!” 서너 번 다섯 번을 거듭 기어이 보려 했다. 연청은 하는 수 없이 윗도리를 벗었다. 이사사가 보고 몹시 기뻐하며 뽕족한 옥 같은 손으로 그의 몸을 만졌다. 연청은 황급히 옷을 입었다. 이사사가 다시 잔을 권하며 또 말로 그를 꾀었다. 연청은 그녀가 손발을 놀려 चु근덜까 두려워 피하기 어렵자 한 계책을 내어 물었다. “남자께서는 올해 춘추가 어찌 되십니까?” 이사사가 답했다. “사사는 올해 스물일곱이다.” 연청이 말했다. “소인은 올해 스물다섯으로 두 살 아래입니다. 남자께서 이미 잘못 아껴 주시니 누님으로 모시기를 청합니다!” 연청은 곧 일어나 금산을 밀고 옥기등을 넘어뜨리듯 여덟 번 절했다. 이 여덟 번 절은 그 부인의 한 점 사심을 눌러 그 가운데서 큰 일을 잘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색에 빠졌더라면 큰 일을 그르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독 연청의 마음이 철석같으니 참으로 좋은 사내였다. 그때 연청은 또 이마마를 청해 절하여 수양어머니로 삼았다. 연청이 작별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사사가 말했다. “도련님은 그저 우리 집에 머물고 객점 주인에게 가서 자지 마라.” 연청이 말했다. “이미 아껴 주시니 소인이 객점으로 돌아가 물건을 좀 가지고 곧 오겠습니다.” 이사사가 말했다. “내가 여기서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연청이 말했다. “객점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시 후 곧 오겠습니다.” 연청은 이사사와 잠시 작별하고 곧장 객점으로 가서 이 일을 대종에게 말했다. 대종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없이 좋구나! 다만 아우의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지 못할까 걱정될 뿐이다.” 연청이 말했다. “대장부가 세상을 살면서 만약 주색 때문에 근본을 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연청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만 자루 칼 아래 죽겠

습니다!” 대종이 웃으며 말했다. “너나 나나 다 호걸인데 어찌 맹세까지 하느냐!” 연청이 말했다. “어찌 맹세하지 않겠습니까, 형님께서 반드시 의심하실 텐데요!” 대종이 말했다. “너는 어서 가서 형편을 잘 살펴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와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숙 태위께 드릴 서신도 네가 와서 전하기를 기다리겠다.” 연청은 자잘한 금주와 귀중품 한 보따리를 꾸려 다시 이사사의 집으로 가서, 절반은 이마마에게 주고 절반은 온 집안 식구에게 나눠 주니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곧 손님방 옆에 방 한 칸을 치워 연청을 묵게 했다. 온 집안이 다 그를 아저씨라 불렀다. 인연의 법도가 공교롭게 맞아떨어져 밤이 되자 마침 누군가 와서 천자가 오늘 밤 납신다고 알렸다. 연청이 듣고 이사사에게 절하며 청했다. “누님, 편의를 좀 봐 주십시오. 오늘 밤 소제가 성안을 뵙고 어필 사면서 한 장을 받아 소제의 죄를 사면받게 된다면 이는 누님의 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사가 말했다. “오늘 밤 반드시 너를 천자에게 한 번 뵙게 해 주마. 너는 재주를 부려 천자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사면서야 어찌 없을까 걱정하랴?” 어느덧 날이 저물어 달빛이 몽롱하고 꽃향기가 그윽하며 난초와 사향 향기가 향기로운데, 도군황제가 어린 황문 하나를 데리고 백의 수재로 꾸민 채 땅굴을 통해 곧장 이사사의 집 뒷문으로 왔다. 누각 안에 이르러 앉고는 앞뒤 문을 닫게 하고 등축을 밝혀 환히 빛나게 했다. 이사사는 관과 빗으로 머리를 꾸미고 비녀를 꽂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여 어가를 맞이했다. 절하며 안부를 여쭙고 인사를 마치자 천자가 그 단장한 옷을 벗고 과인을 모시라 명했다. 이사사가 분부를 받들어 옷을 벗고 어가를 맞아 방으로 들였다. 집에서는 이미 갖가지 고운 과일과 진귀한 안주를 마련해 앞에 차려 놓았다. 이사사가 잔을 들어 천자에게 권하니 천자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애경(愛卿)은 가까이 와서 함께 앉으라!” 이사사는 천

자의 용안이 크게 기뻐함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천한 몸에게 고종사촌 아우가 하나 있는데, 어려서부터 객지를 떠돌다가 오늘에야 돌아와 성상을 뵙고자 하나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니, 우리 임금님의 살피심을 구하옵니다.” 천자가 말했다. “네 아우라면 불러들여 과인을 뵙게 한들 무엇이 거리끼겠느냐?” 유모가 곧 연청을 불러 방 안으로 들어 천자를 뵙게 했다. 연청이 머리를 조아려 절했다. 관가는 연청의 빼어난 인물됨을 보고 먼저 크게 기뻐했다. 이사사가 연청에게 통소를 불러 성상의 음주를 모시게 하고, 잠시 후 또 완을 한 차례 타게 한 다음 노래를 부르게 했다. 연청이 다시 절하며 아뢰었다. “외고 있는 것이라곤 음란하고 요염한 가사뿐이니 어찌 감히 성상을 모시겠나이까?” 관가가 말했다. “과인이 기방에 사사로이 행차한 것은 바로 요염한 곡을 들어 시름을 풀려는 뜻이니 경은 의심치 말라.” 연청이 상판(象板)을 빌려 들고 다시 절을 마친 뒤 이사사에게 말했다. “음운이 틀리거든 누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연청은 목청을 활짝 열고 손에 상판을 들고 어가오(漁家傲) 한 곡을 부르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고향 떠나온 뒤 소식 끊겨, 온갖 그리움에 애끓는 마음 언제쯤 끝날까.
제비는 오지 않고 꽃은 또 져가니, 봄날 지나며 여원 허리 더욱 가늘퍼
지네.

무정한 님은 어느 날에나 오실까,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걸 그랬
나.

좋은 꿈 이루려다 깨어보니, 푸른 창가엔 그저 피꼬리 울음소리뿐이
네.

연청이 노래를 마치자, 마치 갓 깨어난 피꼬리가 지저귀듯 맑고 고운 가락이 멀리 울려 퍼졌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라고 명했다. 연청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신이 '감자목란화(減字木蘭花)'라는 곡이 하나 있사오니, 이를 통해 천자의 귀에 제 진심을 전하고자 하나이다." 천자가 말했다. "좋다, 과인이 듣고 싶구나!" 연청은 절을 마친 뒤, '감자목란화'를 한 곡 뽑았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슬픈 호소를 들어주소서, 슬픈 호소를 들어주소서! 이 천한 몸 떠돌아다니는 것을 그 누가 알아주리오, 그 누가 알아주리오, 하늘 끝 땅 끝까지 (죄가 가득하니) 죄악이 뒤집혀 분간하기 어렵도다. 누군가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내 준다면, 간담에는 늘 충효를 간직하여, 늘 충효를 간직하여, 훗날 반드시 큰 은인에게 보답하리라!

연청이 노래를 마치자 천자는 깜짝 놀라 물었다. “경은 어찌하여 이런 곡을 가지고 있는가?” 연청은 대성통곡하며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천자가 더욱 의아해하며 말했다. “경은 우선 마음속의 일을 털어놓아라. 과인이 경과 함께 헤아려 보겠다.” 연청이 아뢰었다. “신에게는 하늘을 가릴 만한 큰 죄가 있어 감히 아뢰지 못하겠나이다!” 천자가 말했다. “경의 죄를 사하니 아뢰어도 무방하다!” 연청이 아뢰었다. “신은 어려서부터 강호를 떠돌다 산동에 흘러들어 객상을 따라다니다가 길이 양산박을 지나게 되어 그곳에 사로잡혀 산으로 끌려가 한번 머문 지 삼 년이 되었나이다. 올해에야 비로소 몸을 빼어 목숨을 건져 경사로 도망쳐 돌아왔으나, 비록 누님은 뵈었으되 감히 거리에 나다니지 못하옵니다. 혹여 누가 알아보고 포교에게 알리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찌 변

명하오리까?” 이사사가 아뢰었다. “제 아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괴로움뿐이오니 부디 폐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천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 일은 쉽다. 너는 이 행수의 아우이니 누가 감히 너를 잡겠느냐!” 연청은 눈빛으로 이사사에게 정을 보냈다. 이사사가 애교를 부리며 천자에게 아뢰었다. “저는 다만 폐하께서 친히 사면서 한 통을 써서 제 아우를 사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비로소 마음을 놓겠나이다.” 천자가 말했다. “어보도 여기 없는데 어찌 쓰겠느냐?” 이사사가 다시 아뢰었다. “폐하께서 친히 어필로 써 주시면 옥새 찍힌 천부(天符)보다 나은 것이옵니다. 아우를 구제하는 호신부가 된다면 이 또한 천한 몸이 성스러운 시절을 만나는 것이옵니다.” 천자는 퍽박을 이기지 못해 종지와 붓을 가져오게 했다. 유모가 곧 문방사보를 받들어 오자 연청이 먹을 진하게 갈고 이사사가 자호 상관(紫毫象管, 자호 붓에 상아 붓대)을 건넸다. 천자가 꽃무늬 황색 종이를 펼쳐 가로로 한 줄을 크게 쓰려 했다. 쓰려다 또 연청에게 물었다. “과인이 경의 성명을 잊었구나.” 연청이 말했다. “소인을 연청이라 하옵니다.” 천자는 곧 어필을 써 내려가니 다음과 같았다.

신소왕부의 참된 주인이며 선화 연간의 도사, 허정도군 황제는 특별히 명하노니, 연청의 모든 죄를 사면하며, 모든 관청에서는 그를 잡아 가두거나 문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글을 다 쓴 뒤 그 아래에 어필임을 나타내는 화려한 꽃무늬 서명(花字)을 그려 넣었다. 연청은 다시 절하며 머리를 조아려 명을 받들었다. 이사사는 잔을 들어 올리며 은혜에 감사했다.

천자가 물었다. “네가 양산박에 있었으니 그곳의 사정을 분명히 알 것이로다.” 연청이 아뢰었다. “송강 무리는 깃발에 ‘천명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替天行道)’라고 크게 써 붙였고, 당호는 ‘충의’라 이름 붙였습니다. 감히 주나 현을 침범하지 않았고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탐관오리와 간신을 처단할 뿐이었으며, 오로지 조안을 바라며 나라를 위해 힘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천자가 말했다. “과인이 앞서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 사람을 보내 조안하려 했거늘 어찌하여 거부하며 항복하지 않았단 말이나?” 연청이 아뢰었다. “첫 번째 조안 때는 조서에 위로하고 권유하는 말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어주라며 가져온 것이 모두 시골의 탁한 술이어서 일이 어긋났습니다. 두 번째 조안 때는 일부러 조서의 구두를 끊어 잘못 읽어 송강을 제거하려는 폐단을 몰래 감추었기에 또 일이 틀어졌습니다. 동 추밀이 군사를 이끌고 왔으나 단 두 진에 갑옷 한 조각 돌아가지 못하게 패했습니다. 고 태위가 군마를 거느리고 또 천하의 백성을 부역시켜 전함을 만들어 진격했으나 양산박의 화살 한 대도 꺾지 못했습니다. 단 세 진에 손쓸 틈도 없이 패하여 군마의 삼분의 이를 잃고 본인마저 산 채로 사로잡혀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안을 허락하고서야 풀려 돌아왔으나, 산에 있던 두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오고 문 참모를 그곳에 불모로 잡아 두었습니다.”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과인이 어찌 그런 일을 알았겠느냐! 동관이 경사로 돌아와 아뢰기를 ‘군사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니 잠시 군을 거두고 전투를 멈추겠습니다’라고 하였고, 고구가 돌아와 아뢰기를 ‘병이 들어 진격할 수 없으니 잠시 전투를 멈추고 경사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사사가 아뢰었다. “폐하께서 비록 성명하시어 구중궁궐에 계시나 간신들이 어진 이의 길을 막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겠나이까?” 천자는 탄식을 멈추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연청은 사면서를 챙겨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올리고 물러가 쉬었다. 천자는 이사사와 함께 침소에 들었고, 그날 밤 오경이 되자 내시 황문이 와서 천자를 모셔 갔다.

연청은 일어나 ‘이른 아침부터 일을 보아야 한다’고 둘러대고는 곧장 객점으로 가서 자신이 한 이야기를 대종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대종이 말했다. “그렇다면 대체로 다행스러운 일로구나. 우리 둘이 가서 숙 태위께 드릴 서신을 전하세.” 연청이 말했다. “밥을 먹고 바로 가 십시다.”

두 사람은 아침을 마친 뒤 금주와 귀중품이 든 광주리 하나를 챙기고 서신을 들고 곧장 숙 태위의 부로 향했다. 길에서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태위가 아직 대궐 안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연청이 말했다. “이 시간이면 마침 조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인데 어찌 아직 안 돌아오셨단 말인가?” 이웃 사람이 말했다. “숙 태위께서는 지금 폐하께서 아끼시는 측근 관원이라, 아침저녁으로 천자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니 일찍 오는지 늦게 오는지 정할 수가 없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누군가 알렸다. “저기 태위께서 오신다!” 연청이 크게 기뻐하며 대종에게 말했다. “형님은 이 관아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직접 태위를 뵙겠습니다.” 연청이 다가가 보니 비단옷에 꽃무늬 모자를 쓴 종자 한 무리가 가마를 받들고 오고 있었다. 연청은 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인이 태위께 올릴 서찰이 있나이다.” 숙 태위가 보고 외쳤다. “따라 들어오게 하라!” 연청은 대청 앞까지 따라 들어갔다. 태위는 가마에서 내려 옆쪽 서원으로 들어가 앉았다. 태위가 연청을 불러들여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연청이 말했다. “소인은 산동

에서 왔으며 문 참모의 서찰을 올리러 왔나이다.” 태위가 말했다. “어느 문 참모 말이냐?” 연청이 품에서 서신을 꺼내 올리자 숙 태위는 봉투를 보고 말했다. “어느 문 참모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내 어린 시절 동창인 문환장이로구나!” 그러고는 서신을 뜯어 읽으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시생(侍生) 문환장은 손을 씻고 백 번 절하며 이 글을 받들어 올립니다.

태위 은상(恩相)의 군좌(鈞座) 앞에 올립니다.

소생이 더벅머리 시절부터 (태위의) 문하에 드나든 지도 벌써 삼십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고 전수(高殿帥)의 부름을 받아 군영으로 가서 큰일을 참모하였으나, 간언을 따르지 않으시고 충언을 듣지 않으셔서 세 번이나 패하니 말하기에 심히 부끄럽습니다. 고 태위와 소생은 함께 사로잡혀 포승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사(義士) 송 공명은 너그럽고 인자하여 차마 해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 전수가 양산박의 소양과 악화를 데리고 경사로 가서 조안을 청하려 하면서 소생을 이곳에 볼모로 잡아 두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은상께서는 입을 아끼지 마시고 아침저녁으로 천자 앞에서 아뢰어 속히 조안의 은전을 내리게 하시어, 의사 송 공명 등이 하루빨리 죄를 벗고 은혜를 입어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게 해 주신다면 이는 나라의 큰 다행이요 천하의 큰 다행이겠습니다! 소생을 구해 주신다면 실로 다시 살려 주시는 은혜를 받드는 것입니다. 종이를 어루만지며 간절히 비오니 부디 굵어살펴 주시옵소서.

선화 4년 봄 정월 일, 환장 재배하여 받들어 올립니다.

숙태위는 서신을 읽고 크게 놀라며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연청이 대답했다. “소생은 양산박의 ‘낭자’ 연청이라 합니다.” 연청은 즉시 밖으로 나가 바구니를 챙겨 들고 곧장 서원으로 향했다. 연청이 말했다. “태위께서 화주에서 강향을 모실 때 소생이 여러 번 곁에서 모신 적이 있는데, 어찌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저희 송강 형님께서 형님을 생각하는 작은 정성을 보내오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매일 점을 칠 때마다 오직 태위께서 저희를 거두어 구제해 주시기를 빌 뿐입니다. 송강 일행은 온 마음으로 태위께서 조안을 청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태위께서 아침저녁으로 천자 앞에 이 일을 고해 주신다면, 양산박의 십만 군사 모두가 태위의 큰 은혜에 감격할 것입니다! 형님께서 기한을 정해 두셨으니, 소생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연청이 작별 인사를 하고 부를 나섰다. 숙태위는 사람을 시켜 금과 보물을 거두게 하니, 이미 마음속에 연청의 말을 새겨두었다.

한편, 연청은 대종과 함께 여관으로 돌아와 의논했다. “이 두 가지 일은 순서가 있긴 하지만, 소양과 악화가 고태위의 부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빼내 온단 말인가?” 대종이 말했다. “나와 자네가 예전처럼 산 사람으로 변장하고 고태위의 부 앞에서 기다려 보세. 부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 금은보화를 뇌물로 주어 하인 하나를 매수하세. 소식을 통하게 되면 방법이 생길 걸세.” 두 사람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 금은을 챙겨 태평교 쪽으로 향했다. 관아 앞에서 잠시 살피니, 마침 부 안에서 나이 어린 우후(虞候) 하나가 거들먹거리며 나오는 것이 보였다. 연청이 다가 예의를 갖추며 인사했다. 그 우후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연청

이 말했다. “간판(幹辦)님, 찻집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다.” 두 사람은 찻집 별실 안으로 들어가 대종과 만나 함께 차를 마셨다. 연청이 말했다. “사실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위께서 양산박에서 데려온 두 사람 중 악화라는 자가 저희 형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형님께서 그를 한 번 보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우후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우후가 말했다. “두 사람 다 그만 말하게. 저 절당(節堂)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가 알겠는가?” 대종이 소매 안에서 커다란 은덩이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우후에게 말했다. “이보게, 그저 악화를 데리고 나와 얼굴만 보게 해주거나. 관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 이 은덩이를 자네에게 주겠네.” 재물을 본 우후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 말했다. “정말로 그 두 사람이 안에 있네. 태위의 명에 따라 후원 안에서 쉬게 하고 있지. 내가 그들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게 해줄 테니, 약속을 어기지 말고 이 은을 내게 주거나.” 대종이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우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령했다. “두 사람은 이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게.” 그러고는 급히 부 안으로 들어갔다. 대종과 연청이 찻집에서 반 시진도 채 기다리지 않았을 때, 그 어린 우후가 허둥지둥 나오며 말했다. “어서 은부터 내놓게. 악화를 이미 옆방으로 불러냈네.” 대종과 연청이 귓속말로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은덩이를 건네주었다. 우후는 은을 받자마자 연청을 데리고 악화가 있는 옆방으로 안내했다. 우후가 말했다. “두 사람은 얼른 이야기만 나누고 나가게!” 연청이 악화에게 말했다. “나와 대종이 여기서 계책을 세워 자네들을 반드시 빼내 주겠네.” 악화가 말했다. “우리를 후원에 가두어 두었는데 담장까지 높으니 빠져나갈 길이 없네. 꽃 꺾는 사다리도 모두 숨겨버렸으니 어떻게 나가겠나.” 연청이 물었다. “담장에 나무가 있는가?” 악화가 대답했다. “담장 한쪽이 온통 커다란 버드나무라네.” 연청이 말했

다. “오늘 밤에는 기침 소리를 신호로 삼겠네. 내가 밖에서 밧줄 두 가닥을 던져줄 테니, 자네들은 가까운 버드나무에 밧줄을 단단히 묶게나. 우리 둘이 담 밖에서 밧줄 끝을 잡고 있을 테니, 자네들은 밧줄을 타고 넘어오게. 사경(새벽 네 시)을 기한으로 삼을 테니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네.” 우후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얼른 가거나 하게!” 악화는 안으로 들어가 소양에게 이 사실을 은밀히 알렸다. 연청도 급히 대종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날 밤을 기다리며 대기했다.

연청과 대종은 길거리에서 거친 밧줄 두 가닥을 사서 몸에 숨긴 뒤, 먼저 고태위의 부 뒤편을 살펴 발 디딜 곳을 보아 두었다. 알고 보니 부 뒤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가에는 빈 배 두 척이 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밧줄로 묶여 있었다. 두 사람은 빈 배 속에 숨어 기다리다가, 밤을 알리는 북소리가 사경을 치는 것을 듣고 땅으로 올라와 담장 뒤를 돌며 기침 소리를 냈다. 담 안에서도 응답하듯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양쪽 다 뜻이 통했음을 확인한 연청이 밧줄을 던져 넘겼다. 안쪽에서 단단히 묶인 듯하자, 밖에서 두 사람이 마주 잡고 밧줄 끝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악화가 먼저 밧줄을 타고 내려왔고, 뒤이어 소양도 내려왔다. 두 사람은 담을 내려오자마자 밧줄을 담 안으로 던져 놓어버렸다. 그들은 곧장 여관 문을 두드려 열고 방에서 짐을 챙기고, 불을 피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숙박비를 치렀다. 네 사람은 성문 옆에 이르러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와 양산박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려 했다. 바로 이 네 사람이 돌아온 덕분에, 숙태위가 이 일을 홀로 아뢰어 양산박이 온전히 조안을 받게 되었다.

결국 숙태위가 어떻게 상소를 올려 성지를 받아낼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2회 — 양산박에서 금을 나누어 시장을 크게 열고, 송공명이 무리와 함께 모두 초안을 받다

梁山泊分金大買市 宋公明全夥受招安

이야기는 이러하다. 연청은 이사사의 집에서 황제를 만나 자신에 대한 사면서 한 통을 얻어냈다. 그 후 숙태위를 만난 연청은 대종과 함께 계책을 세워 고태위의 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소양과 악화를 속여 빼냈다. 네 사람은 성문이 열리자마자 즉시 성을 빠져나와 곧장 양산박으로 달려가 이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사사는 그날 밤 연청이 집으로 찾아오지 않자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여겼다. 한편 고태위의 부에서는, 다음 날 소양과 악화에게 차와 식사를 가져다주던 측근 수하들이 방 안에 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도관(都管)에게 보고하였다. 도관이 화원으로 달려가 살펴보니, 버드나무 옆에 굶은 밧줄 두 가닥이 묶여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된 도관은 즉시 태위에게 보고하였다. 고구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근심이 더욱 깊어졌고, 그저 부 안에서 병을 핑계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오경에 황제가 문덕전에서 조례를 열었다. 문무백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천자가 명을 선포하여 휘장을 건게 하고 좌우 근신들에게 명하여 추밀사 동관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황제가 물었다. “그대가 지난해 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직접 초토사(招討使)가 되어 양산박을 정벌하러 갔는데, 승패가 어떠하였는가?”

동관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신이 지난해 대군을 거느리고 정벌하러 갔으나,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더운 날씨 탓에 군사들이 물과 땅에 적응하지 못해 병든 자가 많았고, 열에 두셋은 죽었습니다. 신이 군마와 병사들의 고충을 보고, 우선 군사를 거두어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본영으로 돌아가 훈련하게 하였습니다. 어림군(御林軍) 또한 가는 길에 병이 돌아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그 후 조서를 내려 저 도적 떼를 달래려 하였으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고, 고구가 수군을 이끌고 정벌하러 갔을 때도 도중에 병을 얻어 돌아왔나이다.”

천자가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모두 너희같이 어진 이를 시기하고 능한 이를 질투하는 간신들이 과인을 속이고 일을 꾸민 것이로구나! 그대가 지난해 군사를 거느리고 양산박을 정벌하러 갔을 때, 어찌하여 단 두 번의 접전 만에 도적 군사들에게 인마가 짓밟혀 흩어지고, 갑옷 한 조각 말 한 필도 돌아오지 못한 채 왕사(王師)를 패하게 만들었느냐! 또한 고구 그놈은 주군(州郡)의 군량미를 얼마나 낭비하고 병선을 얼마나 망가뜨렸으며, 군마를 얼마나 잃었는가? 심지어 자기 자신은 도적들에게 산 채로 사로잡혀 산으로 끌려갔다가, 송강 일당이 죽이지 않

고 놓아주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과인이 듣기로 송강 무리는 주부(州府)를 침범하지도 않고 양민을 약탈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조안을 기다리며 나라를 위해 힘쓰려 한다는데, 이는 모두 너희같이 재주도 없으면서 탐욕스럽고 아첨하는 신하들이 조정의 작록(爵祿)을 헛되이 받으며 나라의 큰일을 망친 탓이다! 네가 추밀(樞密)을 맡고 있으면서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냐! 마땅히 잡아다 문책해야 하나 이번만큼은 면해주겠으니,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치 않으리라!”

동관은 아무 말도 못 하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천자가 다시 물었다. “경들 대신 중에 누가 양산박의 송강 일행을 찾아가 달라고 귀순을 권할 수 있겠는가?”

황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전태위 숙원경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신이 비록 재주는 부족하나, 직접 한번 가보고자 하나이다.”

천자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과인이 직접 친필로 단조(丹詔)를 쓰겠다.”

그러고는 어안(御案)을 들여오게 하여, 조서 종이를 펼치고 천자가 직접 어안 위에서 단조를 써 내려갔다. 좌우 근신들이 어보를 받들어 올리자 천자가 직접 인을 찍었다. 이어 창고 관리에게 명하여 금패 서른여섯 개, 은패 일흔두 개, 붉은 비단 서른여섯 필, 초록 비단 일흔두 필, 황색 봉인을 한 황제용 술 백여덟 병(108병)을 모두 숙태위에게 내리게 하였다. 또한 정종(正從)의 표리(表裏) 스물네 필과 금색 글씨의

조안 어기(御旗) 한 면도 함께 내리며, 반드시 다음 날 떠나라고 명하였다. 숙태위는 문덕전에서 천자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다.

백관의 조례가 끝나자, 동 추밀사는 수치심에 얼굴이 가득 붉어진 채 부로 돌아가 병을 핑계로 감히 조정에 나오지 못했다. 고태위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역시 감히 조정에 나오지 못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밝은 궁궐에서 내려온 은혜로운 조서에
양산의 모든 이들 집을 꾸리는 것을 바라보네.
무력으로 다스림보다 어루만짐이 낫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린 백성들이 상처 입게 한 것이 후회스럽구나.

한편, 숙태위는 황제의 술과 금패, 은패, 비단과 의복 등을 말에 싣고 성을 나섰다. 황제가 하사한 금색 글씨의 조안 어기를 높이 세우니, 여러 관리가 남훈문을 통해 배웅하였고, 숙태위는 제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한편, 연청, 대종, 소양, 악화 네 사람은 밤을 도와 산채에 도착하여 이 모든 일을 송강과 여러 두령에게 보고하였다. 연청이 황제의 친필 사면서를 꺼내어 보여주자, 송강 일행이 이를 살펴보았다. 오용이 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송강은 향을 피우고 구천현녀과를 꺼내어 허공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을 올렸는데, 점을 쳐보니 상상대길(上上大吉)의 징조가 나왔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는 다시 대중과 연청을 보내 상황의 허실을 살펴 급히 보고해 오게 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대중과 연청이 떠난 지 며칠 만에 돌아와 보고하기를, “조정에서 숙태위를 보내 황제의 친필 단조와 황제의 술, 금패와 은패, 붉고 푸른 비단 등을 가지고 조안하러 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충의당에서 장령을 내려 인원을 배정하였다. 양산박에서 제주 땅까지 이르는 길목에 스물네 개의 산봉(山棚)을 세우게 했는데, 위로는 꽃과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아래로는 생소와 북, 장구 등 풍악을 갖추었다. 또한 인근의 여러 주군에서 악사를 고용하여 각 산봉에 배치하고 조서를 맞이하게 하였다. 각 산봉에는 소두목 한 명을 두어 감독하게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과일, 해산물, 안주, 마른 음식 등을 사들여 연회와 다과·식사 자리를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숙태위가 칙명을 받들어 양산박을 조안하러 오는데, 일행이 줄을 지어 제주에 도착하였다. 제주 태수 장숙야가 성 밖으로 나가 숙태위를 영접하여 성안의 관역(館驛)으로 모셨다. 태수가 숙태위께 문안 인사를 다 올리고 나서 환영주를 권하며 말했다.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조안하러 한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는 적당한 인물을 얻지 못해 국가의 큰일을 그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태위의 행차는 반드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숙태위가 말하였다. “천자께서 근래에 들으시니 양산박 무리는 의로움을 으뜸으로 삼아 주군을 침범하지 않고 양민을 해치지 않으며, 입으로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替天行道)고 한다 하더이다. 하여 이번

에 소관에게 명하여 천자의 친필 단조와 금패 서른여섯 개, 은패 일흔 두 개, 붉은 비단 서른여섯 필, 초록 비단 일흔두 필, 황색 봉인을 한 황제용 술 백여덟 병(108병), 표리 스물네 필을 가지고 이곳에 조안하러 오게 하였으니, 예물이 가볍지는 않습니까?”

장숙야가 말했다. “그들은 예물의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충의로써 나라에 보답하고 후세에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태위께서 진작 이렇게 오셨더라면 나라의 군사와 장수를 잃지 않고 군량미를 헛되이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의사들이 귀순하고 나면 반드시 조정을 위해 공을 세우고 대업을 이룰 것입니다.”

숙태위가 말했다. “소관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번거롭더라도 태수께서 직접 산채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맞이할 준비를 시켜 주십시오.”

장숙야가 대답하였다. “소관이 가겠습니다.” 장숙야는 즉시 말을 타고 성을 나서서 열댓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곧장 양산박으로 향하였다.

산 아래에 도착하니 이미 소두목이 마중 나와 나와 있었다. 소두목은 산채 안으로 들어가 보고하였고, 송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산을 내려가 장 태수를 영접하여 충의당으로 모셨다. 서로 인사를 나누 뒤 장숙야가 말했다. “의사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조정에서 전전태위 숙태위를 특별히 파견하여, 황제께서 친필로 쓰신 단조를 받들어 조안하러 오게 하였습니다. 하사하신 금패와 의복, 황제의 술과 비단 등은

지금 제주 성안에 있사오니, 의사들께서는 조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송강 일행에게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큰 다행입니다!” 송강은 즉시 장숙야에게 차와 식사를 대접하고자 청했다. 장숙야가 말했다. “제가 대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태위께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발걸음을 늦추실까 두려워 그러는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약소하게나마 술 한 잔 올리는 것이니, 감히 예법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숙야가 완강히 고집하자, 송강은 급히 은과 금이 담긴 쟁반 하나를 내어 보내게 하였다. 장 태수가 이를 보고는 말했다. “이것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보잘것없는 물건이나마 저희의 진심을 표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일이 다 마무리된 후에 다시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숙야가 말했다. “의사들의 두터운 정에 깊이 감동하였으나, 우선은 산채에 머무시며 나중에 받으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태수는 참으로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청렴한 관리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제주 태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물이라,
황금은 탐내지 않고 오직 송강만을 아꼈네.
진정 청렴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무력과 위세로 행복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네.

송강은 즉시 대소 군사(大小軍師)인 오용과 주무, 그리고 소양, 악화 네 사람을 보내 장 태수를 따라 산을 내려가 제주로 향하게 하여 숙태위를 알현하도록 하였다. 모레쯤 되면 수많은 대소 두목이 산채를 떠나 삼십 리 밖 길목에 늘어서서 조서를 맞이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오용 일행은 태수 장숙야를 따라 밤을 도와 산을 내려가 제주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관역에 도착하여 숙태위를 알현하고 절을 올린 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숙태위가 몸을 일으키라 하며 모두 앉으라고 권했으나, 네 사람은 겸손히 사양하며 감히 앉지 못하였다.

태위가 그들의 성명을 묻자 오용이 대답하였다. “소생은 오용이라 하옵고, 여기 있는 이들은 주무, 소양, 악화입니다. 저희는 형님인 송공명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은상(恩相)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형님과 아우들은 모레 산채를 떠나 삼십 리 밖 길목에 엮드려 조서를 맞이할 것입니다.”

숙태위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가량선생(오용), 화주에서 헤어진 뒤로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소관은 그대들 형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소. 평소 충의를 품고 있었으나, 간신들이 앞길을 막고 아침하는 무리들이 권세를 독점하는 바람에 그대들의 충심이 위로 전달되지 못했을 뿐이요. 이제 천자께서 그 사실을 모두 아시고, 특별히 소관에게 명하여 천자의 친필 단조와 금패, 은패, 붉고 푸른 비단, 황제용 술과 표리를 가지고 조안하러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받으시오.”

오용 일행이 다시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산야의 거친 사내들을 위해 은상께서 친히 왕립해 주시니 참으로 황송합니다. 천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모두 태위께서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 은혜를 뼈에 새겨 잊지 못할 것이니, 다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숙야가 그 자리에서 연회를 베풀어 이들을 대접하였다.

셋째 날 새벽이 되자, 제주에서는 향거(香車) 세 대를 꾸미고, 황제의 술은 별도의 용봉합(龍鳳盒) 안에 담아 메어 나르게 하였다. 금패와 은패, 붉고 푸른 비단은 또 따로 짙어지게 하고, 황제의 친필 단조는 용정(龍亭) 안에 안치하였다. 숙태위가 말에 올라 용정 곁에 붙어 동쪽으로 향하자, 태수 장숙야가 그 뒤를 말로 따르며 수행하였고, 오용 등 네 사람도 말을 타고 뒤따랐으며, 대소 수행원들이 일제히 그들을 에워싸고 따랐다. 행렬의 맨 앞에서는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금박을 입힌 황색 깃발을 휘날렸고, 금고(金鼓)와 기치로 이루어진 의장대가 길을 열며 제주를 나서서 천천히 나아갔다.

그렇게 길을 나선 지 십 리도 채 못 되어 벌써 산봉이 맞이하였다. 말 위에서 내려다본 숙태위의 눈에, 산봉 위에는 오색 비단이 걸리고 꽃이 매달려 있었으며, 아래에서는 생소와 북,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며 길에 들어서서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수십 리를 더 나아가니 또 비단으로 장식한 산봉이 나타났다. 저 앞에서부터 향 연기가 길을 따라 이어지는 것이 보였는데, 송강과 노준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뒤로 여러 두령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 황제의 은조(恩詔)를 맞이하고 있었다.

숙태위가 “모두 말에 오르게 하라”고 말하였다. 일행이 함께 물가까지 맞이해 나아가니, 양산박의 수백수천 척의 전선이 일제히 강을 건너 곧장 금사탄에 상륙하였다. 세 관문의 위아래에서 북과 풍악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고, 군사들의 인도와 의장 호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기이한 향이 자욱이 감돌았다. 마침내 충의당 앞에 이르러서야 말에서 내렸다. 향거와 용정은 충의당 위로 옮겨 모셨다.

충의당 가운데에는 세 개의 안상(几案)을 놓았는데, 모두 황라(黃羅)에 용봉을 수놓은 탁자보로 둘러쳤다. 정중앙에는 만세룡패(萬歲龍牌)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 황제의 친필 단조를 놓았으며, 왼쪽에는 금패와 은패를, 오른쪽에는 붉고 푸른 비단을 놓고, 황제의 술과 표리 또한 그 앞에 두었다. 금향로 안에서는 좋은 향이 타오르고 있었다.

송강과 노준의는 숙태위와 장 태수를 정중히 모셔 당에 올라 자리에 앉게 하였다. 왼쪽에는 소양과 악화가 서고, 오른쪽에는 배선과 연청이 섰다. 송강과 노준의를 비롯한 모든 이들은 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배선이 절하라 외치니, 절을 마친 뒤 소양이 조서를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짐이 즉위한 이래로 인의로써 천하를 다스리고, 공정하게 상벌을 내려 전란을 잠재우며, 어진 이를 구하는 일에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혹여라도 미치지 못할까 늘 염려하니, 멀리 있는 백성부터 가까이 있는 백성까지 모두 짐의 마음을 알고 있다.

송강과 노준의 등을 생각건대, 그들은 평소 충의를 품고 있었으며 포악을 휘두르지 않았고, 귀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지도 오래되었으며 나라에 보답하고자 하는 뜻 또한 늠름하다. 비록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저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 속마음을 살펴보니 참으로 가련하고 안타깝다.

이에 짐은 특별히 전전태위 숙태위를 보내 조서를 받들게 하고 양산 박에 직접 가게 하여, 송강 등 대소 인원들이 저지른 죄를 모두 사면하노라. 금패 서른여섯 개와 붉은 비단 서른여섯 필을 송강 등 상급 두령들에게 내리고, 은패 일흔두 개와 푸른 비단 일흔두 필을 송강 휘하의 두목들에게 내린다.

사면 조서가 도착하는 날, 짐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속히 귀순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중용할 것이다. 이에 조서를 내리니 모두가 이 뜻을 깊이 알라."

선화 4년 봄 2월, 조서를 내리노라.

소양이 단조를 다 읽자, 송강과 다른 이들이 세 번이나 만세를 외치며 두 번 절하고 은혜에 감사하기를 마쳤다. 숙태위는 금패와 은패, 그리고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을 가져오게 하여 배선에게 명해 명단에 따라 차례대로 나누어 주게 했다.

이어 임금의 술을 가져오게 한 뒤, 은으로 만든 커다란 술그릇에 술을 가득 부었다. 곧바로 국자로 술을 떠서 대청 앞에서 따뜻하게 데운 뒤 은주전자에 옮겨 담았다. 숙태위는 금종을 들고 술을 한 잔 따르더니, 여러 두령을 향해 말했다.

"나 숙원경은 비록 임금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술을 가지고 이곳에 왔으나, 혹여 의사(義士)들이 나를 의심할까 두렵소. 그러니 내가 먼저 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아무도 의심하지 마시오."

여러 두령이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다. 숙태위가 술을 다 마신 후 다시 술을 따라 송강에게 먼저 권하니, 송강이 잔을 들어 무릎을 꿇고 마셨다. 그다음 노준의, 오용, 공손승이 차례로 술을 마셨고, 이어 백여덟 명의 두령 모두에게 술을 권하여 한 잔씩 다 마시게 했다.

송강은 명을 내려 임금의 술을 거두게 하고, 숙태위를 가운데 앉게 한 뒤 모든 두령이 그를 향해 절하며 예우를 갖추게 했다. 송강이 앞으로 나아가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송강은 얼마 전 서악에서 태안(台顔)을 만난 뒤로 숙태위의 깊은 은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폐하의 곁에서 송강 등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힘써 상소해 주신 그 은혜는 뼈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이에 숙태위가 대답했다.

"나 숙원경은 의사들이 충의롭고 늠름하게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그 내막을 상세히 알지 못했기에 폐하의 측근들께 차마 보고하지 못해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소. 그러다 얼마 전 문참모의 서신을 받고 두터운 예물을 받으면서야 비로소 그 진심을 알게 되었소. 그날 폐하께서 피향전에 계실 때, 임금께서 나와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의사들의 안부를 물으시기에 내가 이 일을 보고하였소. 뜻밖에도 폐하께서는 이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

으며, 내가 보고한 내용과 같았소. 이튿날 폐하께서 문덕전에 좌정하시어 백관들 앞에서 동관 추밀사를 통렬히 꾸짖으시고, 연달아 공을 세우지 못한 고태위를 깊이 질책하셨소. 그리고는 친히 문방사우를 가져오라 명하신 뒤, 폐하께서 직접 붓을 들어 단조를 쓰시고 나 숙원경을 특별히 양산박으로 보내 두령들을 청하게 하신 것이요. 바라건대 의사들은 조속히 채비를 마쳐 조정으로 올라오시오. 백성을 어루만져 안심시키고자 하는 성상 폐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두 손을 모아 감사를 표했다. 예가 끝나자 장숙야 태수는 지방에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숙태위와 작별한 뒤 성안으로 돌아갔다.

한편 송강은 문참모를 불러 숙태위와 만나게 하였는데, 숙태위가 기쁘게 옛이야기를 나누니 대청 안이 온통 환희로 가득 찼다. 숙태위를 가운데 상석에 모시고 문참모가 마주 앉아 그 곁을 지켰다. 대청 위아래로 모든 이들이 차례대로 자리를 잡으니,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져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술잔을 기울였다. 청 앞에서는 악사들이 힘차게 악기를 불고 두드렸다. 비록 봉황을 삶거나 용을 튀기는 듯한 진귀한 요리는 없었으나, 고기가 산을 이루고 술이 바다를 이룰 정도로 풍성했다. 그날 모두가 흠뻑 취하여 각자 머무는 막사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이튿날 다시 연회를 베풀자,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어온 생각과 포부를 하나하나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셋째 날에는 다시 잔치를 열어 숙태위를 모시고 산천을 유람하였는데, 해가 저물 때까지 술을 마시고 취한 뒤에야 비로소 자리를 떴다.

어느덧 며칠이 지나 숙태위가 돌아가려 하자, 송강 일행은 간곡히 만류했다. 이에 숙태위가 말했다.

"의사들은 내막을 잘 모르나, 나 숙원경은 폐하의 칙지를 받들어 이곳에 온 지 벌써 며칠이 지났소. 영웅들이 기꺼이 귀순하여 대의가 온전해졌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시오. 하지만 내가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간신들이 시기하여 또 다른 탄소리를 낼까 두렵소."

송강 일행이 대답했다.

"태위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차마 더 붙잡아 두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음껏 취한 뒤, 내일 일찍 은혜로운 태위를 배웅하러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크고 작은 두령들이 모두 모여 의기투합하여 연회를 즐겼다. 술을 마시는 도중에 모두가 거듭 감사를 표했다. 숙태위 또한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며 다독였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잔치가 끝났다.

이튿날 이른 아침, 수레와 말을 준비하자 송강은 직접 금구슬이 담긴 쟁반을 받들어 숙태위의 막사로 가서 다시 절하며 바쳤다. 그러나 숙태위는 좀처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송강이 몇 번이고 거듭 간청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거두어들였다. 이어 궤짝을 챙기고 짐과 말안장을 묶어 출발할 채비를 마쳤다. 함께 따라온 나머지 사람들은 며칠 동안 주무와 악화가 대접하였는데, 예법에 따라 음식을 나누며 술을 마시는 동안 술을 잘 마시든 못 마시든 모두에게 금은보화와 재물을 두둑이 나누어 주니 모두가 기뻐했다. 또한 금보를 문참모에게도 선물하려 했

으나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송강이 끈질기게 권하자 그제야 문참모도 그것을 받았다. 송강은 이어 문참모에게 숙태위를 따라 함께 도성으로 돌아가 달라고 청했다. 양산박의 크고 작은 두령들은 북과 징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숙태위를 배웅하러 산을 내려갔다. 금사탄을 건너 30리 밖까지 배웅한 뒤, 모두가 말에서 내려 숙태위와 함께 술잔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송강이 먼저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다.

"태위라는 은혜로운 분께서 조정으로 돌아가시면, 저희를 위해 좋은 말씀을 올려 보고해 주십시오."

숙태위가 대답했다.

"의사들은 그저 마음을 놓으시오. 그저 하루빨리 채비를 마쳐 조정으로 입성하는 것이 상책이오. 만약 군마를 거느리고 도성에 도착하게 되면, 먼저 내 부(府)로 사람을 보내 알려 주시오. 내가 먼저 천자께 아뢰어 절을 든 사람을 보내 맞이하게 할 터이니, 그래야 참으로 위엄이 서는 법이오."

송강이 말했다.

"은혜로운 분의 너그러운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보잘 것없는 물웅덩이 같은 곳이나, 왕륜이 산에 들어와 터를 잡은 뒤로 조개가 들어오고 이제 송강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끼친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제 가진 재물을 모두 털어 열흘 동안 시장을 열어 정리한 뒤, 곧바로 모두

조정으로 입성할 계획이니 어찌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태위께서 이 어리석은 충정을 천자께 올려, 저희가 준비할 시간을 조금만 넉넉히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숙태위가 이를 허락하고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뒤, 조서를 든 일행을 거느리고 제주를 향해 떠났다.

송강 일행은 양산박 본채로 돌아와 충의당에 모여 복을 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크고 작은 두령들이 자리에 앉고 수많은 군교(軍校)들도 모두 당 앞에 모여들었다. 송강이 명을 내렸다.

"형제들이여, 여기 모여 들어보시오. 왕륜이 이곳에 터를 잡은 이래, 그다음으로 조개 천왕이 산에 들어와 기틀을 세우며 이토록 흥성해졌소. 나 또한 강주에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온 뒤로, 나를 우두머리로 받들어 수년이 흘렀소. 오늘 기쁘게도 조정의 조안(招安)을 받아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으니, 머지않아 조정으로 올라가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탬 것이요.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창고에 있는 물건은 모두 창고에 넣어 공용으로 쓰고, 그 외에 얻은 재물은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것이요. 우리 백팔 명은 하늘의 별자리와 응하여 생사를 함께하는 사이 아니요. 이제 천자께서 너그러운 은혜로 조서를 내려 죄를 사하고 불러들이셨으니,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이 저지른 죄를 다 씻게 되었소. 우리 백팔 명은 조만간 조정에 올라 폐하를 뵈게 될 것이니, 천자의 넓은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너희 군교들 중에는 본래 산적질을 하던 자도 있고, 무리를 따라 산에 들어온 자도 있으며, 관직에 있다가 함정에 빠진 자도 있고, 약탈해 온 자도 있을 것이요. 이번에 우리가 조안을 받았으니 모두 조정으로 갈 것이요. 가고자 하는 자는 이름을

적어 내어 함께 출발할 것이요, 가고 싶지 않은 자는 여기서 이름을 적어 작별을 고하시오. 내가 너희가 산을 내려가 각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떠나는 길을 챙겨주겠소."

송강이 호령을 마치고 배선과 소양에게 명하여 인원수를 세어 이름을 적게 했다. 호령이 떨어지자 삼군(三軍)의 장졸들은 각자 흩어져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떠나겠다고 말한 이가 삼오천 명은 되었다. 송강은 이들에게 모두 상금과 물품을 내려 보내주었다. 군인이 되어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이름을 적어 관아에 보고하게 했다.

이튿날, 송강은 다시 소양에게 방을 쓰게 하여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 붙이게 했다. 인근의 주군, 현, 향, 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 모든 사람이 열흘 동안 산에 와서 장을 열 수 있도록 알렸다. 그 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양산박의 의사 송강 등은 대의를 받들어 사방에 삼가 고하나이다. 그간 무리를 모아 산림에 머물며 사방의 백성들에게 적잖은 폐를 끼쳤으나, 오늘 다행히 천자께서 너그러운 인덕을 베풀어 특별히 조서를 내려 저희의 죄를 사하고 불러들이셨나이다. 머지않아 조정에 올라 폐하를 뵈게 될 터이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흘 동안 장을 열어 정리하고자 하나이다. 만약 너그러이 허락해 주신다면, 찾아오시는 분들께 하나하나 보답할 것이며 결코 허망한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이에 삼가 고하오니, 인근의 주민들은 의심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부디 기쁘게 찾아와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나이다.

선화 4년 3월 어느 날, 양산박의 의사 송강 등이 삼가 청하옵니다.

소양이 고시를 다 써 내려간 뒤, 사람을 시켜 인근 주군과 사방의 마을에 빠짐없이 붙이게 했다. 창고에 있던 금은보화와 비단, 능라, 사견 등의 물품을 꺼내어 각 두령과 군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중 일부는 따로 골라 황제께 진상할 준비를 했다. 나머지 물건들은 산채에 쌓아두고,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장을 열어 물건을 팔기로 했다. 소와 양을 잡고 술을 빚어 준비했는데, 산채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고생한 부하들을 격려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사방의 주민들이 짐을 꾸려 구름처럼 몰려와 산채로 모여 들었다. 송강이 명령을 내려 물건 하나에 열 배의 값을 쳐주니,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산채를 떠났다. 열흘 동안 매일같이 이런 일이 이어졌다. 열흘이 지나 장이 끝나자, 크고 작은 호령을 내려 군사들을 정돈하고 서울로 올라가 황제를 뵈는 채비를 마쳤다.

송강은 곧바로 각자 가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그러자 오용이 간언했다. "형님, 아직은 안 됩니다. 우선 가족들을 이 산채에 머물게 하십시오. 저희가 황제를 뵈고 은혜를 입는 것이 확정된 후에 가족들을 고향으로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군사의 말이 참으로 옳소." 송강은 다시 명령을 내려 각 두령에게 즉시 짐을 챙기고 군사를 정돈하라 일렀다. 송강 일행은 곧장 서둘러 출발하여 일찍이 제주에 도착해 태수 장숙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태수는 곧바로 연회를 베풀어 수많은 의사들을 대접하고 삼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송강 일행은 장 태수에게 작별을 고하고 성을 나서서, 수많은 군마를 이끌고 곧장 동경을 향해 나아갔다.

먼저 대중과 연청을 보내 숙태위의 부에 도착하여 소식을 알리게 했다. 숙태위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 천자에게 "송강 일행의 군마가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천자는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숙태위와 어가지휘사 한 명을 보내 깃발과 절(節)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하게 했다. 이에 숙태위가 성지를 받들고 성 밖으로 나갔다.

한편, 송강의 군마는 길을 나선 뒤로 매우 정연하게 대열을 갖추어 나아갔다. 앞쪽에는 붉은 깃발 두 면이 휘날리고 있었는데, 한 면에는 '순천(順天)'이라는 두 글자가, 다른 한 면에는 '호국(護國)'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여러 두령은 모두 무장한 차림이었으나, 오용만은 윤건(綸巾)을 쓰고 깃옷을 입었으며, 공손승은 학창의에 도포를 입었고, 노지심은 불꽃 같은 붉은 승복을, 무행자(무송)는 향내 나는 검은 직철(直櫟)을 입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전포를 입고 금갑옷을 갖추어 입은 채 각자 본래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길을 나선 지 며칠이 지나 드디어 동경 성 밖에 다다르니, 마침 어가지휘사가 절(節)을 들고 군마를 맞이하러 나왔다. 송강은 이 소식을 듣고 여러 두령을 거느리고 숙태위를 찾아가 인사를 올린 뒤, 군마를 신조문 밖에 주둔시키고 진을 친 채 성지를 기다렸다.

한편, 숙태위와 어가지휘사가 성 안으로 들어가 천자에게 보고하였다. "송강 일행의 군마는 모두 신조문 밖에 주둔하며 성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자가 말했다. "과인이 양산박의 송강 일행 백여덟 명이 하늘의 별자리와 응하며 영웅호걸로서 용맹하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이제 그들이 항복하여 서울에 이르렀으니, 내일 백관을 거

느리고 선덕루에 올라 송강 일행을 맞이하려 한다. 송강 일행에게는 적을 마주할 때처럼 무장을 갖추고 전포를 입되, 대규모 군마를 거느리지 말고 오직 삼백에서 오백 명 정도의 마보군(말과 보병)만 이끌고 성 안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행진하게 하라. 과인이 직접 그들을 보고 싶구나. 또한 성안의 군사와 백성들에게 이 영웅호걸들이 나라를 위한 어진 신하임을 알리도록 하라. 그 후에 갑옷을 벗고 무기를 거두게 한 뒤, 모두 하사받은 비단 도포를 입고 동화문을 통해 들어와 문덕전에서 조례를 올리게 하라." 어가지휘사는 곧장 행영 진영 앞으로 가서 성지를 전하여 송강 일행이 알게 하였다.

다음 날, 송강은 명령을 내려 '철면공목' 배선에게 체격이 당당한 장사들을 선발하여 오백에서 칠백 명 정도의 보병을 꾸리게 하였다. 앞쪽에는 금색 북과 깃발을 세우고, 뒤쪽에는 창과 칼, 도끼와 월도를 배치했으며, 중간에는 '순천'과 '호국'이라 적힌 붉은 깃발 두 면을 세웠다. 군사들은 저마다 칼과 검, 활과 화살을 차고, 모두 본래의 무장 차림과 전포를 갖추어 입은 채 대열을 이루어 동곽문을 통해 들어갔다.

동경의 백성과 군민들은 노인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길가로 몰려나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구경하였다. 이때 천자는 백관을 거느리고 선덕루에 올라 난간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쪽에는 금색 북과 깃발, 창과 칼, 도끼와 월도가 대열을 이루어 늘어서 있었고, 그중에는 백마를 탄 군사들이 '순천'과 '호국'이라는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나아갔으며, 그 곁으로는 이삼십 명의 기병이 군악을 울리며 따랐다. 뒤이어 수많은 호걸이 무리를 지어 행진해

오고 있었다. 영웅호걸들이 성안으로 입성하여 조례를 올리는 위용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맑은 바람은 옥계단을 스치고, 이슬은 금쟁반에 맺혔다. 동쪽에서는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북쪽 궁궐의 구슬 발은 반쯤 건졌다. 남훈문 밖으로는 백여덟 의사가 충심을 품고 돌아오니, 선덕루 앞에서는 만세의 군왕이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맞이한다.

엄숙한 의례가 막 시작되려 하니, 그 기세는 여전히 군용을 정돈한 듯 씩씩하다. 비바람과 해와 별이 모두 황제의 갠 듯 온화한 용안을 알아보고, 천둥과 번개, 벼락조차도 하늘의 토벌의 위엄을 빌릴 필요가 없도다. 황궁 앞에 온갖 신령이 모여드니, 성인과 신선, 나타와 금강, 염라와 판관, 문신과 태세에 이르러 야차와 귀마까지 모두 도군(道君) 이신 황제를 우러러본다.

봉루 아래에는 온갖 짐승이 조아리니, 표범과 기린, 산예와 안비, 금시조와 대붕, 거북과 원숭이뿐 아니라 개와 쥐, 뱀과 전갈까지도 모두 송나라 임금의 주인으로 안다. 다섯 마리 용이 해를 감싸듯, 입운룡, 혼강룡, 출림룡, 구문룡, 독각룡이 마치 동굴에서 나온 교룡이나 강을 뒤엎는 신기루처럼 무리를 지어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 떼와 같으니, 삼치호, 조간호, 금모호, 화향호, 청안호, 소면호, 왜각호, 중전호가 따르고, 병든 대충과 모대충까지도 대열을 지어 예를 갖춘다.

본래 공후백자(公侯伯子)라 불리던 이들은 마땅히 조례의 예법을 잘 알 것이나, 어찌 알았으랴, 먼지 날리며 소리 높이는 이들 중에 정원

사, 의원과 점쟁이, 장인, 선원이 섞여 있을 줄을. 털과 수염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총애를 받을 만하거늘, 비단 도포와 자줏빛 띠를 두른 이들 중에 부인과 남자, 승려와 행자가 섞여 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관직의 이름을 살펴보면 태보, 군사, 군마, 공목, 낭장, 선봉의 직함이 이미 줄지어 있고, 옛 영웅들에 비하면 패왕, 이광, 관색, 온후, 울지, 인귀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듯하다. 용모가 수려한 자는 '백면랑'처럼 꽃 한 가지를 꽃고 피리와 부채, 깃발을 든 채 노래하며 춤을 추려 하고, 용모가 거친 자는 '청면수'처럼 귀신 같은 얼굴로 창과 칼, 채찍과 화살을 들고 싸움에 나설 기세다. 키가 큰 자는 '힘도신'처럼 한 길에 달하고, 사나운 자는 석장군처럼 힘이 세어 삼산을 진압할 듯하다.

머리카락은 붉고 눈은 푸를지언정, 모두 한결같은 충심을 품었으니, 하늘을 만지고 파도를 뛰어넘을지언정 결코 사악한 길로 빠지지 않는다. 임금을 가까이 모시니 예전처럼 얼굴을 들지 못할 일도 없고, 은혜가 넓고 방어가 철저하니 참으로 막힘이 없는 날이로다.

보라, 무기를 휘두르는 저 서생들이 조정에서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해치는 관리들보다 훨씬 낫도다. 의사들은 이제 주군을 만나 기뻐하고, 황실은 드디어 인재를 얻어 경사로다!

한편, 도군(道君) 황제는 백관과 함께 선덕루 위에 올라 양산박 송강 일행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황제는 그들의 기세에 용안이 크게 기뻐지며 마음속으로 무척 흠족해하며 백관들에게 말했다. "저 호걸들을 보

라, 진정한 영웅들이로다!" 황제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전두관(殿頭官, 황제의 측근 무관)에게 명을 내려, 송강 일행에게 황제가 하사한 비단 도포로 갈아입고 황제를 알현하라는 교지를 전하게 하였다.

전두관이 명을 받들어 송강 일행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그들은 동화문 밖에서 입고 있던 무장과 허리띠를 벗어 던지고, 황제가 하사한 붉고 푸른 비단 도포를 입었으며, 금은패를 허리에 찼다. 또한 저마다 조례를 올릴 때 쓰는 관을 쓰고 초록색 관화를 신었다. 다만 공손승은 붉은 비단으로 도포를 만들었고, 노지심은 승복을 지었으며, 무송은 직도(直綴, 평상복)를 만들어 입었는데, 모두 황제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 하였다. 송강과 노준의를 앞세우고 오용과 공손승이 뒤를 이어 무리를 이끌고 동화문을 통해 입성하였다.

그날 엄숙하게 조례의 예법을 갖추고 난가(鸞駕, 황제의 가마)를 배치한 뒤, 진패(辰牌)가 가리키는 진시(辰時, 아침 7~9시) 무렵이 되자 천자가 문덕전으로 거동하였다. 의례사 관원들이 송강 일행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입조하게 하니, 그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줄을 서서 예를 올렸다. 전두관이 배무(拜舞)와 기거(起居)의 예를 인도하고, 세 번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의례가 끝났다.

천자는 매우 기뻐하며 송강 일행에게 문덕전으로 와서 정해진 차례대로 앉으라고 명하였다. 또한 어연(御筵, 황제의 잔치)을 마련하게 하고, 광록시(光祿寺, 궁중 연회를 담당하는 관청)에 잔치를 차리라 칙령을 내렸다. 양온서(良醢署, 술을 만드는 곳)에서는 술을 올리고, 진수서(珍羞署, 진미를 만드는 곳)에서는 별미를 만들며, 장해서(掌醢署, 장과 젓갈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밥을 짓고, 견관서(犬官署)에서는 음

식을 올리게 하였으며, 교방사(敎坊司, 음악과 춤을 담당하는 곳)에는 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천자 또한 친히 보좌에 앉아 연회에 함께하였다.

그 광경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구중문이 열리니 난가(鸞駕)의 울림이 요란하고, 대문이 활짝 열리니 위엄 있는 황제의 위용이 눈에 들어왔다. 잔칫상은 대모(玳瑁, 거북 등껍질)로 꾸며졌고, 칠보와 황금을 박아 넣은 그릇들이 놓였다. 향로에는 기린 향과 용뇌 향이 어우러져 피어올랐다. 유리 잔 사이로 호박 술잔이 놓이고, 마노 잔에 산호 술잔이 이어졌다. 붉은 옥쟁반에는 기린 고기와 난새의 간이 높이 쌓였고, 자옥 접시에는 낙타 발굽과 곰 발바닥 요리가 가득했다. 도화탕은 깨끗하게 끓여 북방의 향양을 넣고, 은사 회는 싱싱한 강남의 붉은 잉어를 얇게 썰어 올렸다. 황금 잔에는 향긋한 술이 가득 넘쳤고, 자하 잔에는 옥 같은 액체가 넘실거렸다. 다섯 가지 도마(俎)와 여덟 가지 제기(簋)에 온갖 진미가 차려졌다. 설탕을 부어 달콤하게 만든 사선(獅仙) 요리와 향긋하고 바삭하게 만든 정승(定勝) 요리도 있었다. 술이 다섯 차례 오르고 탕을 올리는 세 번의 예법이 행해질 무렵이었다.

교방사에서는 봉황과 난새가 춤추는 듯한 음악을 연주했고, 예악사에서는 긴 줄의 악공들을 배치하였다. 광대들의 차례를 나누어 설명하자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외모를 꾸민 인물로, 검은 칠을 한 머리띠가 마치 밝은 거울 같고 꽃무늬 비단 옷을 입어 모습이 아주 정갈했다. 둘째는 익살스러운 배역으로, 물을 가르는 듯한 코빨소 빨 허리띠를 매고 붉은 꽃과 초록 잎이 그려진 비단 수건을 둘렀으며, 노란 옷에 비단 안

감을 대고 긴 옷 위에 짧은 장화를 신었다. 옷소매와 깃에는 산수 무늬가 뽀뽀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셋째는 말수 적은 배역으로, 공 모양의 모자를 쓰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는데, 가장 먼저 나와 동작이 매우 분명하였고 그가 읊는 잡문은 참으로 보기 드물었다. 넷째는 정색(淨色, 얼굴을 칠한 배역)을 맡은 인물로, 말솜씨가 사람들을 매료시켰으며 화려한 분장으로 무대 대본에 따라 곡조를 맞추어 연기했다. 다섯째는 첩정(貼淨, 얼굴을 희게 칠한 배역)으로, 눈매가 광기 어린 듯 부릅떠져 있었고 이마에는 선명한 줄을 긋고 얼굴에는 두 가지 색의 분을 두껍게 발랐다. 기름기 번들거리는 낡은 두건을 쓰고 남루한 연극용 옷을 입었으나, 채찍에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몽둥이에 맞아도 노는 듯 연기했다.

이 다섯 명을 필두로 예인 64명과 악사 120명이 모여 잡극을 공연하며 여러 배역을 맡아 연기하였다. 모두가 푸른 관과 모자를 쓰고 붉은 띠와 붉은 도포를 입었다. 용적(龍笛)을 불고 북을 치니 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금슬을 타고 은쟁을 켜니 그 운치가 새와 물고기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 구경꾼들은 온갖 놀이판을 보며 떠들썩하게 환호하고, 재담이 오갈 때마다 일제히 박수를 쳤다. 공연의 내용은 태평성대에 만국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과 옹희(雍熙)의 시대에 여덟 신선이 장수를 축하하는 장면이었고, 또 현종이 꿈속에서 광한전에 노니는 모습과 적청이 밤에 곤륜관을 탈취하는 모습이었다. 신선과 도사도 있었고, 효심 깊은 자식과 손주도 있었다. 이를 보는 이는 마음을 굳게 다질 수 있었고, 듣는 이는 성품을 기를 수 있었다.

잠시 후, 여덟 명의 대장이 네 명의 미인을 이끌고 나와 노래와 춤을 동시에 선보였다. 노래는 「조천자」, 「하성조」, 「감황은」, 「전 전환」 등 태평성대를 다스리는 곡조였고, 춤은 「취회회」, 「활관음」, 「유청낭」, 「포노아」 등 순박하고 바른 자태였다. 과연 백보배 보석으로 허리띠를 장식하고 진주로 팔을 감싼 광대들은 웃을 때 눈가에 꽃이 피는 듯했고, 춤을 마친 뒤 비단 머리띠를 두른 모습이 아름다웠다. 큰 잔치가 무르익자 모든 악기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임금은 무위(無爲)로 다스리며 천만년 장수하시고, 황제의 기쁜 용안에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시가 있으니:

궁궐의 높은 문 열려 새 잔치 열리니
 임금님 곁에서 예전에 내리신 옷이라
 세상을 덮을 공명 스스로 일구었으니
 한결같은 충성심 어찌 어긋날 수 있으랴

한편, 천자가 송강 일행에게 내린 잔치는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은혜에 감사하는 예법을 모두 마친 송강 일행은 저마다 머리에 꽃을 꽂고 궁을 나섰다. 그들은 서화문 밖에서 각자 말에 올라타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성안으로 들어오니, 의례사관원들이 송강 일행을 문덕전으로 인도하여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게 하였다. 천자는 매우 기뻐하며 송강 일행에게 관직을 내리고자 하였고, 송강 일행에게 다음 날 와서 직위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송강 일행이 은혜에 감사한 뒤 조례를 마치고 돌아간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추밀원 관리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새로 항복한 자들은 아직 공을 세우지 않았으니, 곧장 관직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훗날 정벌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는 것을 지켜본 뒤, 그에 따라 관직과 상을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수만 명의 군사가 성 아래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오니, 폐하께서는 송강 일행의 군마 중 본래 수도의 장수였다가 사로잡혀 가담한 자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타지에서 온 병사들은 각각 원래의 소속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다섯 갈래로 나누어 산동과 하북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튿날, 천자는 어가지휘사(御駕指揮使, 황제의 행차를 지휘하는 관리)에게 명하여 송강의 진영까지 가게 한 뒤, 송강 일행의 군마를 나누어 각자의 원래 소속으로 돌려보내라는 성지를 전하게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여러 두령은 마음속으로 불쾌해하며 대답하였다. "우리가 조정에 항복했으나 아직 관직 하나 받지 못했는데, 벌써 우리 형제들을 뿔뿔이 흩어놓으려 하다니요! 우리 두령들은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니 결코 서로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녕 이래야만 하겠다면, 우리는 차라리 다시 양산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송강이 급히 그들을 만류하며 사신에게 간곡히 청하였다. 부디 조정에 잘 말씀드려 달라는 것이었다. 사신이 조정으로 돌아가 어찌 사실을 숨길 수 있었겠는가. 그는 송강 일행이 한 말을 그대로 천자에게 보고하였다. 천자는 크게 놀라 급히 추밀원 관리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게 하였다. 이때 추밀사 동관이 아뢰었다. "저놈들은 비록 항복했으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 결국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차라리 폐하께서 성지를 내리시어 저들을 경성으로 유인해 들이신 뒤, 이 백팔 명을 모조리 소탕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뒤에 군마를 분산시켜야 국가의 근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천자는 말을 듣고도 성의를 정하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병풍 뒤에서 한 대신이 나타나 자줏빛 관복에 상아 홀을 들고 위엄 있게 외쳤다. "사방에서는 오랑캐의 연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안에서는 또 화근이 일어나고 있구나! 너희 같은 못난 신하들이 성스러운 조정의 천하를 망치고 있도다!"

이는 바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말솜씨 하나로 천지를 뒤흔드는 이들을 구하러 나선 것이었다. 과연 병풍 뒤에서 호통을 친 그 대신은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풀어 이야기하겠다.

제83회 — 송공명이 조서를 받들어 대료를 격파하고, 진교역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졸을 베다

宋公明奉詔破大遼 陳橋驛滴淚斬小卒

이야기는 이러하다.

과거 요나라의 군주가 군사를 일으켜 산후구주의 경계를 침범한 일이 있었다. 요나라 군대는 네 갈래로 나뉘어 들어와 산둥과 산시를 약탈하고, 허난과 허베이를 휩쓸었다. 각지의 주현에서는 조정에 표문을 올려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 표문들은 먼저 추밀원을 거쳐 황제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그러나 추밀 동관은 태사 채경, 태위 고구, 그리고 양전과 함께 상의한 끝에 표문을 올리지 않고 묵살해 버렸다. 대신 인군주부에 공문을 돌려 각지에서 멋대로 군마를 동원해 요나라에 대응하게 하니, 이는 마치 눈을 저다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헛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았으나 오직 천자만이 모르고 있었다.

방금 전, 이 네 명의 간신은 계책을 꾸며 동관이 황제에게 보고할 때 송강 일행을 해치도록 유도하려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병풍 뒤에서 한 대신이 나타나 그들을 꾸짖으며 가로막았다. 바로 전전도태위 숙원경이었다. 숙원경은 황제 앞에 나아가 간곡히 아뢰었다.

「폐하, 송강 일행 같은 호걸들은 이제 막 귀순한 이들입니다. 백여덟 명이 서로 손발처럼 은혜를 나누고 한 배에서 난 형제처럼 여겨, 결코 흩어지려 하지 않고 죽어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그들의 목숨을 해치려 하십니까? 이들은 지략과 용맹이 보통이 아닌 자들입니다. 만약 성안에서 변고라도 일어난다면 이를 어찌 구제하겠습니까? 현재 요나라에서는 십만 대군을 일으켜 산후구주에 속한 현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표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군사를 보내 맞서 싸웠으나 마치 끓는 물을 개미 떼에 끼얹듯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적의 기세는 거세고, 파견된 관군은 제대로 된 책략도 없이 매번 병사와 장수만 잃으면서도 이를 폐하께 숨기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신의 미천한 소견으로는, 송강 일행 같은 용맹한 장수들을 온전히 한 무리로 파견하여 그들이 거느린 군사들과 함께 국경으로 직행하게 하여 요나라 적들을 거두어 굴복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걸들이 공을 세워 나라에 쓰이게 한다면 실로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신이 감히 독단하지 못하여 아뢰오니, 부디 굽어살피 주옵소서.」

천자는 숙원경의 말을 듣고 용안에 크게 기뻐하며 관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모두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천자는 추밀원의 동관 일행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너희는 모두 참소하고 아침하는 무리이자 나라를 그르치는 자들로, 어진 이를 시기하고 능력 있는 자를 질투하며 현명한 자의 길을 막고, 거짓된 말로 꾸며 조정의 큰일을 모조리 망쳐놓았구나! 이번만은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더는 묻지 않겠다.」

천자는 친히 조칙을 써서 송강을 파료도선봉(요나라를 치는 선봉장)으로, 노준의를 부선봉으로 임명하였으며, 나머지 장수들은 공을 세운 뒤에 관직과 작위를 높여주겠다고 명했다. 이어 태위 숙원경에게 조칙을 직접 들고 송강의 군영으로 가서 선포하도록 명했다. 천자가 조회를 마치자 백관들이 모두 물러갔다.

한편, 숙원경 태위는 성지를 받들고 조회를 마치자마자 곧장 송강의 군영으로 가서 조칙을 읽었다. 송강 일행은 서둘러 향안을 차려 맞이하였고, 무릎을 꿇고 조칙을 다 들은 뒤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송강 일행은 숙원경에게 절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저희 모두는 바로 이처럼 나라를 위해 힘을 쓰고 공을 세워 충신이 되고자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위 은상께서 저희를 보살피 힘써 보증하고 상주해 주시니, 그 은혜가 부모와 같습니다. 다만 양산박에 모신 조개 천왕의 신주를 아직 안치하지 못하였고, 각 집안의 노소(老小)와 가솔들도 아직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채를 아직 허물지 못했고, 전함들도 아직 가져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디 은상께서 황제께 아뢰어 성지를 내려주시기를 청하오니, 열흘 정도만 말미를 주시어 산으로 돌아가 이 몇 가지 일을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물과 창칼, 갑옷과 군마를 정돈한 뒤에 곧장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숙원경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천자에게 보고하였다. 곧이어 성지가 내려왔는데, 창고에서 금 천 냥과 은 오천 냥, 그리고 채색 비단 오천 필을 꺼내어 장수들에게 두루 내려주라는 명이였다. 또한 태위로 하여금 창고에서 직접 물품을 꺼내어 군영으로 가서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원래 노소(가족)가 있는 자에게는 그 가족들이 평생 먹고살 수 있도록 상으로 내려 보살피게 하였고, 가족이 없는 자에게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직접 주어 스스로 거두게 하였다.

송강은 조칙을 받들어 은혜에 감사한 뒤,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고 정리를 마쳤다. 숙원경은 조정으로 돌아가며 송강에게 당부했다.

「장군께서는 산으로 돌아가시되, 가급적 빨리 다녀오셔야 합니다. 먼저 저에게 사람을 보내 알려주시고, 절대로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편, 송강은 사람들을 모아 산으로 데려갈 인원을 누구로 할지 상의하였다. 송강은 군사 오용, 공손승, 임충, 유당, 두천, 송만, 주귀, 송청, 그리고 완씨 삼형제와 함께 기병과 보병, 수군 일만여 명을 거느리고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대부대는 모두 부선봉 노준의를 따라 경사에 주둔하였다.

송강과 오용, 공손승 일행은 가는 길에 별다른 일 없이 양산박에 도착하여 충의당에 자리를 잡았다. 송강은 즉시 장령을 내려 각 집안의 노소와 가솔들에게 짐을 꾸려 떠날 채비를 하라고 일렀다. 한편으로는

돼지와 양 등 가축을 잡고 향과 초, 지전과 제물을 갖추어 조개 천왕에게 제사를 올린 뒤 신주를 불살라 없앴다. 이어 각 집안의 노소와 가솔들을 각자의 고향인 주와 현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레와 말에 태워 모두 떠나보냈다. 그 후 송강은 자기 집안의 장원객을 시켜 노소(가족)와 송 태공, 그리고 가솔들을 데리고 다시 운성현 송가촌으로 돌아가 평범한 양민으로 살아가게 하였다.

곧이어 송강은 완씨 삼형제에게 쓸 만한 배를 골라내게 하였고, 쓸모없는 작은 배들은 모두 근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쓰게 하였다. 산속에 있는 집과 건물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옮기거나 헐도록 하였다. 삼관의 성채와 충의당 등의 건물들도 모두 헐어 버렸다. 이처럼 모든 일을 정리한 뒤, 송강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신속히 경사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별다른 일 없이 일찍 동경에 도착하였다. 노준의 일행은 송강 일행을 대채까지 마중 나갔다. 먼저 연청을 성안으로 들여보내 숙원경에게 송강이 천자를 뵈고 작별 인사를 올린 뒤 대군을 이끌고 출발하려 함을 알리게 하였다. 숙원경은 보고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 천자에게 아뢰었다.

다음 날, 송강은 숙원경의 안내를 받아 무영전에서 천자를 알현하였다. 천자는 기쁜 얼굴로 송강을 맞이하며 술을 하사하더니,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들이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고 군마를 몰아 달리느라 수고가 많았소. 어서 요나라를 정벌하고 승전보를 올리며 돌아오시오. 그

리면 짐이 경들을 더욱 중용할 것이며, 여러 장수에게도 공에 따라 작위를 내릴 것이오. 그러니 경들은 게을리하지 마시오!"

송강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한 뒤, 정중하게 아뢰었다.

"신은 미천한 관리로서 법을 어겨 강주로 유배되었던 죄인입니다.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내뱉고 처형장으로 끌려가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동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양산박에 몸을 숨기고 구차하게 살아왔습니다. 저지른 죄가 워낙 커 만 번을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제 성상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거두어 주시고 넓은 은혜를 베풀어 죄를 사해주셨으니, 신은 간담을 다해 황제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도 그 크기가 너무 커 도저히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조칙을 받들었으니, 죽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다시 술을 하사하고, 금으로 무늬를 새긴 까치 그림 활과 화살 한 벌, 명마 한 필, 그리고 온갖 마구 세트와 보검 한 자루를 송강에게 하사하였다. 송강은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감사한 뒤, 궁을 물러나 영내로 돌아갔다. 그는 천자가 하사한 보검과 말, 마구, 활과 화살을 장수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장수와 군사들에게 출발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휘종 천자는 다음 날 이른 아침 숙원경에게 성지를 전하라는 명을 내렸다. 성지의 내용은 중서성의 원관 두 명을 보내 진교역에서 송강의 선봉군과 삼군 장병들을 격려하라는 것이었다. 군사 한 명당 술 한 병과 고기 한 근씩을 나누어 주되, 결코 그 양을 줄이지 말라는 엄명

이 담겨 있었다. 중서성은 성지를 받들자마자 밤낮없이 서둘러 술과 고기를 준비하였고, 곧바로 관리 두 명을 보내 이를 나누어 주게 하였다.

한편, 송강은 모든 군사에게 명령을 내린 뒤 군사 오용과 함께 계획을 세워 군마와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출발시키기로 하였다. 먼저 오호팔표장(다섯 호랑이와 여덟 표범 같은 용맹한 장수들)이 이끄는 군대를 앞세워 보내고, 십표기장(열 명의 용맹한 기병 장수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 송강과 노준의, 오용, 공손승은 중군을 거느리기로 했다. 수군 두령인 완씨 삼형제와 이준, 장횡, 장순은 동위, 동맹, 맹강, 왕정륙 및 수군 우두머리들을 거느리고 전선을 몰아 채하에서 황하로 나간 뒤 북쪽을 향해 진격하였다. 송강은 삼군을 재촉하여 진교역을 지나는 큰길로 나아가게 하면서, 장수들에게 군령을 내려 마을 사람들을 어지럽히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엄중히 일렀다. 이를 시로 이르되,

하늘의 도읍에서 깃발 휘날리며 나아가니,
명 받들어 군사를 오로지 거느리고 먼 길 정벌에 나서네.
양산군의 군기가 어떠한지 보라,
태위의 어영병(御營兵)과 견주면 어느 쪽이 더 나은가.

한편, 중서성에서 보낸 두 명의 상관(廂官)이 진교역에 도착하여 삼군 장병들에게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격려하였다. 그런데 이 관리들이 탐욕스럽고 끝이 없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술과 고기의 양을 줄여버리고 말았다. 이들은 그저 뇌물을 밝히는 간사하고 아침하는 무리였는데, 황제가 내린 관주(官酒)는 한 병당 반 병으로 줄이고, 고기 한 근(열여섯 냥)에서는 여섯 냥씩 깎아 열 냥만 주었다.

앞 부대의 군사들에게는 술과 고기가 모두 다 나누어졌다. 뒤 부대로 차례가 넘어가 검은 투구를 쓰고 검은 갑옷을 입은 한 부대의 군사들에게 이르렀는데, 이들은 바로 향충과 이곤이 거느리는 방패수(牌手)였다. 그 부대의 한 군교가 술과 고기를 받아 확인해 보니, 술은 겨우 반 병뿐이고 고기는 고작 열 냥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상관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네놈 같은 탐욕스러운 놈들 때문에 조정의 은상이 깎였구나!」

상관이 호통을 쳤다. 「네놈이 어찌하여 나를 탐욕스러운 놈이라 하느냐?」

그러자 군교가 말했다. 「황제께서 우리에게 술 한 병과 고기 한 근을 내리셨는데, 네놈들이 모두 깎아 가로채지 않았느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같은 놈들이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니 참으로 괘씸할 따름이다. 부처 얼굴에서 금을 긋어내는 격이로구나!」

상관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겁도 없이 베어도 죽어도 끝이 없는 도적놈 같으니! 양산박의 반역 성질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구나!」

군교는 크게 분노하여 술과 고기를 그자의 얼굴에 내던졌다. 상관이 소리쳤다. 「이 무도한 도적놈을 잡아라!」

그러자 군교는 단패(團牌, 둥근 방패) 옆에서 즉시 칼을 뽑아 들었다. 상관이 손가락질하며 크게 욕했다. 「더러운 좀도둑 놈이 칼을 뽑아 누구를 죽이려 하느냐?」

군교가 말했다. 「내가 양산박에 있을 때는 너 같은 놈들보다 훨씬 용맹한 호걸들도 수만 명이나 베어 넘겼다. 너 같은 간악한 관리 따위가 무슨 대수란 말이나?」

상관이 외쳤다. 「네놈이 감히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냐?」

군교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칼을 휘둘러 날렸다. 칼날이 상관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 그는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군교는 다시 몰려오는 자들을 쫓아가 몇 차례 더 베니, 보아하니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다른 군사들이 그를 에워싸 더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즉시 항충과 이곤이 달려가 송강에게 보고하였다. 송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오용과 함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상의하였다. 오용이 말했다.

「중서성 관리들이 우리를 매우 싫어하는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들에게는 딱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 군교의 머리를 베어 군령으로 효시하고, 한편으로 중서성에 보고를 올려 군사를 단속한 채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서둘러 대종과 연청을 몰래 성안으로 보내 숙원경에게 자세한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가 미리 곡절을 아뢰어 중서성 관리들이 모함하지 못하게 해야만 비로소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송강은 계획을 정한 뒤 말을 달려 직접 진교역 근처로 갔다. 그 군교는 시체가 된 상관의 곁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송강은 사람을 시켜 관역(館驛)에서 술과 고기를 나오게 하여 삼군 장병들에게 나

누어 주며 모두 앞으로 나오게 한 뒤, 그 군교를 관역 안으로 불러들여 사건의 경위를 물었다.

군교가 대답했다. 「저놈이 우리를 두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양산 박 반적이라 부르며, 베고 죽여도 다 없애지 못할 놈들이라 욕하기에, 순간 울화가 치밀어 죽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장군께서 죄를 다스리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는 조정의 명관이니 나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네가 어찌 함부로 죽였던 말이나! 자칫 우리 모두를 연루시키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 막 조칙을 받들어 큰 요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라 아직 한 치의 공도 세우지 못했는데, 도리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나?」

군교는 머리를 조아리며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송강이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양산박에 오른 뒤로 크고 작은 형제들 가운데 누구 하나 잃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한 몸이 관청의 관할에 들어오니 한 걸음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구나. 비록 네 군센 기개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하나, 옛날의 그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을.」

군교가 말했다. 「소인은 그저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송강은 그 군교에게 술을 듬뿍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뒤,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 군령으로 효시하였다. 상관의 시신은 관곽에 잘 거두어 넣게 한 뒤, 문서를 작성하여 중서성에 보고하니, 이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대종과 연청은 몰래 성안으로 잠입하여 곧장 숙원경의 부저로 가서 자세한 사정을 모두 아뢰었다. 그날 밤 숙원경은 궁으로 들어가 황제에게 앞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였다.

다음 날, 황제가 문덕전에서 조회를 열자 중서성 관리가 나아가 아뢰었다. "새로 항복한 장수 송강의 부하 병졸이,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파견된 중서성 관리 한 명을 살해하였사오니, 성旨를 내려 엄히 문책하여 잡아들이게 하소서."

천자가 말했다. "과인이 너희 중서성에 맡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은 너희 관아의 책임이다. 너희가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해 이토록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술과 고기를 내려주라 명했건만, 양을 대폭 줄여버리니 군사들에게는 이름뿐인 포상이 되어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중서성 관리들이 다시 아뢰었다. "황제께서 내리신 술을 어느 누가 감히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자가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다. "과인이 이미 사람을 보내 몰래 살피게 하였으니, 그 자세한 사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교묘한 말로 꾸며내며 짐을 속이려 드느냐! 과인이 하사한 술은 한 병을 반 병으로 줄이고, 고기 한 근은 겨우 열 냥밖에 되지 않으니, 장사가 분노하여 눈앞에서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이 아니냐!"

천자가 다시 물었다. "범인은 어디에 있느냐?"

중서성 관리가 대답했다. "송강이 이미 범인의 머리를 베어 군령을 세우고 본원에 보고하였으며, 군사들을 불러 모아 죄를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천자가 말했다. "그 군사가 범인을 직접 처단하였으니, 송강이 군기를 엄히 잡지 못한 죄는 우선 기록해 두어라. 훗날 요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면 그 공을 살펴 처벌을 결정하겠다."

중서성 관리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물러갔다. 천자는 즉시 어명을 내려 관리를 보내 송강에게 서둘러 길을 떠날 것을 재촉하게 하고, 살해된 군교의 머리는 진교역에서 베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게 하였다.

한편, 송강이 진교역에서 군사를 정돈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황제의 명령을 받은 관리가 도착하였다. 관리는 송강 일행에게 요나라를 정벌하러 진군하라는 명을 내리면서, 동시에 군법을 어긴 군교를 참수하여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이라고 일렀다. 송강은 은혜에 감사하는 인사를 마친 뒤, 그 군교의 머리를 진교역에 걸어 군령으로 삼고 시신은 땅에 묻었다. 송강은 크게 한바탕 통곡한 뒤 눈물을 훔치며 말에 올라, 군사를 이끌고 북쪽을 향해 진격하였다. 매일 육십 리씩 행군하며 진영을 치고 머물렀는데, 지나가는 주와 현의 백성들에게는 티끌만큼의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길을 가는 동안의 다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군대가 점차 요나라 접경에 다다르자, 송강은 군사 오용에게 청하여 상의하였다. "오늘 요나라 군사들이 네 갈래로 침범해 오고 있으니, 우

리가 군사를 나누어 정벌하러 가야 합니까, 아니면 성채들을 먼저 공격해야 합니까?"

오용이 대답했다. "군사를 나누어 가면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 앞뒤가 서로 구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성채 몇 곳을 먼저 공격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적이 맹렬히 공격해 온다면 그들도 자연히 군사를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님의 계책이 참으로 높으십니다!"

이어 송강은 단경주를 불러 분부하였다. "그대는 북쪽 길에 매우 밝으니 군마를 이끌고 앞장서서 전진하라. 가장 가까운 주와 현은 어디냐?"

단경주가 아뢰었다. "앞에 바로 탄주가 있는데, 그곳은 요나라의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곳에는 물길이 아주 깊고 갈래가 많은 潞水(루수)라는 강이 성을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루수는 위하로 곧장 이어지니 반드시 전선을 사용하여 진격해야 합니다. 먼저 수군 두령들에게 배를 재촉하여 보내게 한 뒤, 수륙 병진 작전으로 배와 기병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인다면 탄주를 함락할 수 있습니다."

송강은 말을 듣고 즉시 대종을 시켜 수군 두령 이준 일행에게 명령하니, 대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들을 재촉하여 루수에 집결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송강은 인마와 수군의 배들을 정비하고 날짜를 정하여, 수륙 병진 작전으로 탄주를 치러 나아갔다.

한편, 탄주 성 안에서는 성을 지키는 관리들이 요나라 동선시랑의 수하에 있는 네 명의 맹장들이었는데, 이름은 각각 알리치, 교아유강, 초명옥, 조명제였다. 이 네 장수는 모두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송나라에서 송강 일행이 통째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한편으로는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을 써서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계주, 패주, 탁주, 웅주에 구원을 요청하는 전갈을 보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 밖으로 군사를 내보내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즉시 알리치와 초명옥 두 사람에게 병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하였다.

한편, '대도' 관승은 전방 선봉에서 군사를 이끌고 탄주 관할인 밀운현을 향해 맹렬히 진격해 왔다. 현령이 이 소식을 듣고 두 명의 요나라 장수에게 급히 보고하며 말했다. "송나라 군사들이 깃발을 크게 휘날리며 몰려오고 있는데, 바로 양산박에서 새로 조정의 부름을 받은 송강 일행이라 합니다."

알리치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그저 한낱 도적 떼일 뿐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는 즉시 요나라 병사들에게 진영을 정비하고 채비를 마치라고 명령하며, 내일 밀운현을 나가 송강과 맞붙기로 하였다.

다음 날, 송강은 요나라 군사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장수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전투가 시작되면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일렀다. 장수들은 명령을 받들고 갑옷

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탔다. 송강과 노준의도 모두 무장한 채 군대 앞에 직접 나서서 전투를 지켜보았다.

멀리서 요나라 군사가 땅을 뒤덮으며 몰려오는데, 검은 깃발들이 하늘을 가릴 듯 뻗뻗하게 들어차 있었다. 모두 검은색 바탕에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이었다. 양측은 서로의 진영을 향해 활과 노를 쏘아 대치하기 시작했다. 검은 깃발이 펼쳐진 적진 한가운데에서, 한 명의 요나라 장수가 달리는 말 위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나타났다. 송강이 그 장수의 차림새를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세 갈래 보랏빛 금관을 머리에 쓰고, 관 입구에는 핑 깃털 두 개를 묶었네.

갑옷 위에 흰 비단 도포를 입으니, 도포 등에는 봉황 세 마리가 수놓아졌구나.

고리 모양 철갑옷을 걸치고, 보석 박힌 사자 무늬 허리띠를 맸네.
구름 문양 새긴 매 발톱 모양 장화를 신고, 목을 보호하는 금빛 비단 수건을 둘렀네.

까치 그림 그려진 철 활을 차고, 깃털 장식한 화살통을 매달았네.
손에는 배꽃 모양 강철 창을 들고, 은빛 꽃무늬 말 위에 앉아 있네.

그 요나라 장수의 깃발에는 '대료 상장 알리치'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송강이 이를 보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저 장수를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창수 서녕이 출전했다. 그는 갈고리가 달린 구검창을 가로로 쥐고는 타고 있던 말을 몰아 곧장 진영 앞으로 달려나갔다. 요나라 장수 알리치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꾸짖었

다. "송나라는 망할 것이다! 어찌 도적 떼를 장수로 삼아 대국을 침범하려 드느냐, 죽고 싶은 게냐!" 서녕이 호통을 쳤다. "나라를 욕보이는 애송이 놈이 감히 더러운 말을 내뱉다니!" 양측 군사들이 함성을 내질렀다.

서녕과 알리치는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격전을 벌였다. 두 마리의 말이 마주치고 병기가 맞부딪쳤다. 그러나 두 장수가 서른 합도 채 싸우지 못해 서녕은 알리치를 당해내지 못하고 본진을 향해 달아났다. 이때 화영이 급히 활과 화살을 손에 쥐었다. 알리치가 추격해 오려는 찰나, 장청이 재빨리 안장을 누르고는 비단 주머니 속에서 돌맹이 하나를 꺼냈다. 장청은 적장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알리치의 얼굴을 향해 돌을 던졌고, 돌은 정확히 알리치의 왼쪽 눈에 명중했다. 알리치는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 화영, 임충, 진명, 소초 네 장수가 일제히 출전하여 적의 좋은 말부터 먼저 가로채고, 알리치를 생포하여 진영으로 끌고 왔다. 부장 초명옥은 알리치가 패하는 것을 보고 급히 구하러 나서려 했으나, 송강의 대군이 앞뒤로 몰아치며 공격해 오자 결국 밀운현을 버리고 패퇴하여 탄주로 도망쳤다. 송강은 추격하지 않고 밀운현에 진을 쳤다. 요나라 장수 알리치는 눈썹가가 깨지고 한쪽 눈을 잃어 결국 고통 속에서 죽었다.

송강은 명령을 내려 요나라 장수의 시신을 불태워 없애게 했다. 그리고 공적부에 장청의 이름을 첫 번째 공로자로 기록했다. 또한 알리치가 입고 있던 연환연철갑, 백리화창, 보석이 박힌 사자 모양의 허리띠, 은색 꽃무늬가 있는 명마와 장화, 도포, 활, 화살까지 모두 장청에게

하사하였다. 이날 밀운현 안에서는 모두가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셨는데, 이는 더 말하지 않겠다.

다음 날, 송강은 막사에 올라 군사를 일으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군대는 모두 밀운현을 떠나 탄주를 향해 직진했다.

한편, 탄주의 수비 책임자인 동선시랑은 정장(正將) 한 명을 잃었다는 보고를 듣고는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적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성 아래에 수군의 전선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여러 요나라 장수를 이끌고 성벽 위로 올라가 상황을 살폈다. 송강의 진영에서는 용맹한 장수들이 깃발을 휘두르고 함성을 지르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동선시랑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이런 형편이니, 소장군 알리치가 어찌 패하지 않았겠느냐?"

그러자 부장 초명옥이 대답했다. "소장군께서 그놈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오랑캐 병사들이 먼저 패한 것이고, 소장군께서 뒤쫓아가려는데 저기 녹색 옷을 입은 오랑캐 놈이 돌 하나를 던져 말 아래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놈 부대원 네 명이 창 네 자루를 들고 달려들어 순식간에 에워싸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는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당한 것입니다."

동선시랑이 물었다. "돌을 던진 그 오랑캐 놈은 어떻게 생겼느냐?"

겉에 있던 사람 중 아는 이가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성 아래 저기 청색 두건을 쓰고, 지금은 소장군의 갑옷을 입고 소장군의 말을 탄 자가 바로 그놈입니다."

동선시랑이 성벽 난간에 기대어 살펴보려는데, 장청이 이미 그를 발견하고는 말을 몰아 앞으로 다가왔다. 장청이 돌 하나를 날리자 좌우의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피했으나, 돌은 이미 동선시랑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며 귓바퀴의 살점을 깎아내렸다.

동선시랑은 통증을 느끼며 소리쳤다. "저 오랑캐 놈이 어찌 이리도 대단하단 말이냐!"

그는 성 아래로 내려와 한편으로는 대료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방의 여러 주에 경계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에서 연달아 삼오 일 동안 공격을 퍼부었으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는 다시 군마를 이끌고 밀운현으로 돌아와 진을 쳤다. 송강은 막사에 앉아 성을 함락시킬 계책을 논의했다. 이때 대종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수군 두령들이 전선을 끌고 루수에 모두 도착했다고 했다. 송강은 즉시 이준 등을 군영으로 불러 상의하게 했고, 이준 일행은 모두 막사 앞으로 나아가 송강을 알현했다.

송강이 말했다. "이번 싸움은 양산박에서 싸울 때와는 다르다. 반드시 먼저 물살의 깊고 얇음을 살펴본 뒤에야 군사를 움직여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 루수는 물살이 매우 급하니,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구원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너희는 신중해야 하며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배들을 잘 숨겨 매복시키되, 마치 식량을 운반하는 배처럼 꾸며라. 너희 두령들은 각자 암기를 지니고 배 안에 잠복해 있어야 한다. 배에는 서너 명만 태워 노를 젓게 하고, 강가에는 두 명을 배치해 줄을 잡아 끌며 한 걸음씩 성 아래로 접근하라. 배를 양쪽 기슭에 대고 내가 군사를 움직이기를 기다려라. 성 안에서 이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식량 배를 빼앗으려고 수문(水門)을 열고 나올 것이다. 그때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수문을 점령한다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준 일행은 명령을 받들고 물러갔다.

이때 물살을 살피던 소교(小校, 하급 장교)가 달려와 보고했다. "서북쪽에서 군마 한 무리가 깃발을 휘날리며 몰려오고 있습니다! 검은색 조조기(阜雕旗)를 달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수가 일만여 명은 되어 보이며, 탄주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필시 요나라에서 보낸 구원병일 것이다. 우선 장수 몇 명을 보내 길목을 차단하고 싸우게 하여, 저들을 흩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성 안의 적들이 기세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송강은 즉시 장청, 동평, 관승, 임충에게 명령하여, 각각 십여 명의 소두령과 오천 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급히 출정하게 했다.

알고 보니 요나라의 낭주(郎主, 군주)는 양산박의 송강 무리 같은 호걸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탄주까지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두 명의 황제 조카를 보내 구원하게 한 것이었다. 한 명은 야율국진이라 부르고, 다른 한 명은 야율국보라 불렀다. 두 사람은 요

나라의 상장군이자 황제의 조카들로, 모두 만 명의 적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용맹했다. 그들은 일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탄주를 구하러 달려왔다. 멀리서 오던 군대는 어느덧 송나라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양측이 진형을 갖추고 대치하자, 두 명의 장수가 일제히 말 위에서 달려 나왔다.

머리에는 보석을 박고 금칠을 한 삼차자금관을 쓰고, 몸에는 진주를 박은 금빛 사슬갑옷 위에 비단 테두리를 두른 갑옷을 입었다.

몸에는 붉은 피를 적신 듯한 붉은 전포를 걸쳤는데, 그 위에는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날개 문양이 점점이 빛났다.

허리에는 백옥대를 띠고 등에 호두패를 꽂았으며, 왼쪽 주머니에는 조각된 활을 꽂고 오른손에는 화살통을 찼다.

손에는 한 길 남짓한 초록빛 창을 들고, 말 위에는 아홉 자 높이의 은빛 갈기를 휘날리는 명마를 타고 있었다.

두 장수는 형제로서 차림새도 같고 쓰는 창술도 같았다. 송나라 군대가 맞서며 진형을 갖추자, '쌍창장' 동평이 말을 몰고 나와 호령하며 크게 외쳤다. "오는 자는 어디서 온 오랑캐 도적이냐?" 그러자 야율국진이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다. "물웅덩이에 사는 도적 놈들이 감히 우리 대국을 침범하더니, 도리어 우리더러 어디서 왔느냐고 묻느냐!" 동평은 더 묻지도 않고 말을 달려 창을 내질러 곧장 야율국진에게 덤벼들었다. 요나라의 젊은 장수는 성격이 한창 강직하여 한 걸음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강철 창을 치켜들며 곧장 맞받아쳤다. 두 말이 맞부딪치고 세 자루의 창이 어지럽게 휘둘러졌다. 두 장수가 자욱한 먼지 그림자

속, 살기 가득한 가운데서 싸우는데, 쌍창을 쓰는 동평은 그만의 창법이 있었고, 단창을 쓰는 야율국진 또한 저마다의 신묘한 기예를 펼쳤다. 두 사람이 쏜 함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편 야율국보는 형이 한참을 싸우는 것을 보고 힘이 부칠까 걱정되어 중군에서 징을 울리게 했다. 야율국진이 한창 싸움이 달아오른 참에 징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빼려 했으나, 동평의 두 자루 창에 옥죄여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야율국진은 이때 마음이 급해져 창술이 조금 느려졌고, 동평은 오른손 창으로 야율국진의 녹침창을 밀쳐낸 뒤 왼손 창을 휘둘러 적장의 목덜미를 향해 단번에 창을 찔러 정통으로 명중시켰다. 가련하게도 야율국진은 금관이 거꾸로 처박히고 두 발이 허공을 찬 채 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형제인 야율국보는 형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곧장 진영 밖으로 뛰어나와, 말 한 필에 창 한 자루로 형을 구하러 달려왔다. 송나라 군대 진영에 있던 '물우전' 장청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보낼 리 없었다. 그는 말 위에서 이화창(梨花鎗)을 잠시 멈춰 잡은 채 한 손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돌멩이 하나를 집어 쥐고는, 말을 한 번 차서 진영 앞으로 튀어 나갔다. 야율국보가 날아갈 듯 달려오자 장청이 정면으로 마주쳐 달려들었다. 두 기마의 거리가 채 십여 장(丈)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요나라 장수는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는 줄로만 알고 전혀 방비하지 않았다. 그때 장청이 손을 들어 "받아라!" 하고 외쳤다. 그 돌멩이가 야율국보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고, 야율국보는 곤두박질치며 말 아래로 떨어졌다. 관승과 임충이 군사를 몰아 들이쳤다. 요나라 군대는 장수를 잃고 동서로 어지럽게 흩어져 달아났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요나라 군사 만여 명을 흩어버리고, 두 오랑캐 장수의 안장 갖춘 말과 두 개의 금패, 보관과 갑옷을 거두었으며, 다시 두 사람의 머리를 베고, 그 자리에서 전마 천여 필을 빼앗아 밀운

현으로 끌고 가 송강에게 바쳤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삼군에 포상을 내리고, 동평과 장청에게 두 번째 공을 기록하게 하였다. 탄주를 함락한 뒤에 이 공들을 한꺼번에 조정에 아뢰기로 하였다.

송강이 오용과 상의하여 저녁 무렵 군첩(군사 작전 지시서)을 작성했다. 임충과 관승에게 군마 한 부대를 이끌고 서북쪽으로 올라가 탄주를 치게 하고, 다시 호연작과 동평에게도 군마 한 부대를 이끌고 동북쪽으로 진군하게 했다. 또 노준의에게는 군마 한 부대를 맡겨 서남쪽 길로 진입하게 했다. "우리 중군은 동남쪽 길로 올라가다가 포성이 들리면 일제히 진격한다." 그리고 포수 능진과 이규, 번서, 포옥, 그리고 방패수 항충, 이곤에게 곤패군(滾牌軍) 천여 명을 거느리고 곤장 성 아래로 가서 신호포를 쏘게 했다. 이경(二更, 밤 9시~11시)을 기한으로 삼아 수륙 양면에서 동시에 진격하기로 하니, 각로의 군사들은 서로 호응하기로 했다. 명령이 모두 떨어지자 각 부대는 저마다 성을 공략할 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동선시랑은 탄주를 굳게 지키며 구원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황제의 조카(황질) 쪽의 패잔병들이 목숨을 부지하려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와, 두 황질 대왕에 관해 상세히 아뢰었다. "야율국진 대왕은 쌍창을 쓰는 자에게 당하셨고, 야율국보 대왕은 푸른 두건을 쓴 자가 던진 돌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붙잡혀 갔습니다!" 동선시랑은 발을 구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또 저 오랑캐 놈이로구나! 두 분 황질을 잃었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주군을 뵈겠느냐? 저 푸른 두건을 쓴 오랑캐 놈을 잡으면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리라!" 밤이 되자 요나라 군사가 동선시랑에게 보고했다. "노수(潞水) 강 안에 오륙

백 척의 식량 배가 양안에 정박해 있고, 멀리서 또 군마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동선시랑이 듣고 말했다. "저 오랑캐 놈들이 우리 수로를 몰라 식량 배를 곧장 이곳까지 잘못 몰고 왔구나. 강가의 군마는 분명 저 식량 배를 찾으러 온 것이다." 그러고는 세 장수 초명옥, 조명제, 교아유강을 불러 분부했다. "송강 같은 오랑캐 놈들이 오늘 밤 또 많은 군마를 몰고 오는데, 마침 우리 강에 식량 배가 여럿 있다. 교아유강은 군마 천 명을 이끌고 성을 나가 들이치고, 초명옥과 조명제는 수문을 열어 물살이 급한 곳으로 배를 내보내라. 세 뭍 가운데 그의 식량 배 두 뭍을 끊어 빼앗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큰 공을 세우는 일이다!" 그 성패가 어떠할지 알 수 없으니,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한다.

기묘한 계책은 예부터 전혀 달랐으니,
단주 성 아래에 거대한 군함을 배치했네.
시랑은 병법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제 발로 문을 열어 길을 내어주었네.

한편 송강의 군마는 그날 황혼 무렵 이규와 번서를 필두로 보병을 이끌고 성 아래에서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동선시랑은 교아유강에게 군마를 재촉해 성을 나가 들이치게 했다. 성문이 열리며 조교(弔橋)가 내려지자 요나라 군사가 성 밖으로 나왔다. 한편 이규, 번서, 포옥, 향충, 이곤 다섯 호걸이 천 명의 보병을 이끌었는데, 모두 사납고 용맹한 도패수(刀牌手)들이었다. 그들이 조교 옆을 가로막고 버티니 요나라 군마가 도저히 성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능진은 군중에 포가(砲架)를 세우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포 쏘 준비를 했다.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도 방패수들이 좌우에서 막아 가렸고, 포옥은 뒤에서 함성을 질

렀다. 비록 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만여 명과 같은 기세였다. 동선시랑은 성 안에서 군마가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급히 초명옥과 조명제에게 수문을 열어 배를 내보내게 했다. 이때 송강의 수군 두령들은 이미 먼저 배 안에 매복해 준비를 마치고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수문이 열리는 것을 보자 갑문 판자를 하나하나 끌어올려 전선(戰船)을 내보냈다. 능진이 소식을 듣고 먼저 풍화포(風火砲) 하나를 쏘아 올렸다. 포성이 울리는 곳에서 양쪽 전선이 마주 달려나와 요나라 배에 맞섰다. 왼쪽에서는 이준, 장횡, 장순이 뛰쳐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완씨 삼형제가 뛰쳐나와 모두 전선을 몰고 요나라 배때 속으로 쳐들어갔다. 요나라 장수 초명옥과 조명제는 전선이 맹렬히 달려드는 것을 보고 막아내지 못했고, 매복군이 있음을 짐작하고 급히 배를 돌리려 했으나, 어느새 이쪽 수군들이 배 위로 뛰어넘어 와 하는 수 없이 물으로 올라 달아났다. 송강의 수군 두령 여섯 명이 먼저 수문을 빼앗았다. 수문을 지키던 요나라 장수들은 죽을 자는 죽고 달아날 자는 달아났으며, 초명옥과 조명제도 각자 목숨을 구해 달아났다. 수문에서는 미리 불길이 일었고, 능진이 다시 차상포(車箱砲) 하나를 쏘아 올렸다. 그 포탄이 곧장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올라 굉음을 냈다. 동선시랑은 하늘에 잇닿는 포성을 듣고 혼비백산하였다. 이규, 번서, 포옥이 방패수 향충, 이곤 등을 이끌고 곧장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동선시랑과 교아유강은 성 안에서 성문이 모두 빼앗긴 데다 사방의 송나라 군사가 일제히 몰려드는 것을 보고, 하는 수 없이 말을 타고 성을 버린 채 북문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채 이 리(里)도 못 가서 '대도' 관승과 '표자두' 임충이 길을 가로막았다. 그야말로 하늘 그물이 촘촘히 펼쳐져 발 떼기 어렵고, 땅 그물이 높이 쳐져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필경 동선시랑이 어떻게 목숨을 건질지는 다음 회를 들어 보면 알 것이다.

제84회 — 송공명이 군사를 일으켜 제주 성을 치고, 노준의가 옥전현에서 크게 싸 우다

宋公明兵打薊州城 盧俊義大戰玉田縣

이야기는 이러하다. 동선시랑은 단주를 이미 빼앗긴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성 밖으로 급히 뛰쳐나왔고, 교아유강과 함께 겨우 몸을 이끌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 임충과 관승을 마주쳤는데, 두 호걸이 몰아붙이며 한바탕 크게 싸우자 도망치던 이들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죽기 살기로 틈을 노려 뚫고 나갔다. 관승과 임충은 성을 탈환하려 했으나,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는 대신 일단 성 안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편, 송강은 대군을 이끌고 단주로 들어가 요나라 군사들을 흠어버렸다. 한편으로는 방을 붙여 군민들을 안심시키며, 백성들에게 조금의 해를 끼치는 일도 용납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다. 또한 전함들을 모두 성 안으로 거두어들이라고 명령했다. 한편으로는 삼군 장병들의 노고

를 치하하며 상을 내렸고, 성에 남아 있던 요나라 관리들 중 성씨가 있는 자들은 그대로 임용하되, 성씨가 없는 요나라 관리들은 모두 성 밖으로 쫓아내 사막 너머로 돌려보냈다. 한편으로는 단주를 탈환했다는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는 표문을 올리며, 부와 창고에 있던 금은보화를 모두 챙겨 수도로 압송하게 했다. 또한 숙태위에게도 글을 써서 이 일을 보고했다. 천자가 이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어명을 내렸다. 동경부의 동지인 조안무를 흠차(欽差, 임시 감독관)로 임명하여, 이만 명의 어영 군마를 거느리고 전쟁을 감독하러 오게 하였다.

한편, 송강 일행은 보고를 듣자마자 장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멀리 마중 나갔다. 그들은 단주부 안으로 들어와 머물며 임시로 행군 수부(帥府, 사령부)를 차렸다. 여러 장수와 두목들이 모두 찾아와 인사를 올리고 예를 마쳤다. 본래 이 조안무는 조씨 황실 종친 출신으로, 성품이 너그럽고 덕이 두터우며 일 처리가 단정하고 바른 인물이었다. 그가 이곳에 임명된 것은 숙태위가 천자 앞에서 추천하여, 특별히 이 사람을 보내 병마를 감독하게 한 것이었다. 조안무는 송강의 인덕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폐하께서 장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군사들이 고생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관을 보내 군대 앞에서 감독하게 하셨고, 아울러 상으로 내리실 금은과 비단 스물다섯 수레를 가져왔으니, 만약 기이한 공을 세우면 조정에 보고하여 관직을 내려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장군께서 이미 주군을 얻으셨으니, 소관이 다시 조정에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장수들은 모두 충성을 다하고 힘을 쏟아 속히 큰 공을 세우십시오. 군대를 이끌고 경성으로 돌아가면 천자께서 반드시 중용하실 것입니다." 송강 일행이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안무 상공께서 단주를 든든히 지켜주십시오. 저희 소

장들은 군사를 나누어 요나라의 요충지인 주군들을 공격하여, 적들이 앞뒤를 돌볼 겨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송강 일행은 상을 나누어 장수들에게 베푸는 한편, 각로의 군마를 불러 모아 명령을 기다리게 하며 요나라의 주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때 양웅이 보고했다. "앞쪽이 바로 계주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은 큰 고을로서 재물과 식량이 매우 풍부하고 쌀과 밀이 넘쳐나니, 요나라의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계주를 함락시키면 다른 곳들도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송강은 보고를 듣고 즉시 군사 오룡에게 청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동선시랑과 교아유강이 동쪽으로 가던 중, 초명옥과 조명제가 패잔병들을 이끌고 계주로 함께 도망쳐 오는 것을 마주쳤다. 그들이 성안으로 들어와 어제대왕 야율득중을 만나 사정을 아뢰었다. "송강의 병사들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중에 돌을 던지는 야만인이 하나 있는데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그놈이 던지는 돌은 백 발 중 백 발이 명중하여 하나도 빗나가지 않으니, 사람 잡는 데 아주 능합니다. 두 명의 황질(황제의 조카)과 소장 아리치까지 모두 그놈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율대왕이 말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그대는 여기서 나를 도와 그 야만인을 죽여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성처럼 빠른 전령이 달려와 보고했다. "송강이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계주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한 길은 평육현까지 들이닥쳤고, 다른 한 길은 옥전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어제대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동선시랑에게 명령했다. "그대는 본부의 군마를 이끌고 평육현 입구를 지키며 저들과 맞서 싸우지 마라.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옥전현의 야만인을 먼저 잡은 뒤, 뒤를 돌아 평육현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평육현의 야만인들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아울러 패주와 유주에도 급히 알려 두 갈래 군

마가 지원하러 오게 하라." 본래 이 계주는 요나라의 낭주가 어제대왕 야율득중에게 지키게 한 곳으로, 야율득중은 네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장남은 종운, 차남은 종전, 삼남은 종뢰, 사남은 종림이었다. 그 수하에는 십여 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총병 대장으로 보밀성이 있고 부총병으로 천산용이 있어 계주 성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 어제대왕은 보밀성에게 성을 지키라고 당부한 뒤, 직접 대군을 이끌고 네 아들과 부총병 천산용을 데리고 옥전현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한편, 송강이 군사를 이끌고 평육현 앞까지 나아갔으나, 앞쪽 관문이 굳게 막혀 있어 감히 진격하지 못하고 평육현 서쪽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한편, 노준의는 수많은 장수와 삼만 대군을 이끌고 옥전현에 도착하여 이미 요나라 군대와 맞닥뜨린 상태였다. 노준의가 군사 주무에게 물었다. "지금 요나라 군대와 맞닿아 있는데, 우리 군사들이 남의 땅에 들어와 지형에 어두우니 길을 헤맬까 걱정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무가 대답했다. "제 미천한 소견으로는, 지형을 잘 모르니 여러 군사가 함부로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대열을 긴 뱀처럼 길게 늘어뜨려 앞뒤가 서로 긴밀히 호응하고 끊임없이 순환하게 배치하십시오. 그리하면 지형이 낯설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노 선봉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내 생각과 딱 맞소." 그러고는 즉시 군사를 재촉하여 전진시켰다. 멀리서 요나라 군사들이 땅을 뒤덮을 듯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황사는 끝없이 펼쳐지고 검은 안개는 짙게 깔렸다. 검은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했고, 기병들이 달려오는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 살기를 뿜어냈다.

푸른 모자와 갓을 쓴 모습은 천 개의 연못에 핀 연잎이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고, 철폐로 만든 투구는 만 리 바다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군사들은 저마다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가지런히 늘어뜨렸다. 연결된 철갑옷을 겹겹이 입고, 전투복을 단단히 동여맸다. 이방의 군사들은 건장하기가, 얼굴은 검고 눈은 푸르며 수염은 노란 빛을 띠었다. 말들은 포효하며 달려오는데, 장정들은 어깨가 넓고 팔다리가 강철처럼 단단했다. 양뿔 모양의 활에는 버드나무 가지 같은 화살이 꽂혀 있고, 호랑이 가죽 옷을 입은 채 좁은 안장을 엮었다. 변방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힘센 활을 당기는 데 능했고, 본래 북방의 후예로 자랐으니 거친 말을 타는 데 익숙했다. 군대 앞에서는 구리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 위에서는 갈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요나라 왕의 동생인 야율득중이 군사를 이끌고 먼저 옥전현에 도착하여 장수들과 함께 진을 쳤다. 송나라 군의 주무가 구름사다리에 올라가 살펴본 뒤, 내려와 노 선봉에게 보고했다. "이방 군사들이 펼친 진법은 '오호고산진'이라 하여 그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주무는 다시 장대에 올라 깃발을 흔들어 좌우로 휘두르며 군사들을 배치하여 스스로 진을 쳤다. 노준의가 이를 보고는 무슨 진법인지 몰라 물었다. "이것은 어떤 진법입니까?" 주무가 대답했다. "이것은 '곤화위봉진'이라 합니다." 노준의가 다시 물었다. "'곤화위봉'이란 무슨 뜻입니까?" 주무가 설명했다. "북해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것이 커지면 '대붕'이 되어 한 번 날아오르면 구만 리를 날아갑니다. 이 진법은 멀리서 보면 작은 진법 같지만, 공격해 올 때는 거대한 진법으로 변하니 이를

일컬어 '곤화위봉'이라 합니다." 노준의는 그 말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적군을 마주하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성문의 깃발이 열리며 요나라 왕의 동생 야율득중이 직접 말을 타고 나왔다. 그의 좌우에는 네 명의 아들이 나누어 호위하고 있었는데, 모두 아버지와 똑같은 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머리에는 화살을 막는 철 투구를 쓰고, 그 위에 새카만 술 장식을 달았구나.

몸에는 둥근 거울을 댄 버들잎 갑옷을 받쳐 입고, 사자 무늬 금띠를 맸네.

등자를 디딘 발에는 매부리처럼 반쯤 흰 장화를 신었고, 배꽃빛 전포에는 비단으로 서린 용을 수놓았네.

저마다 강한 활과 굳센 쇠뇌를 메고, 모두 화려한 안장을 얹은 준마를 탔네.

허리춤에는 하나같이 곤오의 명검을 꽂고, 손에는 모두 빗자루 모양의 칼을 들었구나.

가운데에는 야율득중이 자리하고, 양옆으로는 네 명의 어린 장군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양 어깨에는 작은 명경(明鏡, 빛을 반사하는 둥근 거울)이 매달려 있었고, 거울 가장자리에는 검은 끈이 박혀 있었다. 네 자루의 보도와 네 마리의 준마가 진 앞에서 일제히 대기하고 있었다. 야율득중의 뒤편으로는 전장들이 층층이 늘어서 있었다. 네 명의 어린

장군이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 같은 도적놈들아, 감히 어디라고 우리 국경을 침범하느냐!"

노준의가 이 소리를 듣고 물었다. "양 군대가 맞붙었으니, 어느 영웅이 먼저 나서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도' 관승이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앞장서서 말을 달렸다. 저편에서는 요나라 장수 야울종운이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관승을 맞이하러 나왔다. 두 사람이 다섯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승부가 나지 않으려 하자, 야울종림이 말을 몰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와 그를 도왔다. 이를 본 호연작이 쌍편을 치켜들고 곧장 달려 나가 싸움에 뛰어들었다. 야울종전과 야울종뢰 형제 또한 칼을 곳곳이 세우고 말을 뛰어오르며 일제히 달려들어 교전을 벌였다. 이곳에서는 서녕과 색초가 각자 무기를 들고 맞서 나갔다. 네 쌍의 장수들이 진 앞에서 뒤엉켜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몰우전' 장청이 이를 보고는 몰래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다가갔다. 마침 단주의 패잔병 중 한 명이 장청을 알아보고는 다급히 야울득중에게 보고했다. "저 초록색 전투복을 입은 오랑캐가 바로 돌을 잘 던지는 놈입니다. 저놈이 지금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나오더니 또 예전의 수법을 쓰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산용이 말했다. "대왕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저 오랑캐 놈에게 내 쇠뇌 화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본래 천산용은 말 위에서 옷칠한 쇠뇌를 다루는 데 능했는데, 한 자 남짓한 길이의 철촉 화살 중 '일점유'라 불리는 유명한 화살이 있었다. 천산용은 말 위에서 안장고리에 활을 단단히 걸고 진영 앞으로 달려 나갔다. 두 부장이 앞서 나가며 엄호하는 가운데, 세 기의 말이 조용히 진영 앞으로 다가갔다.

장청은 다시 한번 그를 발견하고는 손에 돌을 몰래 쥐었다. 그는 맨 앞에 선 요나라 장수를 겨냥하며 돌을 던지며 크게 외쳤다. "맞아라!" 돌은 그 장수의 투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천산용이 장수의 말 뒤로 몸을 숨기더니, 화살을 단단히 잡고 시위도 바르게 당겨 장청을 정면으로 겨냥해 쏘았다.

장청이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르며 급히 몸을 피하려 했으나, 화살은 그의 목을 꿰뚫었고 그는 말에서 거꾸러졌다. '쌍창장' 동평과 '구문룡' 사진이 해진, 해보를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그를 구하러 갔다. 노준의가 이 광경을 보고 급히 화살을 뽑아내라 명했다. 피가 멈추지 않자 목에 천을 둘러 지혈하게 했다. 이어 추연과 추운에게 명하여 장청을 수레에 태워 단주로 호송하게 한 뒤, '신의' 안도전에게 보내 치료하게 했다.

수레가 막 떠나자마자 진영 앞에서 다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북쪽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와 아무 말도 없이 진영 안으로 거침없이 돌진해 들어옵니다!" 장청이 화살에 맞은 것을 본 노준의는 싸움에 더 몰두할 마음이 없었다. 이에 네 명의 장수는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요나라 장수 네 명이 그 기세를 몰아 쫓아왔고, 서북쪽에서 온 요나라 군사들이 옆구리를 찌르듯 다시 공격해 왔으며, 맞붙어 있던 대규모 요나라 군대 또한 산이 무너져 내리듯 격렬하게 달려들었다.

진영이 순식간에 어떻게 변했단 말인가? 삼군(三軍)의 장수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서로를 구해주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오직 노준의만이 말 한 필과 창 한 자루를 들고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해 들어

갔다. 날이 저물 무렵, 네 명의 어린 장군들이 돌아오다가 마침 노준의와 마주쳤다. 노준의는 말 한 필과 창 한 자루로 네 명의 장수를 상대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한 시진 동안 격렬하게 싸우던 중, 노준의가 기회를 엿보다가 일부러 빈틈을 보였다. 야율종림이 그 틈을 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노준의가 크게 호통을 치자 당황한 야율종림은 대응하지 못하고 창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이를 본 세 명의 어린 장군은 모두 깜짝 놀라 겁에 질렸고, 더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말을 몰아 달아났다. 노준의는 말에서 내려 칼로 야율종림의 머리를 베어 말 안장 아래에 묶었다. 그러고는 다시 말에 올라남을 향해 나아가는데, 또 다른 요나라 병사 천여 명을 만나 다시 그들 사이로 돌진해 들어가자 요나라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다시 몇 리를 더 가자 또 다른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다.

그날 밤은 달빛조차 어두워 이곳이 어디인지 인마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었으나, 들려오는 말투를 보니 분명 송나라 사람들이었다. 노준의가 "어느 군대냐?"라고 묻자, 호연작이 대답했다. 노준의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하나로 합쳤다.

호연작이 말했다. "요나라 군사들에게 흩어지는 바람에 서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소장들이 진영을 뚫고 한도, 팡기(彭玘)와 함께 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다른 장수들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준의가 다시 말했다. "장수 네 명과 맞서 싸우다 그중 한 명을 죽였고 나머지 세 명은 달아났소. 그 뒤에 또 천여 명을 만났는데 그들도 내가 흠어놓았소. 여기까지 오니 뜻밖에 장군을 만나게 되는구려."

두 사람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말을 나란히 몰아 남쪽으로 향했다. 십여 리쯤 갔을까, 앞길에 이미 군마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호연작이 말했다. "어두운 밤에 어찌 싸우겠소, 날이 밝는 대로 결사적으로 싸웁시다!"

맞은편 군대가 이 말을 듣고는 "오는 이가 혹시 호연작 장군이 아니오?"라고 물었다. 호연작은 목소리를 듣고 '대도' 관승임을 알아채고는 "노 두령께서 여기 계십니다!"라고 외쳤다. 여러 두령이 모두 말에서 내려 풀밭에 앉았다. 노준의와 호연작이 각자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관승이 말했다.

"진영 앞에서 패하는 바람에 서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저와 선찬, 학사문, 단정규, 위정국 다섯 기가 길을 찾아 빠져나온 뒤, 군사 천여 명을 수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리에 밝지 못해 우선 이곳에 매복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려 했는데, 뜻밖에 형님을 만나게 되었군요."

그들은 군사를 하나로 합쳤다.

사람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쪽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옥전현에 다다랐을 무렵, 앞길을 지키는 한 무리의 인마가 보였다. 살펴보니 바로 쌍창장 동평과 금창수 서녕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요나라 병사들을 모두 흠어놓은 채 옥전현 안에 진을 치고 있었다. 동평이

말했다. "후견과 백승 두 사람이 송강에게 보고하러 갔는데, 해진, 해보, 양림, 석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준의는 일단 군사를 옥전현 경계에 머물게 하고 장수와 병사들을 점검했으나, 오천여 명의 병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번뇌했다. 사패시(巳牌時, 오전 9시~11시 사이)쯤 되었을 때,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해진, 해보, 양림, 석용이 이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노준의가 다시 그들을 불러 상황을 묻자, 해진이 대답했다. "저희 네 사람이 적진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적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급히 되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요나라 병사들을 만나 한바탕 크게 싸우고 이제야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노준의는 야율종림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여 옥전현에서 호령하게 하고, 삼군과 백성들을 다독이며 안심시켰다.

황혼이 되기도 전, 군사들이 막 짐을 정리하고 쉬려는데 매복하고 있던 소교(小校, 하급 장교)가 달려와 보고했다. "요나라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방에서 현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노준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연청을 데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 살펴보니, 멀리서 가까이까지 횃불이 십 리에 걸쳐 두텁게 깔려 있었다. 한 어린 장수가 앞장서서 지휘하고 있었는데, 바로 야율종운이었다. 그는 초라한 말 한 필을 타고 횃불 사이를 누비며 삼군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연청이 말했다. "어제는 장청이 저놈에게 차가운 화살을 맞았으니, 오늘은 우리가 답례를 해줍시다!"

연청이 노를 꺼내 화살 하나를 쏘아 올리니, 그 화살이 요나라 장수의 코뼈에 정통으로 박혔다. 장수는 말에서 떨어졌고, 요나라 군사들이 급히 구하러 나설 때 야율종운은 이미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러자 요나라 군대는 서둘러 5리 밖으로 퇴각했다.

노준의는 성안에서 장수들과 상의하며 말했다. "비록 화살 한 발로 요나라 군사를 조금 물러나게 했으나, 날이 밝으면 반드시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사방을 에워싼 기세가 마치 철통같으니, 이를 어찌 구해야 하겠는가?"

주무가 말했다. "송강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반드시 구하러 올 것입니다. 안팎에서 힘을 합쳐야만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이 밝을 때까지 버티고 있으니, 요나라 군사가 사방을 빈틈없이 에워싼 모습이 보였다. 그때 동남쪽에서 먼지가 일더니 수만 명의 병마가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장수들은 모두 남쪽에서 오는 군대를 바라보았다.

주무가 말했다. "저들은 필시 송강의 군마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가 군사를 거두어 남쪽에서 쳐들어올 때, 우리도 일제히 남쪽을 향해 나아가며 이곳에서 모두 일어나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한편, 요나라 군대는 진을 치고 오전 7시(진시)부터 오후 1시경(미시)까지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군사들이 피로에 지쳐 쉬려던 찰나, 송

강의 군마가 들이닥치며 공격해 오니 요나라 군사들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모조리 소탕당했다.

주무가 말했다. "지금 당장 이곳에서 추격해야 합니다. 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노준의가 즉시 명령을 내려 성의 네 문을 모두 열고, 모든 군마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추격했다. 요나라 군대는 대패하여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형편없이 무너졌으며, 군사들이 여기저기 끊어지고 흩어져 사방으로 도망쳤다. 송강이 요나라 군대를 멀리까지 쫓아낸 뒤, 날이 밝자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고 옥전현으로 진격했다.

노준의 선봉은 송강의 군대와 합류하여 계주를 공격할 계획을 논의했다. 시진, 이응, 이준, 장횡, 장순, 완씨 삼 형제, 왕애호, 일장청, 손신, 고대수, 장청, 손이낭, 배선, 소양, 송청, 낙화, 안도전, 황보단, 동위, 동맹, 왕정육은 모두 조추밀을 따라 단주를 지키기로 했다. 나머지 장수들은 좌우 두 군대로 나누었다.

송강 선봉은 좌군 인물 48명을 총괄했다. 군사 오용, 공손승, 임충, 화영, 진명, 황신, 주동, 뇌횡, 유당, 이규, 노지심, 무송, 양웅, 석수, 손신, 손립, 구봉, 등비, 여방, 광성, 번서, 포옥, 향충, 이곤, 목홍, 목춘, 공명, 공량, 연순, 마린, 시은, 설영, 송만, 두천, 주귀, 주부, 능진, 탕룡, 채복, 채경, 대종, 장경, 금대견, 단경주, 시천, 육보사, 맹강이 그들이다.

노준의 선봉은 우군 인물 37명을 총괄했다. 군사 주무, 관승, 호연작, 동평, 장청, 색초, 서녕, 연청, 사진, 해진, 해보, 한도, 팽기, 선찬,

학사문, 단정규, 위정국, 진달, 양춘, 이충, 주통, 도종왕, 정천수, 공왕, 정득손, 추연, 추윤, 이립, 이운, 초정, 석용, 후건, 두흥, 조정, 양립, 백승이 그들이다.

군사를 나눈 뒤, 두 갈래 길로 나누어 계주를 치러 나갔다. 송강 선봉은 군사를 이끌고 평옥현을 거쳐 출발했고, 노준의 선봉은 군사를 이끌고 옥전현을 거쳐 출발했다. 조안무와 23명의 장수가 단주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송강은 군사들이 연일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잠시 쉬게 하였다. 계주를 공격할 방책은 이미 세워둔 터였다. 우선 사람을 단주로 보내 장청의 화살 부상이 어떠한지 물었다. 신의 안도전이 사람을 보내 답하기를, "비록 겉의 살점은 상했으나 속은 상하지 않았으니 주장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고름이 마르고 나면 자연히 괜찮아질 것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워 군사들이 병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미 조추밀 상공께 보고하여 소양과 송청을 동경(東京)으로 보내 약과 먹을 것을 사 오게 하고, 태의원에서 더위를 다스릴 약을 내어오게 했습니다. 황보단 또한 관청에 요청하여 말을 먹이는 데 쓰는 약재와 물자를 받아오게 하였으니, 모두 소양과 송청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실을 선봉장께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다시 노준의와 계주를 먼저 공격할 계책을 논의했다. 송강이 말했다. "그대가 옥전현에서 포위되었을 때 이미 스스로 방책을 세워두었을 줄 아네. 공손승은 원래 계주 사람이고, 양웅 또한 그곳 관부에서 절급(節級, 하급 옥리)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석수와 시천도 그곳에서 오래 살았네. 지난번

요나라 군사를 물리칠 때, 내가 시천과 석수에게 패잔병 틈에 섞여 들어가게 했으니 필시 계주 성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을 것이네. 그 둘이 성안에 들어간다면 갈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네. 시천이 예전에 계책을 내놓기를, '계주 성에는 보엄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회랑에는 법륜보장이 있고 중앙에는 대웅보전이 있으며, 그 앞에는 구름 위로 솟은 보탑이 있습니다'라고 했었지. 석수가 말하기를, '그들을 보탑 꼭대기에 숨게 하고, 매일 먹을 음식은 내가 알아서 가져다주겠네. 그러다 성밖에서 형님들의 군마가 급하게 공격할 때, 보엄사 탑에 불을 질러 신호로 삼겠네'라고 했었네. 시천은 워낙 담을 넘고 벽을 타는 데 능한 자이니 어찌 숨지 못하겠는가? 석수는 때가 되면 관아에 불을 지르기로 했으니, 두 사람이 이미 상의를 마치고 떠났네. 나는 이쪽에서 진군할 채비를 하겠네."

시로 이르되,

산 너머 요나라 군사 국경을 침범하니, 중원의 송나라 황제가 군사를 일으켰네.

물가 마을에서 못 천강성(영웅들)을 끌어내어, 어명을 받들어 사악함을 버리고 정도로 돌아가네.

몰래 시천이 불을 지르고, 더하여 석수가 함께하니
손쉽게 영평성을 함락시켰으니, 천 년의 공훈이 참으로 공경할 만하구나!
나!

다음 날,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평옥현을 지나 노준의의 군대와 합류했다. 그러고는 군마를 재촉하여 곧장 계주로 달려갔다.

한편, 야율득중은 부하 장수 두 명을 잃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대장인 보밀성, 천산용, 동선시랑 등과 함께 상의하며 말했다. "지난번 탁주와 패주로 보낸 구원병들이 각자 흩어져 갔구나. 이제 송강이 옥전현에서 군사를 합쳤으니, 머지않아 계주를 치러 진격해 올 터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장 보밀성이 말했다. "송강의 군사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그 오랑캐 놈들이 몰려온다면, 소장이 직접 나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놈들을 생포하지 못한다면, 저들이 어찌 물러나겠습니까?"

동선시랑이 말했다. "저 오랑캐 무리 중에 초록 도포를 입고 돌을 잘 던지는 자가 있는데, 아주 무서운 자이니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천산용이 말했다. "그 오랑캐 놈은 이미 내 화살에 목을 맞았으니, 아마 죽었을 것이오!"

동선시랑이 말했다. "그놈만 제외하면 다른 놈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한창 상의를 나누고 있는데, 하급 장교가 달려와 송강의 군마가 계주를 향해 무섭게 달려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야율득중은 급히 삼군의 군사와 인마를 정비하고, 보밀성과 천산용에게 성 밖으로 신속히 나가 적을 맞이하라 명했다. 두 군대는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송강의 군사와 맞붙었다.

양측이 각자 진세를 펼치자, 요나라의 번장 보밀성이 창을 비껴 쥐고 말을 몰아 나갔다. 송강이 진영 앞에서 이를 보고는 말했다. "적의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는 자가 첫 공을 세울 것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표자두' 임충이 진영 앞으로 달려 나가 번장 보밀성과 크게 맞붙었다. 두 사람이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임충은 첫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장팔사모를 쥐고 적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고는 벼락같은 큰 소리를 지르며 보밀성의 긴 창을 쳐내고는, 사모로 보밀성의 목덜미를 찢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양쪽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번장 천산용은 보밀성이 찢리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때 송강의 진영에서 서녕이 갈고리 모양의 창을 들고 곧장 맞서 나갔다. 두 말이 맞부딪쳐 스무 합도 채 되지 않아, 서녕이 창을 휘둘러 천산용을 말 아래로 찢러 떨어뜨렸다.

송강은 장수 두 명을 연달아 이기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몰아 혼전을 벌였다. 요나라 군사는 대패하여 계주를 향해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송강의 군마가 십여 리를 추격한 뒤에야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그날 송강은 진영을 구축하고 삼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튿날 명령을 내려 진영을 걷고 곧장 계주를 향해 진격했다. 셋째 날, 야율득중은 대장 두 명을 잃은 데다 "송나라 군사가 도착했다"는 보고까지 듣자 몹시 당황하여, 동선시랑에게 급히 말했다. "그대가 이 군마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해 내 근심을 좀 덜어주게나."

동선시랑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교아유강, 초명옥, 조명제를 거느리고 군사 천 명을 이끌고 성 아래에 진을 쳤다. 송강의 군마가 점점 성 근처로 다가오자, 장수들이 기러기 날개처럼 줄지어 나타났다. 성문 깃발이 열리자 색초가 커다란 도끼를 어깨에 메고 진영 앞으로 말을 몰아 나갔다. 이때 요나라 군사들 사이에서 교아유강이 진영을 박차고 튀어나왔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곧장 맞붙어 스무 합 넘게 싸웠다. 하지만 요나라 장수는 결국 겁을 먹고 싸울 마음이 사라져 도망치려 했다. 색초가 말을 몰아 뒤쫓아가더니, 양손으로 큰 도끼를 휘둘러 요나라 장수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그 한 방에 교아유강의 머리가 두 갈래로 쪼개졌다.

동선시랑은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하여 초명옥과 조명제에게 어서 가서 도와주라고 외쳤다. 이미 겁에 질려 있던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저 손에 든 창을 치켜들고 진영 앞으로 나갔다. 송강의 군중에서 '구문룡' 사진은 요나라 장수 두 명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두 장수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사진이 영웅답게 기세를 떨치며 칼을 휘두르니, 먼저 초명옥이 말 아래로 베여 나갔다. 조명제가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사진이 쫓아가 칼을 휘두르니 그 역시 말 아래로 베여 쓰러졌다. 사진이 말을 몰아 요나라 군 진영 안으로 거침없이 쳐들어가는 것을 본 송강은 채찍 끝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군사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고, 군대는 조교 다리 근처까지 몰아붙였다.

야율득중은 이 광경을 보고 근심이 더욱 깊어져, 급히 성문을 굳게 닫고 각 장수에게 성벽 위에서 철저히 수비하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요나라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패주와 유주로 구원병을 요청했다.

한편, 송강이 오용과 함께 계책을 논의하며 말했다. "성 안에서 저토록 굳게 수비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오용이 대답했다. "이미 성 안에 석수와 시천이 잠입해 있으니, 어찌 오래 버티겠습니까? 사방에 구름사다리(砲架)와 포차(砲架)를 세워 즉시 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또한 능진에게 화포를 사방에서 쏘게 하여 적진을 타격하게 한다면, 공격이 거세질수록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려, 사방에서 밤낮없이 성을 공격하게 했다.

한편, 야율득중은 송나라 군사가 사방에서 맹렬히 공격해 오자, 계주의 백성들을 모두 성벽 위로 몰아내어 수비를 돕게 했다. 그사이 성안의 보엄사에 잠입해 있던 석수는 며칠 동안 지켜보았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러던 중 시천이 달려와 보고했다. "성 밖의 형님 군사들이 성을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을 지르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석수는 그 말을 듣고 시천과 상의하여, 먼저 보탑에 불을 붙인 다음 불길을 불전으로 옮겨 붙이기로 했다. 시천이 말했다. "그대는 어서 주야(州衙, 관아)에 불을 지르시오. 남문 쪽의 요충지에 불이 나면 밖에서 이를 보고 반드시 공격에 박차를 가할 것이니, 성이 함락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소!"

두 사람은 서로 상의한 뒤, 각자 몸에 불을 붙일 약재와 불칼, 부싯돌, 화통, 연기 나는 숯 등을 숨겨 지니고 나섰다. 그날 밤, 송강의 군마는 성을 향해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편, 시천은 담장을 넘고 벽을 타는 데 능한 자라 성벽을 넘는 것이 마치 평지를 걷는 것과 같았다. 그는 먼저 보엄사의 탑에 올라가 불을 붙였다. 그 보탑은 매우 높아서 불길이 치솟자 성 안팎 어디서든 그 불꽃을 볼 수 있었고, 불빛이 서른 리 밖까지 환하게 비치니 마치 불송곳 같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불전으로 가서 불을 질렀다. 두 곳에서 불길이 치솟자 성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성들은 집집마다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당황하여 뛰쳐나왔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살길을 찾아 도망쳤다. 석수 또한 곧장 계주 관아 뜰 건물 지붕의 박공널 안으로 기어 올라가 불을 질렀다. 계주 성안에서 세 곳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들은 첩자가 잠입했음을 직감했다. 백성들이 어찌 성을 지킬 마음이 있겠는가. 다들 수비를 포기하고 제 집을 지키기 위해 각자 도망치기 바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문 쪽에서 또 불길이 치솟았는데, 이는 시천이 보엄사를 나와 다시 불을 지른 것이었다. 야율득중은 성안에서 반 경(更)도 채 지나지 않아 네다섯 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송강이 성 안에 사람을 심어두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황급히 군사를 챙기고 식솔과 어린 자식 둘까지 수레에 실은 채 북문을 열고 도망쳤다. 송강은 성안의 군사들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병사들에게 재촉하여 성안으로 몰아치게 했다. 성 안팎에서는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고, 곧 남문이 함락되었다. 동선시랑은 적의 수가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야율득중을 따라 북문으로 도망쳐 달아났다.

송강은 대부대를 이끌고 제주 성안으로 들어온 뒤, 즉시 장령을 내려 먼저 사방의 불길을부터 끄게 했다. 날이 밝자 방을 붙여 제주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삼군(三軍)의 군마를 모두 제주에 머물게 하며, 수고한 삼군의 장수들에게 상을 내려 격려했다. 그리고 공적 명부에 석수와 시천의 공을 기록하였다. 이어 공문을 보내 조안무에게 제주라는 큰 고을을 함락했음을 보고하고, 상감(相公, 고위 관직자를 높여 부르는 말)께서 오셔서 주둔해 주시기를 청했다.

조안무가 답신을 보내오기를, "나는 지금 단주에 있으니, 우선 그곳에 주둔하며 송 선봉이 제주를 잘 지키도록 하시오. 지금은 날이 무더워 날씨가 매우 뜨거우니 병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방책을 논의합시다"라고 하였다.

송강은 답신을 받은 뒤, 노준의에게 원래 배정된 군사들을 나누어 주어 옥전현에 주둔하게 하고, 나머지 대부대는 제주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야율득중과 동선시랑은 식솔과 아이들을 데리고 유주를 거쳐 연경까지 달려가 대료의 황제를 알현했다. 당시 요나라 황제는 금전(金殿)에 올라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조참을 마친 상태였다. 그때 합문대사가 나아가 보고했다. "제주의 어제대왕께서 문하에 도착하셨습니다." 황제가 보고를 듣고 급히 불러들여 전하 아래로 모시게 했다. 야율득중과 동선시랑은 어계 아래 엎드려 목놓아 울었다.

황제가 말했다. "사랑하는 아우야, 그만 슬퍼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숨김없이 고하라."

야울득중이 말했다. "송나라의 어린 황제가 송강에게 군사를 맡겨 정벌하러 왔는데, 군마의 기세가 너무 강해 대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두 아들을 잃고 단주의 대장 네 명까지 잃었습니다. 송나라 군대가 휩쓸고 들어오더니 결국 제주까지 함락시켰으니, 죽여주시옵소서!"

대료 국주가 그 말을 듣고 성지를 내려 말했다. "그만 일어나거라. 여기서 차분히 상의해 보자." 그러고는 덧붙였다. "군사를 이끄는 그 오랑캐(蠻子)는 대체 어떤 자길래, 또 저런 졸개들은 다 무엇이냐!"

문관 무리 중에서 우승상 태사 저견이 나와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송강 무리는 본래 양산박 수호채의 도적떼였으나, 양민을 해치지 않고 오로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부패한 관리와 백성을 속여 해치는 자들만 죽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관과 고구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갔으나, 송강의 다섯 진법에 걸려 한 조각 갑옷도 남기지 못하고 패퇴했습니다. 그 호걸들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황제가 사신을 세 번이나 보내 조서를 내려 초안(귀순)을 권했더니 그들이 결국 항복했습니다. 다만 송강은 선봉사로 임명했을 뿐 실질적인 관직을 준 것은 아니며,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평민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보내 우리와 싸우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팔 명의 인물이 하늘의 별자리와 응한다고 하니, 이 무리가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국주께서는 결코 그들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말했다. "네 말이 그렇다면, 대체 어찌해야 좋겠느냐?"

그때 문관 무리 사이에서 관원 한 명이 걸어 나왔으니, 바로 구양시량이었다. 그는 땅에 끌릴 듯한 난포(欄袍)를 입고 가슴에는 상아 홀

(象簡)을 받쳐 들고 있었다. 그가 아뢰었다. "국주 만세! 신이 비록 재능은 부족하나, 송나라 군사를 물리칠 작은 계책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좋은 견식이 있다면 당장 말해 보아라."

구양시랑이 채 몇 마디 말을 늘어놓기도 전이었으나, 그 말로 인해 송강의 이름이 청사(靑史)에 새겨지고 그 사적이 단서(丹書)에 기록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하다.

나라를 지키는 계책이 이루어지니 여망(呂望, 강태공)을 능가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공이 이루어지니 장량을 앞서는도다.

결국 구양시랑이 올린 계책이 무엇인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